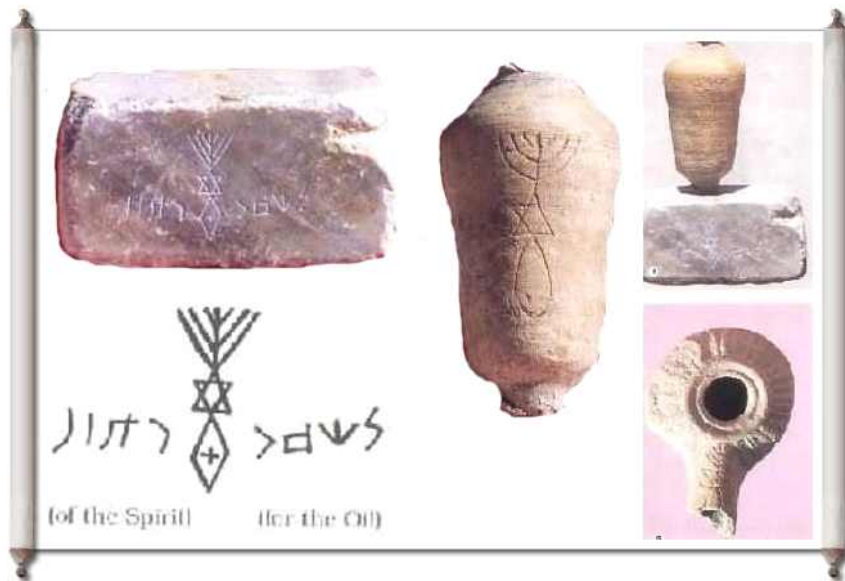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

조동호 지음



그리스도의교회연구소

<표지 설명>

고대 예루살렘에서 사용되었던 기독교의 메시아 인(印)이 이천년 만에 시온산에서 발견되었다. 이 상징은 초기 메시아 교회에서 그들 자신을 나사렛인(Notzrim)으로 불렀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사용되었을 것으로 믿어진다. 이 상징은 세 가지가 하나로 통합된 것으로써 상단에 일곱 가지 촛대, 중앙에 다윗의 별, 하단에 물고기로 되어 있다. 가운데 다윗의 별은 상단의 일곱 가지 촛대(menorah)의 받침(△)과 하단의 물고기 꼬리(▽)와 겹치도록 그리고 있다. 메시아 인(印)이 새겨진 위의 사진들에서 벽돌크기의 대리석에 새겨진 글자는 아람어 문자로써 “성령의 기름을 위해서”(For the Oil of the Spirit)란 뜻이다. 이 대리석은 역시 메시아 인(印)이 새겨진 ‘바르는 기름’(anointing oil)을 담은 작은 병을 세워두는 받침이다. 예루살렘 교회의 초기 목회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다. 위 사진의 등잔과 기름병은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들로써 그가 기록한 야고보서 5장 14절의 말씀과 깊은 연관성을 맺고 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Relations and Differences Between Judaism and Christianity

Dong-Ho Cho

Christian Church Studies, 2007, 2010

258-15 Umsary Umsamyun Kyeryongsi,

Choongnam, Korea 321-931

Tel(042)841-9697

머리말

본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Relations and Differences Between Judaism and Christianity*)는 많은 유대교 관련 글들의 번역과 저술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물이다.

필자가 유대교 관련 글들에 관심을 갖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유대교를 알지 않고서는 성서 66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유대교에 그 뿌리를 두고 있고, 예수님과 열두 사도들이 모두 유대인들이었으며, 초기 기독교 선교사들이었던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이들이 모두 유대인들이었고, 수천 년 동안 조상대대로 믿어온 유대교가 몸속에 깊게 뱀 이들이었다. 그들의 사상과 언어와 행동이 유대교와 깊게 관련되어 있고, 그들이 조상대대로 수천 년 동안 믿어온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 복음에 목숨을 건 전파자들이 되었을 때에는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 피차 다를 수밖에 없는 커다란 차이가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 본서의 저술 목적이다.

유대교는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신앙유산과 전통들을 가지고 있다. 그와 같은 것들에는 할례, 안식일, 기도, 절기, 축일 등이 있고, 정결과 음식에 관한 법들이 있으며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것들이다. 특히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서인 토라(Torah, 모세오경)를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선민이란 독특한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메시아 사상과 ‘올람 하바’(Olam Ha-Ba, World to Come)란 다가올 메시아 세계, 곧 회복된 이스라엘 세계에 대한 하티크바’(Ha-Tikvah, 희망)를 갖고 있다. 그밖에도 미쉬나와 안식일 법을 비롯한 수많은 전통들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이해는 구약성서는 물론이고, 신약성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필자가 유대교 관련 글들에 관심을 갖게 된 두 번째 이유는 보다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유대교와 유대인들에 관

· 4 ·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

해서 가르치는 것이 성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피상적이고, 정보가 정확하지 못할 뿐 아니라, 무엇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른지, 왜 하나님은 옛 언약 선민의 유대교를 버리고 새 언약의 선민의 기독교를 출범시켜야 했는지를 모른 채 유대교와 유대인을 칭찬일색으로 설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일부 이단들에서 보는 것처럼 구약성서와 유대인들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기 민족의 하나님만으로 알았고, 그것 때문에 열방선교에 대한 사명을 망각하였으며, 무엇보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오랜 희망(Ha-Tikvah)인 다가올 메시아 세계(Olam Ha-Ba)를 성취하셨으나 그들은 그들이 바라는 희망을 문자적인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에 제한하였기에 아직까지도 대다수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있으며, 아놀드 토인비의 지적대로 뛰어난 종교를 가졌으면서도 자기도취(자기우상)에 빠졌기 때문에 당연한 응보(nemesis)를 받아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기독교를 새로운 언약공동체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열방선교에 있다는 '하나님의 비밀'을 안 사람은 바울과 헬라파(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같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명이 열방선교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인 동시에 그 사명을 망각하게 되면 이천년 전 바울시대 때 유대인들에게 그랬듯이 열방선교가 하나님의 비밀이 되어 버리는 비극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아무쪼록 이 책이 성서와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를 좀 더 알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이 책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2007년 1월 20일
황산벌 연구실에서 조동호

차례

머리말	3
차례	5

제1장 서론/9

1.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	9
2.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	11
3. ‘구약’과 ‘신약’의 의미	15

제2장 선민의 조건/19

1. 본향을 생각함	20
2. 말씀사랑	23
3. 기도생활	28
4. 안식일 성수	34
5. 가정생활	40
6. 신앙교육	45
7. 절기축제	51

제3장 유대교의 안식일 개념/63

I. 안식일 개념에 대한 설명	64
II. 유대교 안식일법의 39가지 범주들	72
A. 총론 - 멜라카(Melacha)를 구성하는 것들	72
B. 미쉬나(Shabbat 73a)에 실린 안식일에 금지된 39개의 멜라코트(Melachot)	73

제4장 유대교인들의 음식법에 관한 고찰/87

I. 유대교인들의 식사전 손씻기법	88
A. 손씻기법	88
B. 예수님의 반응	94

· 6 ·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

C. 유대인들의 문제점	95
II. 유대교인들의 '카사룻' 음식법	96
A. 음식법	96
B. 제기된 문제의 답	101
C. 예수님의 반응	101
III. 유대인들의 그릇 씻기법	102
A. 그릇 씻기법	102
B. 제기된 문제의 답	107
C. 예수님의 반응	108

제5장 유대민족의식에서 본 기독교출범의 당위성/111

I. 유대민족의식	112
1. 우리는 노예들이었네	112
2. 우리는 떠돌이였네	115
3. 구원의 하나님	117
4. 언약의 하나님	120
5. 조상의 하나님	122
6. 민족의 통일성	123
II. 기독교 출범의 당위성과 과제	125
III.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	129

제6장 새 시대에 적합한 인물/135

1. 베드로와 야고보	135
2. 바울	141
3. 빌립과 스테반	147
4. 바나바	154

제7장 초대교회 설립과 전개과정에 나타난 특징들/161

1. 예루살렘교회 설립과정과 전개	163
가. 예수의 명령과 제자들의 성령대망	163
나. 하나님의 섭리와 문제의 발생	164

2. 유대와 사마리아교회 설립과정과 전개	166
가. 헬라과 유대인 빌립의 선교	166
나. 히브리과 유대인 베드로의 선교	167
3. 안디옥과 선교지역교회 설립과정과 전개	168
가. 헬라과 유대인이었던 바울과 스테반의 종교적 갈등	168
나. 하나님께서 헬라과 유대인들을 들어 쓰신 이유	170
다. 선교팀 분열과 교회간의 교리적인 갈등	176

제8장 사도행전 13-14장을 통해 본 바울의 선교방법과 청중/181

1. 바울의 선교방법	182
2. 바울의 청중들	186
A. 유대교인들의 선교활동	187
B. 유대교 개종자들의 구분	189
C. 하나님 경외자들에 대한 성경내적 증거	191
D. 하나님 경외자들에 대한 성경외적 증거	192
E. 하나님 경외자들의 의무	195

제9장 유대교 '희망'에 관한 신약성경의 이해/201

1. 희망의 증거(마태복음 1:1,17)	201
2. 희망의 시작(마가복음 1:1)	206
3. 희망의 열매(요한복음 1:1)	211
4. 희망의 능력(누가복음 1:1)	216
5. 희망의 발전(행 1:8)	220
6. 희망의 상속(롬 4:13-16, 고후 5:1-5, 엡 3:1-13)	225
7. 희망의 실상(히 1:1-2, 11:1)	230
8. 희망의 완성(계 20:1-4)	235

참고서적/241

부록/245

부록1. 이스라엘의 율력	245
부록2. 유대교의 예식서	248

· 8 ·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

부록3. 기도와 축복	261
부록4. 쉼모네 에스레이	271
부록5. 유대교의 교파 운동들	283
부록6. 카발라와 유대신비주의	291
부록7. 유대교인의 하나님과 이름들	297

제1장 서론

Relations and Differences Between Judaism and Christianity

1.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

신약성서에는 구약성서와 연관된 말씀들이 참으로 많다. 신약성서를 기록한 저자들은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 모세와 그리스도의 연속성, 율법과 복음의 연속성과 바통의 이동을 특유의 모형(유형)론과 그리스도 중심의 구약성서 해석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구약성서와 유대교를 모르고서는 신약성서와 기독교를 온전히 알 수가 없게 된다.

‘머리말’에서 언급하였듯이 본서의 저술 목적과 동기는 유대교를 통해서 기독교를 알자는 데 있다. 유대교와 유대인들을 알면 구약성서는 물론이고, 신약성서와 기독교를 아는데 도움이 된다. 유대교와 유대인들의 전통은 성서를 보는 거울이다. 비록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유대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와 전통에는 변함이 없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 분 하나님만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후로 지금까지 아버지가 믿었고, 할아버지가 믿었고, 증조할아버지가 믿었고, 증조할아버지의 아버지가 믿었고, 그 할아버지가 믿었고, 그 증조부가 믿었고, 12대가 넘도록 조상대대로 믿어왔으며, 하나님이 주신 언약서, 토라(Torah)가 모세이후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어왔기 때문이다.

토라와 직간접으로 연관된 글들이 구약 역사서요, 예언서요, 성문서이다. 그리고 이 성서를 경전으로 삼았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시작되었고, 적어도 한 세기 동안은 그들의 통제아래서 기독교가 발전해 나갔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그분의 12제자와 70문도와 120문도도 모두 유대인들이었으며, 로마제국 전역으로 기독교 복음을 가져간 이들도 유대인들이었다. 따라서 기독교는 구약성서와 유대교의 전통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었다.

기독교를 시작한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조상대대로 믿어온 유대교가 몸속에 깊게 밴 이들이었다. 그들의 사상과 언어와 행동이 유대교와 깊게 관련되어 있던 자들이었다. 그런 그들이 무엇 때문에 유대교를 버리고 온갖 핍박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이어지는 장(章)들에서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유대인만큼 철저하게 신(神)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있는 민족은 없다. 유대인은 자기 민족의 뿌리, 이동, 사상, 사명에 대해서 명확하고 자세하게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만큼 유대인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다. 자기 민족은 떠돌이였었고, 노예였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족장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으며,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이다. 또 자기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노예였던 자기 민족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유대민족은 하나님에 관한 독특한 의식을 갖고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 민족의 구원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다. 레위기 25장 38절과 민수기 15장 41절을 비롯한 수많은 성구들이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인 신앙고백을 보면, 유대인의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출 19:4), '홍해를 육지처럼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시 66:6, 78:13, 106:9), 떠돌이였던 그들에게 정착할 땅을 주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그들과 특별히 언약을 맺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언약의 말씀인 토라(Torah)를 주시고, 그것들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의식이 수천 년 동안 유대민족을 지탱해온 믿음이자, 정신이며, 유산이다. 그 속에 통일된 의식이 있고, 사상이 있고, 행동이 있고, 문화와 관습이 있고, 교육이 있고, 철학이 있고, 가치가 있고, 세계가 있다. 그래서 그들은 언약의 내용이 담긴 토라를 사랑하여 몸에 지니고, 입을 맞추며, 일 년에 한 차례씩 완독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메마르고 척박한 땅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땅으로 여기며, 아득한 과거에 빼앗긴 땅, 주인이 수없이 바뀔 것을 그 땅을 목숨 바쳐 되찾고 지키고 가꿔서, 사막에 꽃이 피게 하고, 젖과 꿀이

호르게 하고, 풍부한 종교적 유산과 수천 년간 이어오는 전통을 지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신앙유산을 가진 유대인들이 신생 기독교에 추월당하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떨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위대한 신앙유산을 물려받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옛 언약공동체로 무시해버린 기독교신앙과 복음에 뒤진 이유가 무엇인가? 유대교가 기독교에 패배한 원인이 무엇인가? 이어지는 장(章)들에서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2.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

1) 종말관(終末觀)

마틴 부버(Martin Buber, 1878-1965)라는 유명한 유대인 신학자가 1917년에 이런 글을 썼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그를 구원했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메시아가 분명히 미래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다.”¹⁾ 또 『두 형태의 신앙』(Two Types of Faith)에서는 기독교가 실현된 종말론(realized eschatology)을 믿고 있는 반면에 유대교는 미래에 이루어질 종말론(futuristic eschatology)을 믿고 있다고 했다.²⁾ 부버가 언급한 이 두 개의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유대민족에게는 영적구원(종말)이 없고, 육적구원(종말)만 있다는 것이다.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구원과 그의 재림시에 육적 완성이 이뤄질 것을 말하는데, 부버는 출애굽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大)구원이 이뤄졌고, 제2의 출애굽사건을 주도할 메시아(왕)가 오심으로 그 구원이 완성된다고 본 것이다. 기독교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이미 실현된 구원의 확신, 곧 종말에 주어질 축복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미리 맛보고 누리는 영적인 축복이 있는 반면, 유대교에는 그것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데, 유대교인은 미래만 바라보고

1) Will Herberg, ed., *The Writings of Martin Buber*, p. 31.

2) 최한구, 『유대인은 EQ로 시작하여 IQ로 승리한다』 (도서출판 한글, 1998).

사는 것이다. 유대교인에게는 '이미'가 없고, 오직 '아직'만이 있을 뿐이다. 이점이 기독교가 유대교와 다른 한 가지이다.

'이미'란 것은 메시아가 가져오실 하나님의 왕국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말이며, '아직'이라는 말은 완성될 하나님의 왕국이 아직 소망 가운데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현세적이면서 미래적이며,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종말에 주어질 축복된 삶을 맛보고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 복된 삶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침례 가운데서 선행을 위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삶이며, 성령님을 통해서 보증되고 인친 삶이다.

유대교인들은 2500여 년 전부터 두 가지를 희망하고 있었다. 첫 번째가 메시아가 나타나는 것이고, 두 번째가 그 메시아가 가져올 '올람 하바'(Olam Ha-Ba)이다. '올람 하바'란 '메시아 시대' 혹은 '다가올 세계'(World to Come)를 뜻한다. 이 '올람 하바' 곧 '다가올 메시아 세계'는 흔히 말하는 '종말시대' 또는 '마지막 시대'를 말하는 것이다.

기독교에서는 이 '다가올 마지막 세계'가 2천 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에서 시작되었다고 본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인류의 대속을 위한 것이었고, 그분이 승천하시고 대신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의 활동은 다가올 마지막 세계의 실현을 위한 것이었다. 성령님의 활동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올람 하바'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과 성령님의 '중생과 씻음과 거룩하게 하심'을 받은 사람은 이 '올람 하바'의 시민이 되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500여 년간 몹시 고대하던 그 마지막 세계 혹은 종말시대가 성령님의 활동을 통해서 '교회'라는 새 언약 공동체 속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영적으로 실현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시대를 교회시대, 혹은 성령시대라고 부른다. 또 이 시대를 다른 말로는 시작된 종말시대 또는 실현된 종말시대라고 부른다.

시작된 종말이나 실현된 종말이란 말은 영적인 종말을 뜻하는 것이고, 종말의 완성을 뜻하는 것은 '아직' 아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말, 혹은 ‘칭의’나 ‘중생’이란 말은 종말이 완성되는 때에 주어질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고, 성령님으로 보증 받고, 인침 받고, 그 축복들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과 보호하심과 변호하심과 치료하심 속에서 맛보고 누리며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대표적인 축복은 하나님의 평강이다. 마음의 평화, 가정의 평화, 이 평화가 있는 곳에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이지, 끝은 아니다. ‘끝’ 곧 ‘완성’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이뤄진다. 그리스도인들이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3절에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이 유대인들에게는 없다. 그들에게는 시작된 종말이나 실현된 종말의 축복이 없는 것이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조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뿐이고, 성령님으로 보증 받고, 인침 받고, 그 축복들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과 보호하심과 변호하심과 치료하심 속에서 맛보고 누리며 경험하는 것이 없다. 유대인들에게 시작된 종말의 축복이 없는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말하는 ‘다가올 시대’란 그들 민족만의 축복이기 때문이다. ‘올라프 하바’는 유대인의 제2의 출애굽 사건, 곧 유대인의 대 구원 사건을 말하는데, 이 사건은 영적인 사건이 아니고, 육적인 사건이다. 문자적인 이스라엘 왕국의 완전한 회복을 말하는 것이다.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국가가 건국되었는데, 건국된 지 60여년이 흘렀어도 이스라엘 왕국이 완전하게 회복되었다고 믿는 유대인은 없다. 아직 메시아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고, 세계를 통합할만한 여력도 없기 때문이다.

2) 메시아관(觀)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2천 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메시아닉 주(Messianic Jews), 곧 소수의 기독교인 유대인들이 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다수의 비기독교인 유대인들이 있다. 기독교가 처음 시작된 장소는 예루살렘

이고, 시작한 사람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다.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주후 30년 5월 28일이었고, 대표적 지도자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다.

이들 기독교인 유대인들을 보는 신학자들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다. 먼저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기독교인 유대인들이 그들 자신들을 유대교 안에서의 개혁운동으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제사를 드렸고, 안식일을 지켰으며, 할례를 행하고, 절기와 음식에 관한 법들을 지켰다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겼고, 예수님을 선지자나 교사의 한 사람으로 보았으며, 신적이거나 반신적 존재로 보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예루살렘에 집중된 기독교인 운동이 할례를 행하고, 성전제사를 드리고, 절기와 음식에 관한 법들을 지킨 것을 제외하고는 바울 라인의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거의 다르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고, 삼위일체의 한 인격으로 보았으며, 메시아와 구세주로 보았다고 말한다.

진보 보수 신학자들이 말하는 두 가지 견해의 유대인들이 언제나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공통점은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였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기독교인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우리 기독교인들과 달리 한다. 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다윗 왕처럼 그들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우리가 말하는 '구세주'(救世主)도 아니고, 죄가 없으신 삼위일체 신도 아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을 되찾게 해줄 다윗과 같은 영웅이자 제2의 출애굽 사건을 이끌 모세와 같은 인물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 같은 인물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킴으로써 정치적 영적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며, 이스라엘에 한 정부를 세울 것이고, 그것을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한 전 세계 정부의 중심에 세울 것이며, 성전을 재건할 것이고, 성전예배를 다시 세울 것이며, 이스라엘의 종교법정 체계를 회복시킬 것이고, 나라 법으로써 유대법을 세울 것이라고 믿는다.³⁾

3. '구약'과 '신약'의 의미

신앙인들 가운데 '구약'과 '신약'이란 말이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을 뜻하는 말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지 모르겠다. 기독교인들 대다수가 '구약'이란 메시아 예언에 관한 것이고, '신약'이란 재림에 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과연 옳은 답일까?

메시아에 관한 예언은 바벨론 포로기 때에 예언자들의 회복운동에서 비롯된 것이다. 구약성서는 대부분 유대민족의 흥망성쇠의 원인을 언약을 얼마만큼 성실하게 지켰는가에서 찾고 있다. 예언자들의 활동표준은 바로 이 언약에 대한 성실성에 있었다. 그런 맥락에서 예언서들의 내용은 언약에 대한 유대민족의 성실성에 대한 성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왜 우리 민족이 이 엄청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는가, 왜 우리 민족이 이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었는가를 묻고, 그 해답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얼마만큼 성실하게 지켰는가에서 찾았던 것이다. 결론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 결론을 근거로 예언자들은 유대민족을 대상으로 회개운동을 펼쳤다. 회개운동 후에 예언자들이 펼친 또 다른 운동이 있었는데 그것이 회복운동이다. 회복운동이란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에 대한 예언으로써 그 중심에 메시아 도래에 관한 예언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때가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되는 때인 것이다.

그러면 예언자들의 회개운동과 회복운동의 근거가 되었던 '언약'은 무엇인가? 성서에서 말하는 언약은 '약속'이나 '예언'이란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쌍방이 합의한 '계약'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옛 언약'이란 뜻의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시내산 기슭에서 하나님과 짐승의 피로써 맺은 계약을 말한다. 이 계약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

3) 조동호 역, "유대주의에서의 메시아사상"
(<http://kccs.pe.kr> →성경연구→신약성경관련).

민이 된 것이고, 그 내용이 바로 십계명과 율법이다. 따라서 십계명과 율법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합의한 계약인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계명과 율법서를 '언약서'라 부른다. 이 언약서가 구약성서의 핵심이고, 이 언약과 관련된 유대인들을 신약성서에 기반을 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옛 선민'이란 뜻의 '구약공동체'라 부른다. '옛 언약 공동체'란 유대인들이 과거의 선민이란 뜻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흔히 쓰는 '구약'이란 옛 언약서를 말하고, 이 옛 언약서에 기초한 민족이 구약공동체요, 옛 선민이며, 이스라엘 민족인 것이다.

그렇다면 '신약'이란 무엇인가? '신약'이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맺은 '새 언약'을 말한다. 이 '새 언약'은 신자들이 침례(세례)받을 때 하나님 앞과 증인들 앞에서 행한 신앙고백이며, 그 내용은 신약성서의 엑기스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인 '교회'가 '새 언약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맺고 있는 새 언약 공동체요, 새 선민인 것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짐승의 피로써 맺은 언약공동체이고,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피로써 맺은 언약공동체이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구약을 메시아의 초림에 대한 예언으로, 신약을 메시아의 재림에 대한 예언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구약성서를 이루는 대부분의 말씀이 시내산 언약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말씀들이고, 신약성서를 이루는 말씀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침례(세례)서약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말씀들이기 때문에 성서를 구약성서 혹은 신약성서라 부르는 것이다. 이토록 언약이란 말이 성서이해에 중요한 열쇠가 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 '언약'이란 말을 잘못 알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보충학습] 구약은 신약제결의 모형

히브리인들이 지상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한 날이 오순절 날이다. 이 날은 히브리인들의 성력으로 셋째 달(시

반) 6일이었다. 첫째 달(니산) 15일이 시작되는 첫 유월절 밤에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 죽음을 모면한 히브리인들은 같은 날 아침에 이집트를 탈출하여(출 12장) 한 달 만에(이야르 15일) 신 광야에 당도하였다. 이곳에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기 시작하였다(출 16장). 그리고 보름 후에 시내 산에 당도했는데, 이 날은 이집트를 탈출한 지 45일 째가 되는 셋째 달(시반) 초하룻날이었다. 그리고 5일간의 준비 끝에 50일째 되는 첫 오순절 날(시반 6일)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 하나님과 계약식을 치렀다(출 24장). 이 때 지키기로 한 율법(토라)이 구약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늘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도록 교회공동체를 세우신 날도 오순절 날(30년 5월 28일)이다. 이날 아침 9시경에 성령님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임재 하셨고, 베드로가 최초로 복음을 선포하였다. 이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선포한 말씀들(케뤼그마) 혹은 기록된 말씀들(신약성경)이 신약이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30년 4월 7일)에 마치 유월절 양의 희생처럼 인류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이란 바다를 건너셨다. 또 히브리인들이 40년간 광야에 머물렀던 것처럼, 또 홍해를 건넌지 40여일 만에 시내 산에 당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40일간 사람들에게 보이신 후에 승천하셨다. 승천하시고 10일간은 교회공동체가 출범되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 히브리인들이 시내 산에 당도하여 5일간 계약식을 준비했던 것과 같다. 이런 점에서 오순절 날은 구약과 신약이 체결된 의미가 큰 날이다.

첫 오순절 날 구약공동체(이스라엘)가 탄생될 때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친히 임재 하셨듯이, 주후 30년 5월 28일 오순절 날 신약공동체(기독교)가 탄생되던 날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 하셨다.

참고자료

조동호 역, “유대주의에서의 메시아사상”(http://kccs.pe.kr →성경연구→신약성경관련).

최한구, 『유대인은 EQ로 시작하여 IQ로 승리한다』 (도서출판 한글, 1998).

Will Herberg, ed., The Writings of Martin Buber, p. 31.

제2장 선민의 조건

Conditions of the Elect

들어가는 말

‘선민’이란 선택된 민족을 말한다. 유대인들의 자긍심이 바로 이 선민사상에서 나오는 것이다. 유대인들 가운데 뛰어난 인물들이 많은 것도 바로 이 선민사상 때문이다. 더욱이 그들은 과거 수천 년 동안 그들의 이 선민사상 때문에 타민족들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아왔던 민족이다. 이런 시련이 그들을 더욱 뭉치게 했고, 강한 연대감을 갖게 했을 것이다.

신약성서에 기반을 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들 유대인들을 ‘옛 선민’이란 뜻으로 ‘구약공동체’라고 말한다. ‘구약공동체’란 ‘옛 언약 공동체’란 뜻인데, 유대인들은 이제 과거의 선민이란 뜻으로 쓰이는 말이다. ‘신약’이란 말은 ‘새 언약’이란 뜻이고, ‘교회’는 ‘새 언약 공동체’를 말한다. 그러니까 신약성서는 우리 기독교가 ‘새 언약 공동체’이고, 진정한 의미의 선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믿는 우리가 새 언약 공동체요, 선민인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면, 과연 선민의 자격이 있는지, 선민의 가치가 지나치게 평가절하된 것은 아닌지 질문해 보지 않을 수 없다. 2000년 전에는 로마시민권을 갖는 것이 일종의 특권이었고, 로마시민권을 갖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나 노력이 있어야 했다. 그러던 것이 주후 212년 카라칼라 황제의 ‘안토니아누스 칙령’으로 누구나 로마제국의 시민이면, 로마인이든, 속주민이든 상관없이 시민권을 갖게 되니까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갖게 돼서 좋긴 했는데, 시민권의 가치가 바닥을 치는 결과를 가져와 결국 로마제국의 쇠퇴를 불러오게 되었던 것이다.¹⁾

1) 시오노 나나미, 『로마인 이야기 12권: 위기로 치닫는 제국』 김석희 옮김(한길사, 2004), 25-45쪽.

뜻있는 기독교인들이 심히 우려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바울의 복음전파로 기독교 복음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노예나 양반이나 상놈의 구별 없이 누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은 매우 좋은데, 자칫 값싼 은혜로 전락하여 복음의 가치가 바닥을 치는 결과를 가져와 기독교의 쇠퇴를 불러오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이다. 실제로 기독교 인구는 세계 여러 곳에서 줄어들고 있다.

이런 문제를 놓고 “선민의 조건”이란 제목으로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삶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유대인들과 관련된 대부분의 자료들은 ‘Judaism 101’ 홈페이지²⁾의 영문 자료들을 번역함으로써 얻었음을 밝혀둔다.

1. 본향을 생각함³⁾

오늘날 유대교의 대부분의 가르침과 또 축일과 예배에 따른 전통들은 길게는 2500년, 짧게는 1900여년이나 된 아주 오랜 것들이다. 예를 한 가지 들면, 유대인들은 하루 세 번씩 기도하는데, 아침(Shacharit), 오후(Minchah) 그리고 저녁(Ma'ariv)에 한다. 이 때 하는 기도인 ‘쉐모네 에스레이’(Shemoneh Esrei)⁴⁾라 부르는 18개(성전멸망 후 1개가 추가되어 현재는 19개)의 기도는 2500여 년 동안 변함없이 동일하게 해온 기도이다. 신약성서에는 이 세 번의 기도가 좀 더 구체적으로 오전 9시,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신 시간도 바로 이들 기도시간이었다.⁵⁾

유대인들은 수천 년에 걸쳐 약속의 땅 가나안 본향을 생각하며 살아온 민족이다. 그들은 회당을 건축할 때 반드시 예루살렘을 향하도록 짓는다. 기도할 때에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다.

2) <http://www.jewfaq.org/toc.htm>

3) 조동호 역, “이스라엘의 땅,” <http://kccs.pe.kr> →성경연구→신약성경관련.

4) 조동호 역, “쉐모네 에스레이,” <http://kccs.pe.kr/jewishcal7.htm>.

5) 사도행전 2:15, 3:1, 10:3, 9, 30; 마가복음 15:25, 33-37.

3800여 년 전 아브라함 때부터 유대인들의 오랜 숙원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사는 것이다.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차지한 처음 3-4백년간은 그런대로 숙원이 풀린 듯싶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주전 931년) 국가는 남과 북으로 나뉘었다. 그 후 200여년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2730여 년 전인 주전 722년에 앓수리아 제국에 완전히 망해버렸고, 남왕국 유다도 2600여 년 전인 주전 586년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하고 쓸 만한 사람들은 모두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짧게는 70년, 길게는 173년, 더 길게는 아예 그곳에서 수백 년 또는 수천 년을 이어 살게 되었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회개운동을 펼쳤고, 회복운동, 곧 메시아사상을 발전시켰다. 그곳에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회당을 짓고, 하루 세 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루 세 번씩 드리는 쉼모네 에스레이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본토에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기도의 응답은 2세대부터 5-6세대의 사람들에게 이뤄져, 최초로 주전 537년에 본토에 돌아온 유대인들은 그토록 곤란한 가운데서도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이 성전재건이었고, 20년 만에 완공을 보게 되었다(주전 516년).

그 후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고국으로 돌아왔다. 고국 땅에 와서 살게는 되었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제국과 헬라제국의 지배를 거쳐 예수님 때인 로마제국의 지배까지 무려 6-7백여 년 동안이나 외세에 눌러 살아야했다. 그 사이에 남의 나라에 나가 사는 유대인이 4백만 명이 넘게 되었다. 본토에 사는 유대인들이 70여만 명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나가 사는 사람들이 6배나 더 많았던 것이다. 오늘날에는 1400만 유대인들 가운데 6백만 명이 본토에 살고 있고, 또 다른 5백만 명이 미국에 살고 있고, 나머지 3백만 명이 유럽과 아프리카 등지에 살고 있다. 여전히 남의 나라에 사는 유대인이 본토에 사는 유대인들보다 수적으로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로마제국 당시 이스라엘에는 두 번의 독립전쟁이 있었다. 첫 번째가 66-70년까지의 전쟁으로써 유대인들이 패하고 예루살렘과 성전은 초토화가 되었다. 이때부터 성전은 영구히 사라졌다. 그리고 주후 132-135년까지 있었던 또 한 번의 독립전쟁의 실패로 모든 유대인들

이 본토에서 쫓겨났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건국을 선언하게 되었다. 나라가 망한지 1878년만이었다. 그야말로 감격과 감동의 순간이었다. 기쁨의 함성이 천지를 울렸고, 기쁨의 눈물이 대지를 적셨다.

유대인들은 그 긴 세월 동안 가나안 땅, 본향에 대한 기도를 단 하루도 쉬지 않았다. 그들은 2500년 넘게 매일 세 번씩 이런 기도를 드렸다.

우리들의 자유를 위해서 거대한 쇼파르(양각나팔)를 울리게 하소서. 우리들의 유배생활로부터 모일 수 있도록 깃발을 울리게 하옵소서. 지구 곳곳으로부터 우리들을 함께 모이게 하옵소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하솨 당신이시여, 복을 받으시옵소서.⁶⁾

또 매년 춘분 지나고 보름달이 뜨는 유월절 밤이면,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이렇게 희망을 노래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여기 타향에 살아도 내년에는 이스라엘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지금은 노예이지만 내년에는 자유인이 될 것이다.” 랍비들 가운데는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한 민수기 33장 53절에 의지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취하고, 거기서 사는 것이 계명이라고 선언해왔다. 또 탈무드는 그 땅 자체가 매우 거룩해서 거기서 걷기만 해도 앞으로 다가올 세계에서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고 적고 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밖에서의 삶을 비정상적인 상태로 간주하면서 그러한 삶을 유배생활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언젠가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란 희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 희망은 ‘하티크바’(Ha-Tikvah, 희망)에 표현되고 있다. 이 ‘하티크바’는 시온주의자들의 운동가이자 이스라엘 나라의 국가(國歌)이기도 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대인의 마음 속 내면에서 영혼이 여전히 갈망하는 한,
그리고 동쪽 끝자락을 향해서 여전히 시온으로 눈이 향하는 한,

6) 쉘모네 에스레이 10번 기도. 조동호 역, “쉘모네 에스레이,”
<http://kccs.pe.kr/jewishcal7.htm>.

우리의 희망은 아직 사라진 것이 아니다.
 이천년을 간직한 희망은 우리 자신의 땅에서 자유민이 되는 것,
 시온과 예루살렘의 땅에서 우리 자신의 땅에서 자유민이 되는 것,
 시온과 예루살렘의 땅에서.7)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지속적으로 이스라엘로 이주한다. 이스라엘로의 이주를 ‘알리야’(aliyah)라 하는데 문자적으로 ‘오름’이란 뜻이다. 그러니까 시온에 오른다는 뜻으로 보면 된다. 한 예로 러시아 한 나라에서만 이스라엘로 이주한 ‘알리야’의 수가 1998년에 1만4천 명, 1999년에 3만 명, 2000년 2만 명에 이른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주에는 러시아의 경제가 어려운 탓도 있지만, 그간 쌓았던 모든 것을 버리고 본토에 이주하여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하는 고달픈 삶일 텐데도 그들은 이스라엘로의 이주를 ‘시온에 오름’(ascension to Zion)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본향에 대한 집념, 이것이 바로 선민이 되는 첫째 조건이다.

2. 말씀사랑

유대인들의 기도문 가운데 ‘쉐마’(Shema)라는 것이 있다. 쉐마는 신명기 6장 4-9절, 11장 13-21절 그리고 민수기 15장 37-41절로 이뤄진다. 기독교인들은 이 쉐마의 말씀을 교훈적으로 받아드리는 반면에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 받아드려 실천하고 있다.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다. 신명기 6장 4-9절이다.

[4]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5]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

7) “이스라엘의 땅.”

여 표를 삼고, [9]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유대인들은 이 말씀의 7절, 8절, 9절을 문자적으로 실천하는데,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는 일을 잊지 않는다. 또 유대인들은 쉼의 말씀을 잘 실천하기위해서 ‘트필린’이라 불리는 작은 말씀상자를 만들어 끈으로 그들의 손이나 이마에 붙인다. 또 ‘메주자라’ 불리는 칼집형태의 말씀상자를 만들어 집안 문설주 옆에 부착해 놓고 집에 들어오거나 나갈 때 세 번씩 이 메주자에 입을 맞춘다. 하나님의 계명을 그토록 사모하고, 계명대로 살려는 유대인들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행위들이다. 신명기 11장 13-21절이다.

[13]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중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14]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15]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16]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하므로, [17]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시므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21]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의 장구함 같으리라

18-20절은 앞에서 읽었던 6장 4-9절의 말씀과 같기 때문에 생략했다. 계명대로 살면, 생업에 복을 받고 약속의 땅에서 영구히 살게 된다는 말씀이다. 민수기 15장 37-41절이다.

[37]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38]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39]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와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좇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40]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41]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옷술을 ‘찌찌트’라 하는데, 유대인이면 누구나 달아야 한다. 38절에서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39절에서는 술을 달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와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좃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처럼 유대인들은 쉘마의 말씀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 ‘트펠린’이란 작은 말씀상자를 만들어 끈으로 그들의 손이나 이마에 붙이고, 또 ‘메주자’라 불리는 칼집형태의 말씀상자를 만들어 집안 문설주 옆에 부착해 놓고 집에 들어오거나 나갈 때 세 번씩 이 메주자에 입을 맞추고, 옷에는 ‘찌찌트’를 달아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나게 하고 준행하려고 힘쓴다.

유대인들의 토라사랑은 대단하다. 그들은 토라(Torah)라 불리는 모세오경을 깊이 사모한다. 유대인들은 이 토라의 본문을 54개로 나눠서 회당 예배 때마다 읽어서 일 년에 한 번씩 완독한다. 회당을 출입하는 유대인들은 평생 동안에 토라를 몇 수십 번 읽게 되는 셈이다. 또 월요일 목요일 아침기도회 때에도 토라를 읽는다.⁸⁾

태양력으로 10월경, 유대인들은 그들의 신년 첫 달 티쉬레이 <Tishrei>월 22-23일, 초막절이 끝나는 다음날부터 이틀간 ‘심חת 토라’(Simchat Torah)라 불리는 특별한 토라축제를 갖는다. ‘심חת 토라’란 말은 “토라 속에서의 기쁨”이란 뜻이다. 유대인들은 일 년에 한 차례씩 토라, 곧 모세오경을 완독하게 되는데, 이날이 바로 그 날인 것이다. 매주 회당예배 때에 창세기 1장서부터 시작하여 신명기 34장까지 공개적으로 몇 개의 장씩 읽는다. 심חת 토라 때 그 마지막 부분을 읽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즉시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간다. 토라는 일년주기로 읽히는 일종의 사이클(원)이기 때문에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8) 조동호 역, “유대교의 예식서,” <http://kccs.pe.kr> →성경연구→신약성경관련.

이날 토라읽기를 다 마치면 토라 두루마리 성경을 들고 회당주변을 행진하면서 충만한 기쁨으로 마음껏 노래하고, 토라와 더불어 회당에서 춤도 추고, 와인도 마시며 축하한다. 이 때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토라 두루마리 성경을 운반하는 명예가 주어진다. 이날은 물론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축일이다.

매주 드리는 회당예배 때에도 토라읽기에 앞서 토라행진이 있다. 토라가 회당내로 운반되어질 때 회중 가운데 한 사람이 토라를 잡는다. 토라가 회중에게 전달될 때, 그들은 그들의 손으로 혹은 때때로 기도서나 그들의 '탈리트,' 곧 유대인 남성이 아침 예배 때 착용하는 어깨걸이로 책표지를 만진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혹은 그들이 토라를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입을 맞춘다. 정통주의 회당에서는 토라행진이 종종 여성 지정석 쪽으로 가지를 않는다. 여성은 보통 토라가 있는 방향으로 손을 뻗어 그들의 손에 입을 맞춘다. 또 토라 읽기가 마친 후에 토라는 회중을 향하여 거양된다. 회중은 "브조트 하토라"(v'zot ha-Torah)를 낭송하면서, 보통은 손가락으로, 토라를 향하여 손을 뻗어 손가락에 입을 맞추는 것이 전통이다. 그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행위인 것이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할라카'(Halakhah)라 부른다. 그 가운데 토라에 근거한 613개의 '미츠보트'(Mitzvot)라 불리는 계명이 있다. 이들 613개의 계명들 가운데 248개는 '~하라'는 긍정적 계명으로써 남성 신체의 하나하나의 뼈와 기관을 위한 것이고, 나머지 365개는 '~하지 말라'는 부정적 계명으로써 태양력으로 일 년 365일의 매일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이들 613개의 계명들이 오늘날에도 다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밖에서 지켜질 수 있는 계명은 77개의 긍정적인 계명들과 194개의 부정적인 계명들뿐이라고 한다. 계명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유대인들은 토라의 계명들을 힘써 지키려는 의지가 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⁹⁾

9) 조동호 역, "할라카: 유대인의 법," <http://kccs.pe.kr> →성경연구→신약성경 관련.

‘게자이라’(gezeirah)는 법도 있는데, 사람들이 토라 계명을 우발적으로 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랍비들이 제정한 율법이다. 예를 들면, 토라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명한다. 그러나 게자이라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 법을 어기게 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들, 곧 연필, 돈, 망치와 같은 것들을 치워놓고 보이지 않게 하라고 가르친다. 이것을 ‘무크짜’(Muktzah)라 하는데, 그런 물건들이 가까이 있어서 눈에 띄게 되면 그날이 안식일이란 사실을 잊고 금지된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타카나’(takkanah)란 율법도 있다. 랍비들에 의해서 제정된 율법인데, 예를 들면, 구약성경이후에 생긴 축일인 ‘하눅카’(Chanukkah), 곧 수전절 때에 촛불을 밝히라는 계명이 ‘타카나’이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공개적으로 토라를 읽는 관행도 에즈라 때에 제정된 타카나이다. 타카나와 게자이라는 토라의 미츠보트, 곧 계명들이 갖는 구속력을 동일하게 갖는다.

지금까지 우리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인 모세오경을 얼마나 극진히 사모하고 경건하게 받아드리는가를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한다.

둘째, 쉼마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트필린’이라 불리는 작은 말씀상자를 만들어 끈으로 그들의 손이나 이마에 붙이고 다닌다.

셋째, ‘메주자’라 불리는 칼집형태의 말씀상자를 만들어 집안 문설주 옆에 부착해 놓고 집에 들어오거나 나갈 때 세 번씩 이 메주자에 입을 맞춘다.

넷째, 하나님의 계명을 잘 기억하고 준행하기 위해서 ‘찌찌트’라 하는 옷술을 달고 다닌다.

다섯째, 매년 한 차례씩 토라를 완독한다.

여섯째, 토라 완독을 축하하는 ‘심핫 토라’ 축제를 갖는다.

일곱째, 매주 회당예배 때마다 토라를 읽는다. 월요일과 목요일 아침기도회 때에도 토라를 읽는다.

여덟째, 회당예배 때에 토라에 입을 맞춘다.

아홉째, 토라의 계명들인 613개의 율법들을 지킨다.

열 번째, 토라의 계명을 우발적으로 범하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 날이 닿기 전에 안식일 법을 어길만한 물건들을 미리 치워서 보이지 않게 한다.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이 선민의 두 번째 조건이다.

3. 기도생활¹⁰⁾

유대인들의 핵심 기도들 가운데는 '쉐마'(Shema)가 있다. 이 쉐마는 유대교에서 가장 오래고 고정된 매일 드리는 기도이다. 내용은 신명기 6장 4-9절, 11장 13-21절 그리고 민수기 15장 37-41절로 이뤄진다. 유대인들은 고대 때부터 이 기도를 하루에 두 번 아침과 저녁에 낭송해왔다.

유대인들은 '쉐모네 에스레이'(Shemoneh Esrei)라는 기도를 아침과 오후와 저녁에 하루 세 번 드린다. 신약성경에는 아침 9시와 정오 그리고 저녁 3시에 행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쉐모네 에스레이'는 19개의 기도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도를 하루 세 번씩 하게 되면 57번의 기도가 되는 셈이다.

이 기도문은 2,600여 년 전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제국에 유배되어 갔을 때에 시작된 것이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졌던 희생제사를 바칠 수 없었기 때문에 희생제물 대신에 기도를 바쳤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하루 세 번씩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에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바쳤는데, 유배상태에서는 행할 수 없었으므로 대신에 하루 세 번씩 기도를 바쳤던 것이다.

예배와 안식이 있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이어지는 안식일에는 매일 드리는 기도이외에 추가로 기도회가 있었고, 특정한 축일들에도 있었는데, 그 축일들에 바쳐졌던 희생 제사들을 대신하는 추가 기도회들이 있었다. 몇몇 사람들은 이런 관행이 바벨

10) <http://www.jewfaq.org/prayer.htm>

론 제국에 유배되어가기 이전에도 경건한 자들 사이에서 이미 실천되고 있었다고 말한다.

기도에 대한 이 좋은 사례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희생제사일 수 있다는 점을 교훈한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일 수 있고, 하나님과의 사귄과 교제를 상징하는 화목제일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못한 우리의 허물을 대신하는 속죄제일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못한 우리의 허물을 대신하는 속건제일 수도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원래 제사는 제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이다. 그러나 제 몸을 드려 제단에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제물로 대신하게 하는 것이다. 제단에 오른 제물에 안수를 하고 예배자의 허물을 대신해서 희생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대속의 개념이다. 허물의 사죄를 위한 것이든 감사와 화목을 위한 것이든 제물을 바친다는 개념은 제 몸을 바친다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기도가 제사를 대신하는 것이라는 개념으로 유대인들이 과거 2,500여 년간 회당에서 기도회로 모였던 것이다. 회당의 예배는 기독교 예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여 드리는 기도를 통한 예배 또한 제사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기도를 히브리어로 ‘테필라’(tefilah)라 한다. 이 말은 자신을 성찰한다는 뜻을 갖는다. 이 말은 기도의 목적을 분명하게 파악하게 해준다. 어떤 기도든, 그것이 간구든, 감사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든, 혹은 고백이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상 속에서의 우리 자신의 역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면서 우리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기도란 것이다.

유대인들은 기도를 위한 마음의 준비를 ‘카바나’(kavanah)라 한다. 카바나는 일반적으로 “집중” 혹은 “의도”란 말로 번역된다. 카바나의 최소 단계는 기도자가 하나님께 말하고 있다는 의식과 기도할 의무를 이행하려는 의도라고 말한다. 이 카바나의 이 최소 단위를 갖추지 못한다면,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다. 유대인의 카바나

는 다른 잡생각이 없는 순수한 마음을 지니는 것이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며,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숙고하는 것을 말한다. 유대인들의 상당수는 시편 35편 10절, “나의 전 존재(내 모든 뼈)가 외치리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노래로 기도하거나 몸을 전후로 흔들면서 하는데, 이렇게 하면 잡생각을 떨쳐버리고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유대인들은 자국어인 히브리어를 2,600여 년 전 바벨론에 유배되었을 때에 잊어버렸다. 그러나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 히브리어를 되살리기 위한 유대인들의 노력 또한 눈물겨운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의 대다수가 제 나라가 아닌 외국에서 살아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기도만이라도 히브리어로 하기를 권장한다. 한 유대인이 히브리어로 기도를 하고는 싶었지만 히브리어를 몰랐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아는 히브리어 알파벳만을 낭송하기 시작했다. 그런 그의 기도를 듣고 있던 랍비가 수상하게 여겨 물었다. “당신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랍비에게 대답했다. “거룩하신 분, 복 받으시는 분이 내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아십니다. 내가 그분에게 알파벳문자들을 드리면, 그분은 그것들을 조합해서 단어들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고 한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중심을 보신다. 미사려구의 아름다운 기도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알아듣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히브리어를 모르는 유대인이 하나님께 바친 이 무식한 기도를 학식이 많았던 랍비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알아들으셨을 것이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정성껏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 기도를 받으실 것이다.

유대인들은 그룹기도를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도들은 “나”란 말 대신에 “우리”란 일인칭 복수로 되어있다. 이런 형태의 단체기도는 서로를 위한 책임과 운명을 함께하는 공동체임을 강조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개인 활동이기보다는 단체 활동이다. 유대인들이 기도회로 모일 수 있는 최소인원은 유대인 성인 남성 10명이다. 유대인들은 13세 이상의 유대인 남성들이 기도문을 외우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 자로 본다. 그래

서 10명의 정족수를 채우지 않고서는 기도회로 모이지 않는다. 이 기도의 정족수를 '민얀(minyan)'이라고 하는데, 이 민얀이 충족되지 않으면 기도회나 신앙 활동들이 수행될 수 없다. 이런 민얀의 요구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무리 먼 곳에 흩어져 있더라도 기도회를 위해서 모이게 되는 것이다. 지난 2,600여 년간 외국에 살면서 갖가지 핍박과 탄압 속에서도 유대인들이 흩어지지 않고 공동체를 이뤄 민족성을 지켜갈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모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그래서 과거 2,600여 년간의 유대인들의 삶은 회당을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유대인에게는 '베라코트'(berakhot)라 불리는 기도가 있다. 유대인들이 하는 대부분의 기도가 베라코트에 속한다. 베라코트는 '베라카'의 복수명사이다. 그런데 베라카는 '축복'이란 뜻이다. 이 말의 히브리어 어근은 '무릎'이란 뜻의 벵-레쉬-카프(Bet-Resh-Kaf)에서 유래하며, 무릎을 굽혀 절함으로써 존경을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베라코트를 낭송할 때 무릎을 굽히면서 절을 한다. 유대인들이 그들이 하는 대부분의 기도를 베라코트라 부르는 것에서 우리는 매우 깊은 뜻을 발견한다. 물론 유대인의 베라카는 "복 받으시옵소서. 당신 주 우리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란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구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기도를 '축복'이라 부른 것은 의미가 깊다.

유대전통에 따르면, 유대인은 매일 100개의 베라코트를 낭송해야 한다. 여기에는 앞에서 언급한 하루 세 번하는 19개의 쉘모네 에스레이가 포함된다. 그것만으로도 57개의 베라코트를 낭송하게 되는 셈이다. 그리고 일상에서 기도를 요구하는 베라코트가 수십 개씩 있어서 100개의 베라코트를 낭송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 이런 유대인들의 기도습관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반성을 촉구하지 않나 생각된다.

유대인들의 베라코트에는 기본적으로 세 종류가 있다. 물질적인 쾌락을 즐기기 전에 낭송되는 것들, 미츠바 곧 계명을 이행하기 전에 낭송되는 것들, 특별한 때나 행사들 때에 낭송되는 것들이 있다.

유대인들은 먹고 마시고 새 옷을 입는 것과 같은 물질적인 쾌락을

즐기기 전에 베라코트를 낭송한다. 이것은 사용하려고 하는 물질의 창조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이다. 빵을 위한 베라키는 “땅에서 빵을 생산하게 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새 옷을 입기위한 베라키는 “별거벗은 자들에게 옷을 입히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들 베라코트를 낭송함으로써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이심과 먼저 그분의 승낙을 구함이 없이는 물질들을 사용할 어떤 권리도 없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베라키는 본질적으로 물질을 사용할 승낙을 구하는 기도이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모든 행동에 앞서서 먼저 기도를 드려 하나님의 승낙을 구한다는 뜻이다. 얼마나 겸손한 자세요, 얼마나 경건한 신앙인가?

유대인들은 손을 씻거나 촛불을 밝히려는 등의 일상의 계명을 이행하기 전에도 베라코트를 낭송한다. 그 베라코트는 “그분의 계명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분, 곧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도록 명령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물론이고 랍비들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한다. 얼마나 겸손한 자세요, 얼마나 경건한 신앙인가?

유대인들은 기쁜 소식이나 나쁜 소식을 접할 때와 같은 특별한 때나 행사들 때에도 베라코트를 낭송한다. 이것은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선악의 궁극적인 원천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 같은 베라코트는 좋은 일들이든 혹은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일들이든 모두를 위해서 낭송된다. 우리가 어떤 나쁜 것을 보거나 들을 때, 나쁘게 드러나는 일들은 궁극적으로 의로운 이유 때문에, 심지어 우리가 한정된 이해 속에서 그 이유를 항상 알 수 없더라도, 궁극적으로 의로운 이유 때문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해하면서 ‘참된 재판관’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만사에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다는 신앙이 반영된 기도이다. 얼마나 겸손한 자세요, 얼마나 경건한 신앙인가?

유대인들은 식사 전에도 기도하지만, 식사 후에도 기도한다. 이 기도를 ‘비르카트 하마존’(Birkat Ha-Mazon)이라 부른다. 신명기 8장 10절에 근거한 기도이다. 비르카트 하마존(음식의 축복)이란 말 또한

이디시(Yiddish)어로 ‘축복하다’는 뜻이다.

비르카트 하마존은 네 가지 축복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음식을 준비하기 위한 축복으로써 세상에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둘째는 땅에 대한 축복으로써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언약을 맺으시며, 유산으로 이스라엘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셋째는 예루살렘에 대한 축복으로써 예루살렘의 재건과 모쉬아크(메시아)의 도래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한 것과 선한 행동에 대한 축복으로써 선하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찬양한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예배 때에는 물론이고, 일상에서 하루에도 100개 이상의 기도문을 낭송한다.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세워지고 사라졌지만, 이스라엘이란 나라만큼 고난이 많았던 나라가 일찍이 없었다. 그런데도 건재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은 솔로몬 사후에 북쪽 이스라엘왕국과 남쪽 유다왕국으로 갈라지는 불운을 겪게 된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왕국은 주전 722년에 앗시리아제국에 망해서 역사에서 사라진다. 그 땅이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이다. 사마리아 사람이란 나라가 망한 후에 그 땅에 남았던 가난하고 못배운 이스라엘 천민들이 그 땅에 이주해온 이방인들과 결합해서 만들어진 혼혈인들을 말한다. 그리고 남쪽 유다왕국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제국에 완전히 망해서 모두 다 바벨론에 유배되어갔다. 그 때부터 유대인들의 극도의 시련이 시작된다. 유배당한 후, 짧게는 70년, 길게는 173년 만에 페르시아제국의 허용아래 일부 유대인들이 본토에 돌아와 나라를 재건했지만, 또 다시 알렉산더가 세운 헬라제국에 넘어가게 되고, 이후 로마제국의 지배를 받다가 66년에 시작된 독립투쟁의 실패로 주후 70년에 철저하게 망해버렸고, 132년부터 시작된 또 한 번의 독립전쟁의 실패로 135년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본토에서 쫓겨나게 되어 과거 2,000여 년 동안 1,200만 명이 학살되는 수난을 겪었다. 1948년 5월 14일, 그들은 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했던 기도의 응답을 받아 결국에는 이스라엘 국가를 조상들의 땅에 세우게 되었고, 오늘날에는 강국으로 발전하고 있다. 기도의 힘이란 것이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는 산 증거이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이라고 해봐야 고작 1,400여만 명밖에 되지 않는 소수민족이지만, 세계

경제와 정치에 미치는 그들의 영향력은 가공할 정도로 크다. 이 모든 기적이 그들의 끊임없는 기도 때문이라고 확신한다. 기도생활은 선민이 되는 세 번째 조건이다.

4. 안식일 성수¹¹⁾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과 관련해서 유대인들은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말만하고 그에 걸맞게 행동하지 않으면 부도수표나 다름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창조주로 믿고, 또 그분을 진정으로 창조주 되게 하려면, 안식일에 우리 인간들이 모든 창조행위를 멈춰야한다 라고 말한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 개념은 이렇다.

첫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기슭에서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자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8-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8]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9]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제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칠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십계명 가운데 제4계명인데, 내용은 제칠일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데,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데 24시간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비유대인들은

11) 조동호, “유대교의 안식일 개념에 대한 고찰,” <http://kccs.pe.kr> →성경연구 →신약성경관련. 조동호 역, “유대인들의 안식일 지키기,” <http://kccs.pe.kr/jewishcal6.htm>. 조동호 편역, “유대교 안식일법의 39가지 범주들,” <http://kccs.pe.kr/jewishcal9.htm>.

이 안식일 계명을 ‘직장에 출근하지 말라.’거나 ‘주중에 진행하던 모든 생업을 중단하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 일이고, 무엇이 일이 아닌가라는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또 다른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일’이란 것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라는 것이다. 이 문제를 놓고 수천 년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다. 환경이 바뀌고 문명이 바뀌면 생활양식도 바뀐다. 이 바뀐 생활패턴에서 부딪치는 새로운 문제들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그들의 행위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인지, 혹은 해도 좋을 일인지를 놓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둘째,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금지된 일의 범주를 ‘창조행위’(Melacha)에 국한 한다. 태초에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만물을 만드셨고, 제칠일인 안식일에 쉬셨다(창 2:2). 안식일에 창조를 멈추신 것은 천지만물이 다 완성되었고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멈추셨던 것처럼 인간들도 안식일에 모든 창조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출 20:8-11). 안식일에 일을 멈추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다는 사실과 우주가 인간의 개입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안식일에 일을 멈춤으로써 창조주를 진정으로 하나님 되게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 개념을 ‘완성’으로 생각한다. 세계의 완성, 나의 완성, 하나 됨으로 가는 길(path) 곧 할라카(halacha)라고 말한다.

유대교는 하나님과 인간과 우주에 관한 교리의 종교가 아니라,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과 실천들로 가득한 포괄적인 삶의 방식이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먹고 먹을 수 없는가? 무엇을 입을 수 있고 입을 수 없는가? 사업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명절과 안식일은 어떻게 지키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인간과 동물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와 같이 살면서 필요한 실제적인 규정들로 가득하다. 이런 규정들이 수백 수천가지가 된다. 유대교에서는 이것을 ‘할라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법’이라고 번역되지만, ‘걸어가다, 행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길’이란 뜻이다. 우리말에 ‘도(道)에 해당된다.

셋째, 유대인들은 인간의 창조행위를 39가지의 범주로 규정한다. 성경은 무엇이 “인간의 창조행위”인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광야시대에 성막(Mishkan)을 짓도록 한 출애굽기 31-35장의 명령을 통해서 39가지 범주의 창조행위들을 규정하고 있다. 성막건축은 그 자체가 세계의 축소판이며, 창조행태의 모든 것을 대표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 39가지 범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씨뿌리기, 밭 갈기, 추수하기(자르기), 거두기(묶기), 타작하기, 까부르기, 고르기, 빵기, 체질하기, 반죽하기, 굽기, 털깎기, 표백하기, 풀기(빗질하기), 물들이기, 실뽑기, 베틀에 실 걸기, 직조하기, 실 제거하기, 매듭매기, 매듭풀기, 바느질하기, 찢기, 가두기(덧 또는 올가미 설치), 죽이기, 가죽 벗기기, 소금치기(무두질하기), 선긋기(표시하기), 매끄럽게 하기 및 구김살 펴기, 재단하여 자르기, 알파벳 두 자 이상 쓰기, 알파벳 두 자 이상 지우기, 건축하기, 허물기, 불끄기, 불 지피기, 마지막 망치질하기, 운반하기.

넷째, 유대인들은 성막건축에 필요한 상기한 39가지 범주의 창조행위를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의 범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던 39가지의 공정에 연관된 일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창조활동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39가지 범주란 말이 39가지 안식일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다. ‘범주’라는 말에 유의해야 한다. 이 39가지 범주에 들어가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은 수백 수천 가지에 이른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몇 가지 소개한다면 다음과 같다.

1)나뭇가지와 잎을 뽑거나 자르기, 꽃 꺾기, 과일 따기, 채소 또는 나물채취하기, 잔디 깎기, 화초에 물주기를 할 수 없다.

2)밭 갈기, 씨뿌리기, 과일, 꽃, 나뭇가지 등을 모우기, 타작하기, 알곡 고르기, 과일을 짜서 주스내기, 상한 과일이나 음식, 더러운 그릇 등을 골라내는 것이 금지된다.

3)빵기나 찢기, 체질하기, 까부리기, 반죽하는 것이 금지된다.

4)불 켜기와 끂기, 음식과 물질에 열을 가해 변화를 주는 것이 금

지된다. 밤중에 불을 켜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미등을 켜 놓거나 화장실 등의 전기스위치에 테이핑을 해둔다.

5)손발톱 깎기, 털 자르기, 털 뽑기, 머리 빗질도 안 된다. 머리털이 뽑힐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에 부드러운 털 빗은 허용된다. 손톱 깎이나 빗 같은 것은 눈에 띄지 않게 안식일 전에 미리 치워둔다.

6)빨래와 샤워도 안 된다. 빨친 머리칼을 단정히 하기 위해서 물을 뿌리는 것만 허용된다. 화장도 안 되고 선텐도 안 된다. 입술에 아무 것도 문질러 바를 수 없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립스틱을 바를 수 없다.

7)바느질도 안 된다. 접착제나 압침 사용도 안 된다. 종이우유팩을 여는 것도 안 된다. 절이기, 소금뿌리기 등의 방부처리도 안 된다.

8)알파벳 두 자 이상 쓰기, 선긋기도 안 된다. 심지어 글쓰기를 하게 할 어떤 행위도 금지된다. 반대로 알파벳 두 자 이상을 지워서도 안 된다. 연필이나 펜 종류는 안식일 전에 눈에 띄지 않게 미리 치워놓아야 한다.

9)절취선이 있는 티슈박스의 개봉이 안 되고, 두루마리휴지를 떼어 낼 수 없다. 안식일에 쓸 휴지를 미리 떼어놓거나 또는 이미 절취되어 있는 티슈를 사용할 수 있다.

10)쇼핑을 할 수 없고, 전화, 라디오, 텔레비전을 사용할 수 없다. 안식일 전에 플러그를 미리 빼놓도록 권하고 있다.

11)땅에다 대고 무엇을 짓거나 수리를 해서도 안 되고, 부수는 것도 안 된다.

12)불을 피우거나 끌 수 없고, 전기스위치를 켜고 끌 수 없다. 자동차의 시동도 걸 수 없다. 따라서 안식일에 운전을 할 수 없다.

13)구두나 운동화에 새로 끈을 끼우는 것도 안 된다.

14)악기연주가 금지된다. 랍비들은 우발적인 조율을 막기 위해서 금지시키고 있다. 그러나 노래하기와 휘파람 부는 것은 허용된다.

15)올바른 안식일에 개인영역에서 공공영역으로 혹은 그 반대 방향으로 물건 옮기기, 운반하기, 던지기, 밀기 등을 금지한다. 공공영역에서는 대략 2미터 이상 물건을 운반할 수 없다. 단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목숨을 구하는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는 운전도 할 수 있고, 전화도 쓸 수 있고, 그밖에 행동들도 필요에 따라 할 수 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안식일 법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안식일 법을 어떻게 이해하셨을까?

복음서에는 안식일 논쟁에 관한 기사가 많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사건(마 12:1-8, 막 2:23-28, 눅 6:1-5),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친 사건(마 12:9-13, 막 3:1-6, 눅 6:6-11), 안식일에 18년간 귀신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을 고친 사건(눅 13:10-17), 안식일에 고창병에 걸린 사람을 고친 사건(눅 14:1-6),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요 5:2-18), 성전에서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선포한 사건(요 7:14-24), 그리고 안식일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친 사건(요 9:1-41)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벌어진 안식일 논쟁은 상당히 뜨거웠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기서의 ‘일’을 유대인들이 ‘창조행위’로 본 것이 문제였던 것이다. 창조행위는 하나님의 일이다.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행위에는 세 가지 범주의 일들이 있다. 첫째는 어둠이 빛이 되게 하는 것, 둘째는 혼돈이 질서가 되게 하는 것, 셋째는 죽음이 생명이 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과연 이 세 가지 범주의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가라는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범주의 창조행위를 안식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할 살림의 일로 보셨다. 따라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성막건축과 관련된 39가지의 일을 창조행위의 39가지 범주로 보고, 이것들을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의 범주로 확대 해석한 것을 비난하셨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서의 ‘일’은 하나님의 일, 곧 세 가지 범주의 창조행위가 아니라, 인간들의 일, 곧 죽임의 일을 말한다고 본다. 빛의 일보다는 어둠의 일, 질서의 일보다는 혼돈의 일, 생명의 일보다는 죽임의 일들을 일삼는 것이 인간들의 일이다. 이런 일들을 안식일 하루만이라도 멈추고 하나

님께 예배하며 그분의 살림의 일을 묵상하고 본받으라는 것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의 참 뜻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암시하셨다. 이 부분이 가장 잘 드러난 장면이 마태복음 12장 9-13절이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을 때, 거기 말라버린 한 쪽 손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물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이 한 마리 있는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구해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마가복음 3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리고는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셨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하신 말씀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창조행위, 곧 선을 행할 수 없다고 한 주장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주장이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 그 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라”(8절). 그러나 이 한 마디는 안식일에 2미터 이상 물건을 운반할 수 없고, 2,000큐빗(900미터 정도) 이상 걸을 수 없다고 생각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창조행위라면 그 창조행위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니란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로 살림의 일을 비난하고 질타하는 유대인들이야말로 참된 안식일의 의미를 왜곡하는 자들이었다.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본받고, 살림의 일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신다.”고 하셨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21절에 의하면,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시는 것”이다.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아들 예수님도 하신다는 것이다.

이 일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배웠다고 말씀하셨다.

유대교의 제칠일안식일 개념이 기독교에 와서는 제팔일 일요일 곧 주일로 바꿨지만, 안식의 개념은 동일하다고 본다.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일, 죽임의 일들을 많이 한다. 일주일 가운데 단 하루 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 복음의 일, 살림의 일을 행하기도 하고 묵상하고 반성하면서 마음의 평화와 위로를 얻는 것이 참 안식이라 할 수 있다. 빛의 일, 생명의 일, 복음의 일은 적극적으로 행하고, 어둠의 일, 죽임의 일, 세상의 일은 멈추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일인 것이다. 이것이 선민이 되는 네 번째 조건이다.

5. 가정생활

유대인들의 대다수는 수천 년 동안을 자기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남의 나라에서 박해를 받으며 떠돌이로 살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들은 1,878년 만에 그들의 조상들이 살았던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했고, 잊고 살았던 히브리어를 복원하였으며, 소수민족이면서도 세계의 정치경제를 배후에서 지배하고 있다. 그런 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유대인의 원동력은 가정과 회당에서 온다고 말이다. 이 두 가지 원동력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이 유대인의 가정이다.

유대인의 가정은 예배하고 기도문을 낭송하는 성소이자, 배움이 있는 도서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스라엘의 가정은 기도문이 낭송되는 성소이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100개 이상의 기도문을 낭송한다. '쉐마'(Shema)라는 기도문을 매일 낭송한다. '쉐모네 에스레이'(Shemoneh Esrei)라 불리는 19개의 기도문을 아침과 오후와 저녁에 하루 세 번 낭송한다. 먹고 마시고

새 옷을 입는 것과 같은 물질적인 쾌락을 즐기기 전에 기도문을 낭송한다. 손을 씻거나 촛불을 밝히는 등의 일상의 계명을 이행하기 전에도 기도문을 낭송한다. 기쁜 소식이나 나쁜 소식을 접할 때와 같은 특별한 때와 행사들 때에도 기도문을 낭송한다. 식사 전에도 기도문을 낭송하지만, 식사 후에도 한다.

유대인의 가정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강론하고, 모범을 보이는 성소이다. '쉐마'를 실천하기 위해서 '트필린'이라 불리는 작은 말씀상자를 만들어 끈으로 그들의 손이나 이마에 붙이고 다닌다. '메주자'라 불리는 칼집형태의 말씀상자를 만들어 집안 문설주 옆에 부착해 놓고 집에 들어오거나 나갈 때 세 번씩 이 메주자에 입을 맞춘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기억하고 준행하기 위해서 '찌쯔트'라 하는 옷술을 달고 다닌다. 유대인의 일상은 신앙으로 일관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월간조선 2005년 6월호에 실린 형용수 명지대 객원교수의 글을 보면, 유대인의 거실에는 TV가 없다고 한다. 유대인들의 거실은 도서관처럼 꾸며져 있고, 책장이 놓여 있지만, TV는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한다. 유대인들이 거실에 TV를 놓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을 통해서 전달되는 강렬한 세속문화를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자녀들에게 독서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이다. 독서와 토론을 통해서 논리력과 사고력을 배양한다고 한다.

셋째, 사고력을 길러 주기 위해서이다.

넷째, 인간관계와 감성교육을 위해서이다.

다섯째, 집중력과 창의력을 길러주기 위해서이다.

여섯째, 여가를 선용하기 위해서이다. TV가 없기 때문에 여가 시간이 많고, 그 시간을 성경공부와 고전을 읽고 토론하는 데 사용한다고 한다. 유대인들이 노벨상의 30퍼센트를 끌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

유대인의 원동력은 부부와 부모자녀들의 유대감에서 나온다.

유대인들은 결혼을 신성시 한다. 결혼식 때 유리컵을 발로 밟아서 깨트리는 의식이 있는데, 첫째는 가장 기쁜 순간에 가장 슬픈 일을

기억하기 위함이고, 고통의 순간을 잊지 말자는 다짐이며, 둘째는 신랑과 신부는 결혼을 통하여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이제 나눌 수 없다는 뜻이라고 한다.

유대인들은 가정을 신성시한다. 식탁은 제단이고, 아버지는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고 한다. 안식일마다 식탁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매년 돌아오는 축일(holidays)과 축제(festivals)를 반드시 지킨다. 유대인들의 축일들은 대부분 하나님과 연관된 신앙적인 것들이다.

유대인들은 여성을 존중한다.¹²⁾ 어머니들은 안식일 때마다 촛불을 밝힌다. 어머니가 가정의 빛이라는 유대교 사상 때문이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생활태도를 가르친다면,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종교교육을 시킨다. 종교교육을 어머니에게 맡긴 것만 보아도 여성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성서시대에는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도 유대인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그 자녀가 유대인으로 인정된다. 그럴 정도로 유대인들은 여성을 존중한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를 조심스럽게 대하고, 매 안식일에는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잠언 31장 10절 이하의 "현숙한 아내를 축복하는 말씀"을 읽어준다. 탈무드에 따르면, 경건한 남성이 사악한 여성과 결혼하면 사악하게 되고, 사악한 남성이 경건한 여성과 결혼하면 경건하게 된다고 한다.

십계명은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를 존경할 것을 요구한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는 아버지가 먼저 나오지만, 레위기 19장 3절에서는 어머니가 먼저 나온다. 양부모 모두가 동등하게 존경과 영예를 얻을 자격이 있다.

여성은 날이나 해와 같이 특정한 시간에 이행되는 계명들, 곧 “~를 하라”는 시간과 관련된 모든 적극적 계명들을 지킬 의무에서 면제된다. 부인이나 어머니로서의 의무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같은 의무들이 지연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계명을 이행할 시간이라고 해서 우는 아기를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12) <http://www.jewfaq.org/women.htm>

유대인들은 매월 첫날을 ‘로쉬 코데쉬’(Rosh Chodesh)라 부르는데, 이 날은 여성을 위한 날이자, 작은 축일이다. 이날 여성들은 일을 하지 않는다. 원래 로쉬 코데쉬는 이스라엘의 열두 부족을 매월 각각 상징하려 했는데, 이집트에서 탈출한 후에 남성들이 사막에서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긴 죄 때문에 이 축일이 황금송아지 제작에 참여할 것을 거부한 여성에게 보상으로 주어졌다고 한다. 남성들이 황금송아지를 제조할 때 여성들은 그들이 소유한 금붙이들을 내놓지 않았고, 결국 남성들이 자신들이 소유한 금붙이를 거둬서 우상의 형상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유대교의 전통적인 견해이다. 따라서 열두 부족을 각각 상징하려고 했던 이 축일이 믿음을 지켰던 여성에게 보상으로 주어졌다는 것이다.

아이는 유대인들에게 축복의 선물이다.¹³⁾ 유대교에서는 원죄개념이 철저하게 거부된다. 유대교에서는 어린아이가 순결하게 전혀 죄 없이 태어난다고 본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 이렇게 기도한다. “오 하나님, 당신께서 제게 주신 영혼은 순결합니다. 당신께서는 그것을 창조하셨고, 조성하셨으며,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아버지에게 ‘알리야’(aliyah)라 불리는 영광이 주어진다. ‘알리야’는 회당예배 때에 토라 곧 모세오경을 봉독하고 축복할 기회를 말하는 것이다. 그 때에 아기와 아기의 어머니의 건강을 위한 축복이 낭송된다. 또 아기가 여자이면, 바로 그 때에 이름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여자 아기의 이름은 생후 첫 안식일 때 회당에서 짓게 되는 것이다. 아기가 남아이면, ‘브리트 밀라’(brit milah)라 불리는 할례의식 때에 이름이 주어진다.

유대인들의 가족 간의 끈끈한 유대감은 그들의 이름에서 나타난다. 히브리어 이름의 표준 형태는 남자아이일 경우 아이의 이름 다음에 ‘~의 아들’이란 말을 붙인다. 예를 들면, ‘진수, 동호의 아들’ 곧 ‘Jinsoo, benDongho’라고 한다. 여자아이일 경우 아이의 이름 다음에 ‘~딸’이란 말을 붙인다. 예를 들면, ‘하은, 경기의 딸’ 곧 ‘Haeun, batKyunggi’라고 한다. 아이가 제사장이면, ‘하-코헤인’(ha-Kohein)이

13) <http://www.jewfaq.org/birth.htm>

란 말이 더 붙고, 레위인이면 ‘하-레바이’(ha-Levi)란 말이 더 붙는다.

아이에게 이름을 붙이는데 따른 종교적인 요구사항은 없다고 한다. 이디쉬(Yiddish) 이름이나 영어 이름을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한다. 그러나 독일, 폴란드, 러시아계의 유대인들 곧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은 최근 작고한 친척의 이름을 아이의 이름으로 준다고 한다.

할례의식은 아버지와 아들의 연대, 가족 간의 연대, 더 나아가서 유대민족을 연대시킨다. 유대인들은 남자아이일 경우 난지 8일 만에, 예를 들면, 수요일에 태어났으면, 그 다음 수요일에 할례를 행한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브리트 밀라’(Brit Milah)라 부르는데, ‘할례의 계약’이란 뜻이다. 유태교 신앙을 갖지 아니한 유대인들조차도 이 할례의 계약만큼은 지킨다고 한다. 유태교의 율법들을 지키지 않는 세속 유대인들조차도 할례의 계약만큼은 지킨다고 한다. 할례가 위생적인 면에서도 유익하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맺어진 영원한 계약의 외적 신체적 표시이며, 할례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표시이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영적인 파문을 당하게 된다. 바꿔 말하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올 세계에서 설자리를 갖지 못한다고 말한다.

안식일에 피를 흘리는 일이 금지되지만, 할례만큼은 안식일에도 행해진다. 그리고 할례는 그 자체가 종교의식이기 때문에 할례의식에 자격을 가진 자 ‘모헬’(Mohel)이라고 불리는 경건한 사람이 집에서 시행한다.

할례가 수행되는 동안, 아이를 붙잡는 사람을 ‘산덱’(sandek)이라 부르는데, ‘대부’라는 의미를 갖는다. ‘산덱’ 곧 대부가 되는 영광은 보통 할아버지나 가족의 랍비가 갖게 된다. 전통적으로 엘리야를 위한 의자가 옆에 놓이는데, 엘리야가 모든 할례의식을 주관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축복기도들이 낭송되고, 축복을 받은 포도주 방울을 아기의 입에 넣어준다. 그리고 아기는 이때에 히브리 이름을 받게 된다. 행사 후에는 다과회나 잔치가 배설된다.

유대인들은 만배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믿기 때문에 ‘피돈 하벤’(pidyon ha-ben) 곧 ‘아들의 대속’이란 구속의식을 출생한지 31일

이 되는 날에 행한다. 만일 이 날이 안식일이면 다음날에 행한다. 여기서 대속은 민수기 18장 15-16절의 말씀대로 속전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성서시대에는 은전 세겔 다섯 냥, 요즘에는 은전 달러 다섯 냥을 제사장이나 절차에 익숙한 경건한 자에게 주고 간략한 의식을 행한다. 이 모든 의식들이 다 아버지와 아들의 연대, 가족 간의 연대, 더 나아가서 유대민족을 연대시키는 것들이다.

유대인의 자녀들은 적정한 나이가 되면 수많은 계명들을 이행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¹⁴⁾ 남자아이는 13세, 여자아이는 12세가 되면 각각 '발 미츠바'(Bar Mitzvah)와 '발 미츠바'(Bat Mitzvah)라 부른다. 이것은 종교적인 성인이 되는 때를 말하는 것이다. 법적인 성인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18세이다. 남자아이의 경우 13세가 되면 회당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 토라 곧 모세오경을 봉독할 수 있다. '민안'이라 부르는 기도회가 열릴 수 있는 최소인원에도 포함되며, 종교법정에서의 증언이나 결혼의 권리도 갖는다. 특히 13번째 생일을 보낸 남자아이는 회당 예배 때에 그 주간의 토라읽기 곧 성경읽기를 수행한다. 아버지는 이때에 아들의 죄에 대한 책임의 짐을 벗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복을 낭송한다. 왜냐하면, 아들이 이제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성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13세 이전까지의 아이들은 계명을 지킬 의무를 갖지 않는다.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도 13세까지이다. 따라서 부모들은 자녀가 13세 이상이 되면 체벌을 가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고 이들이 완전히 성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체로 결혼할 수 있는 적정한 나이는 16-24세로 보며, 직업을 갖고 생활을 꾸려갈 나이는 20세 정도로 보기 때문이다.

성경읽기와 기도생활 등의 믿음 생활이 있는 가정이 선민이 되는 다섯 번째 조건이다.

6. 신앙교육

14) <http://www.jewfaq.org/barmitz.htm>

유대인은 세계인구 60억 가운데 5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소수의 유대인들이 세계경제의 본산인 미국의 금융자본과 언론계, 학계를 장악하고 있고, 미국의 대통령을 다섯 사람이나 배출하였으며, 정확한 통계인지는 알 수 없지만, 미국 상원의원의 52퍼센트, 핵무기조정자의 60퍼센트, 대학교수의 30퍼센트, 노벨상 수상자의 20-30퍼센트를 배출하였다고 한다. 이런 힘, 이런 유대인의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이런 물음을 가지고 건국대학교 히브리학과 최명덕 교수의 글을 중심으로 유대인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살펴 보려고 한다.¹⁵⁾

자원이 빈약하고 국토의 상당부분이 사막인 이스라엘은 중동지역에 있으면서도 기름 한 방울 나지 않고 물까지 귀한 나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국가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원은 사람이다.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아는 이스라엘은 엄청난 양의 예산을 교육에 투자한다고 한다. 전 국토가 아랍연맹에 포위되어 맹공을 받고 있는 나라지만, 국방비보다도 더 많은 GDP의 10퍼센트를 교육에 투자하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교육은 두 살 때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어린이들의 사회성을 발달시키고,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창의적 사고력증진을 위해서 조기교육을 시행한다고 한다. 최명덕 교수의 딸이 세 살 때 하루는 집에 오더니, “아빠, 이거 먹어보세요, 내가 만든 거예요”하며 과자를 내미는데, 보니까 유월절에 먹는 무교병이었다고 한다. “아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도망 나올 때 너무 급해서 이스트를 넣지 못했대요. 그래서 맛이 없대요.” 세 살 밖에 안 된 아이들에게 음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체험토록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스라엘 국가가 이런 눈부신 발전은 사람에 대한 투자, 곧 교육의 결과라고 한다. 모든 이스라엘 교육의 밑바닥에는 아브라함 이후 수천 년을 이어온 가정교육이 자리 잡고 있고, 이스라엘의 가정교육은 성경과 탈무드에 바탕을 둔 신앙교육이라고 한다. 유대인의 역사

15) 최명덕, “이스라엘의 가정교육,”

<http://www.iscc.co.kr/seminar/2005sm.asp?select=6>.

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정에서 시작하며, 유대인의 교육은 이들 선조들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를 올바르게 돌보는 것이야말로 유대교육의 초석이 되어왔으며, 이는 탈무드 교육에서 그대로 지속된다.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유대인 교육의 튼튼한 기초를 이루어 온 것이다. 탈무드에 보면,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자녀에게 겁을 주지 마라, 벌을 주든지 용서하든지 하라(Semahot 2:6).

어머니들은 모름지기 그의 자녀들에게 토라를 가르쳐야 한다(Exodus Rabbah 28:2).

누구든지 자녀에게 기술이나 직업을 가르쳐 주지 않는 자는 자녀에게 도둑질을 가르치는 자이다(Talmud Kiddushin 29a).

집안에 화(Anger)가 있는 것은 과일 안에 부패가 있는 것과 똑같다(Talmud Sotah 3).

자녀를 편애하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Talmud Shabbat 10b).

자녀에게 주지 못할 것을 약속하지마라. 거짓말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Talmud Sukkah 46b).

몇 가지 예를 들어 본 것이지만, 탈무드는 자녀교육에 대한 보물 창고이며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훌륭한 지침서이다. 탈무드가 가정에 바탕을 두고 부모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부모가 변하지 않고서는 자녀가 변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모든 인간은 누구나 동일하게 소중하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개인의 삶에서 뿐 아니라 축일이나 축제 또는 사회제도 속에서 구체화시켜왔다.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들을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대인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계약이 있다는 사실을 몸에 표시하는 일이다. 이 할례의식을 가리켜 '브리트 밀라'라 하는데, '브리트'란 말은 '계약'을 뜻하고 '밀라'란 말은 '할례'를 뜻한다. 할례의 행위는 하나님과 할례를 받는 자 사이의 계약을 뜻한다. 이 의식을 통해서 유대인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몸에 지니게 된다. 이 의식은 최소 열 명 이상의 유대인 성인이 모여서 행한다. 할례가 종교법의 구속력을 가진 공동체행사이기 때문인데, 갓 태어난 아기가 난지 8일 만에 자신의 삶에 대한 강력한 후원단체를 갖게 되는 것이다. 할례에 참석한 친지들은 할례의식을 통해서 각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계약관계를 상기할 뿐 아니라, 서로 계약 공동체로서의 연대의식을 갖는다.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은 평생 그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있다는 흔적을 자신의 몸에 지니고 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흔적을 몸에 지닌 할례공동체라 말할 수 있다. 유대인들은 이 흔적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할례의 흔적이 하나님의 선민이란 길으로 드러난 표식이기 때문이다.

둘째, 유대인은 청소년기가 시작되는 만 13세(여자의 경우는 만 12세)에 종교적 성인식을 갖는다. 사람이 자기 인생관을 정립하는 시기는 청소년기이다. 유대 법에 따르면,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성인이다. 유대인들은 만 13세가 되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과의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대인은 비교적 일찍 성인이 되는데, 성인의 기준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맞추어져 있다. 할례가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에 계약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 당사자의 몸에 객관적으로 표시하는 행위이라면, 성인식은 그 사실을 주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의식이다. 성인식을 '발 미쯔바'라 하는데 '발'은 '아들'을 의미하고, '미쯔바'는 '계약'이나 '계명'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발 미쯔바'는 '계약의 아들' 혹은 '계명의 아들'이란 뜻이다. 유대인은 성인식을 통해서 '계약의 아들' 혹은 '계명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유대전통에 따르면,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줄 알며, 율법의 가르침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성인이다. 성인식을 마친 유대인 소년, 소녀는 하나님과의 모든 계명을 지킬 의무를 갖는다. 이제까지는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일차적인 책임이 그가 아닌 그의 아버지에게 있었으나 13세 이후부터는 모든 책임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 또

성인식이전까지는 아버지의 신앙정도가 그 자신의 삶에 복도 되고 저주도 되었으나, 성인식이후부터는 아버지의 신앙정도와는 상관없이 자기 자신의 신앙에 책임을 지는 영적 독립인의 자리에 서게 된다. 이때까지는 그의 종교적 삶이 부모님과 하나님과의 계약관계에 매여 있었으나, 이제 하나님과 직접 계약을 맺게 됨으로써 더 이상 부모에게 매일 필요가 없다. 부모로서는 이 날이 자녀에 대한 일차적인 종교적 책임을 면하게 되는 날이기도 하다. 이제부터는 자기 자식이 신실하건 못하건 그 일차적 책임이 자녀에게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직접 계약 당사자를 문책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사춘기가 시작되는 만 13세에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탈 미쯔바'는 유대인 청소년들을 보다 더 성숙하고 신중하게 만드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자의식이 강한 시기에 하나님과 계약을 맺음으로써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과의 계약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게 한다. 유대인 청소년은 성인식을 행함으로써 유대인 공동체의 회원자격을 갖는다. 그에게는 모든 공식적인 유대교 종교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때까지는 아버지에게 딸린 자식으로서 종교행사에 참석하였으나 이때부터는 어떤 행사이건 독립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모든 회원들을 대표하여 성경을 봉독할 수도 있고,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유대전통에 따르면 최소한 열 명의 유대인 성인 남성이 있어야 회당설립이나 기도회가 가능하다. 성인식을 마친 소년은 회당을 구성할 때나 기도회 때 필요한 최소 열 명의 유대인 성인의 수에도 가담할 수 있게 된다.

성인식을 맞을 유대인 소년은 일 년 전부터 성인식을 준비한다. 부모는 짜찌트라 불리는 옷 술이 없는 탈릿이라 불리는 기도할 때 어깨에 걸치는 천을 선물하여 일 년 간 임시로 사용토록 하며, 탈릿을 넣는 가방도 마련하여 준다. 이때 가방은 반드시 친지 가운데 한 사람이 손수 만들어 선물해야 한다. 십일 개월 동안 기도생활에 익숙토록 하며, 성인식 30일 전, 짜찌트, 곧 옷 술이 달린 완전한 탈릿을 가지고 아침예배에 참석토록 한다. 이날 부모는 간소한 음식을 준비하여 이를 기념한다. 성인식 7일전 보통은 안식일 오후 예배시

간에 토라를 생애 처음으로 읽을 기회를 주어 일주일 후에 있을 발미쯔바를 준비하게 한다. 성인식 5일전 보통은 월요일 아침예배에 다시 한 번 토라를 읽을 기회가 허락된다. 성인식 이틀 전 보통은 목요일에 세 번째로 토라를 읽을 기회가 주어진다. 그리고 성인식 하루 전 금요일 예배를 인도하도록 한다. 이런 준비를 착실하게 거친 소년은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성인식을 준비하며, 당일 설교까지도 할 수 있게 된다.

성인식 후 일 년도 매우 중요하다. 성인식이 끝난 후 일 년 동안 소년은 '벤 미쯔바' 곧 '계약의 아들'이라 불리며 성인이 되는 훈련기간을 갖는다. 이 일 년 동안 그는 매주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아침 예배에 참석해야할 의무를 갖는다. 그는 이때부터 예배를 마감하는 찬양을 인도할 수 있으며, 회당에서 토라 두루마리를 묶거나 법궤 안에 소장할 수도 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 허락되면 토라를 읽을 수도 있다. 현금위원으로 봉사할 수도 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일 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예배를 도울 수 있는 예배의 조력자가 된다.

셋째, 가정교육의 중심은 아버지이다. 아버지 중심의 교육은 유대인의 유월절 예식에서 잘 드러난다. 유월절에 관한 율법을 보면, 자녀가 아버지에게 물으면 이런 저런 답변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게 다 아버지가 자녀를 교육하는 방법인 것이다. 이스라엘의 어린이들은 성경의 명령에 따라서 춘분이 지난 보름날 밤에 유월절 식사를 나누며, "왜 이 밤은 다른 밤과 다릅니까? 왜 이 밤에 우리는 무교병을 먹습니까? 왜 이 밤에 우리는 쓴 나물을 먹습니까?" 등등의 질문을 아버지에게 하도록 되어있다. 아버지는 그 질문에 대답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셨는지 모든 과정을 설명한다. 무교병을 먹으며 당시 얼마나 상황이 긴급했으면 빵에 효모를 넣지 못할 정도였는가를 설명하며, 쓴 나물을 소금물에 찍어 먹으며, 우리의 선조가 얼마나 쓰디쓴 노예의 삶을 살았으며, 얼마나 괴로운 소금물 같은 눈물을 흘렸는지를 설명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배우고, 조국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배운다. 단순히 역사만 배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확인하고, 혀로 맛보고, 머리로 기

억하고 깨달으며,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교육의 중심에는 부모, 즉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대인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어떻게 노예 생활을 하였으며, 어떻게 출애굽 하였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가를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친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출애굽과 관련된 음식을 맛보며 이스라엘의 역사와 정신, 신앙을 전수 받는다. 유대인이 ‘트펠린’이라 부르는 말쌈상자를 만들어 이마와 팔에 매달고, ‘메주자’라 부르는 말쌈상자를 문지방에 매달아 문밖을 나갈 때와 들어 올 때마다 그것에 세 번씩 입을 맞추는 ‘쉐마’는 가정교육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유대교육의 지침서라 말할 수 있다. 이토록 유대인의 교육은 가정교육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유대인은 만 세 살이 되면 성경읽기와 성경의 내용을 가르친다고 한다. 재미있는 것은 처음 성경을 배울 때 아이들에게 꿀을 먹이는 풍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 송이처럼 달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한 것이다.

유대인의 신앙교육은 세계인구 60억 가운데 5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소수의 유대인들로 하여금 세계경제의 본산인 미국의 금융자본과 언론계, 학계를 장악하게 하였고, 미국의 대통령을 5사람이나 배출하게 하였으며, 미국 상원의원의 52퍼센트, 핵무기조정자의 60퍼센트, 대학교수의 30퍼센트, 노벨상 수상자들 가운데 20-30퍼센트를 배출케 하였고, 스피노자, 멘델스존, 프로이드, 아인슈타인, 키신저, 올브라이트, 조지 소로스, 라캉, 데리다 같은 인물들을 배출케 하였다. 금광보다, 다이아몬드 광산보다, 원유보다 더 귀한 자산은 사람이다. 사람과 교육이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유대인은 그 일은 해냈고,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그 기초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자녀의 신앙교육, 이것이 바로 선민이 되는 여섯 번째 조건이다.

7. 절기축제¹⁶⁾

16) 조동호 역, “유대인들에게 설날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유대인들의 축일과 축제는 가족과 민족이 신앙으로 하나님과 연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이 사용하는 달력에는 세 가지가 있다. 우선 태양력이 있다. 현재 우리가 쓰는 양력을 말한다. 유대인들은 주후와 주전을 뜻하는 A.D와 B.C를 사용하지 않고, 기독교시대 이후와 기독교시대이전을 뜻하는 C.E와 B.C.E를 사용한다. 또 태음력이 있다. 음력에는 성력과 민력이 있다. 성력은 구약성서에 나오는 월력으로써 춘분이 들어있는 니산이 1월이고, 민력은 우리 민족의 추석이 들어 있는 티쉬리(Tishri)가 1월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설날은 윤달상황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음력 8월 1일이나 9월 1일이 된다.

유대인들은 설날을 '로쉬 하샤나'(Rosh Hashanah)라 부르는데, 이날을 심판의 날, 회상의 날, 양각나팔 부는 날로 삼는다. 탈무드에서는 하나님이 이 날 인류를 창조하셨다고 가르친다. 따라서 로쉬 하샤나는 인류창조를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다.

로쉬 하샤나는 10일 후에 닿는 '욘 키푸르'(Yom Kippur) 곧 대 속죄일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데, 이 열흘 기간에 회개하여 죄를 씻고, 용서받고 새 출발한다.

설날축제의 중요한 상징적 행위는 생명책의 주위를 도는 것이다. 자신의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한 해를 복되게 보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지난해의 잘못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년에는 동일한 잘못들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심한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인봉되기를 기원한다."라고 유대인들은 신년인사를 건넨다. 회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년에 자신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10일 후에 있을 대 속죄일 때 그 책이 인봉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10일간은 두려움의 날들로 간주된다.

또 유대인들은 신년에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에게 의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질 변한 이야기를 회상한다. 하나님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독생자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다.

<http://kccs.pe.kr/jewishcal4.htm>. 조동호 역, "유대인들에게 대 속죄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http://kccs.pe.kr/jewishcal5.htm>. 조동호 정리, "이스라엘의 추수축제(초막절)," <http://kccs.pe.kr/jewishcal8.htm>.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고, 제단을 쌓았으며,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순종과 믿음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이삭을 바칠 준비를 하였다. 칼로 이삭을 찌르려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천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찌르지 못하도록 막았고, 수풀에 뿔이 걸린 수양 한 마리를 찾게 해주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대신해서 수양을 바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을 설날에 회상하게 되는데, 이 사건이 티쉬리 1일에 발생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 사건이 주는 의미는 믿음과 순종이다. 설날 믿음과 순종의 중요성을 마음에 굳게 새기는 것이다. 설날 이 사건을 회상함으로써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자비를 얻는 길이며, 진실로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상기시킨다.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따를 뿐, 왜라고 묻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보상하신다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설날에 양각나팔을 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이삭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 것과 이삭을 대신해서 수양이 희생된 것과 하나님이 인류의 통치자이신 것과 회개하여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것을 사람들의 마음에 일깨워 주려는 것이다. 양각나팔을 부는 또 다른 이유는 인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권을 축하하려는 것이다. 양각나팔을 소리 내어 하나님을 인류의 통치자로 선언하고 재확인하려는 것이다.

신년을 맞이해서 회개와 새로운 다짐으로 근신하며 9일간을 보낸 유대인들은 10일째 날이 시작되는 해질 때에 다시 양각나팔을 불어 24시간 금식을 엄숙히 선포하고 금식이 끝나는 다음날 해질 때에도 나팔을 불어 선포한다. 이 날은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 일 년간 인봉되는 날이자 그들의 일 년간의 운명이 좌우되는 대 속죄일이요 심판의 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5일 후인 음력 15일 보름날 해질 때부터 8일간 감사절인 초막절 축제가 시작된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연두(年頭) 혹은 연초(年初)에 지난해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굳게 다짐하며, 속죄선언을 받고, 8일간의 추수감사축제로 새해

첫 달인 티쉬리월을 시작한다.

유대인들은 대 속죄일을 '욘 키푸르'(Yom Kippur)라고 부르는데, 설날인 '로쉬 하샤나'로부터 열흘째 날에 지킨다. 욘 키푸르는 회개의 날이며, 연중 가장 엄숙한 날이다. 핵심주제는 속죄와 화해이다. 먹는 것, 마시는 것, 목욕하는 것, 화장하는 것, 가죽옷을 입는 것, 가죽신을 신는 것, 부부행위 등을 금한다. 이 날은 생명책이 인봉되는 심판의 날이며, 죄 사함을 받고 또 죄를 용서하는 속죄일이고, 하나님과 이웃과 더불어 해원(解冤)하는 상생(相生)의 날이며, 설날부터 시작된 열흘간의 회개의 기도를 완결시키는 날이고, 요일에 관계없이 모든 안식일 가운데 가장 엄숙한 안식일이 된다. 이 날은 24시간을 금식하며, 예배로 거룩하고 엄숙하게 보낸다. 그리고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양각나팔을 분다.

유대인들은 해질 때에 하루가 시작하기 때문에 욘 키푸르가 시작되는 저녁과 해가 뜬 하루 종일을 기도와 명상으로 보내게 되는데, 저녁 기도회 때에 '콜 니드레'(Kol Nidre)를 낭송한다. 가락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콜 니드레'는 한 해 동안 자기 자신에게 행한 모든 서약을 없었던 걸로 만드는 일종의 맹세무효선언 기도문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행한 서약은 그대로 유효하게 된다. 아침 기도회 때에는 '셀리코트'(selichot)라 불리는 용서의 탄원과 청원의 기도문을 낭송한다.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격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책에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한다.

탈무드에 "대 속죄일은 하나님을 거슬린 죄를 속하지만, 피해자의 용서가 보장되지 않는 한 동료 인간을 거슬린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Talmud Yoma viii. 9)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웃과의 불편했던 모든 관계를 대 속죄일 기도회가 시작되기 전에 해결하는 관례가 있다. 그리고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이 날에 흰옷을 입는다. 적어도 일년에 한 차례씩 하나님과 이웃과의 불화를 화목으로 바꾸고, 원수관계를 화목관계로 바꾸는 유대교의 이 대 속죄일 전통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속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게 한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던 시절에는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자신의 죄, 제사장들의 죄, 온 이스라엘 회중의 죄를 차례로 고백하는 정교한 제사의식을 거행했다. 그리고 나서 흰 아마 옷을 입고, 일 년에 한 차례 바로 이 날에만 들어 갈 수 있는 지성소(至聖所)에 들어가 제물의 피를 뿌리고 분향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를 상징적으로 짊어진 숫염소(속죄염소)를 광야로 몰아내 죽게 하였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성문 밖 골고다에서 죽으신 것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대 속죄일이 끝나고 5일 후인 보름날에 그러니까 설날로부터 15일 후 보름달이 뜬 날 저녁부터 7일간 '숙곳'(Sukkot)라 부르는 추수감사절인 초막절이 시작된다. 초막절은 우리나라의 추석날인 음력 8월 15일부터 21일까지 지켜지며, 윤달인 제2아달월이 있는 달이면 한 달 뒤인 음력 9월 보름에 지키는데, 티쉬리월 15일부터 21일까지 지켜진다.

초막절 첫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숙곳)을 짓고, 과일로 장식하며 식탁과 의자 등을 설치한다. 초막은 대개 천으로 만들며 바닥은 널빤지를 지붕은 나뭇잎과 가지들을 이용한다. 초막을 짓는 이유는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하여 광야(사막)에서 천막생활 하던 것을 상기하며, 초막에 촛불을 켜놓고 절기음식을 먹으며 노래하거나 대화를 나누기 위한 것이다.

초막절을 지키는 주된 이유는 땅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땅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바치는데 있다. 따라서 초막절은 추수축제로 불린다. 초막을 상기하는 것과 추수감사를 하나로 묶어 '기쁨의 시간'으로 표현한다. 계속되는 계절 가운데 수확을 주시는, 또한 조상들로 하여금 역사의 시련 가운데서도 살아남게 하셨던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 진정한 기쁨의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수확을 마치고 먹고 쓸 것이 풍성한 바로 그 순간에 가난하고 힘들었던 때를 회상하고, 가졌을 때 갖지 못한 때를 기억하며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초막절축제이다.

초막절의 첫 이틀과 마지막 날에는 특별한 예배가 거행되며 전통적인 성결의식이 행해진다. 또 각 가정과 회당에서는 매일 아침 간

략한 예식이 행해진다. 오른손에는 버드나무로 연결한 종려가지를 왼손에는 이스라엘 소산의 아름다운 과일인 시트론을 들고 축복서가 낭송되며, 그 후 그것을 동쪽인 전방을 향해서 흔들고, 남쪽인 오른쪽, 서쪽인 뒤쪽, 북쪽인 왼쪽, 그리고 위와 아래에서 각각 흔든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던 시절에는 초막절 날 제단에 제물을 올려 놓고 물을 부었다. 보통은 포도주를 붓지만 이때만큼은 실로암 연못에서 떠온 물을 부었다. 물을 부을 때, 이사야서와 시편의 말씀을 낭송하면서, “풍성한 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유대력으로는 금년)에도 풍성한 비를 주셔서 농사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원했다. 특히 초막절의 마지막 날을 ‘Hoshanah Rabbah’라 부르는데, ‘Hoshanah’는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란 뜻이고, ‘Rabbah’는 ‘큰’이란 뜻이다. 따라서 ‘호산나 라바’는 ‘큰 구원’이란 뜻을 갖는다. 그렇지만 이 날은 ‘심판의 날’ 혹은 하나님의 ‘사죄의 날’ 곧 구원을 위한 ‘통회의 날’로도 알려져 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미 그들이 ‘심판의 날’로 여기는 ‘설날’(Rosh ha-Shanah)부터 ‘대속죄일’(Yom Kippur)까지의 열흘 동안 충분히 회개의 눈물을 흘렸고, 또 생명책이 인봉되는 ‘대속죄일’을 심판의 날로 보기 때문에 초막절 제7일째 날을 ‘심판의 날’로 보는 입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는다.

이스라엘에서는 초막절 때로부터 시작되어 주로 한 겨울에 비가 내린다. 이 기간에 강수량이 얼마만큼이 되는가에 따라서 한 해 농사의 성패가 달려 있다. 그런데 티쉬리월 1일부터 21일까지, 즉 설날인 ‘로쉬 하샤나’로부터 대속죄일인 ‘욘 키프르’를 거쳐 초막절 마지막 날인 ‘호산나 라바’에 이르는 21일 동안에 유대인들이 흘리는 회개의 눈물에 따라 한 해 농사에 필요한 강수량이 결정되는 심판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초막절 마지막 날의 심판은 강수량에 관한 심판의 날이 되는 셈이다. 결국 초막절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풍성한 비를 간구하는 기원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 실로암 연못에서 떠온 물을 계속해서 제단에 붓고 내년에도 풍성한 비를 주실 것을 기원하였다.

이 특별한 날 곧 초막절 마지막 날에, 요한복음 7장 37-39절을 보

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37-38절)고 외치셨다. 성경은 “생수의 강”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39절)고 설명해 놓고 있다.

왜 예수님은 이 큰 축제의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외치셨을까? 추수와 관련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물은 정말 황금보다 귀한 것이었다. 메마른 대지를 적실 수 있는 것은 물이다. 타는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것도 물이다. 자라나는 식물들을 키워낼 수 있는 것도 물이다.

그러나 근원적인 문제에 접근하셨던 우리 예수님은 인생의 추수를 식물의 추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년(유대력으로는 금년) 추수를 결정 짓을 풍성한 비를 비는 기원제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물을 성령 충만의 상징으로 인식하시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외치셨던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했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의식주나 유대교가 채워주지 못한 2프로(퍼센트) 부족을, 다시 말하면, 마시고 또 마시고 아무리 마셔도 해소되지 않는 인간의 갈증을 근원적으로 해결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제시하신 것이다.

또 초막절 때에는 여인의 뜰에 횃불을 밝혔으며 횃불행렬도 있었다. 이 횃불행렬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던 불기둥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른 한편 초막절 때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는 의식은 구름기둥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초막절에 이어서 제8-9일째 날, 곧 22-23일 이틀간 ‘심합 토라’(Simhat Torah)라 불리는 특별한 토라축제를 갖는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제8일째 날은 ‘제8일째 날의 모임’이란 뜻을 가진 ‘쉐미니 알제렛’(Shemini Atzeret)이고, 제9일째 날이 ‘심합 토라’이다.

‘심합 토라’란 말은 “토라 속에서의 기쁨”이란 뜻이다. 유대인들은 일 년에 한차례씩 토라, 곧 모세오경을 완독하게 되는데, 이날이 바

로 그 날인 것이다. 매주 회당예배 때에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여 신명기 34장까지 공개적으로 몇 장씩 읽는다. 심함 토라 때 그 마지막 부분을 읽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즉시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간다. 토라는 일년주기로 읽히는 일종의 사이클(원)이기 때문에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이날 토라읽기를 다 마치면 토라 두루마리 성경을 들고 회당주변을 행진하면서 충만한 기쁨으로 마음껏 노래하고, 토라와 더불어 회당에서 춤도 추고, 와인도 마시며 축하한다. 이 때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토라 두루마리 성경을 운반하는 명예가 주어진다. 이날은 안식일 여부에 관계없이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축일이다.

이밖에도 주전 164년 마카비 전쟁에서 헬라제국 셀류키드 왕조의 박해자 안디옥쿠스 4세를 이기고 예루살렘을 탈환하여 성전을 봉헌했던 날을 기념하는 '하눅카'(Hanukkah)라 불리는 성전봉헌절이 있는데 8일 밤 동안 불을 밝히는 행사를 갖는다. 또 모르드개와 유대인들이 하만의 음모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여 관련 성구들을 읽는 '부림절'(Purim)이 있고, 너무나 잘 아는 '유월절'(Pesah)과 무교절이 있으며, '오순절'(Shavuot)이 있다. 오순절은 유월절 안식일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지켜진다. 이날은 맥추절이기도 하고, 특히 출애굽 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토라'(Torah) 곧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들 축일들 가운데 우리 기독교와 가장 관련이 깊은 축일이 유월절과 오순절이다. 유월절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오순절은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창립된 날이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설날(로쉬 하샤나), 대 속죄일(욘 키푸르), 초막절(숙곳), 토라축제(심함 토라), 성전봉헌절(하눅카), 부림절(푸림), 유월절(페사), 오순절(샤부웃)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의 대다수 축일과 축제는 하나님과 개인, 하나님과 민족이란 신앙의 틀 안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 점이 이방 민족들과 다른 선민의 총족조건이 되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해도 과연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2000년 전 유대인 세계에서는 보통의 유대인들

보다 더 열성적인 유대교인들을 '데카니'라고 불렀는데, 전체 신앙인의 20퍼센트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헌신위에 더 헌신적인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과연 유대인들은 자나 깨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뜻을 배우며, 1000여 개의 계명들을 지키고, 100개 이상의 기도문을 낭송하며 살아왔던 것이다.

나오는 말

이상과 같이 일곱 가지 선민의 조건을 살펴보았다. 비록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아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볼 때) 선민의 자격을 상실했고, 옛 선민의 위치로 전락해버리고 말았고, 세속화의 영향으로 하나님과 유대교를 믿지 않는 세속인이 60퍼센트에 달하고 있지만, 그들의 하나님과 묶여진 계약의 삶은 아직까지도 그들의 신앙과 삶 속에서 그대로 묻어나고 있다. 약속의 땅에 대한 강한 집념, 일 년에 한 차례씩 완독하는 계약의 말씀인 토라읽기와 토라에 대한 사랑, 하루 100개 이상의 베라코트를 낭송하는 기도생활, 지나치리만치 엄격하게 지켜지는 안식일 성수, 기도문이 낭송되는 성소이자 신앙교육이 이뤄지는 가정,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으로 지켜지는 대다수의 축일과 축제들이 과거 수천 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떠돌며 탄압을 받아 1200만 명이 살해되는 엄청난 시련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 아니하고 지탱시킨 또 그들을 그 어떤 다른 민족보다도 더 뛰어나게 만들었던 원동력이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새 언약 공동체의 선민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의 절반만이라도 따라 잡았으면 한다.

참고자료

1. 인터넷 자료

유대교 관련 자료들(Judaism 101, <http://www.jewfaq.org/toc.htm>).

유대인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관한 자료들

(<http://www.jewfaq.org/birth.htm>,

- <http://www.jewfaq.org/barmitz.htm>.
유대학술세미나 자료들(이스라엘 문화원,
<http://www.iscc.co.kr/seminar.asp>).
- 조동호 역. “쉐모네 에스레이.” <http://kccs.pe.kr/jewishcal7.htm>.
조동호 역. “유대교의 예식서.” <http://kccs.pe.kr> →성경연구→신약성경관련.
- 조동호 역. “유대인들에게 대 속죄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http://kccs.pe.kr/jewishcal5.htm>.
- 조동호 역. “유대인들에게 설날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http://kccs.pe.kr/jewishcal4.htm>.
- 조동호 역. “유대인들의 안식일 지키기.”
<http://kccs.pe.kr/jewishcal6.htm>.
- 조동호 역. “유대인의 월력에 대한 설명.”
<http://kccs.pe.kr/jewishcal2.htm>.
- 조동호 역. “유대주의에서의 메시아사상.”
<http://kccs.pe.kr> →성경연구→신약성경관련.
- 조동호 역. “이스라엘의 땅.”
<http://kccs.pe.kr> →성경연구→신약성경관련.
- 조동호 역. “카발라와 유대신비주의.”
<http://kccs.pe.kr> →성경연구→신약성경관련.
- 조동호 역. “할라카: 유대인의 법.”
<http://kccs.pe.kr> →성경연구→신약성경관련.
- 조동호 정리. “유대인들의 기념일(민력).”
<http://kccs.pe.kr/jewishcal.htm>.
- 조동호 정리. “이스라엘의 월력.”
<http://kccs.pe.kr/jewishcal3.htm>.
- 조동호 정리. “이스라엘의 추수축제(초막절).”
<http://kccs.pe.kr/jewishcal8.htm>.
- 조동호 편역. “유대교 안식일법의 39가지 범주들.”
<http://kccs.pe.kr/jewishcal9.htm>.
- 조동호. “유대교의 안식일 개념에 대한 고찰.” <http://kccs.pe.kr> →성경연구→신약성경관련.
- 최명덕. “이스라엘의 가정교육.”
<http://www.iscc.co.kr/seminar/2005sm.asp?select=6>.

2. 단행본 자료

데이빗 C. 그로스. 『1001 Q&A: 유대인을 알고 싶다』 장병길 옮김.
도서출판 살림, 1997.

조철수. 『유대교와 예수』 도서출판 길, 2002.

제3장 유대교의 안식일 개념

Concept of Jewish Sabbath

들어가는 말

전 세계에 유대인이 대략 1천3-4백만 명 정도 된다고 한다. 그 가운데서 5백만 명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고, 5백만 명이 미국에 살고 있다. 이들 가운데 50퍼센트 미만의 사람들이 회당에 나가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 성서시대에는 부계혈통이 유대인 여부를 결정했지만, 지금은 모계혈통만이 유대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방인이라도 유대교에 개종하여 할례 받고 침례 받으면 유대인이 될 수 있다.

이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 개념에 대해서 고찰하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복음서에는 안식일 논쟁에 관한 기사가 다수 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사건(마 12:1-8, 막 2:23-28, 눅 6:1-5),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친 사건(마 12:9-13, 막 3:1-6, 눅 6:6-11), 안식일에 18년간 귀신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을 고친 사건(눅 13:10-17), 안식일에 고창병에 걸린 사람을 고친 사건(눅 14:1-6),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요 5:2-18), 성전에서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선포한 사건(요 7:14-24), 그리고 안식일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친 사건(요 9:1-41)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벌어진 안식일 논쟁이 상당히 뜨거웠고, 이 논쟁은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조차 지속되고 있다.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교회와 예수님의 히브리어 이름인 예슈아(Yeshua)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Messianic Jews)¹⁾이 여전히 안식일 예배를 고집하기 때문이다.

이 안식일 논쟁이 복음서에 상당히 비중 있게 실려 있는 것에 비

1) 전 세계 유대인 1천3-4백만 명 가운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은 대략 2-3만 명이라고 한다. 이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교의 전통과 종교를 실천하면서 나사렛 예수(Yeshua)를 메시아로 믿는 자들이다.

<http://www.menorah.org/mjews.html>.

해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거의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유대인들의 안식일 개념을 심도 있게 고찰하고, 그들의 개념이 예수님이 생각한 안식일 개념과는 어떻게 달랐는지를 기술하려고 하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대교의 39가지 범주의 안식일 법을 소개하려고 한다. 관련 자료는 유대교와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들에 국한하였다.

I. 안식일 개념에 대한 설명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그간 알 수도 없었고, 접할 수도 없었던 많은 유대교 관련 자료들을 유대교 또는 유대인들이 직접 서비스하는 홈페이지들을 이용해서 이제는 얼마든지 그들 관련 자료들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필자는 안식일 관련 자료들을 읽고 공부함으로써 아래와 같이 유대교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 개념을 정리해 보았다.

1. 안식일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출애굽기 20장 8-1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8]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9]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제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칠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십계명 가운데 제4계명인데, 내용은 제칠일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데,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데 24시간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비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계명을 ‘직장에 출근하지 말라.’거나 ‘주중에 진행하던 모든 생업을 중단하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 일이고, 무엇이 일이 아닌가라는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또 다른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일’이란 것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라는 것이다. 이 문제를 놓고 수천 년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다. 환경이 바뀌고 문명이 바뀌면 생활양식도 바뀐다. 이 바뀐 생활패턴에서 부딪치는 새로운 문제들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그들의 행위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인지, 혹은 해도 좋을 일인지를 놓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2.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금지된 일의 범주를 ‘창조행위’(Melacha)에 국한 한다.

태초에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제7일인 안식일에 쉬셨다(창 2:2). 안식일에 창조를 멈추신 것은 천지만물이 다 완성되었고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멈추셨던 것처럼 인간들도 안식일에 모든 창조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출 20:8-11). 안식일에 일을 멈추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다는 사실과 세계가 인간의 개입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안식일에 일을 멈춤으로써 창조주를 진정으로 하나님 되게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 개념은 ‘완성’이다. 세계의 완성, 나의 완성, 하나 됨으로 가는 길(path) 곧 할라카(halacha)²⁾라고 말한다.

2) “유대교는 하나님과 인간과 우주에 관한 교리가 아니다. 유대교는 모든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과 실천들로 가득한 포괄적인 삶의 방식이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먹고 먹을 수 없는가? 무엇을 입을 수 있고 입을 수 없는가? 사업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명절과 안식일은 어떻게 지키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인간과 동물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와 같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실제적인 규정들을 유대교에서는 ‘할라카’라고 한다. ‘할라카’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법’이라고 번역이 된다. 이 용어는 ‘걸어가다, 행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히브리어 동사 ‘할라크’에서 파생되었다.

3. 유대인들은 인간의 창조행위를 39가지의 범주로 규정한다.

성경은 무엇이 “인간의 창조행위”인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성막(Mishkan)을 짓도록 한 출애굽기 31-35장의 명령을 통해서 39가지 범주의 창조행위들을 규정하고 있다. 성막건축은 그 자체가 세계의 축소판이며, 창조행태의 모든 것을 대표한다고 보는 것이다.

4. 유대인들은 성막건축에 필요한 39가지 범주의 창조행위를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의 범주로 간주한다.

유대인들의 구전인 미쉬나(Mishnah, Shabbat 7:2)³⁾에는 성막을 건

할라카는 여러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토라가 규정하고 있는 명령들이 중요한 할라카들이다. 그러나 그 외에도 역사적으로 랍비들이 오랫동안 가르친 내용도 할라카에 속한다. 이 모든 할라카는 동등한 구속력을 지니고 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그 법을 어겼을 때에 따르는 처벌이 무엇인가이다. 즉 랍비들이 가르친 할라카는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령으로써의 할라카보다는 덜 엄격하다. 그리고 랍비들에 의한 할라카는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경시키는 일이 가능하다. <http://www.bibleland.or.kr/judaism/Hal.htm>

3) ‘미쉬나’는 반복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히브리어 동사 ‘샤나’에서 파생되었다. 유대인들의 교육방법은 구전된 율법 내용을 반복하여 학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복’이라는 의미를 지닌 미쉬나는 동시에 ‘가르침’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그 가르침은 유태교의 전통적 규범에 관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전통적 율법’을 의미한다. 따라서 마가복음 7:3-15에 나오는 ‘장로들의 유전’은 곧 미쉬나를 가리킨다.

유태교는 토라(율법)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유태교의 이해는 정확한 토라 이해를 전제하고 있다. 유대인들에게 토라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모세오경에 기록된 ‘성문(成文)토라’이고, 다른 하나는 ‘쓰인 토라’에 대한 실천적 적용을 다루고 있는 ‘구전(口傳)토라’이다. 미쉬나는 랍비 유다 한나시(Rabbi Judah Hannasi, AD 135-219)가 그의 동료들과 함께 3세기 초 티베리아에서 수집하여 편찬한 것이다. 미쉬나는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4세기 동안 구전 형태로 전승된 종교적 혹은 문화적 활동의 유산이다. 유대인의 법과 윤리가 무엇인지를 집합적으로 보여주는 미쉬나는 히브리 성서 다음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미쉬나의 본문에 대한 논쟁이 곧 탈무드의 자료가 되었다는 점에서 미쉬나는 탈무드 형성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탈무드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는 미쉬나 본문을 탈무드에서는 ‘게마라’라고 부른다.

미쉬나는 모두 6개의 항목(Six Orders: Shishah Sedarim)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개의 항목들은 다시 63개의 소단위 항목(63 Tractates; Massekhtot)으로 나뉜다. 각 소단위 항목은 524개의 장(chapter)으로 구성되고, 각 장은 단락(paragraph)으로

축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39가지 창조행위의 범주를 열거해 놓고 있다. 유대인들은 이 39가지 일의 범주에 들어가는 행위들을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들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막을 만드는 39개의 과정에 연관된 일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창조활동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39가지 안식일 법이란 것이 39가지에 국한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사용하는 범주라는 말에 유의해야 한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은 수백 수천 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39가지 범주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다.

5. 유대인들이 말하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은 대략 다음과 같다. 모든 유대인들이 철저히 지키는 것은 아닐지라도⁴⁾ 다음과

이뤄진다. 63개의 소단위 항목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피르케이 아보트”(Chapters of the Fathers; Pirkei Avot)인데, 일반적으로 “Ethics of the Fathers”라는 제목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소단위 항목인 ‘피르케이 아보트’는 미쉬나의 네 번째 항목인 ‘네지킨’(Nezikin)에 속한 것으로써, 그 내용은 조상들(아보트)의 이름으로 언급된 62명의 현자들이 남긴 다양한 형태의 지혜와 도덕적 교훈들이다. 미쉬나가 편찬되기까지 유대인 사회에서는 서기관으로 알려진 ‘소페림’(Soferim)과 ‘타나임’(Tannaim)이라 불리는 유대교의 전문직 선생들이 기원 2세기말까지 5세기 가까운 기간 동안 활약하였다.

미쉬나를 구성하고 있는 6개 큰 단위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Zeraim(씨): 농업을 다루는 규정들로서 모두 11개의 소단위 항목으로 되어 있다.

2. Moed(축제): 이스라엘의 축제와 명절에 관한 내용으로서 모두 12개의 소단위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3. Nashim(여성들): 주로 결혼과 이혼과 맹세와 관련된 7개의 소단위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4. Nezikin(손해): 민법과 형법을 다루는 10개의 소단위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5. Kodashim(성물들): 주로 성전 예배에 관한 내용으로서 모두 11개의 소단위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6. Tohorot(정결들): 의식적 정결과 부정함에 관한 내용으로서 모두 12개의 소단위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http://www.bibleland.or.kr/judaism/Mishnah.htm>

4) 미국에 사는 5백만 유대인들 가운데 50퍼센트,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60퍼센트가 세속인(secular)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회당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다. <http://www.jewfaq.org/judaism.htm>

같은 내용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다.

나뭇가지와 잎을 뽑거나 자르기, 꽃 꺾기, 과일 따기, 채소 또는 나물채취하기, 잔디 깎기, 화초에 물주기를 할 수 없다.

밭 갈기, 씨뿌리기, 과일, 꽃, 나뭇가지 등을 모우기, 타작하기, 알곡 고르기, 과일을 짜서 주스내기, 상한 과일이나 음식, 더러운 그릇 등을 골라내는 것이 금지된다.

뺨기나 찢기, 체질하기, 까불리기, 반죽하는 것이 금지된다.

불 켜기와 끄기, 음식과 물질에 열을 가해 변화를 주는 것이 금지된다.

손발톱 깎기, 털 자르기, 털 뽑기, 머리 빗질도 안 된다. 머리털이 뽑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부드러운 털 빗은 허용된다.

빨래와 샤워도 안 된다. 빨친 머리칼을 단정히 하기 위해서 물을 뿌리는 것만 허용된다. 화장도 안 되고 선텐도 안 된다. 입술에 아무 것도 문질러 바를 수 없다.

바느질도 안 된다. 접착제나 압침 사용도 안 된다. 종이우유팩을 여는 것도 안 된다. 절이기, 소금뿌리기 등의 방부처리도 안 된다.

알파벳 두 자 이상 쓰기, 선긋기도 안 된다. 심지어 글쓰기를 하게 할 어떤 행위도 금지된다. 반대로 알파벳 두 자 이상을 지워서도 안 된다.

절취선이 있는 티슈박스의 개봉이 안 되고, 두루마리휴지를 떼어 낼 수 없다.

쇼핑을 할 수 없고, 전화, 라디오, 텔레비전을 사용할 수 없다.

땅에다 대고 무엇을 짓거나 수리를 해서도 안 되고, 해체도 안 된다.

불을 피우거나 끌 수 없고, 전기스위치를 켜고 끌 수 없다. 자동차의 시동도 걸 수 없다.

구두나 운동화에 새로 끈을 끼우는 것도 안 된다.

악기연주가 금지 된다. 랍비들은 우발적으로 조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래하기와 휘파람 부는 것은 허용된다.

율법은 안식일에 개인영역에서 공공영역으로 혹은 그 반대 방향으

로 물건 옮기기, 운반하기, 던지기, 밀기 등을 금지합니다. 공공영역에서는 대략 2미터 이상 물건을 운반할 수 없다.

단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목숨을 구하는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운전도 할 수 있고, 전화도 쓸 수 있고, 그밖에 행동들도 필요에 따라 할 수 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안식일 법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6. 예수님은 이 안식일 법을 어떻게 이해하셨는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의 의미는 단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만이 아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라는 구체적인 문제이다. 그것이 바로 살림의 일이다. 유대인들의 39가지 범주의 안식일 법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어떤 창조행위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의 의미를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두셨다. 그것 또한 살림의 일이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의 의미를 창조행위 금지에 두고 이것저것 하지 말 것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면, 예수님은 안식일의 의미를 창조행위에 두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질타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

위급상황에서는 생명을 구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따라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양이 빠지면 구해내는 것이 허용된다(마 12:11). 사람은 양보다 훨씬 더 존귀한 존재이다. 수년씩 혹은 수십 년씩 고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안식일에 고친 것이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했고, 이 논쟁은 결국 감정싸움으로 발전하였으며, 결국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질타와 비난 속에서 십자가형을 언도 받으셨다.

최근에 일고 있는 난자 윤리 논쟁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 같다. 엄격한 생명윤리규정을 준수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윤리학자들이 있는가하면, 난치병치료를 앞당기기 위해서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있다. 한쪽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법의 잣대로 강제하려고 하고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예를 들면, 강원용 목사와 같은 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

덩어리의 생명을 존중하는 일”보다는 “난치병으로 골수에 사무치는 슬픔과 고통을 겪고 절망 상태에 빠져 있는 수많은 환자와 그 가족들을 치유하고 돕는 일”이 더 윤리적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다.⁵⁾ 이제 이 논쟁은 MBC가 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연구 성과 자체를 문제 삼고 있어서 감정싸움으로 치닫고 있는 양상이다.

7. 유태인들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기서의 ‘일’을 유태인들이 ‘창조행위’로 본 것이 문제이다. 창조행위는 하나님의 일이다.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행위에는 세 가지 범주의 일들이 있다. 첫째는 어둠이 빛이 되게 하는 것, 둘째는 혼돈이 질서가 되게 하는 것, 셋째는 죽음이 생명이 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과연 이 세 가지 범주의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가라는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범주의 창조행위를 안식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할 살림의 일로 보셨다. 따라서 예수님은 유태인들이 성막건축과 관련된 39가지의 일을 창조행위의 39가지 범주로 보고, 이것들을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의 범주로 확대 해석한 것을 비난하셨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서의 ‘일’은 하나님의 일, 곧 세 가지 범주의 창조행위가 아니라, 인간들의 일, 곧 죽임의 일을 말한다. 빛의 일보다는 어둠의 일, 질서의 일보다는 혼돈의 일, 생명의 일보다는 죽임의 일들을 일삼는 것이 인간들의 일이다. 이런 일들을 안식일 하루만이라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분의 살림의 일을 묵상하고 본받으라는 것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참 뜻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암시하고 계신다. 이 부분이 가장 잘 드러난 장면이 마태복음

5) 동아일보 2005년 12월 1일자. [특별기고/강원웅] “난치병 치유도 ‘생명윤리’다.”

12장 9-13절이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을 때, 거기 말라버린 한 쪽 손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송사하려고 물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이 한 마리 있는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구해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마가복음 4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리고는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셨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하신 말씀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창조행위, 곧 선을 행할 수 없다고 한 주장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주장이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다. 그 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8절). 그러나 이 한 마디는 안식일에 2미터 이상 물건을 운반할 수 없고, 2,000큐빗(900미터 정도) 이상 걸을 수 없다고 생각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창조행위라면 그 창조행위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로 살림의 일을 비난하고 질타하는 유대인들이야말로 참된 안식일의 의미를 왜곡하는 것이다.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본받고, 살림의 일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신다.”고 하셨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21절에 의하면,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시는 것”이다.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아들 예수님도 하신다는 것이다. 이 일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배웠다고 말씀하셨다.

유태교의 제칠일안식일 개념이 기독교에 와서는 제팔일 일요일 곧

주일로 바꿨지만, 안식의 개념은 동일하다고 본다.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일, 죽임의 일들을 많이 한다. 일주일 가운데 단 하루 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 복음의 일, 살림의 일을 행하기도 하고 묵상하고 반성하면서 마음의 평화와 위로를 얻는 것이 참 안식이라 할 수 있다. 빛의 일, 생명의 일, 복음의 일은 적극적으로 행하고, 어둠의 일, 죽임의 일, 세상의 일은 멈추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일인 것이다.

II. 유태교 안식일법의 39가지 범주들

A. 총론 - 멜라카(Melacha)를 구성하는 것들

1. 멜라카(Melacha)

멜라카(Melacha)는 안식일에 금지된 활동의 39개 범주를 말한다. 멜라카는 “일”이 아니다. 적어도 사전적 의미의 “일”은 아니다. 안식일에 바늘을 들고 거리로 나갈 수는 없지만, 방 안에서 무거운 소파를 끌어 옮길 수는 있다. 그렇다면 무슨 멜라카가 안식일에 금지되는가? 안식일에 금지된 활동의 39개 범주는 공통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모든 노동들이다. 그것들은 곧 자기 환경을 통제하는 창조활동들이다. 특히 탈무드는 토라(율법)가 출애굽기에서 미쉬칸(Mishkan, 성막)을 짓는 방법에 관한 상세한 지시들과 출애굽기와 특히 31-35장에 기술된 대로 그것의 구성요소들의 준비와 함께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계명을 관련시켜서 이들 39개의 범주들을 이끌어낸다. 성막을 만드는 39개의 과정에 연관된 일들이 우리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멜라카 곧 창조활동이라고 탈무드(Shabbat 49b)는 설명한다. 그러니까 성막 만드는 39개의 창조행위가 안식일에 금지된 일을 대표하는 범주라는 것이다. 이들 범주들을 토라에서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로 금하고 있다는 것이다.

2. 톨롯(Toldot)

미쉬칸에서 행해진 것과 다른 일이지만 동일한 결과에 도달한 일을 말한다. 이들 형태의 멜라카 역시 토라에서 금하고 있다.

3. 랍비들의 법령

이것들은 랍비들이 금한 많은 수의 추가 활동들을 말한다. 몇 개의 금지법령의 범주들이 있다.

- 1) 토라의 금령을 위반하게 할 소지가 있는 활동들.
- 2) 안식일 사용(muktzah⁶⁾)을 위해서 지정되지 아니한 것들의 사용.
- 3) 금지된 활동이 허용된다고 생각하게 할 만한 활동들.
- 4) 기술적으로는 허용되는 것일지라도 안식일에 적절치 못한 활동들. 선지자 이사야(58:13-14)는 사사로이 말하는 것과 주중에 하던 활동을 금하라고 기록하였다.

4. 멜라코트의 구성

39개의 멜라코트는 다음과 같이 여섯 개의 그룹으로 나뉜다.

- 1) 그룹 1 = 1-11번. 들일에 관련된다.
- 2) 그룹 2 = 12-24번 소재 커튼을 만드는 일에 관련된다.
- 3) 그룹 3 = 25-31번 가죽 커튼을 만드는 일에 관련된다.
- 4) 그룹 4 = 32-33번 크루섬 곧 미쉬칸의 빔에 관련된다.
- 5) 그룹 5 = 34-35번 미쉬칸의 벽을 세우고 눕히는 일에 관련된다.
- 6) 그룹 6 = 36-39번 미쉬칸의 최종 손질에 관련된다.

B. 미쉬나(Shabbat 73a)에 실린 안식일에 금지된 39개의 멜라코트 (Melachot)

1. 조레아(Zoreah) - 씨뿌리기

씨앗 심기, 씨뿌리기, 물주기가 금지된다. 그러나 안식일을 범하는 일은 씨앗이 자랄 수 있는 곳에서만 이뤄진다. 따라서 사막이나 통

6) 무크짜(Muktzah)는 문자적으로 사용할 의도를 갖기 직전에 치우는 것을 말한다.

· 74 · 유태교와 기독교의 관계

행이 빈번한 도로에 떨어진 씨앗이나 닭장의 먹이로 뿌린 씨앗은 조 레아에 해당되지 않는다.

[물주기 방법] 안식일에 물주기가 금지된다. 그러므로 안식일이 되기 전에 자른 꽃들은 물속에 담가두고, 식물에 물을 준다. 만약 안식일이 시작된 후에 누군가가 자른 꽃들을 가져오면, 그것들을 물이 없는 꽃병에 그냥 꽂아둔다. 그렇게 나뒀다가 안식일이 끝난 후에 물을 부어준다.

2. 코레쉬(Chosh) - 밭 갈기

씨앗을 뿌릴 목적으로 밭을 갈거나 골을 파거나 구멍을 내는 것이 금지된다. 만일 잔디정원에 놓인 아주 무거운 의자를 끌어 땅이 파인다면 코레쉬로 간주된다. 그러나 휠체어나 유모차 자국은 허용된다.

3. 코짜이르(Kotzair) - 추수하기(자르기)

땅에서 나서 자라는 것은 무엇이든지간에 가지나 잎 하나도 뽑거나 잘라서는 안 된다. 꽃을 꺾거나 과일을 따거나 채소나 버섯을 채취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포도송이를 따는 것은 허용된다. 포도가 열리는 가지는 생명의 원천인 땅에 뿌리를 박고 자라는 줄기로부터 이미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잔디를 깎지 말아야 하며, 자라는 꽃과 식물을 손으로 다뤄서도 안 되고 나무에 오르거나 매달린 과일의 냄새를 맡는 것도 허락되지 않는다. 단 자라는 꽃은 냄새 맡는 것이 허용된다.

4. 마마이르(M'amair) - 거두기(묶기)

자연에서 생산되는 것을 거두거나 단으로 묶는 것이 금지된다. 홀어진 과일을 모아쌓거나 꽃다발을 쌓거나 무화과 열매를 묶거나 나뭇가지를 모우는 것이 금지된다(민 15:32-36). 그러나 사탕봉지와 같은 가공 생산물을 거두고 묶는 것은 허용된다.

5. 더쉬(Dush) - 타작하기

쥬정으로부터 알곡을 거둘 목적이나 자연 상태에서 원치 않는 것에서 원하는 것을 분리해 낼 목적의 타작이 금지된다. 안식일에 과일을 짜서 주스를 만드는 것도 금지된다. 단 주스를 빨아내거나 주스를 보관할지라도 순수하게 과일 맛을 개선할 의도로 주스를 짜거나 주스를 흡수할 고체위에 직접 짜는 것은 허용된다.

6. 조레흐(Zoreh) - 까부르기

타작한 후 쥬정을 바람에 날려서 알곡을 고르는 행위가 금지된다.

7. 보레르(Borer) - 고르기

손으로 원치 않는 것을 골라내는 행위가 금지된다. 안식일에는 상한 과일이나 음식은 물론이고 더러운 그릇을 골라내는 것조차 금지된다. 그러나 손으로 원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으로부터 고르고(원치 않는 것을 골라내는 것은 안 됨.), 골라낸 것을 즉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예를 들어서 아몬드와 건포도가 섞여 있는 그릇이 있고, 그 그릇에서 건포도를 먹고자 한다면, 반드시 손으로만 골라야 하며, 아몬드는 남기고 건포도만 골라야 하며, 골라낸 즉시 먹어야 한다.

8. 토크인(Tochain) - 빵기

손으로든 도구로든 알곡을 빵거나 찢거나 부수거나 해서 가루로 만드는 것이 금지된다. 생명의 위협이 없는 한 약초를 찢어서도 안 된다. 그러나 땅에서 자른 것들에만 국한된다. 이미 빵아진 것은 다시 빵을 수 있으며, 즉시 사용할 음식이라면 빵는 것이 허용된다. 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빵는 것도 허용된다.

9. 미라케드(Miraked) - 체질하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체나 도구를 이용하여 까불리거나 거르는 것을 금지한다. 보레르(Borer)가 손으로 원치 않는 것을 골라내는 행위를 금한다면, 미라케드(Miraked)는 체나 도구를 이용하여 원치

않는 것을 체질하거나 걸러내는 것을 금한다.

10. 루쉬(Lush) - 반죽하기

가루, 모래, 시멘트 등에 액체(물)를 섞어 반죽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그러나 무교병을 수프에 적시거나 쿠키를 우유에 담그는 것은 허용된다. 이들 음식들은 액체와의 접촉에도 불구하고 분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11. 오펜흐(Ofeh/Bishul) - 굽기

음식물이나 물질에 열을 가해서 변화를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날 것을 먹을 수 있도록 익히거나 벽돌을 굽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만일 익지 않은 음식을 불판에 놓았다면, 음식이 익기 전에 그 냄비를 치워야 한다. 일반적으로 단단한 음식물은 먹을 수 있는 최소량으로 되기까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액체는 열을 받으면 즉각 반응하기 때문에, 형태의 변화가 없고, 단지 데워지는 것에 불과할지라도 금지된다. 여기서 최소의 열은 손을 갔다 댔을 때 뜨거워서 손을 떼는 정도, 곧 만지기에 너무 뜨거운 정도를 말한다.

[요리방법] 안식일에는 물건에 열을 가하여 어떤 형태로든 변화시키는 것을 금한다. 그러므로 안식일 전에 미리 요리를 해서 스토브의 덮개인 블레치(blech)나 슬로우 요리기(slow cooker)를 사용하여 음식의 보온을 유지시킨다. 물도 전기주전자에 담아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스위치를 켜 놓아 따뜻하게 유지시킨다.

12. 고제즈(Gozez) - 털깎기

12번부터 24번까지는 양모소재와 의복을 만드는 과정에 관련된 내용들이다. 미쉬칸의 천뿔개들은 양모로 만들어졌다. 이들 가운데 첫 번째 단계가 동물의 털깎기였다. 따라서 안식일에는 산 짐승이든 죽은 짐승이든 신체에서 자라는 것의 어떤 털도 자르거나 뽑는 것이 금지된다. 따라서 안식일에는 머리를 빗어서는 안 된다. 빗이 머리털을 뽑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신에 부드러운 털 빗을 부드럽게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안식일에 손발톱을 깎거나 자르는 것도 금지

된다. 혈령하거나 죽은 피부를 떼어 내서도 안 된다.

13. 멜라바인(Melabain) - 희게 하기

미쉬칸을 위해서 깎인 양모는 강에서 씻겼다. 희게(표백) 하기는 물에 담그기, 북북 문대기, 짜기의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안식일에는 깨끗이 씻는 활동이 금지된다. 샤워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빨친 머리칼을 단정히 하기 위해서 물을 뿌리는 것은 허용된다.

담그기 - 옷에 묻은 얼룩을 깨끗이 제거하기 위해서 물과 같은 것을 붓거나 뿌릴 수 없다.

북북 문대기 - 얼룩을 씻기 위해서 옷을 접거나 때 묻은 곳을 문질러서도 안 된다. 마른 얼룩을 손톱으로 자국을 내서도 안 된다.

짜기 - 안식일에 옷을 비틀어 짜는 것이 금지된다.

14. 메나훼쯔(Menafetz) - 풀기, 빗질하기

양모를 희게 한 후에는 실을 찾기 위해서 손이나 빗으로 엉킨 털을 빗질한다. 따라서 안식일에는 양모를 빗질하거나 아마 줄기와 같이 촘촘한 소재를 때려서 여러 가닥으로 만드는 것, 또 가발을 빗질하는 것 등이 금지 된다.

15. 쯔바야흐(Tzovayah) - 물들이기

물들인 양모는 커튼을 만드는 데와 미쉬칸을 덮는데 사용되었다. 따라서 색깔을 내거나 소재를 검게 하는 것 등이 금지된다. 화장은 피부에 물을 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화장하는 것이 금지된다. 피부를 태우는 것도 금지된다. 그러나 음식에 색깔을 넣는 것은 먹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허용된다.

16. 토베흐(Toveh) - 실뽑기

안식일에는 새끼줄 꼬듯이 실을 꼬아서는 안 된다.

17. 마이사크(Maisach) - 베틀에 실 걸기

베틀에 수직으로 실을 거는 것을 말한다. 모든 종류의 직조는 물

· 78 · 유태교와 기독교의 관계

론이고, 격자 만들기, 간단한 향아리 거치대 만들기, 바구니 만들기 등이 금지된다.

18. 오세 바이트 바타이 네이린(Oseh Beit Batai Neirin) - 헤들 세팅하기(직조 준비하기)

19. 오레이그(Oraig) - 직조하기

안식일에 옷이 못이나 고리에 걸려 옷감이 물린다든지 실밥이 튀어나온 것을 잡아당기거나 밋밋하게 문지르는 것이 금지된다. 가발 머리를 땅는 것도 금지된다.

20. 포짜이아흐(Potzai'ah) - 실 제거하기

안식일에 베틀에서 직조된 실 가운데 잘못된 부분 또는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거나 완성된 제품을 베틀에서 빼내는 것이 금지 된다.

21. 코사이르(Koshair) - 매듭매기

미쉬칸의 커튼을 만드는 과정에서 청색물감을 들이게 되는데, 이때 하나의 그물에서 끈들을 제거하고 다른 그물에 묶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물을 묶기도 하고 풀기도 하게 된다. 또 꿰매는 작업에서 처음과 나중에 실 끝에 매듭을 묶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의 매듭은 항구적이다. 따라서 안식일에는 항구적이고 나중에라도 그 매듭을 풀 의사가 없는 매듭매기가 금지된다. 그러나 구두매듭이나 장식 매듭에 사용된 나비 모양의 매듭은 대개가 24시간을 넘기지 않기 때문에 허용된다. 다른 한편 매듭을 묶는 상태에서 오랜 기간 두게 되는 경우에는 금지된다. 또 안식일에는 플라스틱 쓰레기 봉투를 끈으로 가볍게 묶지 않고 손으로 감아서 매듭을 만들어 봉하는 것이 금지되며, 케이크 상자와 같은 것을 묶을 때에는 같은 날에 풀 의사가 있더라도 이중매듭이 금지된다.

22. 마티르(Matir) - 매듭풀기

안식일에 매듭매기가 금지된 것은 푸는 것도 금지된다.

23. 토화이크(Tofair) - 바느질하기

바느질은 미쉬칸의 덮개 천을 만들 때 조각들을 잇는데 사용되었다. 따라서 안식일에 바느질이나 잇는 행위가 금지되지만, 처음부터 잇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추들, 지퍼들, 안전핀들, 벨크로 즉 성긴 실코로 서로 달라붙게 된 나일론제의 접착포는 허용된다. 그러나 항구적으로 붙어 있게 할 목적의 접착제나 압착 사용은 금지된다. 접착제가 붙어 있는 일회용 귀저기의 사용은 허용된다.

24. 코레아흐(Ko'reah) - 찢기

찢기는 미쉬칸 커튼에 생긴 좁 나방 구멍을 수선하기 위해서 이뤄지는 행위로서 바느질이나 접착제로 이어진 것이나 하나로 만들어진 것을 두 부분으로 찢거나 분리시키는 행위이다. 따라서 끈이나 실은 바느질이나 접착제로 수선되지 않고 끝부분에 매듭이 만들어져 수선됨으로 허용된다. 옷에 붙은 가격표를 제거하거나 음식포장, 봉태, 냅킨, 의약품, 옷 등의 포장을 제거하는 것도 허용된다. 그러나 접착제로 붙인 종이우유팩을 여는 것은 금지된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우유팩의 양쪽 끝 면을 다 열면 가능하다고 한다.

[화장지 사용하기] 접착제, 바느질, 심지어 절취선을 통해 붙어있는 것들은 안식일에 어떤 목적으로도 떼어낼 수 없다. 그러므로 안식일 전에 화장지를 미리 떼어놓거나 티슈를 사용한다. 절취선이 있는 티슈박스도 안식일에 개봉할 수 없으므로 안식일 전에 개봉해 둔다. 화장지를 필요한 만큼 떼어놓거나 종이 냅킨을 사용한다.

25. 쥘드(Tzud) - 가두기(덧 또는 올가미 설치)

동물의 코너로 몰아 놀라게 하거나 만지는 것이 금지된다. 애완동물의 경우 이미 덧에 갇힌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방안이나 집안으로 몰아넣는 것이 허용된다. 움직임이 느린 애벌레와 같은 곤충도 이미 갇힌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덧에 갇히게 할 수 있고, 벌과 같이 위험한 곤충은 특별히 고안된 장치가 아니면 도구를 사용하여 가둘 수 있다.

26. 쇼체트(Shochet) - 죽이기

가둔 짐승을 죽이는 것은 가죽을 얻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안식일에는 동물이나 흙에서 오는 것들을 죽이는 것이 금지된다.

27. 마프쉬트(Mafshit) - 가죽 벗기기

도살한 동물의 가죽을 벗기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안식일에는 새로 잡은 동물의 가죽을 벗기는 것이 금지된다. 그러나 이미 요리된 짐승가죽이나 닭 껍질 등을 벗기는 것은 허용된다.

28. 마바이드(M'abaid) - 소금치기 및 무두질하기

탈무드(Tractate Shabbat 7:2)의 멜라코트의 목록은 가죽에 소금치기와 무두질하기가 별개의 멜라코트로 되어 있다. 탈무드(Tractate Shabbat 75b)는 이들 두 개가 정말 동일한 멜라카들이라고 진술한다. 또 29번째 멜라카에 선긋기를 삽입함으로써 미쉬나를 수정하고 있다.

무두질은 생가죽을 보존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과정이다. 미쉬칸에 쓸 좋은 가죽을 얻기 위해서 강력한 무두질 용액에 폭 담근다. 소금치기 및 무두질하기는 생가죽에는 물론 마무리된 가죽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안식일에는 가죽 방부제가 든 구두광택제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신선한 생선, 고기, 각종 채소 등을 절이거나 소금뿌리는 등의 방부처리가 금지된다. 그러나 이미 절인 것을 떼었다 넣는 것은 허용된다.

29. 메샤르테이트(Mesharteit) - 선긋기, 표시하기

무두질한 가죽을 재단하기 위해서 선을 긋거나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안식일에는 음식을 제외하고는 피부, 손톱, 양가죽, 종이, 나무 등에 선을 긋거나 표시하는 것이 금지된다. 글씨를 똑바로 쓰기 위해서 편지지에 선을 긋는 것도 금지된다.

30. 메마체이크(Memacheik) - 매끄럽게 하기 및 구김살 펴기

미쉬칸의 벽을 세우는데 쓸 가죽들에서 털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나무나 가죽처럼 단단한 표면에 사포질을 하거나 매끄럽게 하는 것이 금지된다. 왁스, 크림, 연고 등의 표면을 매끄럽게 문지르는 것도 금지된다. 피부에 크림을 찍어 누르는 것은 허용되지만, 문질러 바르는 것은 금지된다. 음식물은 허용되지만, 터진 입술에 버터를 문질러 바르는 것처럼 먹는 것이 아닌 방법으로 문지르는 행위는 금지된다.

31. 메차테이크(Mechateich) - 재단하여 자르기

미쉬칸에 쓸 가죽을 재단하여 자르는 것을 말한다. 안식일에 물고기나 케이크와 같은 음식물을 원하는 크기로 자르는 것은 허용된다. 설탕, 소금, 커피, 겨자 등의 봉지에 개봉을 위한 절취선이 있는 데, 개봉하는 목적이 기술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깔끔하게 개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속의 식품을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허용된다. 하지만, 티슈의 경우는 깔끔한 개봉을 위해서 절취선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개봉이 금지된다. 메차테이크는 재단하여 자르는 모든 재료에 적용되지만, 24번 코레아흐는 그렇지 않다.

32. 코타이브(Kotaiiv) - 알파벳 두 자 이상쓰기

미쉬칸의 벽 판자들은 미쉬칸을 설치할 때 짝 맞춰 세우는 작업을 용이케 하기 위해서 글자들이 새겨졌다. 이것은 종종 단순히 글쓰기가 아니라 의미 있는 형상을 창조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그런데 그때 사용된 글자가 두자 이내였다. 따라서 안식일에 그림그리기, 나무에 식각(蝕刻)하기, 옷감에 수놓기를 그 이상 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창유리에 손가락으로 자기 이름을 쓰는 것도 금지된다. 심지어 글쓰기를 하게 할 어떤 행위도 금지된다. 따라서 안식일에는 상거래나 점수를 따져야 하는 게임이, 비록 기록할 의사가 실제로 없더라도, 어렵게 된다.

[쓰기/지우기/편지 찢기] 안식일에 쓰는 것, 그리는 것, 지우는 것, 심지어 봉투 속에 든 편지들을 찢는 것을 피해야 한다. 펜들, 연필들, 지우개들 등은 무크짜에 속하므로 미리 치워둔다. 그러면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게 된다. 안식일에 사용되어야 할 어떤 포장들이나 병뚜껑들은 미리 열려 있어야 한다. (혹은 안식일에 조심스럽게 열려야 한다.) 어떤 편지들도 찢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크짜(Muktzah)는 문자적으로 사용할 의도를 갖기 직전에 치우는 것을 뜻한다.

[돈 취급하기] 안식일에 쇼핑과 같은 주중의 활동을 피한다. 그래서 안식일에 돈은 무크짜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지갑이나 손가방 또는 잔돈을 치운다.

33. 모차이크(Mochaik) - 알파벳 두 자 이상 지우기

미쉬칸을 세우는 자들이 실수로 잘못된 글자를 판자에 썼을 경우 이를 고치기 위해서 지우게 될 것이다. 이 창조행위는 의미 있는 형상들을 지우는 것으로써 정의 된다. 율법은 글씨가 쓰인 표면을 깨끗하게 지우거나 글자나 알파벳을 지우는 것을 금한다. 이 원칙은 지우지 않고 찍어내는 것과 같이 비전통적인 지우기 방식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안식일에 글자가 있는 포장을 개봉할 때, 글자가 있는 케이크를 자를 때, 글자가 잘리거나 벗겨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그러나 오직 글자(알파벳)에만 적용되고 낱말을 제거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글자가 있는 과자(비스킷)처럼 반죽에 새겨진 글자들은 글씨로 간주되지 않는다.

34. 보네흐(Boneh) - 건축하기

안식일에 땅에 붙여서 무엇인가를 짓거나 땅에 이미 세워진 무엇인가에 덧대는 행위를 금한다. 이와 관련된 일들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금지된다. 예를 들어서 땅에 무엇인가를 짓거나 수리하는 것, 집안에서나 마당에서 구멍 뚫는 작은 행위조차 금지된다.

35. 소이세르(Soiser) - 허물기

소이세르(Soiser)는 보네흐(Boneh)의 반대과정이다. 광야에서 성막은 이동에 따라 세우고 해체되는 과정이 반복되었는데, 해체의 목적은 재조립을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안식일에 재조립을 위한 해체는 금지된다. 심지어 재조립여부에 관계없이 해체행위가 금지되기도 한

다. 그러나 먹기 위해서 또는 먹는 동안 과자와 같은 음식물을 부서 뜨리는 것은 허용된다.

36. 메차베흐(Mechabeh) - 불끄기

37. 마아비르(Ma'avir) - 불 지피기

불은 미쉬칸 건설 때 물감을 끓이는데 사용되었다. 따라서 불을 끄고 켜는 것이 금지된다. 안식일에 전기 스위치를 켜고 끄는 행위나 자동차의 시동을 켜고 끄는 행위가 금지된다.

[등 켜기]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등을 켜놓고 또 어떤 등을 꺼놓을 건지를 결정한다. 화장실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곳에는 꺼놓기를 원하는 등의 스위치에 테이핑을 해놓으면 도움이 된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부주의하여 불을 켜거나 끄지 않게 된다. (한밤중에 잠이 덜 깬 상태에서 화장실을 오고가다보면 종종 자기도 모른 새에 스위치를 건들 수 있다.) 센서 등을 설치하거나 안식일 내내 자동으로 등불이 켜지거나 꺼질 수 있도록 타이머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타이머를 미리 조정해 놓으면 된다.

[운전하기] 안식일에는 불을 피우거나 끌 수 없다. 운전하기는 자동차 엔진에 스파크를 일으켜 연료를 태워야하기 때문에 불 피우기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안식일에는 도보를 이용한다. 그냥 평범하게 걷는 것보다 더 좋은 느낌은 없다. 걷는 것은 완전하게 속도를 줄이는 것이며, 생각하며, 주변을 둘러보며, 숨을 쉴 시간을 주는 것이다. 걷는 것은 우리가 자동차에 의존해 살면서 잃어버린 것들을 놀랍게 찾아준다. 어디든 달려가야 하는 것을 끊어버리는 것을 즐기며, 존재 자체를 즐긴다. 만일 회당이 멀어서 정말 걷기가 어려우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인 금요일 오후에 자동차로 그곳에 가서 토요일 저녁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주차해 놓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하면, 금요일 저녁 돌아오는 길에 한번만 걸어도 된다. 낮 동안에는 회당을 가고 오며 걷는 것이 즐거움일 듯싶다. 회당 근처에 사는 친구들이나 이웃들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거나 중도에서 그들과 만나거나 안식일 오후에 공원에서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한다.

38. 마케흐 브파티쉬(Makeh B'Patish) - 마지막 망치질하기

이 창조행위는 미쉬칸의 빔을 세우는데 뿌리를 두고 있다. 이때의 빔은 금을 입힌 나무기둥을 말하며, 금박은 망치로 금 못에 박혀 고정되었고, 최종 망치질로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창조행위는 망치질로 이뤄진 일에 기원을 두고 있지만, 어떤 완성도 금지된다. 그러니까 과정에서 일어나는 행위보다는 어떤 행위의 결과를 문제 삼는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처음으로 구두에 끈을 끼우는 것이 금지된다. 그러나 물건이 본래 있던 대로 환원시키는 것은 허용된다. 예를 들면, 목걸이에 매단 펜던트가 떨어졌을 때 다시 고정시킬 수 있다. 구두에서 빠져나온 구두끈을 다시 끼울 수도 있다. 그러나 안식일에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금지된다. 랍비들은 사람들이 악기를 연주하거나 우발적으로 조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금지시켰다. 그러나 노래하거나 휘파람을 부는 것은 허용된다.

[전화하기] 안식일에 해머의 마지막 망치질 같이 순환완결을 포함한 일들을 완결시키는 것을 금하고 있다. 전화는 이 범주에 속한다. 라디오, 텔레비전, 그리고 모든 전기도 마찬가지이다. 드러난 대로 그것은 안식일의 가장 유쾌한 측면들 가운데 하나를 준비하는 분야일 수도 있다. 도달하고 싶은 평화의 섬은 오로지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아름다운 침묵을 통하여 이뤄질 수 있다. 그러므로 가족과 친구들에게 안식일에는 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준다. 사람들은 토요일 저녁까지 기다렸다가 전화를 사용해야한다는 것을 언제나 재빨리 이해할 뿐 아니라 수월케 참아낸다. 유쾌한 안식일 분위기를 정말 원한다면, 전화코드를 뽑아놓는다. 그래야 벨소리로 인한 방해받지 않을 것이다.

39. 호짜야흐(Hotza'ah) - 운반하기

율법은 안식일에 개인영역에서 공공영역으로 혹은 그 반대 방향으로 물건을 옮기기, 운반하기, 던지기, 밀기 등을 금지한다. 공공영역의 한 장소에서 대략 2미터 이상 물건을 운반할 수 없다.

나오는 말

들어가는 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관련 자료들은 유대교 또는 유대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들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에 국한하였다. 이와 관련된 서적들을 구하기가 어렵고, 접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 자료들은 신뢰성이 충분히 확보된 것들이란 점에서 유대인들의 안식일 개념을 연구하는데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것들이기도 하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 개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되었다.

첫째, 안식일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둘째, 안식일에 금지된 일의 범주를 '창조행위'(Melacha)에 국한한다.

셋째, 인간의 창조행위를 39가지 범주로 규정한다.

넷째, 성막건축에 필요한 39가지 범주의 창조행위를 안식일에 절대해서는 안 될 일의 범주로 간주한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의 의미는 단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만이 아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라는 구체적인 문제이다. 그것이 바로 살림의 일이다. 유대인들의 39가지 범주의 안식일 법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어떤 창조행위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의 의미를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두셨다. 그것 또한 살림의 일이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의 의미를 창조행위 금지에 두고 이것저것 하지 말 것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면, 예수님은 안식일의 의미를 창조행위에 두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질타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기서의 ‘일’을 유대인들이 ‘창조행위’로 본 것이 문제였다. 창조행위는 하나님의 일이다.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행위에는 세 가지 범주의 일들이 있다. 첫째는 어둠이 빛이 되게 하는 것, 둘째는 혼돈이 질서가 되게 하는 것, 셋째는 죽음이 생명이 되게 하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과연 이 세 가지 범주의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가라는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범주의 창조행위를 안식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할 살림의 일로 보셨다. 따라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성막건축과 관련된 39가지의 일을 창조행위의 39가지 범주로 보고, 이것들을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의 범주로 확대 해석한 것을 비난하셨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서의 ‘일’은 하나님의 일, 곧 세 가지 범주의 창조행위가 아니라, 인간들의 일, 곧 죽임의 일을 말한다. 빛의 일보다는 어둠의 일, 질서의 일보다는 혼돈의 일, 생명의 일보다는 죽임의 일들을 일삼는 것이 인간들의 일이다. 이런 일들을 안식일 하루만이라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분의 살림의 일을 묵상하고 본받으라는 것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참 뜻이라고 예수님은 행동으로 가르치셨다.

참고자료

<http://www.torahtots.com/torah/39melachot.htm#1>

<http://www.aish.com/shabbat/>

<http://www.jewfaq.org/toc.htm>

<http://www.menorah.org/mjews.html>

<http://www.bibleland.or.kr/judaism/Hal.htm>

<http://www.bibleland.or.kr/judaism/Mishnah.htm>

제4장 유대교인들의 음식법에 관한 고찰

A Study on Jewish Dietary Laws

들어가는 말

‘유대인들의 음식법에 관한 고찰’은 크게 세 가지 물음에 대해 해답을 얻으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들 물음들은 유대교인들의 ‘식사전 손씻기법,’ ‘카샤룻 음식법,’ 그리고 ‘그릇 씻기법’에 대한 것들이다.

첫째, 마가복음 7장 1-23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펼치는 장면이 나온다. 2절에 보면, 논쟁의 발단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데 있다. 3절에 보면, 음식을 먹기 전에 손 씻는 행위를 ‘장로들의 유전’이라 부르고 있다. 이 ‘장로들의 유전’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손을 씻지 않으면 먹지 않았다는 설명까지 덧붙이고 있다. 유대교인들은 실제로 손을 어떻게 씻어야 했는가?

둘째,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의 식탁교제를 꺼려했다. 사도행전 10장 9-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보내고자 하실 때, 환상으로 네 발 달린 온갖 짐승들과 땅에 기어 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을 골고루 보여주시고, 잡아먹으라고 하셨다. 그때 베드로는 “속되고 부정한 것”을 한 번도 먹은 일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왜 베드로는 “속되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는가? 또 사도행전 11장 2-3절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방문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은 일에 대해서 크게 힐난했다는 설명이 나온다. 왜 유대인들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음식을 먹은 것에 대해서 힐난하였는가? 또 갈라디아서 2장 11-14절을 보면, 베드로가 바울에게 책망당한 일을 기록하고 있다.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을 보고 그들을 두려워하여 자리를 피했고, 남은 유대인들도 베드로를 따라 자리를 피했

으며, 바나바까지도 자리를 피하는 외식을 행하였다는 것이다. 왜 베드로는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먹다가 자리를 피해야 했는가? 또 마태복음 9장 9-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 잡수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제자들에게 힐난하며 물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하였는가?

셋째,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들은 그릇을 신경 써서 씻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릇 씻는 문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제기했던 문제들 가운데 한 가지였다. 마가복음 7장 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했다.”고 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닢그릇을 씻음이라.”고 했다. 또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고 하였다. 유대인들은 무엇 때문에 신경 써서 그릇들을 씻고 있었는가?

1. 유대교인들의 식사전 손씻기법

A. 손씻기법

유대인들의 식사 전 손씻기법은 다음과 같이 20여 가지에 이른다.¹⁾

1. 축복기도문 ‘하모찌’(Hamotzi)²⁾가 들려진 빵을 먹기 전에 반드시 먼저 손을 씻어야한다. 달걀크기와 그 보다 큰 빵이면 손을 씻기 위한 축복기도문이 반드시 낭송되어야한다. 달걀보다 작은 빵이면 축복기도문을 낭송할 필요가 없다.

2. 손을 씻기 위한 물은 구멍이 뚫리거나 금가지 않은 온전한 그

1) “Washing the Hands Before Meals”(http://www.ok.org/Content.asp?ID=126).

2) “복 받으시옵소서. 주 우리의 하나님, 우주의 주재시여, 당신은 지상에서 빵을 생산하시나이다.”

릇에 담아 손에 부어져야한다. 또 움푹 들어간 부분이나 돌출된 부분이 없이 상단부가 고르게 높이를 유지해야한다. 주둥이가 있는 그릇일 경우, 주둥이로 물을 부어서는 안 된다. 주둥이는 액체를 담는 적절한 그릇의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액체를 담는 그릇의 가장자리를 통해서 물을 부어야한다.

3. 처음부터 바닥에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릇이 그릇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런 용도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 예를 들면, 뚜껑에 물을 담아서 씻어서는 안 된다. 이것에 관해서는 ‘술한 아루흐’(Shulhan Aruh)에 많은 다른 의견들이 있다.

4. 손 씻기에 요구되는 정확한 물의 양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므로 손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한다. 라비 히스다(Hisda)가 말하기를, “나는 두 손 가득한 물로 씻는다. 그리고 두 손 가득한 선함이 내게 주어진다”(Shabbat 62b). 유대인들은 오른손을 먼저 씻고 나서 왼손을 씻는다. 물이 손 전체, 곧 손목에까지 닿아야 한다. 물로 씻기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물이 손가락들의 구석구석 흘러갈 수 있도록 손가락들을 살짝 벌려야 하고, 약간 위쪽으로 쳐들어야한다. 또 물이 손톱들과 모든 손가락의 둘레까지 적시게 부어야한다. 손 전체가 한 번의 쏟아 붓는 물에 적셔야한다. 따라서 아귀가 좁아서 물이 한꺼번에 시원하게 쏟아질 수 없는 그릇으로 손을 씻어서는 안 된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각각의 손에 물을 두 번 붓는 것이다.

5. 양손을 씻은 후에 양손을 비빈다. 그러고는 “너희의 손을 들라”는 시편 134편 2절의 말씀처럼 두 손을 뻗어 쳐든다. 그리고 나서 물기를 말리기 전에 다음과 같은 축복기도문을 낭송한다. “복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당신의 계명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였고, 손 씻는 것에 대해서 저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의 제8장 8섹션에서 진술된 대로 축복기도문은 가르침을 이행하기 전에 모든 다른 경우에서도 낭송되어야 하지만, 손을 씻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람의 손들이 때때로 불결하기 때문에 축복기도문이 씻은 후에 낭송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으로 제정되었다. 게다가 손을 말리는 것 또한 가르침을 이행하는 일부분이다.) 각

각의 손에 두 번 물을 붓는 것이 관행인 사람은 각각의 손에 한 번씩 먼저 물을 붓고, 손을 비비고, 축복기도문을 낭송하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물을 부어야한다. 양손을 철저히 말리는 것에 조심해야한다. 입고 있는 셔츠에 손을 말려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억에 유해하기 때문이다.

6. 만일에 한 손에 물을 부은 후에 다른 손이나 다른 사람의 손에 닿았다면, 손에 묻은 물은 접촉에 의해서 오염되어진 것이다. 따라서 손을 완전히 말린 후에 다시 씻어야한다. 그러나 접촉이 축복기도문을 낭송한 후에 일어났다면, 축복기도문을 다시 낭송할 필요는 없다.

7. 만일에 물을 담을 그릇이 없다면, 흐르는 물이나 여성침례의식용 물탱크나 우물 속에 두 손을 담가도 된다. 그 속에 40세아(seahs)³⁾의 물이 없더라도 두 손이 단번에 잠길 수 있는 충분한 물이 있다면, 축복기도문, '알 네티라트 야다웸'(Al Netilat Yadayim)⁴⁾을 낭송할 수 있다. 급한 상황에서는 여성침례의식용 탱크에 요구된 40세아(seahs)의 물을 만들 만한 양의 눈이 땅에 있다면, 두 손을 눈 속에 담가도 된다. 펌프 물로 손을 씻는다면, 한 손을 땅에 놓고, 다른 손으로 펌프질하거나 누군가 다른 사람이 펌프질해야한다. 두 손이 다 땅보다 높은 곳에 있으면 펌프 물로 씻는 것은 무효가 된다.

8. 만약 장소 때문이거나 무언가가 그 속에 떨어져서 물색깔이 변색되었다면, 그 물은 손을 씻는 의식용 물로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만약 물색깔이 자연적인 이유로 물이 변색되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3) 대략 282리터.

4) "복 받으시옵소서. 하쎌, 우리의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당신은 우리를 당신의 계명으로 거룩케 하였고, 우리의 손을 씻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손을 씻는 것은 불결함과 더러움을 제거하고, 영적인 청결함을 회복하는 것을 상징한다. 그것은 2000년 전 제사장이 매일의 의식을 시작하기 전에 그의 손을 씻도록 한 성전에 배를 생각나게 한다(Shemot 30:20). 제사장이 손을 씻는 것은 성별의 행위이다. 유대인들은 제사장의 행위를 열심히 따라하는 것이다. '손 씻기'란 말은 히브리어로 '로 케쯔 야다웸'(rochetz yadayim)이지만, 기도문에서는 대신에 '알 네티라트 야다웸'(Al Netilat Yadayim)이라고 낭송한다. 문자적으로 "두 손을 들어 올림"이란 뜻이다. 두 손을 높이 쳐드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의 수행에서 더 고상한 행위들을 위해 성별되어지는 것을 상징한다. 유대인들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으로 손을 씻는다.

다. 그릇을 씻었거나 채소를 담갔거나 그 속에 마실 것들을 차게 하기 위해서 담은 용기를 놓았거나 양을 재기 위해서 놓았던 그릇을 놓았던 물, 곧 변색됐거나 다른 용도로 일단 한번 사용된 물은 그것이 무엇에 의한 것이든지 간에 손을 씻는 의식용 물로 적합하지 않다. 어떤 권위자들은 역겹게 된 물, 예를 들면, 개나 돼지가 마셨던 물은 더러운 물로 간주된다. 그리고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

9. 손을 씻기 전에 물을 만진다 해도 물은 더럽게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화장실을 나올 때, 세숫대야를 놓은 상태에서 그것으로 손을 씻기 위해서 통에서 물을 떠 담을 수 있다. 그리고 남은 물은 식사 전에 손을 씻는데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손을 씻기 위해서 물속에 손을 담갔거나 심지어 작은 손가락 하나라도 그것을 씻기 위해서 물속에 담갔다면, 그 물은 손을 씻는 의식용 물로써 적합하지 않게 된다. 이미 그 물로 무언가 일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10. 소금물, 오염된 물, 쓰거나 탁한 물, 개가 마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물은 식사 전 손을 씻는 의식용 물로 적합하지 않다.

11. 손을 씻기 전에 손을 덮고 있는 것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손들을 살펴봐야 한다. 손과 물 사이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손톱이 자랐을 때는 손톱에 낀 때나 흠먼지를 제거하고 청결히 해야 한다. 또한 손을 씻기 전에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야 한다.

12. 손에 물감으로 물들었고, 손에 물감찌꺼기가 남아있지 않다면, 장애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나 아주 작은 양의 물감찌꺼기라도 손에 남아있다면 장애물로 간주된다. 페인트업자나 정육업자의 손에 피가 묻었거나 서기관의 손에 잉크가 묻었을 때, 그 같은 것이 일상적이고, 동일한 직종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면, 그것이 손의 큰 부분을 덮고 있지 않는 한 장애물로 간주되지 않는다. 손에 멍이 들었거나 깃스를 했을 경우, 그것을 제거하게 되면 고통이 따르는 경우에는 장애물로 간주되지 않는다.

13. 물은 손의 힘으로 붓는 것이라야지, 저절로 흘러나오는 물은 손을 씻는 의식용으로 적합하지 않다. 물구멍이 있는 통의 물마개를 빼고 나서 첫 번에 쏟아지는 물은 손의 힘으로 붓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 그러나 그로부터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물은 저절로 흘러나오는 물로 간주되어 적합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물구멍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로 손을 씻기를 원한다면, 첫 번에 쏟아지는 물에 손 전체를 적시도록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같은 통의 물로 손을 씻기를 원한다면, 물구멍을 마개로 막았다가 열어서 첫 번에 쏟아지는 물에 손을 적어야 한다. 만약 쏟아지는 물의 양을 판단할 수 없다면 이런 방법으로 손을 씻지 말아야 한다. 두말할 것도 없이 물구멍이 작거나 쏟아지는 물의 양이 충분치 않아서 손 전체를 적실 수 없다면, 이 물통에서 나오는 물로는 손을 씻지 말아야 한다.

14. 먼저 손을 씻지 않고서는 먹는 것이 금지된다. 두 손을 천으로 감쌌다하더라도 안 된다. 만일 여행 중인 사람이 물을 갖지 않았으나 진행방향 6.5킬로미터, 지나온 방향 1.6킬로미터 이내에서 물을 구할 수 있다면, 먹기 전에 손을 씻기 위해서 그곳까지 가야 한다. 그러나 만약 진행방향 6.5킬로미터, 지나온 방향 1.6킬로미터 이내에서 물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단체여행중이어서 동행과 떨어질 수 없는 상황이거나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손을 씻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면, 천으로 손을 싸거나 장갑을 끼고 음식을 먹을 수 있다.

15. 음식을 앞에 놓고 화장실에 다녀온 사람은 손을 씻고 축복기도문, ‘아쉐르 야짜르’(Asher Yatzar)⁵⁾를 낭송해야 한다. 그리고 또 식사를 위해서 손을 씻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들이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해야 할 적절한 일은 식사 전 손 씻기에 미치지 못하는 방법으로 먼저 손을 씻는 것이다. 방법은 한 손바닥에 물을 조금 붓고 그것으로 양손을 비벼야 한다. 그리고 나서 양손을

5) “복 받으시옵소서. 하쎬, 우리의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당신께서는 지성을 가진 인간을 지으셨고, 그의 속에 많은 열린 기관과 많은 뚫린 기관들을 만드셨 습니다. 만일 이것들 가운데 하나가 열리거나 혹은 이것들 가운데 하나가 봉쇄된다 면, 당신 앞에서 (한 시간만이라도) 살아남아 서있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당신의 명예로운 보좌 앞에 드러나 있고 밝혀져 있습니다. 복 받으시옵소서. 하쎬이시여, 당신은 모든 육을 치유하시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아쉐르 야짜르’(Asher Yatzar)는 2천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기도문으로써 건강을 주시는 하쎬께 드리는 감사기도이다. 화장실에 다녀온 후에도 낭송한다.

잘 말린 후에 축복기도문, ‘아쉐르 야짜르’(Asher Yatzar)를 낭송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식사 전 씻기에 대해서 기술한 대로 손을 씻고, 축복기도문, ‘알 네티라트 야다웬’(Al Netilat Yadayim)을 낭송한다.

16. 만약 식사 중에 보통은 옷으로 가려져 있는 신체의 일부를 만졌거나 이마를 긁었거나 소변을 보았으면, 축복기도문 낭송 없이 반드시 다시 손을 씻어야 한다. 심지어 식사 중에 배변을 했을 때에도 축복기도문, ‘알 네티라트 야다웬’(Al Netilat Yadayim) 낭송 없이 손을 씻도록 되어 있다.

17. 만약 액체에 담갔던 음식을 먹거나 액체를 음식 위에 부었다면, 액체가 있는 음식부분을 만지지 않았더라도, 축복기도문, ‘알 네티라트 야다웬’(Al Netilat Yadayim) 낭송 없이 먼저 손을 씻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관대하게 처리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것을 엄격하게 한다.

18. 위의 법과 관련된 액체들에는 일곱 가지가 있다. 포도주식초를 포함해서 포도주, 벌꿀, 올리브오일, 유장(乳漿)⁶⁾을 포함해서 우유, 이슬, 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소와 동물과 가금류의 피, 그리고 물이 그것들이다. 다른 과일 주스들, 심지어 과일을 짜서 음료수를 만드는 곳에서조차 언급된 일곱 가지처럼 액체로 간주되지 않는다.

19. 설탕은 액체가 아니기 때문에 설탕에 쥬 과일들은 손 씻기 의식에 해당되지 않는다. 과일즙도 과일주스이기 때문에 액체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나 꿀에 쥬 과일은, 꿀이 잘 응고되기 때문에 더 이상 액체로 간주되지 않고 단단한 음식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손 씻기가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꿀이 응고되지 않아 조금 돼지긴 했지만 여전히 액체인 경우에는 손 씻기가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우유에 포함된 버터는 액체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일 지라도 응고되었다가 녹으면 액체이다.

20. 일반적으로 스푼이나 포크 없이 먹게 되는 음식은 스푼이나 포크로 먹는다 해도 손 씻기가 요구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스푼이나 포크로 먹게 되는 음식은,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스푼이나 포크

6) 치즈제조 후 분리되는 수용액.

로만 먹게 되는 곳에서는 팬케이크나 꿀에 젖 과일 또한 손 씻기가 요구되지 않는다.

21. 물로 형성된 모든 물질은 물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물은 굳어졌더라도 여전히 액체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약 무나 혹은 그와 비슷한 어떤 것을 소금에 찍는다면, 손을 씻어야 한다. 옥수수나 과일로 만든 브랜디는 법에 따라 액체로 간주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옥수수나 과일의 증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량의 물을 포함하고 있고, 게다가 소량의 물이 혼합되어 있지만, 그 양이 극히 미미하고, 그것에 무엇인가를 찍어서 먹는다면, 손을 씻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포도의 알갱이와 껍질 혹은 술 찌꺼기로 만든 위스키는 명백하게 액체로 간주되어야 한다.

B. 예수님의 반응

예수님은 유태인들이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관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셨다.

첫째,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위생의 문제이지 성결의 문제가 아니란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유태인들의 손 씻기는 손에 물을 부어서 흘러내리는 수준이었지 더러움을 씻는 데 있지 않았다. 따라서 종교의식으로써의 손 씻기는 위생의 문제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

둘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육신의 문제이지, 영적인 문제가 아니란 것이다. 유태인들의 손 씻기는 영적인 청결회복을 상징하는 것이었지, 실제로 영적인 청결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었다. 사람을 영적으로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수와 음탕과 흘기는 눈과 훼방과 교만과 광패와 같은 것들이라고 하셨다. 또 유태인들의 형편을 가장 정확하게 지적하신 말씀이 “회칠한 무덤”(마 23:27)이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시체 썩는 악취가 진동했던 것이다. 정작 씻어야 할 것은 마음이었지 손이 아니었던 것이다.

셋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지 사람의 유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것이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막 7:13)고 하셨다. 그러므로 헛된 경배라고 하셨다(막 7:7).

C. 유대인들의 문제점

손을 씻고 나서 낭송하는 기도문들은 그 역사가 2천년이나 된다. 손을 씻는 것은 불결함과 더러움을 제거하고, 영적인 청결함을 회복하는 것을 상징한다. 그것은 2000년 전 제사장이 매일의 의식을 시작하기 전에 그의 손을 씻도록 한 성전예배와 관련이 있다. 제사장이 손을 씻는 것은 성별의 행위였다. 유대인들은 제사장의 행위를 본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유대인들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 대한 존경심에서 손을 씻는다고 한다. 이토록 하나님께 깊은 존경심을 표하고, 손을 씻어 성별되기를 바라는 유대인들에게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는가? 이렇게 엄격하게 율법적으로 사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외식하는 자”라고 하셨고, 8절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다.”고 하셨으며, 13절에서는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기에,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이런 엄청난 독설을 들어야했는가?

첫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본질문제에 접근하신 예수님은 외적인 허례허식에 매달리는 유대인들의 문제가 신앙심의 자만과 우월감에 있다는 것을 간파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치부하여 일체의 접촉을 꺼렸고, 가난한 사람과 소외된 사람들을 죄인취급하고 멸시함으로써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실패하였다. 겉껍데기 사슬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현실을 눈이 있어도 직시하지 못했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으며, 머리가 있어도 깨닫지 못했고, 가슴이 있어도 느끼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지적하셨듯이 그들은 랍비들이 만든 율법에 매여서 의(justice)와 인(mercy)과 신(faithfulness)을 버렸던 것이다.

둘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오경에 기록된 율법 이외에

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로써 주신 구전(口傳) 율법이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유대교에서는 성경의 율법은 원리만을 가르치기 때문에 세세하고 복잡한 현실 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상세한 규범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바벨론 유배이후부터 유명한 유대 랍비들이 고대의 전승(傳承) 자료들을 중심으로 하여 세세한 생활 규범들을 정비하여 집성(集成)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遺傳)이었다. 이 가운데 정결에 관한 법은 미쉬나의 6개 항목들 가운데 여섯 번째에 실린 '토호롯'(Tohorot)인데, 의식적 정결과 부정함에 관한 내용으로써 모두 12개의 소단위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손 씻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셋째, 장로들의 유전은 외형상으로 볼 때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명과 동일한 수준에 놓으려 했다는 점과 율법의 목적과 정신은 외면한 채, 법규를 지나치게 상세히 규정해 놓음으로써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justice)와 인(mercy)과 신(faithfulness)은 버리고, 신앙심의 자만과 우월감만을 자극했다는 점에서 장로들의 유전에 문제가 있었다. 손을 씻는 것은 위생에는 더없이 좋은 것이지만, 손을 씻는다고 해서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며, 더더욱 영혼이 성결해지는 것도 아니다. 청결을 위해서 손도 열심히 씻어야 하지만, 더더욱 마음을 써야 할 일은 우리 자신의 마음의 청결과 영혼의 성결이다.

II. 유대교인들의 '카샤룻' 음식법

A. 음식법

여기서는 유대인들의 음식법에 대해서 9가지로 살펴보려고 한다.⁷⁾

1. 유대인들에게는 보편적인 사고의식이 있다. 첫째, 유대인들은 세상의 모든 것, 곧 사람과 동식물, 사물 등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속해 있다고 믿는다. 부정(不淨)한 것(unclean), 정(淨)한 것(clean), 거

7) "Jewish Dietary Laws," (<http://www.jewfaq.org/kashrut.htm>). 최명덕, "유대인의 식탁법(Kosher)," (<http://www.iscc.co.kr/seminar/choi.asp?select=8>).

룩한 것(holy)이 그것이다. 둘째,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한다. 만일 무슨 이유로 해서 부정해졌다면 깨끗하게 씻어야한다. 그래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합당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사고의식이다. 사람뿐 아니라 동식물과 사물도 마찬가지다. 동물에는 정한 동물이 있는가하면, 부정한 동물이 있고, 그릇에는 정한 그릇이 있는가 하면 부정한 그릇이 있으며, 음식에도 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은 정한 것만 먹고 정한 것만 사용해야한다.

2. 유대인들에게는 까다로운 음식법이 있다. 첫째, 유대인들은 이 음식법을 '카샤룻'(Kashrut)이라 부른다. '카샤룻'은 무슨 음식은 먹을 수 있고, 무슨 음식은 먹을 수 없는지, 그 같은 음식들을 어떻게 조리해서 먹어야 하는지를 다룬 유대인의 율법이다. 둘째, 이 '카샤룻'에 의해서 먹기에 합당한 음식과 의식과 의식용에 합당한 물건들을 '코쉬'(kosher)라고 부른다. 오늘날에는 가공식품이 많기 때문에 음식에 무슨 성분이 들었는지, 어떻게 가공됐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랍비들이나 인증단체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제품에 인증마크를 찍어준다. 코쉬' 소비자들은 인증마크를 보고 구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셋째, 먹을 수 없는 음식이나 쓰기에 부적당한 것들을 '트레이프'(treyf)라 부른다. '트레이프'란 문자적으로 '찢긴'이란 뜻인데, 다른 동물들에 찢긴 동물들을 먹지 말라는 계명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3. 왜 유대인은 까다로운 '카샤룻' 음식법을 지키는가? 유대인들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첫째, 하나님의 계명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둘째, 유대인들은 이 '카샤룻' 음식법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거룩함으로 부르기 위한 것이라고 믿는다. 옳고 그름, 선과 악, 정결과 불결, 성결과 불경사이를 구별하는 능력은 유대주의에서 매우 중요하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을 수 없는가에 대한 율법들을 부과한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본능까지도 조절하란 뜻이 있다는 것이다. 랍비 도넨은 '카샤룻' 율법들이 음식을 먹는 단순 행위를 종교의식으로 승화시킨다고 지적한 바 있다. 랍비 문학에서 유대인의 저녁 테이블은 때때로 성전 제단

에 비교되어진다. 셋째, '코쉬' 음식은 매우 위생적이다. 고기와 유제품을 함께 먹으면 소화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주장도 있다. 낙타와 돼지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낙타가 식용보다는 짐을 나르는 데 더 유용하기 때문이고, 중동기후에서 돼지는 식용가치보다는 사료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넷째, '카샤룻' 음식법에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외경사상이 들어있다는 주장이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음식물은 채식뿐이었고, 실제로 채식만 했다는 것이다(창세기 1:29). 육식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허락되었고, 육식으로 인해서 생명파괴가 불가피해졌지만, 육식만을 위한 생명파괴가 금지되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므로 하나님만이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래 유대인은 하나님께 드린 제물만을 육식으로 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0여 년 전 성전이 파괴된 이후 희생제사가 사라지고부터는 이 방법으로는 육식을 취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고 아무런 절차 없이 마구 잡아먹을 수도 없었다. 비록 희생제사는 사라졌지만, 음식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생긴 종교의식적인 도살을 '쉐히타'(shechitah)라 부르게 되었고, 이 도살을 종교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쇼헬'(shochet)이라 부르게 되었다. '카샤룻'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쇼헬'에 의해서 '쉐히타' 방법으로 도살되지 아니한 고기를 먹지 않는다. 먹을 수 있는 '코쉬' 곧 합당한 고기가 아닐 뿐 아니라, 하나님과 도살된 생명체에 대한 모독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다섯째, 일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카샤룻' 음식법을 주신 것은 이교인과의 교제를 막으려한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음식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일수록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꺼린다.

4. '카샤룻' 음식법의 핵심은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일부 동물들의 살코기, 기관(내장), 알, 젖 모두를 식용으로 쓸 수 없다. 둘째, 먹을 수 있는 새와 포유동물도 음식법에 따라 도살되어야한다. 셋째, 먹기 전에 고기에서 모든 피를 빼내거나 구어야한다. 넷째, 허용된 동물들의 특정 부위들은 먹을 수 없다. 다섯째, 고기를 유제품과 함께 먹을 수 없다. 물고기, 알(달걀), 과일, 채소와 곡식은 고기든 유제품이든 함께 먹을 수 있다. 여섯째, 고기에 접촉

된 그릇들은 유제품에 사용될 수 없다. 또 반대로 유제품에 접촉된 그릇들은 고기에 사용될 수 없다. '코쉬'가 아닌 음식에 접촉된 그릇들은 '코쉬' 음식에 사용될 수 없다. 일곱째, 비유대인들이 만든 포도 제품들을 먹을 수 없다.

5. 유대인들에게는 먹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첫째, 발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동물은 어떤 것이나 먹을 수 있다(레 11:3; 신 14:6). 양, 소, 염소, 사슴은 먹을 수 있지만, 낙타, 토끼, 오소리, 돼지는 먹을 수 없다. 둘째,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먹을 수 있다(레 11:9; 신 14:9). 따라서 오징어, 낙지, 꼴뚜기, 문어, 새우, 굴, 갯가재, 조개류, 게류와 같은 갑각류는 먹을 수 없다. 상어, 고래, 미꾸라지 등도 먹을 수 없다. 셋째, 포식성이나 찢은 고기를 먹여치우는 새들은 먹을 수 없다(레 11:13-19; 신 14:11-18). 독수리, 매, 타조, 부엉이, 펠리칸, 갈매기, 박쥐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닭, 거위, 오리, 칠면조와 같은 가금류는 먹을 수 있다. 넷째, 곤충은 먹지 못한다(레 11:22). 다섯째, 쥐, 다람쥐 같은 설치류, 파충류, 양서류는 먹는 것이 금지된다(레 11:29-30, 42-43).

6. 식용이 허용되는 동물일지라도 '카샤룻' 음식법에 따라서 도살해야 먹을 수 있다(신 12:21). 질병이 없는 것이어야 하고(민 11:22), 스스로 죽은 것(신 14:21)이나 다른 동물에 살해된 것을 먹지 말아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카샤룻' 음식법 '쉐히타'(shechitah)에 따라서 '쇼헬'(shochet)이 도살하는데, 도살방법은 흠집이 없고 고르며 완벽하게 날이 선 칼날로 목구멍을 가로지르는 신속하고 깊은 타격을 가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고통이 없고, 2초 이내에 의식이 사라지게 하며, 가능한 범위에서 짐승을 가장 자비롭게 죽이는 도살로 알려져 있다. 이 '쉐히타'의 방식의 장점은 빠르게 완전하게 피를 빼낼 수 있다는 것이다. 피를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쇼헬'은 단순히 도살자가 아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어야 하며, 유대인의 율법, 특히 '카샤룻' 음식법을 잘 훈련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따라서 랍비가 '쇼헬'의 일을 함께 보기도 한다.⁸⁾

8) 성전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이 일의 담당자들이었을 것이다.

7. ‘카샤룻’ 음식법에 따라서 도살된 고기라도 먹기 위해서는 피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첫째,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레 17:11)는 것과 피를 먹지 말라(레 7:26-27, 17:10-14)는 말씀 때문에 유대인은 피를 먹지 않는다. 피를 먹는 것은 생명을 먹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먹기에 합당한 ‘코쉬’ 고기는 피를 완전히 제거한 고기이다. 둘째, ‘쇼헬’의 신속한 도살로 대부분의 피는 빠지지만, 그래도 남은 피는 굵거나 담가서 소금을 뿌려서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간은 굵는 방법으로만 ‘코쉬’ 곧 합당한 음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도살 후 72시간 이내에 고기가 얼거나 갈아서 잘게 부수기 전에 피 빼는 과정이 이뤄져야 한다. 셋째, 피가 섞인 알(계란)은 먹지 않는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종종 그런 알이 발견되기 때문에 알을 먼저 깨서 그릇에 넣고, 요리하기 전에 피가 섞였는지 점검해야 한다.

8. 비유대인이 만든 포도주와 포도제품들의 사용을 금하고 있다. 포도주는 모든 고대종교들의 의식들에서 흔하게 사용되었고, 그것이 제조되는 동안 이교적인 목적들을 위해서 흔하게 성별되었기 때문에 비유대인에 의해서 제조된 포도주와 다른 포도제품들의 사용을 금하고 있다. 우상숭배를 막자는데 그 뜻이 있다. 이 ‘카샤룻’ 음식법은 포도주와 포도주스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포도주스로 단맛을 낸 많은 과일음료나 과일 맛 음료에도 적용되며, 포도주 발효 때 통에 가라앉는 침전물로 제조된 베이킹파우더의 사용도 안 된다.

9. 모든 유대인들이 ‘코쉬’를 지키는가? 미국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의 약 25-30퍼센트가 대체로 ‘코쉬’를 지킨다고 한다. 이스라엘 거주 유대인들의 경우 대략 40퍼센트가 ‘코쉬’를 지킨다고 본다. 여기에는 대부분의 정통주의 유대인들, 많은 수의 보수주의와 재건주의 유대인들, 그리고 일부 개혁주의 유대인들이 포함된다. 그러나 지키는 기준들은 실질적으로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1990년의 전국 유대인 인구조사에 따르면, 유대인 가정들의 약 17퍼센트만이 항상 ‘코쉬’ 곧 합당한 고기를 먹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보다 더 엄격하게 ‘카샤룻’ 음식법을 지키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일수록 정통주의 ‘코쉬’인증 마크가 찍힌 음식만을 고집할 것이고, 정통주의 ‘코쉬’인증이 없는 식당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

이다. 또한 그들이 세운 높은 기준에 따라 음식을 조리할 줄 모르는 사람의 식사 초청에도 당연히 응하지 않을 것이다.

B. 제기된 문제의 답

들어가는 말에서 문제제기를 했었다. 왜 베드로는 “속되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는지, 왜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음식을 먹은 것에 대해서 힐난했는지, 왜 베드로는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먹다가 유대인 성도들을 보고 자리를 피했는지, 왜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힐난했는지를 물었다. 이런 물음에 답을 찾아보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음식법에 대해서 일부이긴 하지만 장황하게 살펴보았다.

그 이유가 명백해졌다. “속되고 부정한 것”을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다. 유대인들은 엄격하게 ‘카샤랏’ 음식법을 지킨다. 그래서 이 음식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의 집이나 음식점에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또 그들의 음식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만들어진 식료품이 아니면 사지 않는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이방인과의 식탁교제를 꺼린 이유였다.

그러면 왜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들이 동족인 죄인과 세리들과의 식탁교제를 꺼렸는가? 그들이 율법대로 살지 않았거나 가난 때문에 ‘카샤랏’ 음식법을 지키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세리들의 경우 돈은 있지만, 로마정부를 위해서 일했던 자들이었던 만큼 율법을 충실하게 지킨 자들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죄인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엄격한 율법을 따라 살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특히 음식법과 정결법을 엄격하게 지키지 않는 자들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고 힐난했던 것으로 보인다.

C. 예수님의 반응

언제나 본질에 접근하시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힐난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반응하셨다.

첫째, 마태복음 9장 12-13절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 가야 쓸 데 있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제사보다는 긍휼을 원하신다는 말씀을 인용하여 그들을 책망하셨다. 율법에 매여 의(義)와 인(仁)과 신(信)을 버렸다는 말씀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하셨다. 바리새인들은 검사의 눈으로 세리와 죄인들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의사의 눈으로 보셨다. 의사는 사람이 병들었다고 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 의사는 사람을 볼 때 병들어 쓸모없게 되었다고 소망을 끊지 않는다. 의사는 병자에 대해 병만 치료해 주면 건강하게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다. 의사의 사명은 병을 치료해 줌으로써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예수님은 영적 의사로서 죄인을 치료해 주시고 살리기 위해서 오셨던 것이다. 살림의 일을 위해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던 것이다.

둘째,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15-16절에서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들을 책망하셨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그 음식이 아무리 종교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성결하다 해도, 사람을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었다.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마음의 악을 제거하는 것이지, 특정 음식을 먹고 안 먹는 것에 있지 않다는 말씀이었다. 율법을 잘 지킨다는 자만과 우월감에 빠져 세리와 죄인들을 멸시하는 것은 마음의 악이 가득한 때문이요, 이것을 제거하지 않은 채, ‘코쉬’ 음식만 먹는다고 해서 결코 성결해질 수 없다는 말씀이었다. 유대인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에 있지 않고, 그들의 외식에 있었다. 그들은 언제나 본질에 접근하지 못했고, 허례허식에 치우쳤던 것이다.

III. 유대인들의 그릇 씻기법

A. 그릇 씻기법

여기서는 유대인들의 그릇 씻기법에 대해서 9가지로 살펴보려고 한다.

1.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에서 그릇 씻기법에 대한 당위성을 찾고 있다. 유대인들이 그릇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출애굽기 23장 19절의 계명, “너는 염소새끼를 어미젖으로 삶지 말지니라”에 두고 있다. 이밖에도 출애굽기 34장 26절과 신명기 14장 21절에 근거하고 있다.

2. 유대인들은 고기제품과 우유제품을 함께 먹지 않는다. 구전율법에서는 “염소 새끼를 어미젖으로 삶지 말라”는 계명을 고기제품과 우유제품을 함께 먹지 말라는 계명이라고 설명한다. 랍비들은 이것을 확대시켜 우유와 가금류고기를 함께 먹는 것까지 금지시켰다. 그러나 물고기와 우유제품을 함께 먹는 것은 허용되며, 보편화되어있다. 우유제품과 알(계란)을 함께 먹는 것도 허용된다.

3. 유대인들은 우유제품과 고기제품을 철저히 분리하여, 어떤 경우에도 섞이지 않게 한다. 생명을 주는 요소인 젖과 생명이 없는 죽은 고기를 함께 섞을 수 없다는 것이다. 케다가 탈무드에서는 고기와 물고기를 함께 조리하는 것과 동일한 접시에 담는 것까지 금하고 있다.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우유제품의 음식과 고기제품의 음식을 철저히 분리하여 섞이지 않도록 힘쓴다. 이 관행 역시 ‘카샤룻’ 음식법에 속하는 것이다. 이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두 별의 그릇들, 곧 두 별의 냄비, 두 별의 조리 팬, 두 별의 접시, 두 별의 용기, 두 별의 포크와 나이프까지 구비하고 있다. 그릇의 경우 한 별은 우유제품에만 사용하고, 또한 별은 고기제품에만 각각 사용한다. 우유제품이 담겼던 그릇에 고기제품을 넣게 되면 젖과 고기를 섞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유제품에 사용했던 나이프나 포크는 고기제품을 먹을 때는 사용하지 않는다. 설거지 할 때도 섞이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인다. 식기 세척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른 걸이를 사용해서 각각 세척한다. 고기제품용 식기와 우유제품용 식기를 같은 싱크에서 동시에 닦는 일은 하지 않는다. 대개의 경우, 두 조의 싱크대를 설치하여 하나는 우유제품 그릇 설거지용으로, 다른

하나는 고기제품 그릇 설거지용으로 사용한다. 설거지용이 하나뿐일 경우에는 그릇을 싱크에 담가놓고 설거지하면 안 된다. 물을 틀어놓은 상태에서 그릇을 손에 들고 씻거나 개수통을 각각 준비해야 한다. 설거지를 마친 그릇을 말리는 수건도 각각 구비해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4. 고기제품과 우유제품을 먹을 때는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둔다. 고기를 먹은 후 바로 우유제품을 먹거나 반대로 우유제품을 먹은 후 바로 고기제품을 먹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뱃속에 들어가 섞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 ‘카샤랏’ 음식법을 철저히 지킨다. 그렇다면 고기음식을 먹은 후 얼마를 기다려야 우유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혹은 우유음식을 먹은 후에 얼마를 기다려야 고기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전통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소 세 시간에서 여섯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보통 독일계 유대인들은 고기를 먹은 후 최소 세 시간은 기다린 후 우유나 우유 섞인 음식을 먹는다고 한다. 동부 유럽의 유대인들은 여섯 시간, 네덜란드계의 유대인들은 최소한 시간을 기다린다고 한다. 지방이나 고기 찌꺼기들이 이빨사이에 끼어 남기 때문이다.

5. 유대인들은 음식과 그릇들을 세 가지 범주로 구별한다. 유대인들은 이디시⁹⁾ 언어인 ‘플레이쉬크’(fleishik), ‘밀히크’(milchik), ‘파레베’(pareve)가 음식과 그릇들을 세 가지 범주로 구별하는 데 흔히 사용된다. ‘플레이쉬크’는 고기란 뜻이고, ‘밀히크’는 우유, ‘파레베’는 그 밖의 음식을 뜻한다. 어떤 식품에 아주 소량의 우유나 고기가 함유되었다고 하자. 그래도 ‘카샤랏’ 음식법에서는 그 식품 전체를 우유제품이나 고기제품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마가린 제품들은 우유제품으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우유제품의 맛을 내기 위해서 소량의 유장(乳漿), 곧 치즈를 제조한 후 분리되는 수용액이나 다른 우유제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물 지방은 ‘카샤랏’ 음식법에서 고기제품으로 간주된다.

9) Yiddish, 독일어에 헤브루어와 슬라브어가 혼합한 것으로, 헤브루 문자로 씀. 중부동부 유럽 및 미국의 이민 유대인이 사용함.

6. 유대인들은 그릇이든 음식이든 ‘코쉬,’ 곧 먹고 쓰기에 합당한 것들만 사용한다. 유대인들은 부정(不淨)한 것을 먹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정하게 된 것은 반드시 정(淨)하게 된 후에 먹거나 사용한다.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거룩한 백성의 지위가 유지될 수 있다고 믿는다.

7. 유대인들의 그릇들은 반드시 ‘코쉬,’ 곧 정(淨)한 것이어야 한다. 유대인들이 음식에 쓰는 모든 용기들은 고기제품용, 우유제품용, 그 밖의 제품용으로써 지위가 주어지고, 그 지위를 그대로 유지시켜줘야 정한 그릇으로 남는다. 만일에 고기를 조리했거나 고기를 담아 먹었던 그릇에다 우유제품을 조리하거나 우유제품을 담아 먹으면, 그 그릇은 고기제품용 지위에서 우유제품용 지위로 바뀌게 되고, 그 이유로 인해서 부정한 그릇이 되고 만다. 부정한 그릇은 법도에 따라 정하게 한 후에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만일 소스팬에서 닭스프를 조리했다면, 그 팬은 고기가 된다. 그리고 나서 만일 동일한 소스팬에다 우유를 데운다면, 그 팬의 고기제품용 지위가 우유제품용 지위로 옮겨지고, 또 우유의 우유제품용 지위가 그 팬에 옮겨진다. 그렇게 돼서 그 팬과 그 우유 모두를 금지된 혼합이 되게 만든다. 음식이나 그릇의 지위는 음식에서 그릇으로 혹은 그릇에서 음식으로, 곧 열을 받은 음식으로 옮겨질 수 있다. 그래서 만일 ‘코쉬’ 시설, 곧 합당한 시설이 아닌 곳에서 찬 음식을 먹고 있다면, 접시의 상태는 이슈가 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같은 나이프를 사용해서 찬 고기와 치즈를 잘게 자를 수 있다. 다만 한쪽을 자르고 난 다음에는 나이프를 깨끗하게 닦아야 한다. 스토브 표면이나 싱크 속은 흔하게 ‘코쉬,’ 곧 쓰기에 부적합한 기구들이 되고 만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흔하게 고기와 열을 가한 유제품 모두에 접촉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접시를 씻을 때에 그것들을 직접적으로 싱크에 담그지 말고 각각의 개수통을 따로 사용하거나, 스토브 위에 무엇을 놓을 때는 바닥에 닿지 않도록 스푼 받침대와 거치대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접시세척기들은 ‘카샤룻’ 문제를 갖고 있다. ‘코쉬’ 가정에서 접시세척기를 사용하려고 한다면, 고기제품과 우유제품 그릇들을 위한 각각의 접시 걸이대를 갖거나 따로 따로 세척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기제품과 우유제품

품에 따라서 각각의 타월들과 냄비 집게들을 준비해서 사용해야한다. 평소에 '코쉬' 품목들을 세척할 때에도 고기와 우유제품을 구별해서 세척해야한다.

8.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는 데도 법도가 있다. 더러워진 싱크는 끓는 물로 깨끗이 닦는다. 싱크 전체를 한 군데도 빠짐없이 끓는 물을 부어 닦아낸다. 물은 붓는 순간 계속 끓고 있어야 한다고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전기 주전자를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고 한다. 물이 끓는 상태에서 전기 플러그를 빼지 않으면 물이 끓는 상태를 쉽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븐이 더러워졌으면 불로 지진다. 용접용 토치를 사용하여 오븐의 내부를 한 군데도 빠짐없이 불로 지진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 가정들에는 휴대용 프로판가스 토치가 비치되어 있다고 한다. 어떤 유대인들은 오븐을 최고 온도로 반시간 이상 틀어 놓아 정하게 한다고 한다. 냄비나 주전자 등은 끓는 물에 삶아서 깨끗하게 한다. 그러나 기름을 사용한 경우에는 오븐과 마찬가지로 불로 지져서 깨끗하게 한다. 나이프나 포크처럼 전체가 쇠로 만들어진 것이면 끓는 물에 삶아 깨끗하게 한다. 그러나 쇠와 다른 재질이 혼합된 제품이면 먼저 하루 동안 격리시켜 놓는다. 하루가 지난 후 깨끗이 닦아 끓는 물에 넣어 삶는다. 물에 넣을 때는 백 퍼센트 완전히 끓는 물속에 넣어야 하며, 어느 한 부분이라도 끓는 물에 접촉이 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따라서 다른 그릇들과 겹쳐서 물에 닿지 않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한다. 물은 계속하여 팔팔 끓는 상태여야 한다. 이때 고기제품에 사용한 것과 우유제품에 사용한 그릇들은 각각 다른 용기에 넣고 삶아야한다.

9. 유대인의 식탁은 거룩함을 훈련하는 장소이다. 유대인은 가장 기본적인 먹는 행위에서 거룩함을 연습한다. 그것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주 철저하게 연습한다. 유대인의 식탁은 신성한 식탁이다. 특히 안식일의 식탁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식탁이다. 유대인의 음식법은 유대인의 성결(聖潔)한 삶을 위한 절실하고도 진지한 노력 그 자체이다.

B. 제기된 문제의 답

들어가는 말에서 왜 유대인들은 신경 써서 그릇들을 씻는가라는 문제제기를 했었다. 유대인들이 그릇 씻기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염소새끼를 어미젖으로 삼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 때문이란 점을 장황하게 살펴보았다. 구전율법에서는 이 계명을 고기제품과 우유제품을 함께 먹지 말라는 뜻으로 가르쳐왔다.

이런 가르침을 토대로 랍비들은 고기제품과 우유제품을 함께 먹지 못하도록 하는 복잡한 ‘카샤랏’ 음식법을 발전시켜 왔다. 유대인들은 우유제품과 고기제품을 철저하게 분리시켜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섞이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가르침을 받았다. 고기제품과 우유제품을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두고 따로 먹었고, 고기제품과 우유제품에 사용하는 그릇들을 철저하게 분리시켰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두 별의 조리 용기, 두 별의 접시, 두 별의 포크와 나이프까지 구비해 놓고 썼으며, 한 별은 우유제품에 또 다른 한 별은 고기제품에 따로 따로 사용했다. 설거지할 때 고기제품용 식기와 우유제품용 식기를 같은 싱크에 담그지 않을 뿐 아니라, 개수통을 각각 사용하거나 두 조의 싱크대를 설치하여 하나는 우유제품용 그릇, 또 다른 하나는 고기제품용 그릇 설거지용으로 사용하였으며, 설거지를 마친 그릇의 물기를 닦는 수건도 각각의 것을 사용했다.

음식을 조리하는 중에 알게 모르게 고기제품과 우유제품이 섞임으로써 부정해졌을 조리 기구들과 그릇들은 지속적으로 끓는 물을 부어 닦아내며, 용접용 토치를 사용하여 불로 지지기도 하고, 끓는 물에 푹 담가 삶는다. 물은 지속적으로 끓는 상태여야한다. 삶을 때에는 고기제품용과 우유제품용을 각각 따로 삶아야한다.

“염소새끼를 어미젖으로 삼지 말라”는 한 마디 하나님의 계명을 이토록 어렵고 힘겹게 지키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다. 그 어느 민족, 어느 누구도 이토록 하나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지 못할 것이다. 유대인들의 의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추호도 어길 수 없도록 두꺼운 울타리를 겹겹이 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까 점점 더 본질에서 멀어졌고, 심지어 하나님의 계명까지 어기는 불행한 일들이 발생했던 것이다.

C. 예수님의 반응

언제나 본질에 접근하시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이러한 난맥상을 간파하셨고, 지적하셨으며, 결국 유대인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그릇 씻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5-28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유대인들을 힐난하셨다.

[25]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6]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27]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8]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좋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겉도 중요하지만, 속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겉이 깨끗한 것도 중요하지만, 속이 깨끗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속이 깨끗하고, 의(義)와 인(仁)과 신(信)으로 속이 짝 차야 하나님의 계명이 지켜지고 있는 것이지, 속이 무덤 속처럼 썩어서 고약한 냄새가 나는데, 겉만 페인트칠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명이 지켜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다.

나오는 말

‘유대인들의 음식법에 관한 고찰’은 크게 세 가지 물음들에 대한 해답을 얻어 보려는 데서 출발됐다. 이들 물음들은 유대교인들의 ‘식사전 손씻기법,’ ‘카샤룻 음식법,’ 그리고 ‘그릇 씻기법’에 대한 것들이다. 이들 세 가지 율법들은 모두가 예수님과의 논쟁과 관련된 것들이다. 그래서 이들 세 가지 율법들이 어떤 것들인가를 살펴보고, 제기된 문제의 답을 제시하였으며, 유대인들의 문제점과 예수님의 반응을 짚어 보았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위생의 문제이지 성결의 문제가 아니다. 사람의 입을 통해서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육신의 문제이지, 영적인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사람의 유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무리 종교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성결하다 해도, 사람을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히셨다.

유대인들은 엄격하게 ‘카샤룻’ 음식법을 지킨다. 그래서 이 음식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의 집이나 음식점에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또 그들의 음식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만들어진 식료품이 아니면 사지도 않는다. 그 이유는 “염소새끼를 어미젖으로 삼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엄격하고 힘겹게 지킨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추호도 어길 수 없도록 계명에 두꺼운 울타리를 겹겹이 친다. 그러다보니까 점점 본질에서 멀어졌고, 심지어 하나님의 계명까지 어기는 불행한 일들이 발생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본질문제에 접근하신 예수님은 외적인 허례허식에 매달리는 유대인들의 문제가 신앙심의 자만과 우월감에 있다는 것을 간파하셨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오경에 기록된 율법 이외에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로써 주신 구전(口傳) 율법이 있다고 생각했다.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명과 동일한 수준에 높으려했다는 점과 율법의 목적과 정신은 외면한 채, 법규를 지나치게 상세히 규정해 놓음으로써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義)와 인(仁)과 신(信)은 버리고, 신앙심의 자만과 우월감만을 자극했다. 손을 씻는 것은 위생에는 더없이 좋은 것이지만, 손을 씻는다고 해서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며, 더더욱 영혼이 성결해지는 것도 아니다. 청결을 위해서 손도 열심히 씻어야 하지만, 더더욱 마음을 써야 할 일은 우리 자신의 마음의 청결과 영혼의 성결이다.

참고자료

“Washing the Hands Before Meals.”

<http://www.ok.org/Content.asp?ID=126>.

“Jewish Dietary Laws.” <http://www.jewfaq.org/kashrut.htm>.

· 110 ·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

조동호 역. “유대교인들의 식사전 손씻기법.”

<http://kccs.pe.kr> →성경연구→신약성경관련.

조동호 역. “카샤룻: 유대인의 음식법.”

<http://kccs.pe.kr> →성경연구→신약성경관련.

최명덕. “유대인의 식탁법(Kosher).”

<http://www.iscc.co.kr/seminar/choi.asp?select=8>.

제5장 유대민족의식에서 본 기독교출범의 당위성

Validity of the Emergence of Christianity Viewed on Jewish People Consciousness

들어가는 말

이 세상 그 어떤 민족도 유대인만큼 철저하게 신(神)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유대인은 자기 민족의 뿌리, 이동, 사상, 사명에 대해서 명확하고 자세하게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만큼 유대인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다.

유대민족은 하나님에 관한 독특한 의식을 갖고 있다. 유대민족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은 노예로 살고 있던 유대민족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시다. 레위기 25장 38절과 민수기 15장 41절을 비롯한 수많은 성구들이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인 신앙고백을 보면, 유대인의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출 19:4), ‘홍해를 육지처럼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시 66:6, 78:13, 106:9), 떠돌이였던 그들에게 정착할 땅을 주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그들과 특별히 언약을 맺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언약의 말씀인 토라(Torah)를 주시고, 그것들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의식이 수천 년 동안 유대민족을 지탱해온 믿음이자, 정신이며, 유산이다. 그 속에 통일된 의식이 있고, 사상이 있고, 행동이 있고, 문화와 관습이 있고, 교육이 있고, 철학이 있고, 가치가 있고, 세계가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 유대민족의식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기독교 출범의 당위성,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 유대교가 기독교에 주는 과제와 같은 것들을 고찰하는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노예들이었네’, ‘우리는 떠돌이였네’, ‘구원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민족의 통일성’을 차례대로 살펴보

게 될 것이다.

I. 유대민족의식

1. 우리는 노예들이었네

유대민족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우리 민족의 8.15와 같다. 차이가 있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경우 자기 나라가 아닌 이집트에서 해방을 맞았고, 해방을 맞이할 당시 자기 나라가 없었으며, 그 때가 부활의 희망을 상징하는 봄철이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는 처음부터 대한제국이란 나라가 있었고, 우리나라에서 해방을 맞았기 때문에 해방과 동시에 주권을 회복하였다. 그 후 이념차이로 남북이 갈라지고, 전쟁의 상흔과 가족이 헤어지는 이산의 아픔을 겪게 되었고, 그 아픔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한편 이스라엘은 해방을 맞고도 나라가 한 동안 없었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에도 아주 오랜 기간 유배생활을 했으며, 주후 70년 이후에는 1878년간이나 나라가 없었다. 그 긴 세월동안 유대인들은 기독교와 모슬렘의 통치하에서 숏한 박해를 받아야 했다. 기독교는 유대인을 메시아를 죽인 대가를 치러야 할 죄인으로 여겼고, 모슬렘은 무하마드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기지도 않고 코란도 인정하지 않는 이교도로 여겼다. 기독교가 로마제국의 국교가 된 이후에는 유대인들을 열등한 민족으로 취급하는 사회적 지위법이 공포되었고, 종교개혁시대이후에는 추방과 격리를 당하기도 하면서 히틀러 때까지 무려 1200만 명이 살해되는 아픔을 겪었다. 지금은 자기 나라도 있고,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살고는 있지만, 아직도 세계 곳곳에 산재한 반유대인 기류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3천년이 넘도록 지켜온 유월절은 아직도 유대인들에게는, 특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는 단순히 해방을 기념하는 명절이 아니고, 희망을 노래하는 명절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 이집트에서 해방되었던 때를 대 구원 사건으로 기념하면서 현재의 유배생활이 머지않은 장래에 끝나고 자기 나라에서 유월절을 떡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희망하였고, 지금까지도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매년 춘분이 지나고 보름달이 뜨는 유월절 밤이면,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이렇게 희망을 노래했던 것이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여기 타향에 살아도 내년에는 이스라엘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지금은 노예이지만 내년에는 자유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유월절 식사는 “La shana Ha ba-ah birushalayim” 곧 “내년에 예루살렘에서!”라는 인사로 끝을 맺는다.¹⁾ 그들은 남의 나라에 살지만 언제나 그들의 눈을 동쪽 끝자락 시온으로 향하게 하고, 시온과 예루살렘 땅에서, 유대인들 자신의 땅에서 자유민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노래했던 것이다.²⁾

유월절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뿐 아니라, 신구약성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성서는 흑암과 혼돈과 죽음에서 시작되듯이 그 흑암이 빛이 되고, 그 혼돈이 질서가 되고, 그 죽음이 생명이 되는 이야기로 66권 전체가 구성되어 있다. 하나님의 옛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과 연관된 사건 가운데 출애굽 사건이 대구원 사건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 사건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를 이룬 사건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야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건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흑암이 빛이 되고, 혼돈이 질서가 되고, 죽음이 생명이 되는 사건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구약성서 전체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사건이다. 또 이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예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이해하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사건이다. 유월절 사건에 대한 이해 없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이해할 수 없다.

유대인들은 해방절인 유월절 명절 식사 때에 ‘아바담 하이누’ 곧 ‘우리는 노예들이었네’라는 노래를 부른다.³⁾

1) 최명덕, “유월절로 본 성만찬”(이스라엘문화원: 유대학술세미나자료, <http://www.iscc.co.kr/seminar.asp>).

2) 조동호 역, “이스라엘의 땅”(http://kccs.pe.kr →성경연구→신약성경관련).

3) 최명덕, “유월절로 본 성만찬.”

우리는 노예들이었네. 그러나 지금은 자유롭다네. 자유롭다네.
우리는 노예들이었네. 그러나 지금은 자유롭다네.
우리는 노예들이었네. 그러나 지금은 자유롭다네. 자유롭다네.

이 노래에서 알 수 있듯이 유대인들은 수치스런 과거사를 잊지 않고 자녀들에게 가르친다. “우리 민족은 과거에 이집트인들의 노예였단다.”라고 말이다. 신명기 26장 5-9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노예였을 뿐 아니라, 떠돌이 민족이었다는 고백을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서슴없이 하고 있다. 왜 그들은 수치스런 과거사를 자자손손 전승시키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 없다. 이유는 이렇다.

첫째, 하나님과의 연관성을 자자손손 이어가기 위해서이다. 이스라엘의 시작과 진행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것이었다. 나라가 없던 떠돌이요, 나라가 세워진 후에도 유배생활과 노예상태를 벗지 못하던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이 정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언약을 맺어 선민으로 삼으셨던 것이다. 여기에 유대민족의 뿌리와 정신과 정체성이 있다. 떼려야 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하히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번영과 쇠퇴가 결정된다. 유대민족의 운명은 그 어떤 것으로도 좌우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좌우된다.

둘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자자손손 이어가기 위해서이다. 신명기 6장 20-25절에 ‘왜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가라는 자녀들의 물음과 대답이 있다. 이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인식하는 율법은 지키기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그래서 정말 하기 싫은 뭐 그런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떠돌이였을 때 우리에게 안식할 나라를 주시고, 우리가 노예였을 때 우리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신 분은 우리를 아내로 맞아주신 남편이신 하나님, 혹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란 것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강제적인 법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과 약속한 언약의 내용이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는 우리가 그분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얼마나 성

실하게 지키는가에 있다는 것이다.

셋째, 하나님께 대한 감사생활을 자자손손 이어가기 위해서이다. 신명기 26장 2-11절에 '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소산의 만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슨 말로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지시하고 있다.

유대인들의 기도와 고백들에서 발견되는 사실 한 가지는 자기들을 노예로 삼았던 나라들, 자기 나라를 침략하여 먼 다른 타국으로 끌고 갔던 민족들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보복하라는 말이 없다는 점이다. 유대인들이 수치스런 과거사를 들춰내서 자자손손 가르치는 이유는 그들의 오늘이 있음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인도하셨고, 예전에는 눈물로 맛있는 무교병과 쓴 나물을 굽히 먹어야 했고, 사막에서 방황하며 천막에 거주했어야 했지만, 지금은 우리 땅에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지어 젖과 꿀을 먹고 마시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겸손히 예물로써 감사드릴 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복을 주신다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지난날의 역사를 거울삼아 다시는 뒷걸음치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2. 우리는 떠돌이였네

현재 유대인은 전 세계에 1400만 명이 있다. 그 가운데 60%인 840만 명이 떠돌이들이다. 예수님 당시에는 전 세계에 450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었다. 그 가운데 84%인 380만 명이 떠돌이들이었다. 떠돌이 유대인들은 본향을 떠나 사는 것을 유배생활이라 말한다.

신명기 26장 5절은 유대민족과 그 조상을 일컬어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말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의 후손들이 다 떠돌이였다. 출애굽기 23장 9절은 야곱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보낸 430년의 세월을 나그네의 세월이었다고 말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본향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갖고 있고, 영토주의가 팽배하다.

유대인들이 본향을 사모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야곱이후 본향에 대한 집착은 유대인들의 집단무의식이 되고 있다. 이 집단무의식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아무리 오랜 세월

을 외국에 나가 살아도 반드시 본향에 돌아간다는 의식을 갖게 된다. 이 의식이 이집트 거주 430년 만에 대탈출을 만들고,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보낸 유배생활 70년 또는 173년 만에 본향으로 돌아오는 행렬을 만들고, 나라가 망한지 1878년 만에 나라를 세우는 기적을 만들었다.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유랑의 세월이 3,8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인들은 불굴의 투지로 본향에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유대민족이 그토록 사모하는 본향이란 것이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곳이 못된다. 쓸모 있는 땅이 많지 않고, 물도 귀하고, 기후도 좋지 않은 곳이다. 그러나 그들이 유배되어 살던 곳은 그들의 본향보다 훨씬 살기 좋은 곳들이었다. 이집트의 고센 땅은 유대인들의 본향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비옥한 땅이었다.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도 월등히 살기 좋은 곳이었다. 5백만이 넘는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미국도 살기 좋은 곳이다. 대다수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지역들은 그들의 본향보다 살기 좋은 곳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일찍이 본향을 본적이 없는 그들의 후손들조차도 본향을 사모하게 만들고 있다. 물론 지난 수천 년의 세월 동안 나라 없이 핍박과 추방과 학살을 당하며 살아온 서러움의 세월도 무시할 수 없다.

귀소본능(歸巢本能)이란 것이 있다. 제비, 갈매기, 연어, 송어 등은 귀소본능이 뛰어나다. 인간에게도 귀소본능은 있다. 심층심리학자 칼 융은 인간의 의식 가운데 인류가 공통적으로 지닌 '집단 무의식'이란 것이 있다고 했다. 집단 무의식이란 한 민족 또는 전체 인류가 공통으로 지닌 일종의 '오래된 기억'으로써 오랜 옛날부터 인류가 조상대대로 경험했던 축적된 의식을 말한다. 여기에는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과 지옥, 불교가 말하는 열반과 지옥, 그리스신화에서 말하는 낙원인 엘뤼시온(Elusion)과 지옥인 타르타로스(Tartaros)에 대한 종교적 상징들이 포함된다. 이 집단무의식은 우리 인간들이 돌아가야 할 궁극적 본향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인생은 나그네'나 '유리하는 아람사람'이란 말도 인간의 삶이 이생에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세계로 회귀한다는 것을 집단무의식이 말해 주는 것이다.

유대민족의식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떠돌이의식은 초기 기독교인들의 의식 속에도 깊게 자리 잡고 있다. 히브리서 저자가 '더 나은 본향'(11:16)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을 일컬어 '나그네와 행인'같다고(벧전 2:11) 했고,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벧전 1:17)고 충고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그 긴 떠돌이 세월동안 본향에 대한 기도를 단 하루도 쉬지 않았다. 유대인들은 본향에 들어가 사는 것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받아들였고, 본향에로의 이주를 '오름'이란 뜻의 '알리야'란 말로 표현하고 있다.⁴⁾

3. 구원의 하나님

유대인은 자기 민족의 뿌리, 이동, 사상, 사명에 대해서 명확하고 자세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만큼 유대인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다. 그 이유는 자기 민족의 정체성에 관련된 내용들이 '토라'라 일컫는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 율법이 613개의 조문(條文)으로 세분되어 있을 뿐 아니라, 부칙 또는 세칙이라 할 수 있는 수많은 법들까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그와 같은 율법들을 억지나 강제로 지키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지키며, 일 년에 한 차례씩 완독할 뿐 아니라, 심히 사랑하여 안식일 예배 때에 그 말씀에 입을 맞출 뿐 아니라, '메주자'라 불리는 칼집형태의 작은 말씀상자를 만들어 집안 문설주 옆에 부착해 놓고 집에 들어오거나 나갈 때마다 세 번씩 입을 맞춘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혹은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더 사랑하며, '트필린'이라 불리는 작은 말씀상자를 만들어 끈으로 그들의 손이나 이마에 붙이며, 또 '찌찌트'라 불리는 옷술을 겹옷과 '탈릿'이라 부르는 기도보에 달아 계명을 기억하며, 율법의 말씀에 따라 예배와 기도와 명절을 지키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어서보다는 자기 민족을 특별한 은총으로 선택하신 하나님과 선민의 조건으로 체결한 언약 또는 계약이란 인식하에서 지키고 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마치 사랑하는 남녀가

4) 조동호 역, "이스라엘의 땅."

결혼식 때 행한 서약과 같은 것이며, 부부가 의무로써 그 서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서약을 지키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내리 사랑으로 선택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체결한 언약의 말씀을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켜 왔던 것이다. 이 토라에서 발견되는 유대민족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찾아오신다. 버트란트 러셀과 같은 불신자들은 '종교의 기반을 두려움'이라고 말하지만, 민족의 뿌리와 이동과 사상과 사명을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명하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두려움 때문에 찾게 되는 신(神)이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시고 자발적으로 찾아오시는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다.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을 주어 창대케 하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이스라엘의 뿌리와 이동사가 여기서 시작된다.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발적인 찾아오심, 동행(同行)하심, 약속하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유대민족의식이요 집단무의식이다.

둘째,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이동시키시고, 나라와 언약의 말씀인 율법과 명절과 사명을 주신다. 레위기 25장 38절을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는 말씀이 있다. 이 말씀들 속에는 중요한 고백이 들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영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란 것이다.

셋째,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노예로 살고 있던 유대인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다. 레위기 25장 38절을 비롯한 많은 성구들이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 유대인의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출 19:4) 혹은 '홍해를 육지처럼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시 66:6, 78:13, 106:9) 이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 가운데 두 번째 포도주 잔

을 마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이적과 기사를 찬양하며 '다예누'라는 노래를 합창한다. 어린이들은 신나는 곡조와 간단한 가사 때문에 특별히 이 노래를 좋아한다고 한다. "그가 우리를 애급에서 불러내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충족한가!"라는 내용의 노래이다.⁵⁾

넷째, 하나님은 이집트 대탈출 후 사막에서 머문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샘물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길을 안내하신다. 신명기 29장 5절을 보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몸의 옷이 낡지 않게 하시고, 발의 신이 헤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다.

다섯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곳 거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땅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다. 그곳이 아무리 척박하고 메마른 사막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삶의 터전이기에 때문에 젓과 꿀이 흐를 땅인 것이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토지의 사유화를 인정하지 않는다. 1948년 건국이전에 유대인과 아랍인이 이미 소유하고 있던 사유지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국가 소유이다. 국유지는 사용목적에 따라 49년간 사용권을 허용하고 별 문제가 없을 때는 자동으로 사용권이 연장된다.⁶⁾

이스라엘의 농촌은 4가지 형태가 있는데, 함께 살고, 함께 일하고, 공동으로 분배하는 키부츠가 270여개, 사유재산을 허용하는 협동농업체인 모샤브가 360여개, 사유재산을 허용하는 노동기업체인 모샤브 쉬투피가 70여개, 농촌의 소도읍인 모샤바가 100여개 있다.⁷⁾

이스라엘은 물이 부족한 나라이다. 사막지역에서는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끌어다 쓰거나 지하 2,000m에서 물을 끌어올려 농업용수로 쓰고 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기술혁신을 통해서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세계적인 수준이다. 적은 자본을 투자해서 많은 이익을 창출해 내는 노하우도 갖고 있다.

5) 최명덕, "유월절로 본 성만찬."

6) 정호진, "이스라엘 농촌 사회"(이스라엘문화원, 유대학술세미나, <http://www.iscc.co.kr/seminar.asp>).

7) 정호진, "이스라엘 농촌 사회."

유대인들은 사막이나 다름없는 척박하고 메마른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고서도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다. 그들은 그렇게 믿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야말로 세계의 그 어떤 아름답고 비옥한 땅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땅으로 간직하고 있고, 그들의 노력으로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세계적인 수준인 땅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4. 언약의 하나님

유대민족의식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하나님인식은 언약의 하나님이란 것이다.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 부르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에 관련된 말씀이다.

구약성서의 언약은 유대민족의 흥망성쇠의 원인을 판가름하는 잣대이다. 왜 우리 민족이 이 엄청난 시련을 겪는가에 대한 해답을 예언자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얼마큼 성실하게 지켰는가에서 찾았다.

하나님은 유대민족과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으셨다. 유대민족을 선민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이 계약이다. 이 계약은 구약 39권을 구성하는 핵심내용이자, 예수님을 구세주 메시아가 되게 하고, 기독교를 탄생시킨 밑거름이다.

출애굽기 24장 1-11절은 계약이 체결되는 장면이다. 1-3절은 예비 단계로써 하나님이 이런 저런 내용으로 계약을 맺고자 하시는데 너희의 생각은 어떠하냐고 묻는 장면이다. 4-8절은 본 단계로써 엄숙한 계약식의 장면이다. 모세가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기록한 후, 계약식 당일 이른 아침에 단을 쌓고, 열두 기둥을 세우고, 청년들로 하여금 번제와 소들을 잡아 화목제를 드리게 하였다. 번제는 제물을 모두 태워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고, 화목제는 제물의 일부만 상징적으로 태우고, 살코기는 예배자의 몫으로 되돌려주어 공동체 식사에 사용되었다.

계약식의 중요단계 가운데 하나는 제물의 피를 백성에게 뿌리는 것이다. 모세가 소들의 피를 받아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린 다음 언약서(십계명과 율법)를 회중에게 읽어준다. 회중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고 응답한다.

그러자 모세가 피를 백성에게 뿌리면서 이렇게 말한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9-11절은 언약의 식사를 나누는 장면이다. 9-10절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한다. 그리고 11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대표들 간에 나누는 언약의 식사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고 했다. 고대근동에서는 계약체결 후 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단을 쌓은 후에 계약 당사자들이 함께 식사를 나눴다.

이 시내산 계약을 구약 혹은 옛 언약이라고 말한다. 이 계약에 의해서 이스라엘 회중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었으며,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출 19:5-6). 우리는 이것을 ‘선민’이라고 말한다. 이스라엘 회중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조건이 바로 이 시내산 계약이고, 이 시내산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내용인 십계명과 율법을 언약한대로 잘 지켜야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유대인들은 언약을 잘 지키지 못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불행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기”(사 24:5) 때문이라고 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불행이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연고”(렘 22:9)라고 했고,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 열조와 맺은 언약을 파하였기”(렘 11:10)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시내산 계약과 같지 아니한 새 언약을 이스라엘과 맺을 것이라고 예언했다(렘 31:31-33). 이 새 언약을 히브리서 저자는 “더 좋은 언약”이라 했고, 예수님이 바로 “더 좋은 언약의 보증”(히 7:22) 또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히 8:6)라고 했다. 여기서 옛 것보다 “더 좋은 언약”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말한다. 마가복음 14장 24절은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고 했고,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은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다고 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침례를 통해서 성삼

위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거룩한 새 언약 공동체가 되었으며, 매주일 주의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다.

5. 조상의 하나님

유대민족의식 속에는 '조상의 하나님'이 있다. 유대민족의식 속에 있는 야훼는 조상의 하나님이다. 야훼는 어제 오늘 혹은 지난 몇 세대가 믿어왔던 하나님이거나 외국에서 입수했거나 전래된 하나님이 아니다.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대대로 3800년간이나 믿어왔던 하나님이시다. 아버지가 믿었고, 할아버지가 믿었고, 증조부가 믿었고, 증조부의 할아버지가 믿었고, 또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믿었고, 믿었고, 믿었고... 이렇게 조상대대로 믿어왔던 하나님이시다.

유대인들의 조상의 하나님 신앙과 전통은 우리 기독교인이 세워나가야 할 유대교로부터 물려받은 귀중한 유산이요 힘겨운 과제이다. 우리가 무엇을 자녀들에게 물려 줄 것인가?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유산을 물려주는 것 외에 또 무엇이 있겠는가?

그러나 수천 년 동안 자손대대로 조상의 하나님을 고백했던 이 엄청난 신앙유산을 가진 유대인들이 신생 기독교에 추월당하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떨어진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을 자기 민족의 하나님으로 묶어버리고, 소수 유대민족의 신으로 제한해 버린 때문이 아니겠는가? 위대한 신앙유산을 물려받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옛 언약공동체로 무시해버린 기독교신앙과 복음에 뒤진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무덤에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요 20:17)에 그 해답이 있다. 내 아버지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고, 내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말씀은 소수 민족의 하나님의 경계를 뛰어넘고 지평을 넓혀 만 인류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되게 한 위대한 선언이다. '조상들의 하나님 신앙'이 유대민족의 결속에는 도움이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민족신(民族神)으로 묶어버리는 단점이 있는 것이다. 그들 조상에게 계시하셨던 하나님은 결코 소수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으로 제한될 수 없는 이 우주에

한분밖에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 점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에 패배한 것이다.

오랜 역사와 완고한 전통 속에 있던 유대교를 뛰어넘어 기독교시대를 연 인물이 누구인가? 바울이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부름을 통해서 유대인의 하나님을 만인의 하나님으로 유대인의 구원의 하나님을 만인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지평을 넓힌 사도이다. 그가 계시로 하나님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밝힌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엡 3:6)는 것이다. 이것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엡 3:8)이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취었던 비밀의 경륜”(엡 3:9)이라고 했다.

출애굽기에 자주 쓰인 조상의 하나님이 사도행전에도 자주 쓰이고 있다. 신약과 구약의 연속성, 모세와 그리스도의 연속성, 율법과 복음의 연속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바통의 이동을 강조한 말씀들이다.

6. 민족의 통일성

유대인은 수천 년 동안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아온 민족인데도 통일성을 탁월하게 유지하고 있는 민족이다. 종교, 문화, 축일, 관습, 교육 등에서 뛰어난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겠다.

첫째, 유대민족의 통일성은 그들의 언약서인 토라에 있다. 유대민족이 시내산 기슭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서, 곧 십계명과 율법서에서 유대교가 나왔고, 안식일예배가 나왔으며, 각종 축일과 전통과 관습이 나왔다.

둘째, 유대민족의 통일성은 가족이란 연대의식에 있다. 유대인은 창세기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하사받은 야곱의 후손들이다. 그들은 한 가족이나 다름없고, 친척이기 때문에 연대의식이 강하다. 그러나 이 친족의식 때문에 유대교는 민족종교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이것을 극복한 것이 기독교이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인류가 다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자매란 것이 기독교

의 가르침이다. 기독교가 2천년이 넘도록 세계인의 종교가 될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여기에 있다.

셋째, 유대민족의 통일성은 그들의 신앙교육에 있다. 이 교육의 주체는 가정과 회당이다. 교육은 두 살 때부터 시작되고, 세 살 때부터 성경읽기를 가르친다. 유대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계약이 있다는 표시로써 할례를 받는다. 성장해서 13세가 되면 종교적 성인식을 갖는다. 그밖에 각종 축일행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이란 흔적을 몸에 새겨나가고, 평생 하나님과의 계약을 엄수하게 된다.⁸⁾

넷째, 유대민족의 통일성은 뿌리문화에 있다. 한국에서는 시어머니, 며느리, 손녀딸 삼 세대 간의 생각과 생활방식이 각각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유대인은, 정통과 유대인에 국한될 수 있는 것이지만, 삼 세대가 거의 세대 차이를 느끼지 않는다. 그들은 삼 대가 다 동일한 삶의 철학과 사상과 생활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나라를 잃고 1878년간이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다가 조국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다시 모여들었는데, 세대 차이를 거의 느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세대 차이가 생기는 것은 문화의 차이 때문이다. 문화에는 뿌리문화와 표피문화가 있는데, 뿌리문화는 종교, 관습, 사상, 이상, 언어, 고전문학, 음악, 철학, 역사 등의 지혜중심의 문화이고, 표피문화는 물질, 명예, 권력, 유행 등의 성공위주의 문화이다.⁹⁾

다섯째, 유대민족의 통일성은 역사교육에 있다. 유대인들은 수치스런 민족의 역사를 숨기지 않고 가르쳐 기억하게 하는 방식으로 역사 의식을 심는다. 자기민족은 떠돌이였다는 것, 자기민족은 노예였다는 것, 주권상실로 해외에서 오랫동안 유배생활을 보냈다는 것, 나치로부터 600만 유대인이 희생되었다는 것 등을 눈물로써 가르친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집트 종살이에서 자기민족을 인도

8) 최명덕, "이스라엘의 가정교육"(이스라엘문화원: 유대학술세미나자료, <http://www.iscc.co.kr/seminar.asp>).

9) 현용수, "유대인의 IQ + EQ"(이스라엘문화원: 유대학술세미나자료, <http://www.iscc.co.kr/seminar.asp>).

하여 내시고, 홍해를 갈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 가나안 일곱 족속을 몰아내시고 그 땅을 자기민족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이 기어이 1948년에는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바로 그 땅에, 조상들이 살았던 바로 그 땅에 건국의 기쁨을 주셨다는 것이다. 이런 날들을 축일과 기념일로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더욱 굳게 한다.

II. 기독교 출범의 당위성과 과제

유대인만큼 철저하게 신(神)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있는 민족은 없다. 유대인은 자기 민족의 뿌리, 이동, 사상, 사명에 대해서 명확하고 자세하게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만큼 유대인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다. 자기 민족은 떠돌이였었고, 노예였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족장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으며,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이다. 또 자기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노예였던 자기 민족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유대민족은 하나님에 관한 독특한 의식을 갖고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 민족의 구원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다. 레위기 25장 38절과 민수기 15장 41절을 비롯한 수많은 성구들이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인 신앙고백을 보면, 유대인의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출 19:4), '홍해를 육지처럼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시 66:6, 78:13, 106:9), 떠돌이였던 그들에게 정착할 땅을 주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그들과 특별히 언약을 맺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언약의 말씀인 토라(Torah)를 주시고, 그것들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이다. 이 의식이 수천 년 동안 유대민족을 지탱해온 믿음이자, 정신이며, 유산이다. 그 속에 통일된 의식이 있고, 사상이 있고, 행동이 있고, 문화와 관습이 있고, 교육이 있고, 철학이 있고, 가치가 있고, 세계가

있다. 그래서 그들은 언약의 내용이 담긴 토라를 사랑하여 몸에 지니고 입을 맞추며, 일 년에 한 차례씩 완독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메마르고 척박한 땅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땅으로 여기며, 아득한 과거에 빼앗긴 땅, 주인이 수없이 바뀔 것을 그 땅을 목숨 바쳐 되찾고 지키고 가꿔서, 사막에 꽃이 피게 하고, 젖과 꿀이 흐르게 하고, 풍부한 종교적 유산과 수천 년간 이어오는 전통을 지키고 있다.

이런 엄청난 신앙유산의 장점을 가지고 수천 년 동안 자손대대로 조상의 하나님을 고백했던 유대인들이 신생 기독교에 추월을 당하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떨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자기 민족의 하나님으로 묶어버리고, 소수 유대민족의 신으로 제한해 버린 때문이 아니겠는가? 위대한 신앙유산의 장점을 물려받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옛 언약(구약) 공동체로 무시해버린 기독교신앙과 복음에 뒤진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무덤에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에 그 해답이 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요 20:17)이란 표현이다. 내 아버지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고, 내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말씀은 소수 민족의 하나님의 경계를 뛰어넘고 지평을 넓혀 만 인류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되게 한 위대한 선언이다. ‘조상들의 하나님 신앙이 유대민족의 결속에는 도움이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민족신(民族神)으로 묶어버리는 단점이 있는 것이다. 그들 조상에게 계시하셨던 하나님은 결코 소수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으로 제한될 수 없는 이 우주에 한분밖에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점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에 패배한 것이다.

유대민족은 가족이란 연대의식이 강하다. 유대인은 창세기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하사받은 야곱의 후손들이다. 그들은 한 가족이나 다름없고, 친척이기 때문에 연대의식이 강하다. 그러나 이 친족의식 때문에 유대교는 민족종교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유대민족의 가족의식은 선민의식과 더불어 그들을 배타주의, 민족주의, 영토주의에 빠지게 한 울무였던 것이다. 이것을 극복한 것이 기독교이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인류가 다 하나님의 자

너요 형제자매란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이다. 기독교가 2천년이 넘도록 세계인의 종교가 될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여기에 있다.

오랜 역사와 완고한 전통 속에 있던 유대교를 뛰어넘어 기독교시대를 연 인물이 사도 바울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부름을 통해서 유대인의 하나님을 만인의 하나님으로 유대인의 구원의 하나님을 만인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지평을 넓힌 사람이다. 그가 계시로 하나님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말한 내용이 무엇인가? 자신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신 것이 무엇이라고 했는가? 그것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엡 3:6)고 했다. 이것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엡 3:8)이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취였던 비밀의 경륜”(엡 3:9)이며,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엡 3:11)이라고 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구원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선언했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셨다. 이 말씀의 한 가지 뜻은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고, 유다도 죽고, 요셉도 죽고, 그의 후손의 후손들도 죽었지만, 그들의 야훼는 죽지도 아니하시고 줄지도 아니하시는 영존하는 하나님이시요, 이전 세대에도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요, 지금 여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란 것이다. 이 하나님을 유대민족은 자기 민족만의 하나님으로 인식함으로써 대 선교사명을 망각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동일한 하나님이 소수 유대민족의 하나님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만 인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과 이 하나님이 선포한 구원의 복음은 남녀신분학력민족의 차별 없이 또 값없이 또 은혜와 믿음으로만 된다는 귀한 사실을 인식한 것이다. 여기에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셨다. 이 말씀의 또 다른 뜻은 자자

손손 대대로 유대민족이 믿어온 하나님이니란 것이다. 여기에는 믿음의 뿌리가 있고 전통과 문화가 있고 명절과 관습이 있다. 이방 민족에는 없는 소중한 믿음의 유산이 있다. 이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란 말씀이다. '조상의 하나님'이란 말이 출애굽기 3장에만 네 차례 사용되었고, 그밖에 글에도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 가운데도 특히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 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출애굽기에 자주 쓰인 이 표현이 사도행전에도 자주 쓰이고 있다. 신약과 구약의 연속성, 모세와 그리스도의 연속성, 율법과 복음의 연속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바통의 이동을 강조한 말씀들이다.

유대민족은 민족이기주의에 빠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독점하였고, 대 선교사명을 망각하였다. 그것이 유대민족의 실패의 원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의 피로 맺은 옛 언약공동체와 같지 아니하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 공동체가 필요했던 것이다. 유대민족의 바통을 이어받아 세계선교에 이바지할 새 언약 공동체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것이 기독교이다.

그렇다고 유대민족의 신앙유산에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신앙고백과 그 전통은 우리 기독교인이 세워나가야 할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물려받은 귀중한 유산이요 힘겨운 과제이다. 우리가 무엇을 후대에 물려주겠는가? 흑암을 빛이 되게 하시고,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고, 죽음에서 생명을 있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유산을 물려주는 것 외에 또 무엇이 있겠는가? 유대인들에게 지나치게 배타적인 면이 있고, 또 하나님을 자기민족의 하나님만으로 제한하는 우를 범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런 점들을 극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약의 하나님으로, 가문이 대대로 믿고 섬기는 조상의 하나

님으로 세워가야 하고, 신앙의 전통과 문화유산을 잘 만들어가고, 또 그것을 후대에 물려줘야하는 것이다.

Ⅲ.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

마지막으로 유대교와 기독교를 다르게 만드는 결정적인 차이점 한 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마틴 부버(Martin Buber, 1878-1965)라는 유명한 유대인 신학자가 1917년에 이런 글을 썼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그를 구원했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메시아가 분명히 미래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다(Will Herberg, ed., *The Writings of Martin Buber*, p. 31). 또 『두 형태의 신앙』(*Two Types of Faith*)에서는 기독교가 실현된 종말론(realized eschatology)을 믿고 있는 반면에 유대교는 미래에 이루어질 종말론(futuristic eschatology)을 믿고 있다고 했다.¹⁰⁾ 부버가 언급한 이 두 개의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유대민족에게는 영적구원(종말)이 없고, 육적구원(종말)만 있다는 것이다.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구원과 그의 재림 시(時)에 육적 완성이 이뤄질 것을 말하는데, 부버는 출애굽사건을 통해서 대(大) 구원(초기구원)이 이뤄졌고, 메시아가 오심으로 그 구원이 완성된다고 본 것이다. 기독교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이미 실현된 구원의 확산, 곧 종말에 주어질 축복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미리 맛보고 누리는 영적인 축복이 있는 반면, 유대교에는 그것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데, 유대교인은 미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다. 유대교인에게는 ‘이미’가 없고, 오직 ‘아직’만이 있을 뿐이다. 이점이 기독교가 유대교와 다른 한 가지이다.

유대민족의식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초기구원은 출애굽사건을 통해서 이미 이뤄진 것이고, 이 사건이 대(大) 구원사건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는 유대민족이 고대하는 올 세계(‘올람 하바’,

10) 최한구, 『유대인은 EQ로 시작하여 IQ로 승리한다』 (도서출판 한글, 1998).

Olam Ha-Ba 곧 world to come)의 도래, 곧 이스라엘 국가의 궁극적인 완성이자, 제2의 출애굽사건을 주도할 왕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 왕이 오시면 이스라엘 국가는 완전하고 완벽하게 회복될 것이라고 믿는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직도 오지 않았고, 세상 끝 날에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믿는다. 그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도문 「쉐모네 에스레이」를 매일 세 차례씩 암송한다.¹¹⁾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란 말 대신에 '모쉬아크'(Moshiach)란 히브리어를 쓴다. '메시아가 지나치게 기독교적인 뜻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¹²⁾

'모쉬아크'는 '기름부음을 받은 자'란 뜻으로써 마지막 때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게 될 자를 뜻한다. 그러나 모쉬아크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세주'(救世主)가 아니고, 죄가 없으신 신적(神的) 존재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은 모쉬아크가 다윗 왕의 후손인 위대한 정치 지도자일 것이고, 유대법에 정통하여 그것의 계명들을 지킬 것이며,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일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어 그의 본보기를 따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을 위해 전투를 승리로 이끌 위대한 군사 지도자일 것이고, 의로운 결정을 내릴 위대한 재판관일 것이지만, 이 모든 것 위에 그는 인간일 것이고, 신적 혹은 반신적 존재나 초자연적 존재가 아닐 것이라고 주장한다. ¹³⁾

모든 세대에서 사람은 모쉬아크가 될 잠재성을 가지고 태어나며, 만약 그 사람이 살아서 활동할 때에 메시아시대에 적절한 때가 도래한다면, 그 사람은 모쉬아크가 될 것이지만, 만약 그 사람이 모쉬아크의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 죽는다면, 그 사람은 모쉬아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¹⁴⁾

일반적으로 모쉬아크는 (세상이 죄로 넘쳐서) 그를 가장 필요로 하

11) 조동호 역, "쉐모네 에스레이"(http://kccs.pe.kr/jewishcal7.htm).

12) 조동호 역, "유대주의에서의 메시아사상(Moshiach: The Messiah)"
(http://kccs.pe.kr →성경연구→신약성경관련).

13) *Ibid*

14) *Ibid*

는 때나 (세상이 심히 좋아져서) 가장 합당한 때로 여겨지는 시기에 오시게 될 것이라고 믿어진다. 모쉬아크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킴으로써 정치적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며, 이스라엘에 한 정부를 세울 것이고, 그것을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한 전 세계 정부의 중심에 세울 것이며, 성전을 재건할 것이고, 성전예배를 다시 세울 것이며, 이스라엘의 종교법정 체계를 회복시킬 것이고, 나라 법으로써 유대법을 세울 것이라고 믿는다.¹⁵⁾

이때의 세계를 유대문학에서 ‘올람 하바’(Olam Ha-Ba), 곧 다가올 세계라 부른다. 올람 하바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계이며(사 2:4), 모든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들이 유배되었던 나라들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며(사 11:11-12, 렘 23:8, 30:3, 호 3:4-5), 회년 법이 다시 효력을 갖게 되고, 전 세계가 유대인의 하나님을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으로, 유대종교를 유일하고 참된 종교로 인정하게 될 세계라는 것이다(사 2:3; 11:10; 미가 4:2-3; 스 14:9). 이 세계에서는 살인, 약탈, 경쟁과 질투는 사라질 것이고, 죄도 없어질 것이다(슥 3:13). 희생제물은 성전에서 계속 드러질 것이나 제물들은 감사예물에 국한될 것이라고 믿는다. 더 이상 속죄를 위한 제물이 필요치 않기 때문이란 것이다.¹⁶⁾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유대민족에게는 출애굽사건에서 시작해서 모쉬아크 사건에서 완성되는 이스라엘 국가의 설립과 완성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르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맺은 새 언약 공동체인 교회(성도들이)가 성령의 능력가운데서 영적으로 시작되는 구원으로 출발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육적으로 완성되는 구원을 말하고 있다. 성령의 능력가운데서 영적으로 시작되는 구원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뤄지는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으로써 약속과 인침과 보증과 선취의 의미를 갖는다. 이것을 또한 ‘칭의’라 부른다. 약속과 인침과 보증과 선취란 그리스도의 재림 시(時)에 완성될 육적 구원(성도들의 육체부활과 우주의 회복인 새

15) *Ibid*

16) *Ibid*

하늘과 새 땅), 곧 종말에 이뤄질 축복들을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약속받고, 인침(도장) 받고, 보증(선수금) 받고, 맛보고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미' 이뤄진 구원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실현된 종말론 혹은 시작된 종말론이라고 말한다.

이와 같은 것들이 유대교에는 없다. 이와 같은 축복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인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출애굽사건으로 메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란 것은 메시아가 가져오실 하나님의 왕국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말이고, '아직'이라는 말은 완성될 하나님의 왕국이 아직 소망 가운데 있다는 뜻인데, 유대인들은 '아직'만 믿고 있는 것이다. 엄격히 말해서 유대인들의 신앙에는 현재구원이 없고, 오직 미래구원만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뤄진 구원을 맛보며, '아직' 이뤄지지 아니한 것을 은혜 가운데서 희망하는 것이다.

나오는 말

유대교와 유대인들에 대해서 깊이 알면 알수록 그들이 대단한 민족이란 것을 절절히 느낄 수 있다. 그런 그들의 귀중한 유산을 물려받고 있는 것이 기독교인이다. 유대민족은 선교사명을 망각하고 민족이기주의와 배타주의에 빠져 이 귀중한 전통과 유산을 여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특권을 기독교에 넘기고 말았다. 만일 우리 기독교가 유대민족의 전철을 밟는다면 하나님은 유대민족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 특권을 다른 곳으로 옮기실 것이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다수가 이방민족이고 다신(多神) 사상 속에 있기 때문에 유대민족이 조상의 하나님 신앙유산을 잘 지켜왔던 것처럼 기독교 신앙의 전통과 문화를 바르게 세워 후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일에 게을리 말아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1. 인터넷 자료

유대교 관련 자료들(Judaism 101, <http://www.jewfaq.org/toc.htm>).

유대인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관한 자료들

(<http://www.jewfaq.org/birth.htm>

<http://www.jewfaq.org/barmitz.htm>).

유대학술세미나 자료들(이스라엘 문화원,

<http://www.iscc.co.kr/seminar.asp>).

정호진. “이스라엘 농촌 사회.” 이스라엘문화원, 유대학술세미나.

<http://www.iscc.co.kr/seminar.asp>.

조동호 역. “쉐모네 에스레이.” <http://kccs.pe.kr/jewishcal7.htm>.

조동호 역. “유대주의에서의 메시아사상.” <http://kccs.pe.kr> →성경연구→신약성경관련.

조동호 역. “이스라엘의 땅.” <http://kccs.pe.kr> →성경연구→신약성경관련.

최명덕. “유월절로 본 성만찬.” 이스라엘문화원: 유대학술세미나자료,

<http://www.iscc.co.kr/seminar.asp>.

최명덕. “이스라엘의 가정교육.” 이스라엘문화원: 유대학술세미나자

료, <http://www.iscc.co.kr/seminar.asp>.

현용수. “유대인의 IQ + EQ.” 이스라엘문화원: 유대학술세미나자료,

<http://www.iscc.co.kr/seminar.asp>.

2. 단행본 자료

최한구. 『유대인은 EQ로 시작하여 IQ로 승리한다』 도서출판 한글, 1998.

제6장 새 시대에 적합한 인물

Persons Fit to the New Covenant Age

1. 베드로와 야고보

유대교인들은 2500여 년 전부터 두 가지를 희망하고 있었다. 첫 번째가 메시아가 나타나는 것이고, 두 번째가 그 메시아가 가져올 '올람 하바'(Olam Ha-Ba)이다. '올람 하바'란 '메시아 시대' 혹은 '다가올 세계'(World to Come)를 뜻한다. 이 '올람 하바' 곧 '다가올 메시아 세계'는 흔히 말하는 '종말시대' 또는 '마지막 시대'를 말하는 것이다.

기독교에서는 이 '다가올 마지막 세계'가 2천 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사건에서 시작되었다고 본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인류의 대속을 위한 것이었고, 그분이 승천하시고 대신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의 활동은 다가올 마지막 세계의 실현을 위한 것이었다. 성령님의 활동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올람 하바'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과 성령님의 '중생과 씻음과 거룩하게 하심'을 받은 사람은 이 '올람 하바'의 시민이 되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500여 년간 몹시 고대하던 그 마지막 세계 혹은 종말시대가 성령님의 활동을 통해서 '교회'라는 새 언약 공동체 속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영적으로 실현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시대를 교회시대, 혹은 성령시대라고 부른다. 또 이 시대를 다른 말로는 시작된 종말시대 또는 실현된 종말시대라고 부른다.

시작된 종말이나 실현된 종말이란 말은 영적인 종말을 뜻하는 것이고, 종말의 완성을 뜻하는 것은 '아직' 아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말, 혹은 '칭의'나 '중생'이란 말은 종말이 완성되는 때에 주어질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고, 성령님으로 보증 받고, 인침 받고, 그 축복들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과 보호하심과 변호하심과 치료하심 속에서 맛보고 누리며 경험하는 것

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대표적인 축복은 하나님의 평강이다. 마음의 평화, 가정의 평화, 이 평화가 있는 곳에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이지, 끝은 아니다. '끝' 곧 '완성'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이뤄진다. 그리스도인들이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3절에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이 유대인들에게는 없다. 그들에게는 시작된 종말이나 실현된 종말의 축복이 없는 것이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조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약속뿐이고, 성령님으로 보증 받고, 인침 받고, 그 축복들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과 보호하심과 변호하심과 치료하심 속에서 맛보고 누리며 경험하는 것이 없다. 유대인들에게 시작된 종말의 축복이 없는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말하는 '다가올 시대'란 그들 민족만의 축복이기 때문이다. '올림 하바'는 유대인의 제2의 출애굽 사건, 곧 유대인의 대 구원 사건을 말하는데, 이 사건은 영적인 사건이 아니고, 육적인 사건이다. 문자적인 이스라엘 왕국의 완전한 회복을 말하는 것이다.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국가가 건국되었는데, 건국된 지 60여년이 흘렀어도 이스라엘 왕국이 완전하게 회복되었다고 믿는 유대인은 없다. 아직 메시아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고, 세계를 통합할만한 여력도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2천 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메시아닉 주(Messianic Jews), 곧 소수의 기독교인 유대인들이 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다수의 비기독교인 유대인들이 있다. 기독교가 처음 시작된 장소는 예루살렘이고, 시작한 사람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다.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주후 30년 5월 28일이었고, 대표적 지도자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다.

이들 기독교인 유대인들을 보는 신학자들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다. 먼저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기독교인 유대인들이 그들 자신들을 유대교 안에서의 개혁운동으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제사를 드렸고, 안식일을 지켰으며, 할례를 행하고, 절기와 음식에 관한 법들을 지켰다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겼고, 예수님을 선지자나 교사의 한 사람으로 보았으며, 신적이나 반신적 존재로 보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예루살렘에 집중된 기독교인 운동이 할례를 행하고, 성전제사를 드리고, 절기와 음식에 관한 법들을 지킨 것을 제외하고는 바울 라인의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거의 다르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고, 삼위일체의 한 인격으로 보았으며, 메시아와 구세주로 보았다고 말한다.

필자는 진보 보수 신학자들이 말하는 두 가지 견해의 유대인들이 언제나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공통점은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였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기독교인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우리 기독교인들과 달리 한다. 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다윗 왕처럼 그들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우리가 말하는 '구세주'(救世主)도 아니고, 죄가 없으신 삼위일체 신도 아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을 되찾게 해줄 다윗과 같은 영웅이자 제2의 출애굽 사건을 이끌 모세와 같은 인물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 같은 인물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킴으로써 정치적 영적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며, 이스라엘에 한 정부를 세울 것이고, 그것을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한 전 세계 정부의 중심에 세울 것이며, 성전을 재건할 것이고, 성전예배를 다시 세울 것이며, 이스라엘의 종교법정 체계를 회복시킬 것이고, 나라 법으로써 유대법을 세울 것이라고 믿는다.

예수님의 부활사건과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을 접하기까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유대인들조차도 여타의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메시아가 무죄한 신적 또는 반신적 존재일 것이라든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실 구세주이시며 다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러나 부활사건과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은 그들의 보편적

인 생각을 바꾸기에 충분히 충격적인 사건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믿었다 할지라도, 그 메시아가 온 인류의 대속, 곧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도 된다는 생각을 갖지는 못했고, 유대인과 이스라엘 나라만을 위한 메시아라는 생각을 쉽게 떨쳐버리지를 못했다.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10-11장이다.

유대인들 가운데는 두 종류의 유대인들이 있다. 먼저 언급된 두 종류의 유대인은 예수님을 믿고 안 믿는 신앙과 관련된 것이었지만, 지금 설명하는 두 종류의 유대인은 거주 지역에 관련된 것이다. 팔레스타인 땅에서 출생해서 아람어를 쓰고, 히브리어 성경을 읽으며, 이스라엘 영내에서 거주하는 유대인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사도행전은 말한다. 그러나 외국에서 출생해서 헬라어를 쓰고, 헬라어 성경을 읽으며, 외국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영내를 출입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사도행전은 말한다. 본 장에서 살펴보려는 유대인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출생해서 아람어를 쓰고, 히브리어 성경을 읽으며, 이스라엘 영내에서 거주하는 히브리파 유대인이고, 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기독교인 유대인이며, 그 대표자격인 베드로와 야고보의 사고와 신념과 역할과 사명에 관한 것이다.

사도행전 10장 14-15절에 보면,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것과 “하나님께서 깨끗케 하신 것”이 비교되어 있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것은 유대인이 이방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깨끗케 하신 것”은 사도행전 10장 22절에서 볼 수 있듯이 백부장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다. 비록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깨끗케 하시기 때문에 아무라도 속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실을 비기독교인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베드로조차도 깨닫지 못했고, 알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것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한계였고, 그들의 활동범위를 동족에게 제한시키는 족쇄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환상을 보이고, “하나님께서 깨끗케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라는 물음의 답이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1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고 교제한 사실에 대해서 힐난하며 나무랐던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하나님이 유대인의 구원만을 위하지 아니하시고, 동일하게 이방인의 구원도 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한계였고, 그들의 활동범위를 동족인 유대인에게 제한시킨 족쇄였던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11-18절을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말씀이 있다. 베드로가 안디옥교회를 방문했을 때,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야고보가 보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도착하자 이방인과 함께 음식 먹는 것을 보고 비방할 것을 두려워하여 자리를 피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다른 유대인들조차도 베드로를 따라 자리를 떠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4-16절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좇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고 면책했다는 것이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같은 인물이 쉽사리 빠져나올 수 없는 울무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회중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받은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인 토라였다. 할례를 포함한 그 토라의 내용을 지키지 않고서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신념이 그들을 가두는 울무였던 것이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유대교에 개종하는 차원에서 이해

하렐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에게 할례를 요구한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런 문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곳이 사도행전 15장이다. 바울과 바나바가 일차 선교여행을 성공리에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올라온 자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한다.”(행 15:1)고 주장하게 되면서 그들과 바울사이에 심한 변론이 일게 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몇몇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어 사도들의 의견을 듣게 하였다. 이 일로 예루살렘에서 사도와 장로들의 총회가 열리게 되었다. 많은 변론이 있고난 다음에 베드로의 설득과 야고보의 중재로 주님께로 돌아온 이방인들을 ‘문의 개종자’의 수준에서 처리하고자 제안하였다.

‘문의 개종자’란 문안의 개, 곧 손님이란 말에서 온 것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유대인들의 궁극적인 희망사항이 이방인들의 완전한 개종이었다 치더라도, ‘하나님 경외자들’에게는 613개의 명령과 금령을 포함한 토라 전체의 준수가 요구되지 않았다. 그 대신 그들에게는 노아의 일곱 개의 율법이 요구되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날 유대인들은 ‘하나님 경외자들’을 ‘노아의 자녀들(B’nai Noah)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유대인들은 이 일곱 개의 율법이 최초의 ‘하나님 경외자’였던 아담과 노아에게 주어졌던 것이며,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올람 하바,’ 곧 다가올 세계에 동참하고 싶어 하는 이방인들에게 요구하는 율법이다. 이들 일곱 개의 노아의 율법은 (1)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2)우상들을 숭배하지 말라. (3)간음하지 말라. (4)살인하지 말라. (5)도둑질하지 말라. (6)동물의 살코기를 산채로 먹지 말라. (7)사범체계를 제정하라는 것이다. 사도행전 15장에 소개된 사도총회에서 결정된 네 가지 금지사항들, 즉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금하라는 야고보의 절충 제안은 바로 유대인들이 ‘하나님 경외자들’에게 요구했던 내용들이었던 것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신 마태복음 16장 18-19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교회의 설립권과 승인권을 가진 사도였다. 그의 입에서 나온 설교로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되었고, 빌립이 세운 사마리아 교회와 바울의 선교교회들이 그의 권위아래서 승인될 수 있었다. 그러나 베드로가 교회 설립권과 승인권을 가진 사도 중의 사도였다 할지라도 그의 역할은 거기까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였다.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책임자로 부상되던 때에 사도들은 떠돌이 순회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야고보가 최초의 그리스도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다 할지라도 그의 역할 또한 거기까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베드로나 야고보와 같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들의 사교가 민족주의에 제한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란 한계를 넘어 지평을 넓히기가 심히 어려웠다. 따라서 하나님이 쓰신 그들의 역할도 거기까지였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7-8절에서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다.”고 말한 것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의 역할을 그들의 민족인 소수 유대인에게 한정시켰던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열방 민족을 향한 사역은 지평이 넓고 열방민족을 품을 수 있는 넓은 가슴과 뜨거운 열정을 가졌던 바울에게 넘어갔던 것이다. 우리를 옥죄는 울무가 무엇인지,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역할과 사역을 제한시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되었으면 한다.

2. 바울

수천 년 동안 자손대대로 조상의 하나님을 고백했던 엄청난 신앙

의 유산을 가진 유대인들이 신생 기독교에 추월을 당하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떨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옛 언약공동체로 무시해버린 기독교신앙과 복음에 뒤진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자기 민족의 하나님으로 묶어버리고, 소수 유대민족의 신으로 제한해 버린 때문이 아닐까? '조상들의 하나님 신앙'이 유대민족의 결속에는 도움이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민족신(民族神)으로 묶어버리는 단점이 있는 것이다. 그들 조상에게 계시하셨던 하나님은 결코 소수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으로 제한될 수 없는 이 우주에 한분밖에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 점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에 패배한 것이다.

오랜 역사와 완고한 전통 속에 있던 유대교를 뛰어넘어 기독교시대를 연 인물이 누구인가? 사도 바울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부름을 통해서 유대인의 하나님을 만인의 하나님으로 유대인의 구원의 하나님을 만인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지평을 넓힌 사람이다. 그는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와 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고 했다. 로마서 10장 12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꼭 같이 주님이 되어 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라고도 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서는 "그 비밀이라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함께 약속을 받은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라고도 했다. 일찍이 유대인들이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던 이런 파격적인 선언이 계시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말한 내용이라고 했고,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신 것이라고도 했다. 여기서 다른 세대의 사람의 아들들이란 하나님이 자기 민족만의 하나님이란 편협한 사고에 빠진 유대인들을 말한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방인도 유대인과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 유대인도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과 동등한 자격을 얻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하심을 받는 것은 유대인

이나 이방인이나 동등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된다는 것, 이것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8절)이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취였던 비밀의 경륜”(9절)이며,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11절)이라고 했다.

얼마나 파격적인가? 그러나 유대인들이 누구며,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알기 전에는 바울의 이러한 선언들이 얼마나 파격적인 것인가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파격적인 대 선언 때문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대로 바울은 수없이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39대의 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고, 날마다 교회들을 위하여 염려 속에서 살았던 것이다.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 유대인과 한 점 차별도 두지 않고, 언약의 하나님과 조상의 하나님을 자랑하며 유일신 하나님의 선민이 된 것과 언약서인 토라를 자랑하는 유대인과 동등하게 취급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는 헬라파 유대인이었다. 이방 나라와 이스라엘의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높은 벽을 뛰어넘어 문화가 다른 이방 나라에 하나님을 소개한 사람들이었다.

헬라파 유대인은 외국에서 출생해서 헬라어를 쓰고, 헬라어 성경을 읽으며, 외국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영내를 출입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말한다. 바울과 바나바, 스테반과 빌립과 같은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다. 예루살렘 교회에 과부를 구제하는 일로 불평이 생겨서 사도들을 대신할 일꾼들로 뽑힌 일곱 사람들이 모두 헬라파 유대인들이다. 흔히 일곱 집사라는 말을 쓰지만, 그들은 집사이기 보다는 오히려 전도자들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과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와 같은 이들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출생해서

아람어를 쓰고, 히브리어 성경을 읽으며, 이스라엘 영내에서 거주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사교가 민족주의에 묶여 있고, 하나님을 유대인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배타주의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방인 선교에 매우 소극적이었던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방인 선교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그 결과 헬라파 유대인 회당에는 네로의 부인 포페아를 비롯해서 유대인 수에 못지 않은 많은 수의 헬라인들이 유대교에 입교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준에 있었다. 히브리파 유대인 회당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현상이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기독교는 독특한 관계를 맺고 있다. 첫째는 초기 기독교 박해가 헬라파 유대인들한테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역시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이었던 스테반을 살해한 것이다.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바울을 죽일 것을 공모하고 39대의 매를 다섯 번이나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돌로 쳐서 거의 죽게 만들었던 사람들도 모두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 둘째는 이런 극심한 견제와 배척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그레코로만 세계에 뿌리를 내려 급속히 성장할 수 있게 한 것도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들 때문이었다. 셋째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편협한 사교 때문에 유대교에 매몰되고 말았을지도 모를 기독교 복음을 팔레스타인 국경을 넘어 시리아로 가져가고, 키프로스로 가져가고, 터키로 가져가고, 그리스로 가져가고, 로마로 가져가고, 북아프리카로 가져간 사람들이 모두 헬라파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었고, 대부분의 선교 교회들이 이들 헬라파 유대인 회당을 출입했던 자들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예루살렘과 유대지방에 교회를 세우는 데는 열두 제자들과 같이 아람어를 사용하는 본토출생의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들어 쓰셨지만, 안디옥과 해외에 이방인 교회를 세울 때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외국태생의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들어 쓰셨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과 유대지방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들어 쓰셨지만, 사마리아지방에서는 빌립을 들어 쓰셨고, 해외선교는 바울과 바나바 등의 인물을 들어 쓰셨다.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베드로나

요한 또는 야고보 등을 보내어 해외선교를 하지 않고 박해자였던 바울이 필요했을까? 왜 하나님은 기독교를 세우는데 그리스말을 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필요했을까?

첫째, 해외선교는 무엇보다도 선교지역의 문화와 언어에 익숙한 사람이 유리했기 때문이었다. 빌립, 스테반, 바나바, 바울, 실라 등은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이미 세계화가 이루어진 사람들이었다. 많은 교육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방문화에 익숙하였고, 무엇보다도 국제어인 헬라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베드로와 야고보처럼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 아람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본토출생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유대인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했을 뿐 아니라, 배타적이고 민족주의적이며, 무엇보다도 헬라어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에게는 준비된 그릇이 필요했던 것이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교에 개종한 자들을 ‘의의 개종자’와 ‘문의 개종자’로 나누어 구분하였는데, ‘의의 개종자’는 유대교의 모든 율법과 의식을 준수하는 완전개종자를 말하고, ‘문의 개종자’는 율법과 유대교 의식에 제재 당하지 않고, 유대교 회당에 참석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다. 이런 이방인들이 외국에 많았다. 터키에 있는 아프로디시아스(Aphrodisias)에서 1977년에 발굴된 2세기경 회당건립 후원자 명단이 새겨진 기념비에는 유대인이 69명인데 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무려 54명이나 되었고, 완전개종자도 3명이나 새겨져 있었다. 이 기념비는 초대교회 당시 회당을 출입하면서 유대교 신앙을 받아 드린 이방인들이 얼마나 많았는가를 알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고고학적 자료이다. 이들이 바로 기독교 복음을 받아드릴 준비된 축복의 그릇들이었다. 하나님은 이들을 불러 축복하시고 구원하셨다.

기독교 복음은 처음에 하나님을 아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에서 시작하여 디아스포라 곧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전파되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완전 불신자들인 이방인들에게 까지도 전파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세계로 뻗어가는 징

검다리였다.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위한 그릇으로 아람어를 사용하는 본토출신 베드로와 그 밖의 사도들을 택하지 않고, 헬라파 유대인인 바울을 택한 이유는 이방인을 이해하고 포용하며 그들의 구원에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는 열린 사고와, 하나님의 구원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세계화된 사고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선민의식과 언약서에 대한 자기도취에 빠져서 자기 민족이란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역할과 활동범위가 그들 민족에 국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기독교 복음은 편협한 배타적 선민의식과 독점적인 영토주의 그리고 율법주의의 소유자들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손과 팔레스타인의 울타리를 벗어나 세계로 뻗어가야 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대표격인 베드로와 야고보는 편협한 배타적 선민의식과 독점적인 영토주의와 율법주의에 젖어 있을 뿐 아니라, 당대의 헬레니즘 문명권에 동화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헬라문화와 언어 및 지리에 익숙하지 못하였고, 해외에서 자랐거나 공부한 경험이 없었으며, 친지들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이들은 세계 선교에 기여할 능력이 많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된 그릇이었던 헬라파 사람들의 포용적이고 열린 복음적 사고와 익숙한 언어와 문화수준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셨던 것이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었으면서도 열방민족들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그 비밀에 동참할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세속적인 욕망을 위해서 맞춤 그리스도를 바라고 원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약속을 문자적으로 믿으면서 제2의 출애굽사건을 이끌 그리스도의 등장을 기다렸고, 그 그리스도가 세울 '울람 하바'가 유대인들로 하여금 세계를 지배하게 할 유대인 국가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간직했던 비밀을 그들은 제대로 알 수 없었고, 지금도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지 않고 있다.

사도 바울이 깨닫고, 이것을 온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간직하셨던 당신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속하시고, 죄 사함을 얻게 하시며(골 1:14, 엡 1:7),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을 살리시는 것이다(엡 2:1).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골 1:18-20),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자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자녀로 삼으신다는 것이다(엡 1:3-5).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비록 그들이 약속을 받지 못한 이방인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일찍부터 약속을 누렸던 유대인들과 비교했을 때, 외국인도 아니요, 문안의 객, 곧 손님 혹은 문의 개종자도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이며(엡 2:19),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을 물려받을 상속자들이란 것이다(엡 1:11). 이 놀라운 소식을 온 세계에 전할 일꾼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이 뽑혔다는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을 믿되, 히브리파 유대인들처럼 편협하고 배타적이고, 그래서 빗장을 안으로 걸고, 자기 율타리 안에서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열방을 품은 크고 넓은 활짝 열린 마음으로 바울처럼 세계로 뻗어가야 한다.

3. 빌립과 스데반

빌립의 공헌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매몰될 뻔한 기독교를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며 상종도 하지 않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져간 것이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빌립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곧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스데반의 공헌은, 공헌이라고 말해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후에 불세출의 이방인 사도가 된 바울의 마음에 꺼지지 않는 기독교복음의 불을 지핀 것이다. 스테반은 이 일의 고귀한 희생자였다. 교회가 유능한 젊은 일군 한 사람을 얻는 일에 스테반이 목숨을 바쳤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으며, 박해를 피해서 흩어져야 했다. 스테반의 죽음은 바울에게 한평생 복음에 빛진 자로서(롬 1:14, 8:12) 살아가게 한 좋은 의미의 죽쇄가 되었을 것이다.

빌립과 스테반의 등장은 예기치 아니한 일에서 비롯되었다. 주후 30년 5월 28일 오순절 날, 곧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가 되는 일요일에 성령이 불의 혀처럼 제자들 위에 강림함으로써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의 설교로 시작된 인류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체계와 질서가 채 서지 못한 상태에서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고”(행 6:7), 문화와 언어가 다른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서로 갈등하게 되었다(6:1)

이 갈등은 사도행전 6장 1절의 말씀대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지므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6:1)서 비롯되었다. “원망”의 근원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사도들은 모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다. 그래서 교회는 “일곱을 택하여”(6:3) 헬라파 유대인들의 지도자로 삼았는데, 이 때 뽑힌 일곱 사람은 모두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 빌립과 스테반도 이 때 뽑힌 일곱 사람에 속한 지도자들이었다.

사도행전 6장 2-4절에 따르면, 본래 빌립과 스테반은 열두 사도들을 대신해서 구제를 받아야 할 자들에게 식량을 배급하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일을 책임 맡은 자들이었다. 이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들이었고,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었다. 잘 모르긴 해도, 이들은 아마 일주일에 하루씩 책임을 맡아 구제업무를 관리했거나 자기 구역을 따로 맡아 관리했을 것이다.

빌립과 스테반은 구제업무를 관리하는 일에 만족하지 않았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성격상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사도들에게만 맡겨두지 않았다. 특히 그들은 사도들이 관심을 갖지 못하는

소외계층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여유 시간을 활용하여 복음을 전하였다. 그런 그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기독교복음이 편협한 배타주의와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손과 팔레스타인의 율타리를 서서히 벗어날 수 있었다.

빌립과 스테반이 교회로부터 정식으로 선출되고, 사도들로부터 안수를 받아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다는(행 6:6) 점에서 그들이 평신도 지도자(집사)였는지, 목회자(장로)였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후에 빌립은 “전도자 빌립”으로 불렸다(행 21:8). 중요한 것은 그들과 같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곧 헬라파 유대인들에 의해서 기독교복음이 편협한 배타주의와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손과 팔레스타인의 국경을 넘어 이방세계에까지 전파되었다는 것이다.

빌립은 유대총독부가 있는, 그래서 이방인이 많을 수밖에 없는 가이사랴에 살았다. 빌립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이방인과의 접촉을 당연시하는 열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런 성품 때문에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에 복음을 전한 최초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유대지방 사람들에게는 물론이고, 유대인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에티오피아 사람 내시에게조차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베푼 최초의 사람이었다. 그가 유대인들이 상종도 아니 하고, ‘개’ 취급했던 사마리아 사람과 에티오피아 사람인 흑인 내시에게까지 복음전하는 일을 전혀 꺼려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이었다는 점은 왜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방인 선교의 그릇들이 될 수 있었는지를 잘 설명해준다.

빌립은 복음전도, 특히 이방인 선교에 뜨거운 열정과 열린 마음을 가진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는 점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것이고, 헬라어를 구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자였던 에티오피아인 내시에게조차 기독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비록 사마리아 교회와 이방인 교회들의 정통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승인권이 아람어를 쓰는 베드로와 요한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었다할지라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사교의 한계 때문에 세계 선교의 그릇들은 빌립과 스테반,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감당하게 된 것을 볼 수 있다.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인들이었다. 앗수리아제국에 망하여 대부분 포로로 끌려갔고, 폐허 속에 내버려진 가난하고 못 배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과 점령국 앗수르제국이 이주시킨 이방인들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들이고, 종교적인 혼합도 막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유대와 사마리아는 솔로몬 왕이 죽은 해인 주전 930년에 왕국이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갈라지면서 분열하였다. 북 왕국은 주전 722년에 앗수르왕 사르곤 2세에게 멸망당하였고, 사르곤은 이스라엘인 27,290명을 포로로 잡아갔다. 그 후 한 세기 동안 유다왕국의 히스기야왕 때(주전 715-686년, 대하 30:1이하)와 요시아왕 때(주전 640-609년, 왕하 23:15이하)에 종교적 통합과 화해를 위한 시도가 있었다. 그리고 바벨론 유배이후에도 화해를 위한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에 재건된 성전에 대항하여 자기들의 성산인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면서(요 4:20) 대립은 더욱 심화되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인종적 종교적 혼혈족으로 간주하였다. 앗수르 침략이후 사마리아에는 혼족과 혼교의 문제가 있었다. 그 후 혼교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유대인들의 지역감정은 누그러들지 않았다. 그러다가 주전 128년에 요한 힐카누스가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분열의 원인이 되는 성전을 파괴시켜 버렸다. 그리고 주전 63년 이후 로마제국의 정복 아래서 사마리아는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났지만, 지역감정은 그대로 남았다.

북 왕국 사람들보다 130여년 늦게 바벨론제국에 유배되어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남왕국 유대인들은 다행히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게토를 이뤄 살았기 때문에 혈통과 유대교신앙의 혼합을 막을 수 있었고, 고국에 돌아올 때는 유대인 혈통은 물론이고, 더욱 발전된 유대교신앙까지 가져올 수 있었다. 그런 민족적 종교적 우월주의에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라 부르며 상종하기를 꺼렸던 것이다. 따라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피가 섞인 동족이었으면서도 감정의 골이 깊었다.

그러나 빌립은 디아스포라출신의 헬라파 유대인이었다. 그에게는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없었고, 전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만이 있었다. 따라서 빌립은 사마리아인들의 마음을 활짝 열 수 있었

던 것이다. 전도를 함에 있어서 특정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스데반은 빌립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선출된 일곱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도 역시 디아스포라 출신의 헬라파 유대인이었다.

예루살렘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는 헬라파 유대인들만이 따로 모이는 회당이 두개 정도 있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다. 후에 바울 사도가 된 사울과 스데반이 부딪힌 곳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였다. 이곳에 출입했던 스데반이 회당예배 때, 정확히 말하면, 그 주간에 읽는 성서낭독 후에 주어진 설교시간에(당시 회당에서는 성서낭독 후에 지목된 자나 자원자가 나서서 설교할 수 있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파하였고, 설교를 듣고 난 사울은 스데반을 이단자로 간주하였다. 유대인들의 언약서인 모세오경에는 이단자를 돌로 쳐 죽이도록 정하고 있다. 사울이 앞장을 서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을 돌로 치게 하였고, 이 사건을 계기로 사울은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에 개종한 자들을 색출하여 말살시키기 위해서 이웃나라에까지 갔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거꾸러졌고, 후에는 바울로 이름을 바꾸어 기독교 역사상 가장 뛰어난 업적을 남긴 인물이 되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스데반의 순교이후 사울의 박해를 피해 외국에 흩어진 기독교인들은 모두가 다 디아스포라 출신의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 사도행전 11장 19-21절을 보면,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사람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에게도 말을 붙여서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께서 그들을 돌보시니, 믿게 된 수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적고 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인가? 스데반의 순교는 디아스포라 출신의 헬라파 유대인들을 온 세계로 흩어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빌립과 스데반처럼 이방인 선교에 열정을 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기독교복음을

전하고, 이방인 지역에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세웠으니, 교회를 흠여지게 한 사울의 박해가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스데반의 설교와 거룩한 죽음은 후에 불세출의 이방인 사도가 된 바울의 마음에 꺼지지 않는 기독교복음의 횃불이 되었다. 하나님의 교회가 유능한 젊은 일군 한 사람을 얻는 일에 스테반이 목숨을 바친 것이다. 스테반의 죽음은 바울로 하여금 한평생 복음에 빛진 자로서(롬 1:14, 8:12) 쉬지 않고 달리게 한 채찍이었을 것이다.

사도행전 8장 1-6절을 보면, “사울은 스테반이 죽임 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 날에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박해받기 시작하여,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흠여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 버리려고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그러나 흠여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다. 무리는 빌립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가 하는 기적을 보기도 하는 가운데서, 한 마음으로 빌립이 하는 말을 좇았다.”고 적고 있다. 이 또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인가? 그리스말을 사용할 줄 알고, 또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 흠여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이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깔보는 절반쯤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내려가 복음을 전하니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었다. 사마리아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탄생된 것이다. 후일담이긴 하지만, 박해자 사울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변하여 바울이 되고, 이방인 선교사로 자처하면서 목숨을 내걸고 해외에서 선교할 때에 동족인 헬라파 유대인들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았고, 그들을 피하여 다른 도시로 피신할 때마다 그곳 도시들에 새로운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탄생하였다. 이 또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인가?

빌립과 스테반의 활동범위에는 제한적이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해외선교에까지 활동범위를 확장시키지는 못했다. 빌립은 유대

와 사마리아 지방을 커버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의 주제일 뿐 아니라, 누가는 실제로 사도행전을 기독교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어지는 역사를 더듬어 기록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 보다 완고한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던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에 머물렀고, 야고보보다는 훨씬 더 헬라파 유대인들의 사교에 다가서려고 했던 베드로는 예루살렘과 유대지방에까지 그의 활동범위를 넓혔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와 하나님 경외자였던 고넬료 가정에서 세워진 가이사라 교회를 창립하였고, 빌립과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헬라파 유대인 전도자들의 활동에 힘입어 사마리아와 안디옥과 로마에까지 그의 활동범위를 넓혀갔다. 그리고 빌립은, 비록 그가 해외에까지 활동범위를 확장시키지는 않았지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보다 앞서서 유대지방과 사마리아로 그의 활동범위를 넓힌 전도자였다. 스테반은 아쉽게 예루살렘에서 전도활동을 펼치다가 기독교인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읽을 수 있어야겠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편협한 배타적 선민주의와 율법주의에 젖어 있었을 뿐 아니라, 당대의 헬레니즘 문명권에 동화되지도 못했고 세계화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헬라문화와 언어 및 지리에 익숙하지 못하였고, 해외에서 자랐거나 공부한 경험이 없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들의 동족에게 기독교복음의 발판을 놓는 일에 공헌하였으나 이방민족에게까지 기독교복음을 확장하는 선교의 주도권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주후 70년 유대전쟁의 패배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추방당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문을 닫게 되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후 1878년간 해외에서의 유배생활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유대민족주의가 만들어낸 재앙이었다. 따라서 히브리파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실질적인 주도권을 잃게 되었다. 그리고 70년 이후 교회의 주도권은 점차 제국의 수도인 로마로 옮겨가게 되었다. 베드로와 바울도 로마

에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시대를 ‘올람 하바’라고 했다. 이 세계가 다가올 종말세계인데, 이 새로운 세계에 적합한 인물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진 자들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침례를 받으시고, 첫 설교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신 것이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다.”(눅 5:38)고 하신 것은 새 시대에 적합한 인물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여기서 “회개하라”는 말씀은 죄를 뉘우치라는 말씀도 되지만, 새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패러다임, 곧 ‘새 부대’로 상징되는 새로운 사상,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 등을 말하는 것이며, ‘새 포도주’란 ‘올람하바’ 곧 메시아시대 혹은 교회시대를 말하는 것이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 실현된 종말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메시아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답게 열린 생각과 창조적인 활동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릇들이 되어야겠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을 줄 알아야 겠고, 새 시대를 맞이할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겠다.

4. 바나바

바나바는 레위족의 유대인이었다.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예루살렘에 거주했는지, 그가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돕는 레위인의 업무를 수행했는지, 그가 소유했던 땅이 어디에 얼마나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확실한 것은 그가 유대교의 성전업무를 보는 대신에 기독교복음을 위한 전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밭을 팔아 바친 사람이었다. 교회가 처음 설립되어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 있던 주후 30년대에는 재산을 팔아 교회에 바치는 사람이 많았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나바였다. 사도행전 4장 37절을 보면, “그가 밭이 있으며,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되어 있다. 레위인이었던 바나바가 밭을 팔아 생긴 돈을 유대교 회당이나 성전에 바치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사실이 주목할 만한 사건이다(행 4:37).

교회 건물이나 목회자 사례비가 없었던 때인데도 교회에 그토록 많은 돈이 필요했던 것은 구제해야 할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바나바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자기 것에 강한 집착을 보이는 사람은 선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바나바는 디아스포라 헬라파 유대인이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대민족의 배타주의와 율법주의를 뛰어넘어 이방인을 포용할만한 선교열정과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다. 디아스포라 헬라파 유대인들은 외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 교포들을 말한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의 문자적인 뜻인 ‘흩어진’이란 말보다 ‘유배’라는 말을 더 자주 쓴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외국에 유배되어 떠돌이처럼 사는 인생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로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 회당에서 스테반의 순교로 촉발된 박해로 인해서 또 다시 흩어지게 되었고, 그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 와 안디옥까지 이동하면서 동족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 가운데 용기 있는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 몇이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말하여 예수님을 전했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행 11:19-21).

예수님의 제자들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의해서 시작된 복음이 떠돌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전파되고, 흩어진 헬라파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면서 기독교 복음이 온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선교라는 이름의 복음전도를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불박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니라, 고향을 떠난 떠돌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 떠돌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불박이처럼 발걸음을 떼거나 입을 떼기 어려워하는 사람은 전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파송된 목회자였다. 사도행전 11장 22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일대에 복음이 전파되어 믿는 자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한 사실을 보게 된다. 고대 시리아의 수도 안디옥에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로 바나바가 뽑힌 것이다. 23절을 보면,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

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열심히 설교하였다.

바나바는 목회자로서의 자질을 제대로 갖춘 인물이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 착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인간의 성품이나 사역을 나타내는 데 자주 사용되는 말이다. 바나바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계획을 이뤄드리기에 합당한 자였던 것이다. 또한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목회자였다. 그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였고,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었다(행 11:24).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었다. 바나바에 관한 최초의 언급은 사도 행전 4장 36-37절에 나온다.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로부터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란 뜻의 별명을 가진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라고 되어 있다. 그가 어떤 인품의 사람이었는가를 잘 묘사해 주는 구절이다. 바나바를 언급한 구절들을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행 4:36), 착한 사람(행 11:24), 화목케 하는 사람(행 11:27), 긍정적인 사람(행 9:26-27), 행동하는 사람(행 9:27), 인정받는 사람(행 4:36, 행 11:22,25), 협동하는 사람(행 11:25-26),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행 11:24), 기도하는 사람(행 13:1-2), 순종하는 사람(행 11:22, 13:2-4), 신령한 사람(행 11:23, 13:2), 헌신하는 사람(행 4:37),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다(행 11:26). 이것이 바나바에 대한 성서의 평가이다.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로 불렀는데, ‘위로의 아들’(Son of Encouragement)이란 뜻이다.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 부른 것은 사람들을 격려하는 그의 성품이 특별했기 때문이다. 그는 성경 전체를 통해 유일하게 ‘착한 사람’으로 소개된 자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외에 착한 분이 없다고 하셨는데(막 10:18), 어떻게 해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으로 불릴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위로’의 성품이 곧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God of Encouragement, 롬 15:5 NRSV)’이시고,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Son of Encouragement)’이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로마서 15장 4절은 ‘성서의 위로

(Encouragement of Scripture)라는 말을 적고 있는데, 이는 위로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나오는 것임을 암시한다. 바나바가 어떻게 위로의 아들이란 좋은 별명을 얻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기 말이 아니라, 성서에서 나오는 말씀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바나바는 바울의 멘토르였다. 그는 인물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 인물을 키우고 후원하는 달란트를 가진 멘토르(Mentor)였다. 멘토르는 트로이의 목마로 유명한 전쟁영웅 오디세우스(Odysseus)의 친구이자 충실한 조언자로서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가 장성해 아버지를 구할 때까지 항상 곁에서 그를 가르치고 이끌어 주었던 스승이었다. 여기서 유래된 말이 멘토르인데, 현명하고 믿을 만한 의논 상대나 스승, 또는 영향력 있는 후원자를 말할 때 쓰인다.

바울이 다메섹(다마스쿠스)으로 가던 길에서 주님을 만난 후 그리스도께 헌신을 결심하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자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든 적이 있었다. 겨우 피신한 바울은 곧장 예루살렘에 상경하여 사도들을 만나려 했으나 면담의 기회조차 얻질 못했다. 이때 사도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바울의 회심과 그의 믿음이 진실한 것임을 알려 바울로 하여금 복음사역의 일원이 되는 전기를 마련한 사람이 바나바였다. 사도행전 9장 26-27절을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 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였다."고 그가 행한 일을 소개하고 있다. 여호와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배타적이고 율법적인 히브리파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바울을 소개하여 높은 유대인의 장벽을 뛰어넘어 세계로 복음을 가져가게 할 위대한 사도를 만든 그 한 가지 공로만으로도 바나바는 중요하기 이를 데 없는 인물이다.

바울 곁에 바나바가 있었던 것은 크나큰 행운이요 은혜였다. 사도들이 바울의 과거만을 회상하며 의심하고 두려워하며 그와의 대면을 꺼려 할 때에 바나바는 바울에게서 사도들이 보지 못하는 무한한 가

능성을 보았고, 마치 땅 속에 묻힌 보물을 발견하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사람처럼(마 13:44), 또 매우 값진 진주를 발견한 후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귀한 진주를 산 사람처럼(마 13:46) 바울이 위대한 사도로 성장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쏟은 멘토르였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마 13:43)고 하셨다.

또 바나바는 바울에게 자신과 동역해줄 것을 처음으로 요청한 사람이다. 스테반이 순교하던 날 살벌한 박해를 피해 헬라파 유대인들이 흩어져 고대 시리아의 수도 안디옥에까지 이르렀다. 예루살렘교회는 그곳으로 바나바를 파송했다. 바나바는 부흥하는 안디옥 교회를 섬기면서 협력 목회자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일찍이 바울 안에 감춰진 무한한 가능성의 보물을 발견했던 바나바는 바울이 칩거하던 터키 남단에 위치한 다소에까지 가서 그를 찾아내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에 중책을 맡겼으며, 그를 돕고 협력하는 후원자의 역할을 자진해서 맡아했다. 처음에 바나바는 바울을 그의 협력자로 불러왔지만, 그의 가능성의 보물이 밖으로 돌출되면서 바나바는 기꺼이 그를 자신의 주연 자리에 서게 하였고, 자신은 그를 돕는 조연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바나바는 불세출의 인물, 바울을 키워냈던 것이다. 바나바는 기꺼이 기득권을 버리고 자신보다 뛰어난 바울을 앞장 세웠으며, 함께 협력했던 착한 사람이었다. 이 두 사람은 합심해서 일 년 동안 안디옥 교회를 섬겼고, 또 함께 선교여행을 구상하고 실행에 옮겼다.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Christian)이란 고유명사가 생겨나게 되었다(행 11:25-26).

바나바는 마가의 멘토르였다. 바나바는 크게 실수한 자일지라도 가능성이 보이면 그에게 재기할 기회를 주는 일을 꺼리지 않았다. 그런 방식으로 바나바는 미숙하고 경솔한 행동을 마다않던 그래서 바울로부터 외면을 당했던 마가 요한을 위로의 사도답게 용기를 북돋아 다시 전도자로 세워 큰 일군이 되게 하였다.

바울조차도 마가의 가능성을 보지 못했다. 바울은 제1차 선교여행 때 일행을 버리고 중도에서 귀향해 버린 마가를 용서하려 하지 않았고(행 13:13), 끝까지 바울은 제2차 여행에 마가를 대동하지 않으려

했다. 바울의 고집이 너무 완고하여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안 바나바는 한 젊은 일군을 위해서 기꺼이 사랑하는 동역자 바울과 갈라섰다. 사도들이 바울의 단점을 보았다면, 바나바가 바울의 장점을 보고 그를 픽업하여 위대한 이방인 사도가 되게 하였듯이, 바울이 마가의 단점을 보았다면, 바나바는 마가의 장점을 보고 그가 성장하는 것을 기꺼이 도왔던 것이다. 바나바의 처신이 얼마나 훌륭한 것이었는지는 바울의 글들에 마가가 자주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바울은 마가를 단호히 배제했지만 바나바는 그를 힘껏 품었다. 마가가 일시적인 경거망동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장하여 바울의 사역에 없어서는 아니 될 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가 그의 걸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바나바는 바울과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기”(행 15:39) 하면서 마가를 자신의 선교 여행에 동행시켰던 뛰어난 멘토르였다. 후에 바울은 마가가 자신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옥에 갇혔던 동역자로 교회가 영접할 것을 명하였고(골 4:10), 자기 일에 유익하니 마가를 데려오라고 디모데에게 지시하였으며(딤후 4:11),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는 “나의 동역자 마가”로 부르고 있다. 후에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로마에서 사역하였고(벧전 5:13), 베드로 사후에는 그의 설교를 회상하여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저술하였다. 마가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나바가 곁에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이 나중에 깨달은 마가의 진면목을 바나바는 훨씬 이전부터에 발견했던 것이다. 바울은 마가를 미숙한 자로 보았지만, 바나바는 그에게 숨겨진 무한한 가능성의 보물을 보았던 것이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바울에게 했던 것처럼 마가에게도 똑같이 멘토르의 역할을 했던 것이다. 바나바는 한때의 실수로 평생 배신자의 멍에를 짊어지고 패배의 쓴 잔을 마셔야했을 마가를 극적으로 회생시킨 것이다. 사도들이 왜 요셉인 그에게 ‘바나바’란 새로운 이름을 지어 주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들이다. 그래서였을까? 마가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유대인 건축에 주춧돌과 같은 중요한 모퉁이돌이 되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소개하고 있다(막 12:10).

바나바는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였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은 “바나

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가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였기 때문에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이방의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말씀했을 때 즉시 순종하여 선교사로 떠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선교기간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과 박해를 당했다. 선교사는 자기 자신에 애착이 강한 사람은 될 수 없다. 선교사는 자기 자신을 내어 던질 수 없는 사람은 될 수 없다. 선교사는 남에게 희생을 가르치면서 자신은 도무지 희생할 수 없는 사람은 될 수 없다. 바나바는 자신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자기 몸을 고난과 박해의 현장에 내어 던진 참으로 착한 선교사였다.

바나바는 훌륭한 인품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었다. 신약성서에는 바나바의 이름으로 된 책이 한 권도 없지만, 그가 도왔던 바울이 쓴 서신들이 13권, 마가가 쓴 복음서가 한 권이나 있다. 학자들 가운데는 히브리서를 바나바가 썼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자들도 있다. 바나바의 성공 또는 위대한 공헌은 바울과 마가란 인물을 만들어낸 데 있다. 이것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훌륭한 인품을 지녔는가를 알 수 있다. 사도행전 14장 12절에 보면, 디모테의 고향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나바를 올림포스의 최고의 신(神)인 ‘제우스’로, 바울을 ‘헤르메스’로 생각하여 그들에게 제사를 바치려고 했던 장면이 나오는데, 바나바를 제우스로 생각한 것은 그의 외모에서 풍기는 인품과도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어느 곳이나 격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있다. 다소에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바울이 있었고, 예루살렘에는 홀로 소외되어버린 마가가 있었다. 바나바는 그들을 찾아내어 격려와 위로를 아끼지 않았고, 그들이 큰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그들의 밑거름이 되었다. 이것이 바나바가 세운 위대한 공적이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매몰될 뻔한 기독교를 유대인들이 상종을 꺼려하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가져간 일, 그 일에 사도임을 자처한 바울을 발굴하여 격려하고 위로하고 협력한 일이 그가 행한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이었다. 바나바가 없이는 바울도 마가도 없었을 것이고, 그들이 없었다면, 오늘 의 기독교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7장 초대교회 설립과 전개과정에 나타난 특징들

Characteristics Revealed in the Process of Planting and Development of Early Churches.

들어가는 말

이 글의 목적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기 그리스도의 교회 설립과 전개 과정에 나타난 몇 가지 특징들을 누가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데 있다. 요한이 복음서에서, 예수에 관한 자료는 많지만, 일부만 뽑아서 쓴 목적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함이라고 밝혔듯이(요 20:30-31), 누가도 수집한 자료들이 많았지만,¹⁾ 그 가운데서 베드로, 빌립, 바울과 같은 몇 분의 전도자들에게만 초점을 맞춰서 초기 교회를 기록하였다. 누가가 이렇게 한 데는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목적은 초대교회 설립과 전개과정에 나타난 몇 가지 특징들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이 글은 누가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밝힌 그대로 초대교회 설립과 전개과정을 추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징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 초대교회 설립과 전개는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사도행전에서 ‘영’(Spirit)이란 단어가 28번 쓰이고 있고, ‘성령’(Holy Spirit)이란 단어가 41번 쓰이고 있다. ‘성령 충만’(full of the Holy Spirit)이란 단어 또한 자주 쓰이고 있다. 다른 책들에 비해

1) 누가복음 1:1-4. See also Donald Guthrie, *New Testament Introduction* (InterVarsity Press, 1970), pp. 363-377. 누가는 바울(행 9:1-31; 11:25-30; 12:25-28:31)과 마가(행 12:12)의 동역자였다. 또 베자사본에 “우리” 부분이 안디옥이 언급되고 있는 11장 27절과 14장 22절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서 누가가 안디옥 출신일 가능성이 높고, 바울이 가이사라에 2년 간 투옥되었을 때에, 누가도 가이사라에 머물고 있었다. 따라서 누가는 교회의 시작과 발전, 박해와 갈등, 선교여행에 관한 많은 정보들을 직간접으로 수집할 수 있었다.

서 월등히 많은 수치이다. 따라서 사도행전에서는 주요 인물들이 모두 성령이 충만해서 행동하고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성령이 일하고 계신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²⁾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완료된 구원사역(finished work)이,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사(救援史)의 연속(unfinished work)으로, 교회시대를 성령의 시대로, 미래종말의 현재화로 이해되고 있다.³⁾

주후 30년 5월 28일⁴⁾ 오순절 날 아침 9시⁵⁾ 기도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제자들에게 처음 성령을 보내시고 또 강림한 성령의 내주(동거)와 능력(은사)으로 기독교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파되기 시작하였다(행 1:8). 이때 이후로 지금까지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인을 이끌어 내어 거듭(칭의)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미리 앞당겨 맛보고 체험하게 하며,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나라에로 이끌어 구원(성화)에 이르게 한다. 따라서 기독교역사는 성령이 이끌어 온 역사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으로 구원을 약속하시고, 성령으로 인 치시고, 성령으로 보증하실 뿐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현세에서 앞당겨 맛보고 체험하고 선취(anticipation)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⁶⁾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다.

둘째, 초대교회 설립과 전개 과정에서 하나님은 섭리적인 방법 즉 순리와 상식을 따랐으며, 여기에다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를 첨가하였다. 따라서 하나님은 준비된 그릇들을 불러 쓰셨으며, 그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도구화하셨다.

셋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지향하는 성도들에게 배척(박해)과 시

2) 김득중, 『누가의 신학』(킨콜디아사, 1992), 287-290쪽.

3) 김득중, 『사도행전 연구』(도서출판 나단, 1991), 71-73쪽.

4) 천주교에서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30년 4월 9일로 본다. 이런 계산이 옳다면, 오순절은 30년 5월 28일이 될 것이다. 안문기, 『노 양과의 대화로 풀어 보는 즐거운 전례: 계절과 축제』(서울: 한국 천주교 중앙 협의회, 1992), 271쪽 참고.

5) 행 2:15(표준새번역). 유대인들의 하루는 우리보다 6시간 정도 빠른 해질 때 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개역성경에서의 제삼시는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가 된다.

6) 능력 행함과 놀랍고 표적. 행 2:22; 롬 15:18; 고후 12:12; 살후 2:9; 히 2:4.

련(이단과 분열 등)은 언제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는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와 바울처럼 죽는 순간까지 순례자의 길을 멈추지 않았다.⁸⁾ 결국 초대교회 설립과 전개 과정은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생활과 성령 충만함과 불굴의 믿음에 성령의 능력이 더하여져 이루어진 것이다.

넷째, 빌립이 세운 사마리아 교회(행 8장), 고넬료 가정의 이방인 교회(행 10-11장), 바울과 바나바 등이 세운 이방인 교회들(행 15장, 바울의 선교보고)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적 권위로 승인되었다.⁹⁾

이러한 몇 가지 점을 염두에 두고 이제부터 사도행전에 나타난 각 교회의 설립과 전개과정을 살펴보려고 한다.

1. 예루살렘교회 설립과정과 전개

가. 예수의 명령과 제자들의 성령대망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예수의 명령(행 1:4-5)에 따라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령강림을 기다린다. 그런데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열흘만인 오순절 날 아침 9시 기도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가 ‘성령으로의 세례’(행 2:1-3)와 ‘성령의 충만함’(행 2:4)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외국어)을 말하였다. 이 때 제자들이 했던 여러 가지 외국어들은 알아듣는 이들로 하여금 “다 놀라 기이히”(행 2:7) 여길만한 성령에 의한 큰 능력 행함이었다.

이 큰 능력 행함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의 관점에서 볼

7) 『누가의 신학』, 264-295쪽.

8) ‘배척’, ‘기도’, ‘성령 충만’, ‘순례’는 사도행전의 주제들이다.

9) F. F. Bruce, *New Testament History*(Garden City, NY: Doubleday & Company, Inc., 1980), pp. 229, 232, 278-290. 브루스는 “기독교 선교의 초기에, 사도들은 복음이 들어간 어떤 곳이든지 그곳을 감독하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참고 행 11:22)”고 적고 있다[F. F. 브루스, 『사도행전(상)』, 이용복, 장동민 옮김(아가페출판사, 1986), 220쪽]. 또 브루스는 “전에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내어 빌립의 사역을 조사하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대표를 안디옥에 파견하여, 이 큰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사건들을 살펴보도록 했다.”[F. F. 브루스, 『사도행전(상)』, 287쪽.]고 적고 있다.

때, “기도할 때”(눅 3:21-22)였다. 누가는 마가나 마태가 보도하지 아니한 부분인 “기도하실 때”에 예수께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셨으며, “기도하실 때”(눅 9:28-29)에 변화산의 체험을 하셨다고 누가복음에 기록하였고,¹⁰⁾ 사도행전에서는 오순절 성령강림이 아침 9시 기도 시간에 있었고(행 2:15), 얇은벙이가 고침을 받은 것도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있었으며(행 3:1),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고 성령을 체험한 것도 다 기도시간(행 10:3,9,30)에 일어났다고 적고 있다.¹¹⁾ 이런 점에서 볼 때, 누가는 성도의 기도생활이 성령 충만함과 큰 능력의 나타남을 가져온다는 인식을 분명히 갖고 있었다.¹²⁾

그리고 기도와 성령 충만의 결과로 나타난 이 큰 능력(power/δύναμις=기적의 근원)의 나타남이 주변의 사람들의 관심(wonders/τέρατα=기적의 결과)을 집중시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되어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표적(signs/σημείους=기적의 목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이다(행 2:22). 이 표적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되고 점점 왕성하게 되었다는 것이다(행 6:7).

나. 하나님의 섭리와 문제의 발생

예루살렘 교회 설립과 관련해서 볼 때,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때와 장소와 시간을 활용하셨다는 점을 볼 수 있다. 오순절 날에는 이스라엘 전국에서 히브리파(본토 출생에 아람어를 사용한 사람들) 유대인들이 올라올 뿐 아니라, 세계에 흩어져 사는 헬라파¹³⁾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찾는 날이요, 기도시간에는 수많은 인파가 성전에 몰리는 시간이다. 하나님은 이런 날과 시간과 장소를 성령강림의

10) 『누가의 신학』, 264-287쪽.

11) 오늘날에도 하루 세 번 기도하는데, 아침, 오후, 저녁에 하며, 각각의 이름은 샤후리트(shaharit), 민하(minha), 마아리브(ma'ariv)이다. 데이빗 C. 그로스, 『유대인을 알고 싶다』, 장병길 옮김(도서출판 살렘, 1997), 68쪽.

12) 누가는 기도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신약성경에 ‘기도하다’라는 동사와 ‘기도’라는 명사가 합쳐서 90회가 사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47회가 소개되고 있다. 전체의 52%를 상회하는 많은 숫자이다. 이 만큼 누가는 다른 어떤 성서 저자들보다도 기도생활에 관한 자신의 깊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13) Diaspora로써 헬라어를 사용한 사람들.

D-day로 삼으셨던 것이다. “그 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였다”(행 2:41)는 기록이 허구가 아닌 것은 이런 이유에서 뿐 아니라, 그들이 다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의 말씀을 배워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다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되었기 때문이다.

교회가 일시에 커지고 질서가 아직 잡히지 아니한데다 문화와 언어가 다른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함께 모인데서 예루살렘 교회에 갈등이 표출되었다(행 6:1)¹⁴⁾

이 갈등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지므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행 6:1)서 비롯되었다. “원망”의 근원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사도들은 모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다. 이 갈등은 나중에 ‘율법과 은혜’라는 교리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되었지만 결국 은혜를 주장한 헬라파 유대인들의 주장이 사도회의에서 받아들여진다.¹⁵⁾

그래서 교회는 “일곱을 택하여”(행 6:3) 헬라파 유대인들의 지도자로 삼았는데, 이 때 뽑힌 일곱 사람은 모두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¹⁶⁾ 그리고 이 때 뽑힌 빌립의 전도와 스테반의 순교에 의해서 복음은 편협한 배타적 선민의식과 독점적인 영토주의 그리고 율법주의의 소유자들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손과 팔레스타인의 울타리를 벗어나 세계로 뻗어가게 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편협한 배타적 선민의식과 독점적인 영토주의 그리고 율법주의에 젖어 있었을 뿐 아니라, 당시의 헬레니즘 문명권에 동화되지도 못했고 세계화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헬라문화와 언어 및 지리에 익숙하지 못하였고, 해외에서 자랐거나 공부한 경험이 없었으며, 친지들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이들

14) F. F. Bruce, *New Testament History*, pp. 217-233.

15) 정통교회 여부를 결정짓는 사도권의 승인(F. F. Bruce, *New Testament History*, pp. 279-290).

16) F. F. Bruce, *New Testament History*, p. 219; F. F. 브루스, 『사도행전(상)』, 161쪽.

은 세계 선교에 기여할 능력이 많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된 그릇이었던 헬라파 사람들의 포용적이고 열린 복음적 사고와 익숙한 언어와 문화수준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셨던 것이다.¹⁷⁾

2. 유대와 사마리아교회 설립과정과 전개

가. 헬라파 유대인 빌립의 선교

빌립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행 6:3)이었다. 이 뿐 아니라,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이었고, 유대총독부가 있었던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다. 그만큼 빌립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외국인라고도 접촉이 잦은 마음이 열려있었던 신자였다.

빌립은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에 복음을 전한 첫 번째 전도인이었다. 유대지방 사람들은 물론이고, 사마리아인들과 에디오피아인 내시에게조차 복음을 전한 첫 번째 인물이었다. 특히 유대인들이 상종도 아니하고, ‘개’ 취급했던 사마리아인과 에디오피아인 흑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최초의 인물이었다. 그가 바로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는 점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두 민족간에 갈등을 충분히 누그러뜨릴 수 있었을 수 것이고, 헬라어를 구사할 수 있었기 때문

17) M. 행겔, 『고대의 역사기술과 사도행전』, 전경연 역(복음주의 신학총서 제 32권, 1990), 86-94쪽. 행겔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원사에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의 예수의 의미가 모세의 의미를 본질적으로 대치했다는 매우 자극적인 주장을 내세웠을”(87쪽) 만큼 토라와 성전 및 의식법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으며, “유대교 회당의 울타리를 넘어 선교의 자극을 시동”(91쪽)하였고, 이단자로 취급되던 사마리아인들과 “아직 할례나 개종자 세례를 받지 않았던 이방인 ‘하나님 경외자들’(89쪽)에게 복음을 전하여 페니키아의 도시들(행 11:19; 15:3)과 다메섹에 교회들을 세웠고(91-92쪽),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여 “할례와 의식법의 규정들의 요구들을 묵살”하였으며, “율법을 끌어들이지 않은 이방인 선교에 점진적으로 또 한발 한발 이진해 갔다”(94쪽)고 지적하였다. 브루스 또한 헬라파 유대인들이 최초로 세계 선교를 주창한 사람들이었고, “예수의 말씀과 성전 질서와는 어떤 틈이 있다는 것을 ‘히브리파’ 형제들보다 더 먼저 알아차렸다. 또한 복음의 초국가적(supra-national)인 성격과 보편적인 성격도 먼저 알아차렸다.”(F. F. 브루스, 『사도행전(상)』, 176쪽)고 지적하였다.

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에디오피아인 내시에게조차 기독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것이다.¹⁸⁾ 그리고 사마리아 교회 역시 추후에 정통교회 여부를 결정짓는 사도권의 승인을 받는다.¹⁹⁾

나. 히브리파 유대인 베드로의 선교

베드로는 히브리파 유대인이었고, 학식이나 해외 경험이 전무한 갈릴리 출신의 어부였다. 이런 그가 고넬료 가정에 불리어가 복음을 전하기까지는 십 수년이 넘는 많은 세월이 흘렀어야 했고, 통역관을 동행해야 했을 것이며, 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면 서까지 하나님이 깨끗케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야 했다(행 10:9-33).

‘고넬료 가정에 내린 성령’은 오순절 성령강림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안수례없이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커다란 역사였다(행 11:17). 이와 같이 강한 성령의 증거적인 역사가 필요했던 것은 그와 같은 것이 없이는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의 방주에 승선시키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베드로를 포함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아마 받아드리기 힘들었을 것이다. 따라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같은 강한 외적이고 증거적인 성령의 은사가 고넬료 가정에 내림으로써 베드로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심어 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고넬료 가정에 내린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보고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교회 앞에 베드로를 고자질하여 문제 삼았으며, 또 베드로는 교회 앞에서 자신을 변호(행 11:1-18)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만큼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의 구원문제는 받아드리기 힘든 숙제였으며, 세계선교를 위한 그릇이 되기에는 여전히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18) 『고대의 역사기술과 사도행전』, 94쪽. 행겔은 내시가 신체결함(신 23:2)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개종자가 아닌 “하나님 경외자”였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신체결함이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19) F. F. Bruce, *New Testament History*, p. 229.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 가정에 세워진 이방인 교회는 베드로가 가진 사도권의 승인이래서(마 16:19) 이루어졌고,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고넬료의 기도시간과 베드로의 기도시간들에 맞춰져서 이루어졌다(행 10:3,9,30)는 것이 누가의 이해였으며 확신이었다.

3. 안디옥과 선교지역교회 설립과정과 전개

가.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바울과 스테반의 종교적 갈등

아람어를 쓰던 히브리파 사람들의 한계 때문에 세계 선교의 그릇들은 베드로와 요한 등의 인물에서 점차 빌립과 스테반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등의 인물로 교체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주연인물의 교체는 '배척'이라는 박해의 위기에서 시작되었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이 위기는 6장에 나오는 본토출생의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외국태생의 헬라파 유대인들(디아스포라)간에 발생된 갈등에서 비롯되었다.²⁰⁾ 예수의 제자들은 모두가 본토출생의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었다. 이들이 외국태생의 헬라파 과부들을 소홀히 대접한데서 불평이 생겨났고, 그래서 외국태생의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서 일곱 사람을 뽑아 그들의 지도자로 삼았던 것이다.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스테반이었다.²¹⁾

예루살렘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는 헬라파 유대인들만이 따로 모이는 회당이 두개 정도 있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다.²²⁾ 후에 바울 사도가 된 사울과 스테반이 부딪힌 곳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였다.²³⁾ 이곳에 출입했던 스테반이 회당 예배 때(설교 시간)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파하였

20) 『고대의 역사기술과 사도행전』, 88쪽.

21) 『고대의 역사기술과 사도행전』, 85쪽; F. F. 브루스, 『사도행전(상)』, 161쪽.

22) Gareth L. Reese, *New Testament History: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 of Acts*(Joplin, Missouri: College Press, 1983), p. 258.

23) F. F. 브루스, 『사도행전(상)』, 166쪽; Karl Heussi, *Kompendium der Kirchengeschichte*, 칼 호이시, 『그리스도 교회사 편람』, 김창길 편집(도서출판 임마누엘, 1988), 27쪽.

고,²⁴⁾ 설교를 듣고 난 사울은 스테반을 이단자로 간주하였다. 당시의 율법은 이단자를 돌로 쳐죽이도록 정하고 있었다(레 20장; 24:16). 사울이 앞장을 서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스테반을 돌로 치게 하였고, 이 사건을 계기로 사울은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에 개종한 사람들을 색출하여 말살시키기 위해서 이웃나라에까지 갔다가 다메섹²⁵⁾의 길에서 예수를 만나 거꾸러졌고, 후에는 바울로 이름을 바꾸어 기독교 역사에 가장 훌륭한 선교사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위기를 바꾸어 기회로 삼으셨던 것이다.²⁶⁾

스테반의 순교이후 박해를 받아 외국에 흩어진 기독교인들은 한결 같이 외국태생의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²⁷⁾ 사도행전 11장 19-21절을 보면, “스테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키프로스²⁸⁾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에게도 말을 붙여서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께서 그들을 돌보시니, 믿게된 수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적고 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가?

또 사도행전 8장 1-6절을 보면, “사울은 스테반이 죽임 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 날에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박해받기 시작하여,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 버리려고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

24) 회당에서는 성경봉독 후에 회당장의 지명을 받은 자나 자원자가 설교할 수 있었다(Gareth L. Reese, p. 496.)

25) 이 당시 다메섹에는 유대인이 4만명, 회당이 30-40개나 있었다고 전한다. 사울의 박해로 흩어진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메섹에도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다. 사울은 이 지역 유대인의 사법권을 가진 대제사장의 재가를 받아 기독교에 개종한 사람들을 색출하여 말살시키려 하였다.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예루살렘의 유대인에게 허용한 사법권을 동방의 여러 도시에 있는 유대인 사회에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었다. 따라서 동방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사법권의 지배를 받아야 했다.[시오노 나나미, 『로마인 이야기: 악명 높은 황제들(7)』, 김석희 옮김(한길사, 1998), 292쪽.]

26) F. F. Bruce, *The New Testament Documents: Are They Reliable?*(Grand Rapids, Mich.: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1983), pp. 76-79.

27) F. F. 브루스, 『사도행전(상)』, 213쪽.

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그러나 흠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다. 무리는 빌립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가 하는 기적을 보기도 하는 가운데서, 한 마음으로 빌립이 하는 말을 좇았다.”고 적고 있다. 이 또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가? 그리스말을 사용할 줄 알고, 또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 흠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이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깔보는 절반쯤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내려가 복음을 전하니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었다. 사마리아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탄생된 것이다.

또 바울 일행은 외국의 선교지에서 같은 민족인 헬라파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생명까지도 위협을 당하였지만,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하여 다른 도시로 피신을 할 때마다 그곳 도시들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가?²⁸⁾

나. 하나님께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들어 쓰신 이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지방에 교회를 세우는데는 제자들과 같이 아람어를 사용하는 본토출생의 유대인들을 들어 쓰셨지만, 안디옥과 같이 해외에 교회를 세우는데에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외국태생의 헬라파 유대인들을 들어 쓰셨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주연 인물들을 살펴보면, 예루살렘과 유대지방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들어 쓰셨지만, 사마리아지방에서는 빌립을 들어 쓰셨고, 해외선교는 바울과 바나바 등을 들어 쓰셨다. 그 이유를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해외선교는 무엇보다도 선교지역의 문화와 언어에 익숙한 사람이 유리하기 때문이었다. 빌립, 스테반, 바나바, 바울, 실라 등은

28) M. 디벨류스, 『바울: 인물, 사상, 업적』, 전경연 편역(복음주의신학총서 17권, 1989), 107쪽.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이미 세계화가 이루어진 사람들이었다. 많은 교육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방문화에 익숙하였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말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베드로와 야고보처럼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 아람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본토출생의 유대인들은 배움도 짧을 뿐 아니라, 배타적이고 민족주의적이며, 무엇보다도 그리스말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에게는 준비된 그릇이 필요했던 것이다.

예루살렘 교회는 부활을 믿지 아니한 당대의 정치 종교적 실권자들인 사두개파들에 의해서 간헐적으로 탄압을 받았지만, 본격적으로 박해를 받게 된 것은 바울과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로부터였고, 스테반을 비롯해서 박해를 받아 흩어진 사람들도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²⁹⁾ 그리스말을 하는 이들이 친지들이 사는 외국으로 흩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였고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교의 그릇들이었던 것이다. 나중에 바울이 선교사가 되어 전도할 때에 극심한 박해를 받았는데, 그를 박해한 자들은 다름 아닌 자기와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

둘째, 이 천년 전 로마제국시대는 지중해 연안의 모든 국가들이 로마제국에 속해 있었고, 알렉산더 대왕시절부터 발달되기 시작한 도로와 항만이 있었고, 무역과 여행이 자유로웠다.³⁰⁾

유대인들은 자의든 타의든 외국에 나가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 우리는 이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말한다. 이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회당을 건립하여 예배당과 학교와 민족회관으로 쓰고 있었

29) 『고대의 역사기술과 사도행전』, 89쪽. 행겔은 “아무데도 추방되어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추측컨대 스테반 주변에 모여 있던 헬라말을 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일곱’집사들 그룹에게만 영향이 미친 것 같다.”고 하였다. 또 행겔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도시와 유대교도들의 팔레스타인을 떠나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그들은 디아스포라로부터 귀환한 사람들이고, 아라벡을 말하는 토착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기반만큼 예루살렘에 깊이 뿌리박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See also F. F. 브루스, 『사도행전(상)』, 213쪽.

30) F. F. Bruce, *Paul & His Converts: How Paul Nurtures the Churches He Planted*(Downers Grove, Illinois: InterVarsity Press, 1985), pp. 122-123. See also R. F. 호크, 『바울 선교의 사회적 상황』, 전경연 옮김(대한기독교출판사, 1991), 27-29쪽.

는데,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개종하여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³¹⁾ 이들은 대부분 할례 받지 아니한 문의 개종자들(proselytes of the gate)이었는데, 사도행전은 이들을 일컬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God-fearer)³²⁾이라고 하였다. 바울 선교팀은 어느 도시에서나 유대인 회당을 찾아 들어가 전도를 했는데, 일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복음을 받아 드려 기독교에 개종했지만, 대부분의 개종자들은 이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들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들에 의해서 기독교 선교가 세계 도처에 이루어졌다.³³⁾

사도행전 13장 13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터키 중남부 지역에 위치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파하였다. 당시 회당에서는 율법서와 선지서를 낭독³⁴⁾한 후에 회당장의 지명을 받은 자나 자원자가 설교를 하였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은 회당장의 지명을 받고 일어나 설교를 시작하면서 서두에 청중들을 가리켜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Men of Israel, and you that fear God, 행 13:16,26)이라 하였다.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할 때마다 자기 청중을 이렇게 부른 반면에, 누가는 뒷부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고넬료를 제외하고는(행 10:22,35) “경건한 사람들”(devout converts to

31) 파이퍼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최고 윤리 원칙을 따라 살며, 이방인들을 개종시키려 했다”고 적고 있다. See R. H. Pfeiffer, *History of New Testament Times with an Introduction to the Apocrypha*(R. H. 파이퍼, 『신약시대 역사와 외경개론』, 류형기 역(한국기독교문화원, 1977), 123쪽.

32) 『바울: 인물, 사상, 업적』, 64쪽. 브루스는 “당시의 많은 이방인들은 유대교 공동체로 완전히 개종하여 들어가지는 않았으나, 유대교의 회당 예배에서 보여지는 유일신 사상과 또 유대인들의 생활 양식의 윤리적인 기준에 호감을 갖고 있었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회당에 참석하며 헬라어로 읽는 성경과 기도예에 꽤 정통하기도 했다. 또 유대인의 안식일 준수나 음식 규례 등을 세심하게 지키려는 사람들도 있었다”[F. F. 브루스, 『사도행전(상)』, 260쪽.]고 적고 있다.

33) *Paul & His Converts: How Paul Nurtures the Churches He Planted*, p. 40.

34) 이 경우 보통 통역을 해준다. 회당 예배 때, 기도 후 그 주 안식일을 위해 율법에서 발췌한 성구를 낭독한다. 그러면 통역관이 한 절씩 한 절씩 아람어로 번역한다. 모세오경은 154개의 발췌문으로 나누어져 있고, 3년마다 한번씩 되돌아온다. 이것이 끝나면, 예언서에서 발췌한 성구가 낭독된다. 통역관은 삼개절씩 묶어서 의역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Judaism)이란 말로 대신하였다(행 13:43,50; 17:4,17).

그러면 바울이 즐겨 사용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란 누구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란 뜻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각각 다른 두 민족 집단이란 말인가?

각각 다른 두 민족 집단을 지칭하는 말이다. 누가가 13장 43절에서 이들을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지칭한다. 자의든 타의든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외국에 나가 살았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아람어보다는 헬라어를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히브리어 구약성경보다는 헬라어 구약성경을 사용했던 사람들이다.

이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회당을 건립하여 예배당과 학교와 민족회관으로 쓰고 있었는데, 가장(家長) 열 명 이상이 사는 곳이면 어느 곳에서나 회당을 세울 수 있었다.³⁵⁾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 유대인의 회당에 유대인들만 출입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헬라인들도 출입했다는 점이다. 이들 유대교 회당에 출입했던 헬라인들을 바울과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혹은 “경건한 사람들”(devout converts to Judaism) 혹은 “유대교에 입교한”(행 13:43) 사람들이라고 하였다.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이라면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이란 뜻인데, 유대인들은 이들 이방인 개종자들을 ‘의의 개종자’(Proselyte of righteousness)와 ‘문의 개종자’(Proselyte of the gate)로 나누어 구분하였다.³⁶⁾

‘의의 개종자’³⁷⁾는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종교적으로 유대인이 된 사람을 말한다. 개종자는 한 분 참 하나님과 모세의 율법과 율법의

35) Gareth L. Reese, pp. 345, 494-496.

36) Gareth L. Reese, p. 54. See also L. Edsil Dale, *Acts Comments*(Cincinnati: published by the author, 1952), p. 29.

37) 그냥 ‘개종자’라 부른다.

가르침과 모든 유대교 의식을 완전히 받아들인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문의 개종자'³⁸⁾ 역시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유대인 회당에 출석하며 유대교 행사에 참여하면서 유대교의 한 분 하나님을 믿었던 경건한 헬라인을 말한다.³⁹⁾

하나님 경외자는 고넬료처럼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행 10:2) 사람이었다. 그러나 하나님 경외자는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안식일 법이나 절기법에 얽매이지 않는다. 스스로 원하지 않는 한 할례를 받아야 할 의무도 없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사도행전에 언급된 사람들은 가이사라의 백부장 고넬료(행 10:1-3) 말고도 고린도에 사는 디도 유스도(행 18:7)가 있었다.⁴⁰⁾ 디도 유스도는 회당 옆에 집을 가지고 있었으며, 바울 일행을 영접하여 집에서 고린도 교회를 시작하였다. 빌립보에는 두아디라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행 16:14)⁴¹⁾가 있었다. 루디아는 여성으로써 바울 일행을 청하여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였다(행 16:15).

이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혹은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의 선교지역에 많았다는 것이 고고학 발굴로 입증되었다.

소아시아의 에베소에서 매안테르(Maeander) 강의 지류와 동서를 잇는 큰 도로를 따라 동쪽으로 145KM 가량 떨어진 곳(서머나에서는 남동쪽으로 217KM 정도)에 바울 당시 이미 200년이나 된 고대도시 아프로디시아스(Aphrodisias)가 자리잡고 있었다.⁴²⁾ 아프로디시아스 근처에는 동쪽으로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스, 남동쪽으로는 골로새가 위치하고 있었다. 이들 도시들은 바울의 제1차 선교지였던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및 더베를 포함하는 남갈라디아 지역과 제3차 선교지였던 에베소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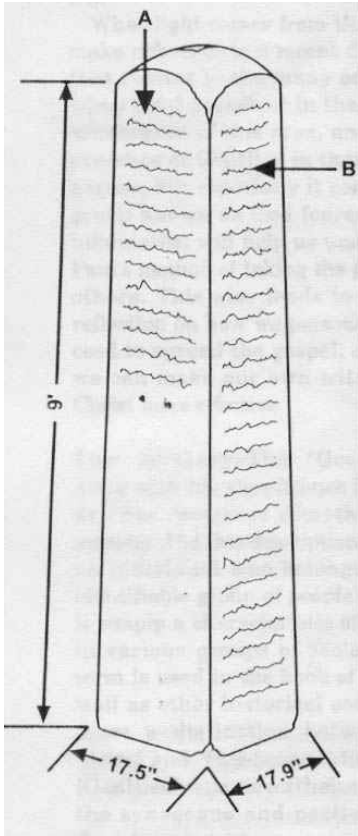
38)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혹은 '경건한 사람' 혹은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이라 부른다.

39) F. F. Bruce, *New Testament History*, pp. 217-220.

40) 『사도행전 연구』, 187쪽.

41) 『사도행전 연구』, 180쪽.

42) 인터넷 사이트 검색단어, "Aphrodisias."



또 바울을 본적이 있는 파피아스가 히에라폴리스에서 감독을 지냈을 만큼 아프로디시아스 인근 도시들에는 1세기 때부터 교회들이 들어서 있었고, 43) 주후 325년에 열린 니케아 회의에 아프로디시아스의 감독이 참석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인근의 다른 도시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아프로디시아스에도 일찍부터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44)

이 도시 아프로디시아스에서 2세기 경에 유대인 회당을 건립하면서 후원자 명단을 새겨 건립하였던 대리석 기념비 하나가 1977년에 발굴되었다.

이 기념비에는 유대인 69명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54명과 개종자 3명의 이름이 그들의 직업과 함께 새겨져 있었다(이들은 대부분 집안의 가장이었을 것이다). 또 이들 가운데는 기도와 율법연구와 구제활동에 특별

히 헌신하는 '데카니'(A면)라는 그룹이 따로 있었는데, 이에 소속된 유대인이 69명 가운데 16명, 하나님 경외자가 54명 가운데 2명, 개종자 3명 모두가 포함되어 있었다(좌측의 그림 A면은 '데카니' 그룹에 속한 자들의 명단이고, B면은 '데카니'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의 명단이다.).

하나님 경외자들 가운데 9명이 시의회 의원들이었고, 13명이 기능

43) Eusebius, *The History of the Church from Christ to Constantine*(Penguin Books, 1984), pp. 88-89, 149-153.

44) Edward M. Blaiklock, R. K. Harrison, and David R. Douglass, eds., *The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Biblical Archaeology*(Grand Rapids, Michigan: Regency Reference Library, 1983), s.v. "Aphrodisias."

공들이었으며, 1명이 운동선수였다.⁴⁵⁾

이 기념비의 발굴로 말미암아 바울 선교를 기록한 사도행전의 신빙성이 한층 더 높여지게 되었을 뿐 아니라, 생각보다 훨씬 많은 수의 이방인들이 유대교 회당을 다니며, 하나님을 믿었다는 귀중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바울 일행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헬라인들)을 대상으로(행 17:17) 말씀을 강론하거나 변론하였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도록 권면하였다(행 18:4). 이렇게 해서 믿는 사람을 얻으면(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좇았다고 했다. 행 13:43) 믿는 이의 집으로 장소를 옮겨 그리스도의 교회를 시작하였다(행 18:7). 일단 교회가 시작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행 18:8).

그러면 바울은 이 지역을 통과한 적이 있었는가? 분명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바울이 제3차 선교여행 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지역을 통과하여 에베소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 이 지역이 매안테르 강변에 위치하고 있고, 큰 도로가 통과하는 곳이어서 이 길을 따라 에베소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행 19:1).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지역을 통과했는가에 있지 않고, 이 지역을 포함해서 소아시아와 갈라디아 전역에 헬라파(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는 점이고, 이들 유대인 회당에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이방인들이 대단히 많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들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헬라인들이 바울 일행의 최우선 전도목표였다는 것이다.

다. 선교팀 분열과 교회간의 교리적인 갈등

45) Lewis A. Foster, "Light From Aphrodisias About God-Fearers," *Christian Standard*(Cincinnati: Standard Publishing Co.) May 5, 1991, pp. 374-376; Joyce Reynolds and Robert Tannenbaum, *Jews and God-fearers at Aphrodisias*(The Cambridge Philological Society, 1987), Supplementary Volume no. 12.

하나님은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이방 선교의 전진기지로 삼으셨다. 안디옥 교회가 다른 나라들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것은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명령하신 일이었고,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지시에 따라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를 택하여 선교사로 파송할 때에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하였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선교여행 중에 마가가 팀을 이탈하였다. 이로 인해서 제2차 선교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나뉘어져 출발하는 분열의 아픔을 겪게 되었다. 그러나 이 분열은 결국 두 개의 선교팀이 파송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들 헬라파 유대인들의 선교활동으로 인해서 선교지에는 많은 이방인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들의 선교로 복음의 씨앗은 문화가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도 거침없이 뿌리를 내렸다.

그런데 이번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율법과 은혜'라는 교리적인 갈등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였다. 결과는 이방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되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이방인 교회들을 정통교회로 승인했던 것이다(15장).

결론

이제까지 초기 그리스도의 교회 설립과 전개 과정에 나타난 몇 가지 특징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의 능력'과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 충만함'과 '준비된 그릇들'과 '선교교회들에 대한 사도들의 승인'이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의해서 세워졌고, 추후에 세워진 선교교회들(사마리아 교회, 고넬료 가정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와 바울의 선교보고를 받은)의 정통시비를 가리는 사도적 권위를 갖고 있었지만, 그들은 배타적 선민의식과 독점적인 영토주의 또는 폐쇄적인 율법주의에 젖어 있었고, 당대의 문명세계에 친숙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세계 선교에 기여할 기회를 얻지 못

하다가 주후 70년의 예루살렘 멸망과 더불어 교회도 사실상 거점을 잃게 되었다.

선교는 처음부터 세계문명에 익숙한 헬라파 유대인들과 그들의 교회에 의해서 주도되었으며, 그들의 기도와 성령 충만함과 불굴의 믿음과 열린 선교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몇 가지 특징들은 오늘의 우리 교회들이 어떠한가 할 것인가를 일깨우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된다.

참고자료

김득중. 『누가의 신학』 권콜디아사, 1992.

김득중. 『사도행전연구』 도서출판 나단, 1991.

안문기. 『노 양과의 대화로 풀어 보는 즐거운 전례: 계절과 축제』 서울: 한국 천주교 중앙 협의회, 1992.

Blaiklock, Edward M., Harrison, R. K., and Douglass, David R. Eds. *The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Biblical Archaeology*. Grand Rapids, Michigan: Regency Reference Library, 1983. S.v. "Aphrodisias."

Bruce, F. F. *New Testament History*. Garden City, NY: Doubleday & Company, Inc., 1980.

_____. *Paul & His Converts: How Paul Nurtures the Churches He Planted*. Downers Grove, Illinois: InterVarsity Press, 1985.

_____. *The New Testament Documents: Are They Reliable?* Grand Rapids, Mich.: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1983.

Dale, L. Eds. *Acts Comments*. Cincinnati: published by the author, 1952.

Eusebius. *The History of the Church from Christ to Constantine* Penguin Books, 1984.

Guthrie, Donald. *New Testament Introduction*. InterVarsity Press, 1970.

Reese, Gareth L. *New Testament History: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 of Acts*. Joplin, Missouri: College Press, 1983.

Reynolds, Joyce and Tannenbaum, Robert. *Jews and God-fearers at Aphrodisias*. The Cambridge Philological Society, 1987. Supplementary Volume no. 12.

그로스, 데이빗 C. 『유대인을 알고 싶다』 장병길 옮김. 도서출판 살렘, 1997.

- 디벨류스, M. 『바울: 인물, 사상, 업적』 전경연 편역. 복음주의신학총서 17권, 1989.
- 브루스, F. F. 『사도행전(상)』 이용복, 장동민 옮김. 아가페출판사, 1986).
- 시오노 나나미. 『로마인 이야기: 악명 높은 황제들(7)』 김석희 옮김. 한길사, 1998.
- 파이퍼, R. H. 『신약시대 역사와 외경개론』 류형기 역. 한국기독교문화원, 1977. Pfeiffer, R. H. *History of New Testament Times with an Introduction to the Apocrypha*.
- 행겔, M. 『고대의 역사기술과 사도행전』 전경연 역. 복음주의 신학총서 제 32권, 1990.
- 호이시, 칼. 『그리스도 교회사 편람』 김창길 편집. 도서출판 임마누엘, 1988. Heussi, Karl. *Kompendium der Kirchengeschichte*
- 호크, R. F. 『바울 선교의 사회적 상황』 전경연 옮김. 대한기독교출판사, 1991.
- Foster, Lewis A. "Light From Aphrodisias About God-Fearers." *Christian Standard* Cincinnati: Standard Publishing Co., May 5, 1991.
인터넷 사이트. 검색단어, "Aphrodisias."

제8장 사도행전 13-14장을 통해 본 바울의 선교방법과 청중

Paul's Gospel Delivery Method and Audience Based on Acts Chapters 13-14.

들어가는 말

이 글의 목적은 바울의 제1차 선교여행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13-14장에 나타난 바울의 선교방법을 간단히 살펴보고, 그의 선교방법 속에 들어있는 주된 선교대상이 누구였는가를 자세히 알아보는 데 있다.

1세기 기독교가 유대교의 심한 견제와 배척을 받고도 그레코로만 세계에 뿌리를 내려 급속히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유대인들과 그들의 종교 덕택이었다.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은 지중해 연안 거의 모든 나라들에 흩어져 살았고, 그들의 종교와 교육과 재판을 위해서 회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의 구심점이 성전이였다면, 성전에서 멀리 떠나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구심점이 회당이였다. 또한 자기 영토에 살면서도 이방인들의 지배를 몸으로 겪어야했던 팔레스타인 거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배타적이었고, 선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남의 나라에서 이방인들과 뒤엉켜 살아야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레코로만 세계에 동화될 수밖에 없었고, 이방인들과 가깝게 지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히브리어나 아람어보다는 헬라어를 사용하였고, 이방인들을 유대교에 입교시키는 일에도 힘을 쏟았다.¹⁾ 따라서 유대교회당에는 유대인 수에 못지않은 많은 수의 헬라인들이 유대교에 호감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준에 있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서 소수가 바로 기독교복음을 그레

1)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거주 유대인들의 선교정책의 차이점을 그의 『고대사』에서 설명하고 있다.[*Antiquities*, xx.ii.3-5.]

코로만 세계에 뿌리를 내리게 한 선교사들이었으며, 다른 나머지는 기독교를 가장 크게 배척했던 자들이었다. 초기 기독교 발전에 엄청난 공을 세운 바울이 바로 디아스포라였으며, 동쪽으로부터 가장 심하게 탄압 받았던 선교사였다. 따라서 초기 선교교회들은 바울과 그의 동료들에 의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들에서, 회당을 출입했던 헬라인들에게 기독교복음이 전해지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가장 초기의 선교장면들인 사도행전 13-14장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바울의 선교방법과 그의 설교에 응답한 청중들이 과연 누구였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초기 기독교 생성과 발전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이를 보도하는 누가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되어진다.

1. 바울의 선교방법

사울의 박해로 스테반의 순교이후 외국에 흩어진 기독교인들은 한결같이 외국태생의 디아스포라들이었으며, 최초로 이방인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도 이들이었다.²⁾ 이들에 의해서 수리아 안디옥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졌고,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행 11:26)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으며, 이 교회에 의해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가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다.

이들이 선교여행을 출발한 때는 대략 주후 46-48년경이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 12장 20-23절의 사건인 헤롯 아그립바 1세의 죽음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A.D. 44년에 있었고,³⁾ 이어서 발생한 예루살렘의 기근(행 11:27-30; 12:25)은 A.D. 46년경에 있었다.⁴⁾ 그리고 그들의 첫 기착지이었던 구브로(키프로스) 섬의 총독 서기오 바울(행 13:7)의 부임이 A.D. 50년 이전으로 추산되고 있기 때문이다.⁵⁾

2) F. F. 브루스, 『사도행전(상)』, 김재영, 장동민 옮김(서울: 아가페출판사, 1986), 213쪽.

3) Josephus, *Antiquities*, xix.viii.2.

4) Josephus, *Antiquities*, xx.v.2.

5) Gareth L. Reese, *New Testament History: A Critical and Exegetical*

바울이 제일 먼저 찾아 나선 곳은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와 바울의 고향 다소에서 아주 멀지 아니한 갈라디아 중남부 지역이었다. 그 여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여정은 바울 일행의 제1차 선교여정이다.

(1) 가는 길: 수리아 안디옥(13:1-3)→ 실루기아(13:4)→ 살라미(13:5)→ 바보(13:6-12)→ 버가(13:13)→ 비시디아 안디옥(13:14-50)→ 이고니온(13:51-14:5)→ 루스드라(14:6-21)→ 더베(14:20-21)→

(2) 돌아오는 길: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14:21-23)→ 비시디아 안디옥→ 버가(14:24-25)→ 아달리아(14:25)→ 수리아 안디옥(14:26-28).

이 1차 선교여정에서 나타난 바울의 선교방법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1)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면,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다(행 13:2).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설립 자체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임을 밝히고 있다. ‘영’(Spirit)이 28번, ‘성령’(Holy Spirit)이 41번이나 쓰이고 있고, ‘성령 충만’(full of the Holy Spirit)이란 단어도 자주 쓰이고 있다. 주요 인물들이 모두 성령이 충만해서 행동하고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⁶⁾

(2)바울은 기도와 금식으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였다(행 13:3).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에 배척(박해)과 시련(이단과 분열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죽는 순간까지 순례자(전도인)의 길을 멈추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들은 아침 9시, 정오, 오후 3시, 정한 시간에 하루 세 번씩 기도하였다(행 2:15; 3:1; 10:3,9,30; 마 27:45-46; 막 15:25, 33-34; 눅 23:44). 그들은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였다. 맞디아를 뽑을 때(1:24), 성령을 대망할 때(2:1이하), 무시로 생활 속에서(2:42; 10:3,9), 병자를 고치기 전에(3:1), 감사의 기도(4:23이하), 지도자를 뽑아 안수할 때(6:6), 스테반의 박해자를 위한 기도(7:60), 성령의 외적 증거를 위해서(8:15; 9:17), 중

Commentary on the Book of Acts(Joplin, Missouri: College Press, 1983), p. xiv.

6). 김득중, 『누가의 신학』(컨콜디아사, 1992), 287-290쪽.

보기도(12:5),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13:3), 옥중에서(16:25), 작별기도(20:36), 그리고 축사(27:35) 등의 기도를 하였다.

(3)바울은 어디로 가며, 누구를 동반할 것인가를 개인적으로 판단하였다(행 13:4-5). 하나님은 섭리적인 방법, 즉 상식과 순리를 많이 따랐다. 그러나 필요할 때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도 함께 하였다.

(4)바울 일행은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키프로스)를 먼저 찾아갔고(행 13:4), 바울의 고향 다소에서 아주 멀지 아니한 갈라디아 중남부 지역에서 전도하였다. 이와 같이 바울 일행은 이용 가능한 정보를 먼저 활용하였다. 선교단 일행은 헬라문화권에서 자란 헬라파 유대인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언어와 문화충격이 크지 않았으며, 입수된 정보와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5)바울은 유력한 인사를 먼저 찾아갔다(행 13:7). 유력 인사의 개종이 주는 전도의 파급효과는 아주 컸다. 1500년대 중반에 시작된 예수회 신부들의 해외선교가 크게 성공을 거둔 것도 이에 따른 것이었고,⁷⁾ 1885년 조선에 들어온 해외선교사들의 성공도 이에 따른 것이었다.⁸⁾

(6)바울은 사람들이 많은 중심지를 찾아가 복음을 전하였고, 제자들을 훈련하여 자신이 가지 못하는 주변 여러 지역에 파송하였다(행 13:5-6,14). 제2차 선교 때는 고린도에 1년 6개월 체재하면서 동역자들을 수시로 마게도니아 지역의 선교교회들에⁹⁾ 파송하였고, 제3차 선교 때는 에베소에 2년 3개월간 체재하면서 중서부 지역에 동역자들을 파송하여 교회들을¹⁰⁾ 개척시켰으며, 이미 설립된 유럽의 교회들에도 동역자들을 파송하여 돌보도록 하였다.

(7)바울은 할 수만 있으면 제일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 복음을 전파하였다.¹¹⁾ 안식일예배 때 회당에서는 성경봉독 후에 회당장의 지명을 받은 자나 자원자가 설교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¹²⁾ 바

7) 프란시스 사비에르가 1542년 인도에, 1549년 7월 일본에, 1552년 중국에 각각 선교하였고, 마테오 리치가 1583년 10월에 중국에 선교하였다.

8) 언더우드, 아펜젤러, 등.

9) 빌립보, 데살로니가, 등.

10) 골로새, 라오디게아, 등.

11) F. F. Bruce, 『사도행전(하)』, 18쪽.

울은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활용하였다. 이뿐 아니라, 디아스포라의 회당들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기독교에 개종하였다(행 13:5, 14, 43, 46).¹³⁾

(8)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장로들을 뽑아 목회자들로 임명하였다(행 14:22-23). 사도행전 14장 23절은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은 바 주께 부탁”하였다고 보도하고 있다. 여기서 “부탁”의 내용을 우리는 바울이 제3차 선교를 마치고 귀향 길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 청하여(행 20:17) 행한 고별설교에서 찾을 수 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행 20:28).

(9)바울은 자신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선교보고를 하였다(행 14:26-28). 이뿐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도 보고함으로써 선교교회들의 정통성을 사도들로부터 승인 받았다(행 15장). 이 당시 선교교회들의 정통성 여부는 사도성에 좌우되었기 때문이다. 사도들의 가르침이나 전통에서 벗어나면 이단이었고, 그와 같은 것들을 가르치면 거짓교사 혹은 거짓 선지자였으며, 또 그와 같은 것들을 힘이나 권력으로 강요하면 적그리스도였던 것이다. 오늘날에는 교회의 정통성 여부가 사도들의 가르침이나 전통이 담긴 신약성경에 좌우된다(엡 2:20; 고전 3:9-15). 따라서 십계명의 안식일 예배를 고집하거나 성경 이외의 계시를¹⁴⁾ 주장하는 것은 사도성이 없기 때문에 정통성에서 벗어난 것들이다.

(10)마지막으로 바울은 협동사역에 힘썼다. 바울 곁에는 언제나 동역자들이 있었다. 제1차 때에는 바나바와 마가가 있었고, 제2차 때에

12) Gareth L. Reese, *New Testament History*, p. 496.

13) 저벨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방인 선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선교를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J. Jewell, *The Theology of the Acts of the Apostles*(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The Unknown Paul: Essays on Luke-Acts and Early Christian History*(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4); *Luke and the People of God*(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72.)

14) 물론경, 원리강론, 대 쟁투 등.

는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누가가 있었다. 제3차 때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선교 대열에 동참하였다. 이 밖에도 디도, 에바브라, 뵤뵤, 소스테네, 두기고, 소바더, 아리스다고, 세군도, 가이오, 드로비모 등 많은 동역자들이 바울과 함께 하였다.

2. 바울의 청중들

바울의 청중들은 신분이나 종족에 관계없이 다양하였다. 유대인, 헬라인, 철학자, 상류계급, 노예계급, 해방노예 등 다양하였다. 그러나 제1차 선교의 경우 바울의 청중은 주로 유대교 회당에서 만나볼 수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인들로 나타나고 있다.

바울의 선교여정을 보면, 그는 언제나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먼저 동족에게 복음을 전파하였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라고 했듯이, 할 수 있는 대로 힘써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다.¹⁵⁾ 안식일예배 때 회당에서는 성경봉독 후에 회당장의 지명을 받은 자나 자원자가 설교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¹⁶⁾ 또한 디아스포라의 회당들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는데(행 13:5,14,43,46), 바울은 이들이 복음을 수용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¹⁷⁾

사도행전 13장 13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터키 중남부 지역에 위치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파하였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은 회당장의 지명을 받고 일어나 설교를 시작하면서 서두에 청중들을 가리켜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Men of Israel, and you that fear God, 행 13:16,26)이라 하였다.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할 때마다 자기 청중을 이렇게 부른 반면에, 누가는 뒷부분 “하나님을 경

15) F. F. Bruce, 『사도행전(하)』, 18쪽.

16) Gareth L. Reese, *New Testament History*, p. 496.

17) W. M. Ramsay, *St. Paul the Traveller and Roman Citizen*(14th edn., London, 1920), p. 72. F. F. Bruce, 『사도행전(하)』, 18쪽에서 재인용.

외하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고넬료를 제외하고는(행 10:22,35) “경건한 사람들”(devout converts to Judaism)이란 말로 대신하였다(행 13:43,50; 17:4,17).

그러면 바울이 즐겨 사용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란 누구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란 뜻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각각 다른 두 민족 집단이란 말인가?

각각 다른 두 민족 집단을 지칭하는 말이다. 누가가 13장 43절에서 이들을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지칭한다. 자의든 타의든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외국에 나가 살았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아람어보다는 헬라어를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히브리어 구약성경보다는 헬라어 구약성경을 사용했던 사람들이다.

이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회당을 건립하여 예배당과 학교와 민족회관으로 쓰고 있었는데, 가장(家長) 열 명 이상이 사는 곳이면 어느 곳에서나 회당을 세울 수가 있었다.¹⁸⁾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 유대인의 회당에 유대인들만 출입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헬라인들도 출입했다는 점이다.

A. 유대교인들의 선교활동

유대교인들의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활동이 어느 정도로 활발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할례를 비롯해서 613개의 토라의 명령들과 39개의 바리새인 율법까지 지키고 있었고, 선민사상이 강했던 유대인들이 과연 얼마나 큰 열정을 가지고 선교활동을 펼칠 수 있었을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예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다는 표현을 사용

18) Gareth L. Reese, *New Testament History*, pp. 345, 494-496.

하셨고, 파이퍼(Pfeiffer)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최고 윤리 원칙을 따라 살며, 이방인들을 개종시키려 했다”고 적고 있다.¹⁹⁾ 또 페사킴(Pesachim)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흠으신 목적을 개종자들을 얻기 위함이라고 하였고,²⁰⁾ 로젠브룸(Rosenbloom)은 “체키나의 날개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목적이라고 하였다.²¹⁾ 또한 폼페디타(Pumpeditha) 학교 교장들이었던 랍비 유다(Judah)와 조셉(Joseph)은 충분한 수의 개종자들을 얻지 못한 일부 공동체들을 책망하고 있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선교열정을 엿보게 한다. 랍비 애시(Ashi)도 유프라테스 수라(Sura) 교외지역 마타 마호세이아(Mata Mahseia)의 유대인들에게 비슷한 불평을 토로하고 있다.²²⁾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경우, 할례 때문에 극소수의 사람들이 개종자가 되었다. 여성의 경우, 할례나 헌금이 요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교를 수용하는 여성들의 수가 많았던 것 같다.²³⁾

팔레스타인에서의 상황은 더욱 나빴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끌어들이 ‘하나님 경외자’로 삼으려했던 것과는 달리,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은 개종자들에게 할례를 포함해서 구약성경의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이었다.²⁴⁾

19) R. H. Pfeiffer, 『신약시대 역사와 외경개론』(*History of New Testament Times with an Introduction to the Apocrypha*), 류형기 역(한국기독교문화원, 1977), 123쪽.

20) "The Holy One, blessed be He, dispersed the people of Israel among the nations in order that they might acquire proselytes"(Pesachim 87b). Terry Seufferlein, "Missionary and the First Century Pharisees"에서 재인용.

21) Joseph R. Rosenbloom, *Conversion to Judaism*(Cincinnati: Hebrew Union College Press, 1978), p. 41. Terry Seufferlein, "Missionary and the First Century Pharisees"에서 재인용.

22) *Ibid*

23) Karl Georg Kuhn, "Ilroshlutoj" in the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 6, ed. Gerhard Friedrich(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68), pp. 733-734. Terry Seufferlein, "Missionary and the First Century Pharisees"에서 재인용.

24) *Ibid* see also Ferdinand, *Mission in the New Testament*(Naperville, Illinois: Alec R. Allenson, Hahn, 1985). Terry Seufferlein, "Missionary and the First Century Pharisees"에서 재인용.

B. 유대교 개종자들의 구분

유대교인들의 선교열정에 관계없이 이방인들 가운데는 상당수가 디아스포라 유대교에 매력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1세기 헬라인들은 회당에서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성경을 접할 수가 있었고, 유대교인들의 유일신 사상과 윤리적인 생활양식에 호감을 갖고 있었다.²⁵⁾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foboumenoi ton theon, 행 10:1-2,22; 13:16,26)이었다고 바울과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언급하고 있다. 누가는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sebomenoi ton theon, 행 13:50; 16:14; 18:6-7), “경건한 개종자들”(sebomenoi prosehlutoi, 행 13:43), “경건한 헬라인들”(sebomenoi Hellehnes, 행 17:4), “경건한 자들”(sebomenoi, 행 17:17)과 “개종자들”(prosehlutoi, 행 2:11; 6:5; 13:43)이란 표현을 쓰고 있는데, 모두가 ‘하나님 경외자’를 일컫는 말이라고 생각된다.²⁶⁾

『유대교 백과사전』(*Encyclopedia of Jewish Religion*)에 따르면, 70인 역 성경에서 헬라어로 ‘proselutos’로 번역된 히브리어 ‘ger’는 원래 낯선 사람이란 뜻이었으나 후에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을 의미하였다. 출애굽기 12장 48절과 룻기 2장 12절과 에스더 8장 17절에 언급되어 있다.

랍비들은 유대교 개종자들을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절반 개종자를 ‘ger toshav’ 즉 “우거하는 개종자”(settler proselyte, Lev. 25:47)라 하였고, 또는 ‘ger ha-shaar’ 즉 “문안에 유하는 개종자”(the proselyte of the gate)²⁷⁾라 하였다.

절반 개종자들은 세 명의 증인들 앞에서 유대교의 의식들을 제외한 우상숭배 포기과 노아의 일곱 개의 율법 준수(Noachian laws)와 같은 기본 원칙들을 지킬 것을 서약하였다. 마이몬니데스(Maimoni-

25) F. F. 브루스, 『사도행전(상)』, 260쪽.

26) F. F. Bruce, *New Testament History*(Garden City, NY: Doubleday & Company, Inc., 1980), pp. 217-220. See also Gareth L. Reese, *New Testament History*, p. 54 and L. Edsil Dale, *Acts Comments*(Cincinnati: published by the author, 1952), p. 29.

27) cf. Exodus 20:10 and Josephus, *Antiquities*, xiv.vii.2.

des)는 이들을 “의로운 이방인들”(the righteous gentiles)이라 부른다. 이들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 경외자들’이다.

완전 개종자는 ‘*ger tzadek*’ 즉 “의로운 개종자”(righteous proselyte)라 부른다. 완전 개종자는 유대교를 사랑하는 자이므로 모든 율법과 의식들을 수용한다. 남성의 경우 할레(Milah)를 받고, 남녀 모두 의식적인 씻음을 위해서 침례(Tebhilah)를 받고, 성전멸망 이전에는 희생제사(Qorban)를 바쳤다.²⁸⁾ 그리고 일단 완전 개종자로 받아들여지면, 그는 온전한 유대인 백성으로 간주된다. 유일한 제한으로는 제사장이 여성 개종자와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이다.²⁹⁾

‘의의 개종자’가 되기 위해서는 침례와 할레 모두를 받아야하나 랍비들 사이에 견해의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조수아(Joshua)는 할레가 필요 없는 침례만을 견지하였고, 엘리에제르(Eliezer)는 침례가 필요 없는 할레만을 주장하였다.³⁰⁾

침례는 세 명의 증인들 앞에서 행하여졌는데, 보통은 공회원들(학자들)이 증인으로 섰다.³¹⁾ 침례를 받는 사람은 머리와 손톱을 깎고, 옷을 완전히 벗고 ‘침례의 아버지들’³²⁾ 앞에서 그의 믿음을 고백해야 했다. 그리고 나서 물이 온몸을 적시도록 완전히 물속에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권면과 축복으로 식을 끝냈다.³³⁾

침례는 밤이나 안식일 또는 축제일에는 베풀어지지 않았다.³⁴⁾ 여성들의 경우 랍비는 문밖에 서있고 다른 여성들이 침례를 베풀었다. 그리고 개종자들이 낳을 아이들에게는 침례가 면제되었다.³⁵⁾ 그러나 이 개종자 침례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예루살렘 성전멸망이전부터인지 성전멸망이후부터인지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알려진 것이 없

28) Maimonides, Hilkh. Iss. Biah xiii. 5. Alfred Edersheim, "The Baptism of Proselytes"(from *Appendix XII From Life and Times of Jesus the Messiah*, 1886)에서 재인용.

29) 『유대교 백과사전』(*Encyclopedia of Jewish Religion*), s.v. "proselyte."

30) Yebam. 46 a and b. "The Baptism of Proselytes"에서 재인용.

31) Yebam. 47 b.

32) 카톨릭의 대부들에 해당됨, Kethub. 11 a; Erub. 15 a.

33) Maimonides, Hilkh. Milah iii. 4; Hilkh. Iss. Biah xiv. 6.

34) Yebam. 46 b.

35) Yebam. 78 a.

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요세푸스와 필로조차도 침묵하고 있다.

C. 하나님 경외자들에 대한 성경내적 증거

1세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70인역 헬라이어성경을 읽고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4만평이 훨씬 넘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다. 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던 이방인들 가운데 상당한 숫자가 ‘하나님 경외자들’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사도행전에도 기독교로 개종한 ‘하나님 경외자들’이 다수 소개되고 있다. 이디오피아 내시(8:26-40), 로마백부장 고넬료(10:1-48),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회당의 헬라인들(13:13-52), 이고니움의 유대인회당의 헬라인들(14:1-7), 빌립보의 루디아(16:11-40), 데살로니가의 유대인회당의 헬라인들(17:1-9), 베뢰아의 유대인회당의 헬라인들(17:10-15), 그리고 고린도의 유스도(18:5-11)가 그들이다.

행겔은 에디오피아의 ‘재무장관’ 내시가 신체결함(신 23:2)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개종자가 아닌 ‘하나님 경외자’였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런 신체결함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³⁶⁾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디도 유스도는 회당 옆에 집을 가지고 있었으며, 바울 일행을 영접하여 집에서 고린도 교회를 시작하였다.

루디아는 두아디라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바울 일행을 집에 청하여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였다.

행겔은 누가도 ‘하나님 경외자’ 출신이라고 믿었다. 그 이유는 누가의 “70인 번역성서, 외경문학 또 거기 따라온 헬라적 유대교 문학, 또 고대에 있어서 비 유대교도에게 접촉 가능했던 회당의 여러 기관들에 대한 그의 해박한 지식이 잘 설명해준다”³⁷⁾고 하였다.

36) M. 행겔, 『고대의 역사기술과 사도행전』, 94쪽.

37) M. 행겔, 『고대의 역사기술과 사도행전』, 124쪽.

D. 하나님 경외자들에 대한 성경외적 증거

요세푸스에 의하면, 네로의 아내 폼페아(Poppaea)는 ‘하나님 경외자’(*theosebes*)였다. 헤롯 아그립바가 예루살렘성내에 있는 왕궁에 높다란 식당을 건축하여 시가지뿐 아니라 희생제사를 포함하여 성전영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내려다보자, 이를 불쾌하고 불법적인 일로 생각하여 성전영내에 높다란 벽을 축조하여 엿볼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러자 아그립바 왕과 베스도 총독은 즉각 이를 헐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나 예루살렘 당국자들은 이를 네로에게 상소하였고, 네로는 이 일을 듣고, ‘하나님 경외자’였던 아내 폼페아의 부탁을 들어주어 그녀를 기쁘게 해줄 목적으로 성전 벽을 그대로 두도록 허락하였다. 그 대신에 폼페아는 그녀를 위해서 대제사장 이스마엘(Ismael)과 성전재정담당자 헬키아스(Helcias)를 볼모로 잡아 두었다.³⁸⁾

예루살렘 탈무드에 따르면, 로마황제 안토니누스(Antoninus)가 유대교회당에 메노라(촛대)를 기증하였다고 적고 있다. 랍비 예후다 하나시(Yehudah ha-Nasi)는 이를 듣고, “회당을 위해서 촛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에게 생각을 주신 하나님께 복이 있을 지어다.”라고 하였다.³⁹⁾

이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혹은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의 선교지역에도 많았다는 것이 고고학 발굴로 입증되었다.

히브리대학교의 슈무엘 사프라이(Shmuel Safrai) 교수는 소아시아에서 발견된 다수의 비문들에서 유대교회당에 기부금을 낸 ‘하나님 경외자들’이 언급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소아시아 중부 브리기아 아크모니아(Akmonia)의 회당에서 발견된 1세기의 비문에는 ‘줄리아 세베라’(Julia Severa)라는 여인에 의해서 회당이 건축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네로시대 황제숭배제사의 고위 여사제로 알려져 있다. 이 여인이 ‘하나님 경외자’라는 명시적 증거는 없어도 헌금 등을 통해 회당과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아 그녀

38) Josephus, *Antiquities*, xx.viii.11

39) Megillah 74a. Shmuel Safrai, "The Centurion and the Synagogue"에서 인용. 로마황제 안토니누스는 카라칼라(Caracalla, 211-17 C.E.)와 동일인일 것이라고 한다.

가 회당 주변의 이방인이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다.⁴⁰⁾

소아시아 사테(Sardis)에서도 디아스포라 유대교회당이 발굴되었다. 본관에 있었던 명판에는 “사테의 시민이요 하나님 경외자인 아우레리오스 헬모게네스(Aurelios Hermogenes)인 본인은 신께서 내리신 재능들을 가지고 일곱 줄기로 된 메노라(촛대)를 만들었다(혹은 기부하였다).”⁴¹⁾라고 새겨져 있었다.⁴²⁾

소아시아의 에베소에서 매안테르(Maeander) 강의 지류와 동서를 잇는 큰 도로를 따라 동쪽으로 145KM 가량 떨어진 곳(서머나에서는 남동쪽으로 217KM 정도)에 바울 당시 이미 200년이나 된 고대도시 아프로디시아스(Aphrodisias)가 자리 잡고 있었다.⁴³⁾ 이 도시에서도 디아스포라 유대교회당이 발굴되었다.

아프로디시아스 근처에는 동쪽으로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스, 남동쪽으로는 골로새가 위치하고 있었다. 이들 도시들은 바울의 제1차 선교지였던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및 더베를 포함하는 남갈라디아 지역과 제3차 선교지였던 에베소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었다.

또 바울을 본적이 있는 파피아스가 히에라폴리스에서 감독을 지냈을 만큼 아프로디시아스 인근 도시들에는 1세기 때부터 교회들이 들어서 있었고,⁴⁴⁾ 주후 325년에 열린 니케아 회의에 아프로디시아스의 감독이 참석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인근의 다른 도시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아프로디시아스에도 일찍부터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⁴⁵⁾ 이 도시 아프로디시아스에서 2세기경에 유대인 회당을

40) *Ibid* See also J. M. Lieu, "Do God-fearers Make Good Christians?" in *Crossing the Boundaries, Festschrift for M. D. Goulder*, ed. S. E. Porter et al. (Leiden: E. J. Brill, 1994), pp. 337-3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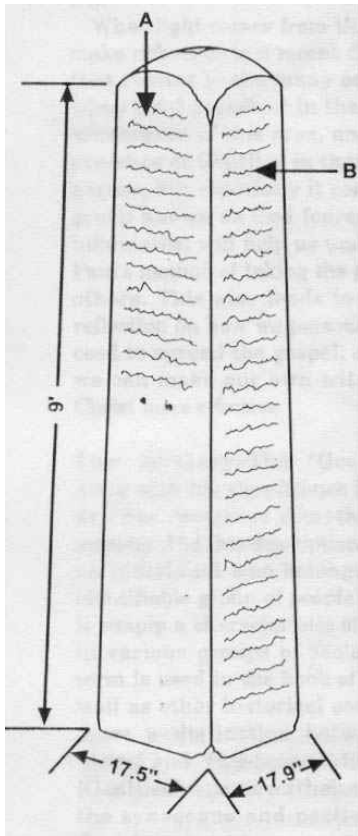
41) Aurelios Hermogenes, citizen of Sardis, God-fearer, from his gifts of Providence, I made [=donated?] the seven-branched candlestick.

42) Ellman Crasnow, "Newsletter November 1999 - God-fearers." 인터넷에서 인용.

43) 인터넷 사이트 검색단어, "Aphrodisias."

44) Eusebius, *The History of the Church from Christ to Constantine* (Penguin Books, 1984), pp. 88-89, 149-153.

45) Edward M. Blaiklock, R. K. Harrison, and David R. Douglass, eds., *The*



건립하면서 후원자 명단을 새겨 건립 하였던 대리석 기념비 하나가 1977년 에 발굴되었다.

이 기념비에는 유대인 69명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theosebeis) 54명과 개종자 3명의 이름이 그들의 직업과 함께 새겨져 있었다(이들은 대부분 집안의 가장이었을 것이다). 또 이들 가운데는 기도와 율법연구와 구제 활동에 특별히 헌신하는 '데카니'(A면)라는 그룹이 따로 있었는데, 이에 소속된 유대인이 69명 가운데 16명, 하나님 경외자가 54명 가운데 2명, 개종자 3명 모두가 포함되어 있었다(좌측의 그림 A면은 '데카니' 그룹에 속한 자들의 명단이고, B면은 '데카니'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의 명단이다).

하나님 경외자들 가운데 9명이 시의회 의원들이었고, 13명이 기능공들이었으며, 1명이 운동선수였다.⁴⁶⁾

이 기념비의 발굴로 말미암아 바울 선교를 기록한 사도행전의 신빙성이 한층 더 높아지게 되었을 뿐 아니라, 생각보다 훨씬 많은 수의 이방인들이 유대교 회당을 다니며, 하나님을 믿었다는 귀중한 사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Biblical Archaeology(Grand Rapids, Michigan: Regency Reference Library, 1983), s.v. "Aphrodisias."

46) Lewis A. Foster, "Light From Aphrodisias About God-Fearers," *Christian Standard*(Cincinnati: Standard Publishing Co.) May 5, 1991, pp. 374-376; Joyce Reynolds and Robert Tannenbaum, *Jews and God-fearers at Aphrodisias: Greek Inscriptions with Commentary, Proceedings of the Cambridge Philological Association*(The Cambridge Philological Society, 1987), Supplementary Volume no. 12; M. Williams, "The Jews and God-fearers Inscription from Aphrodisias: Case of Patriarchal Interference in Early 3rd Century Caria?" *Historia* 41(1992): 297-310.

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바울 일행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헬라인들)을 대상으로(행 17:17) 말씀을 강론하거나 변론하였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도록 권면하였다(행 18:4). 이렇게 해서 믿는 사람을 얻으면(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좇았다고 했다. 행 13:43) 믿는 이의 집으로 장소를 옮겨 그리스도의 교회를 시작하였다(행 18:7). 일단 교회가 시작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행 18:8).

그러면 바울은 이 지역을 통과한 적이 있었는가? 분명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바울이 제3차 선교여행 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지역을 통과하여 에베소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 이 지역이 매안테르 강변에 위치하고 있고, 큰 도로가 통과하는 곳이어서 이 길을 따라 에베소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행 19:1).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지역을 통과했는가에 있지 않고, 이 지역을 포함해서 소아시아와 갈라디아 전역에 헬라파(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는 점이고, 이들 유대인 회당에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이방인들이 대단히 많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들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헬라인들이 바울 일행의 최우선 전도목표였다는 것이다.

E. 하나님 경외자들의 의무

자기 영토에 살면서도 이방인들의 지배를 몸으로 겪어야했던 팔레스타인 거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배타적이었고, 선교에도 소극적이었다. 또한 그들은 개종자들에게 엄격한 율법준수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남의 나라에서 이방인들과 뒤엉켜 살아야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레코로만 세계에 동화되어 살면서 이방인들을 유대교에 입교시키는 일에 힘을 쏟았으며, 유대교에 입교한 ‘하나님 경외자들’의 책무를 가볍게 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1세기 디아스포라 유대인사회에서는 “만약 할례의 영적인 의미가

실현되었다면 할례의 외적 의식이 생략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⁴⁷⁾ 그 대표적인 예가 요세푸스의 『고대사』에 나오는 아나니아스(Ananias)의 경우이다. 아나니아스는 A.D. 40년경 아디아벤(Adiabene)의 왕인 이자테스(Izates)의 유대인 선생이자 상인이었다. 그는 왕이 유대인에게 지배받는다든 백성의 반발을 우려하여 할례 받기를 주저하자, 왕에게 할례를 받지 않은 채 유대인의 종교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권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할례를 받는 것보다 우월하다고 충고하였다. 그러나 이자테스는 나중에 엘레아자르(Eleazar)라 이름하는 유대인이 팔레스타인에서 와서 율법 전체를 지키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아니한 것이 얼마나 불경스럽고 죄스런 일인가에 대해서 심하게 책망하자, 즉시 방으로 들어가 의사를 불러 율법의 명령대로 할례를 받았다.⁴⁸⁾

팔레스타인이든 외국에서든 지역을 불문하고 엘레아자르와 같은 보수적 인물들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전체를 지키지 않는 이들 ‘하나님 경외자들’이 2급 시민에 불과하였고, 유대교도들의 묘지에 묻힐 수 없었으며, 여전히 이방인으로 간주되었다.

풍자 문필가 유베날(Juvenal)은 1세기 말 로마에서 어떻게 유대교 개종자들이었던 아버지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며, 할례를 받고, 그들의 자녀들을 동일하게 가르칠 것을 동의했는가를 기술하고 있다. 이것은 제2세대가 유대교로 완전히 이전해 갔을 때에만 유대인으로 인정되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⁴⁹⁾

유대인들의 희망사항이 이방인들의 완전한 개종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경외자들’에게는 613개의 명령과 금령을 포함한 토라 전체의 준수가 요구되지 않았다. 그 대신 그들에게는 노아의 일곱 개의 율법이 요구되었다.⁵⁰⁾ 오늘날 유대인들이 ‘하나님 경외자들’을 ‘노아의 자녀들’(B'nai Noah)⁵¹⁾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47) F. F. Bruce, 『사도행전(하)』, p. 67.

48) Josephus, *Antiquities*, xx.ii.3-5.

49) M. 행겔, 『고대의 역사기술과 사도행전』, 105-106쪽.

50) Gen. Rab., Noah, 34:8.

51) Billy Jack Dial, “General Introduction to B'nai Noah,”(Yehoshua Friedman, Founder and Chairperson), 인터넷 B'nai No'ach Resource Directory.

유대인들은 이 일곱 개의 율법이 최초의 '하나님 경외자'였던 아담과 노아에게 주어졌던 것이며, 오는 세계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여전히 주어지고 있다고 한다.⁵²⁾ 이들 일곱 개의 노아의 율법은 (1)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2)우상들을 숭배하지 말라; (3)간음하지 말라; (4)살인하지 말라; (5)도둑질하지 말라; (6)동물의 살코기를 산채로 먹지 말라; (7)사법체계를 제정하라⁵³⁾이다.

사도행전 15장에 소개된 사도총회에서 결정된 네 가지 금지사항들, 즉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금하라는 야고보의 절충 제안은 바로 유대인들이 '하나님 경외자들'에게 요구했던 내용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나오는 말

간략하게나마 바울의 선교방법과 사도행전 13-14장에 나타난 청중들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에 베드로의 청중들(히브리파든 헬라파든)은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었다. 예수의 제자들은 모두가 외국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이들 정통 히브리인들에 의해서 세워졌고, 그들의 사도권의 승인으로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거주한 헬라파 유대인들의 손을 통해서 해외에 거주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전파되었고, 또 그 복음은 유대교에 입교한 헬라인들에게 전파되었으며, 그들을 통해서 기독교 복음은 결국 이교인들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던 것이다.

바울은 해외에서 자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고, 그의 청중들 역시 일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

52) 론 모세레이(Dr. Ron Moseley)는 이 일곱 개의 율법이 창세기 9장 47절과 다른 성구들에서 유래하였다고 전한다. "The Spirit of the Law," 인터넷.

53) *Ibid* 유대인에게는 이 일곱 개의 노아의 율법 이외에도 우상숭배, 간음, 살인을 3대 죄악으로 취급한다. 발 코크바(Bar Kokhba) 반란진압 후(주후 135년) 리다의 랍비들은 만약 유대인이 목숨이 위태롭게 되면, 이 세 가지 금지 조항 이외의 율법은 파기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F. F. Bruce, 『사도행전(하)』, p. 79.]

교한 헬라인들이었다. 바울은 고향 다소의 회당에서 유대교에 입교한 헬라인들을 만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었을 것이고, 그들의 영적인 갈급함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바울이 극심한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끈질기게 유대교의 회당을 찾았던 이유가 무엇이었던가? 유대교 회당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황금어장이란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유대교에 입교한 헬라인들은 한 분 참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과 영원한 삶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가난한 자들과 지역 공동체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물질로 도왔던 후원자들이었다. 이러한 사실들이 고문헌과 고고학 발굴에 의해서 속속 확인이 되고 있고, 누가의 보도가 얼마나 정확하였는가를 입증해 주고 있다.

유대교 개종자들에 대한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나타난 선교정책이나 태도의 차이점은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었다는 점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방인에 대한 이런 태도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레코로만 문화와 언어에 익숙했다는 장점 말고도 이방인 선교의 주역으로 뽑힐 수밖에 없었던 주된 한 가지 이유였다. 또한 바울과 같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개방성과 포용성은 동족인 헬라파 유대교인들의 것보다 월등히 진보적인 것이었다. 그러기에 이미 유대교에 입교한 '하나님 경외자들'이 주저 없이 기독교 복음으로 재차 개종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이방 종교인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우리의 많은 이웃들이 구원이 없는 종교들을 믿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이들을 1세기 '하나님 경외자들'과 비교할 수는 없다할지라도 때와 장소와 일군들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과 그들이 믿는 종교에 관해서 얼마나 알고 있으며, 또한 그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들의 종교적 관심과 물질적인 후원을 어떻게 기독교 복음으로 돌릴 것인가? 바울에게서 그 방법을 조금이라도 배웠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본다.

참고자료

김득중. 『누가의 신학』 컨콜디아사, 1992.

- Blaiklock, Edward M., Harrison, R. K., and Douglass, David R. Eds. *The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Biblical Archaeology*. Grand Rapids, Michigan: Regency Reference Library, 1983. S.v. "Aphrodisias."
- Bruce, F. F. *New Testament History*. Garden City, NY: Doubleday & Company, Inc., 1980.
- Dale, L. Edsil. *Acts Comments*. Cincinnati: published by the author, 1952.
- Encyclopedia of Jewish Religion
- Eusebius, *The History of the Church from Christ to Constantine* Penguin Books, 1984.
- Ferdinand. *Mission in the New Testament*. Naperville, Illinois: Alec R. Allenson, Hahn, 1985.
- Hahn, Ferdinand. *Mission in the New Testament*. Naperville, Illinois: Alec R. Allenson, 1985.
- Jeremias, Joachim. *Jesus' Promise to the Nations*. Naperville, Illinois: Alec R. Allenson, 1958
- Jervell, J. *Luke and the People of God*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72.
- _____. *The Theology of the Acts of the Apostl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 _____. *The Unknown Paul: Essays on Luke-Acts and Early Christian History*.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4.
- Josephus. *Antiquities*.
- Lewis, Jack P.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Vol. 2. *The Living Word Commentary Series*. Austin, Texas: Sweet Publishing Company, 1979.
- Meyer, H. A. W. *A Critical and Exegetical Handbook on the Gospel of Matthew*. New York: Funk & Wagnalls, 1890.
- Ramsay, W. M. *St. Paul the Traveller and Roman Citizen*. 14th edn., London, 1920.
- Reese, Gareth L. *New Testament History: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 of Acts*. Joplin, Missouri: College Press, 1983.
- Reynolds, Joyce and Tannenbaum, Robert. *Jews and God-fearers at Aphrodisias*. The Cambridge Philological Society, 1987.

Supplementary Volume no. 12.

Rosenbloom, Joseph R. *Conversion to Judaism* Cincinnati: Hebrew Union College Press, 1978.

브루스, F. F. 『사도행전(상,하)』 이용복, 장동민 옮김. 아가페출판사, 1986).
파이퍼, R. H. 『신약시대 역사와 외경개론』 류형기 역. 한국기독교문화원,
1977. Pfeiffer, R. H. *History of New Testament Times with an
Introduction to the Apocrypha*.
행겔, M. 『고대의 역사기술과 사도행전』 전경연 역. 복음주의 신학총서 제
32권, 1990.

Edersheim, Alfred. "The Baptism of Proselytes." from *Appendix XII From
Life and Times of Jesus the Messiah*, 1886.

Foster, Lewis A. "Light From Aphrodisias About God-Fearers." *Christian
Standard* Cincinnati: Standard Publishing Co., May 5, 1991.

Kuhn, Karl Georg. "Ilroshlutoj." in the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 6, Ed. Gerhard Friedrich.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68.

Lieu, J. M. "Do God-fearers Make Good Christians?" in *Crossing the
Boundaries, Festschrift for M. D. Goulder*. Ed. S. E. Porter et al.
Leiden: E. J. Brill, 1994.

Williams, M. "The Jews and God-fearers Inscription from Aphrodisias:
Case of Patriarchal Interference in Early 3rd Century Caria?"
Historia 41, 1992.

Crasnow, Ellman. "Newsletter November 1999-God-fearers." 인터넷웹페이
지.

Dial, Billy Jack. "General Introduction to B'nai Noah." 인터넷웹페이지.

Moseley, Ron. "The Spirit of the Law." 인터넷웹페이지.

Safrai, Shmuel. "The Centurion and the Synagogue." 인터넷웹페이지.

Seufferlein, Terry. "Missionary and the First Century Pharisees." 인터넷웹
페이지.

제9장 유대교 '희망'에 관한 신약성경의 이해

New Testament Scriptures' Understandings on Jewish Hope

들어가는 말

신약성경에는 유대교 이해와 관련한 글들이 많다. 대표적인 글이 히브리서이다. 필자는 이미 “히브리서의 유대교 이해에 관한 고찰”이란 글을 쓴바 있다. 신약성경을 자세히 보면, 신약성경에는 유대교 '희망'(Ha-Tikvah)에 관해 유대인들의 기존 해석과 아주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유대교 희망이란 가나안땅(Olam Ha-Ba, 다가올 세상)을 말한다. 네 복음서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희망했던 지상 가나안땅보다 더 안전하고 완벽하며 영원한 하늘 가나안땅에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실 참 그리스도로 피력하고 있다. 이는 아브라함 이후 고대했던 첫 번째 희망의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모세보다 훨씬 뛰어난 바벨론포로기 이후 두 번째 희망의 그리스도의 실체로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 이 내용을 네 개의 글로 작성하였다. 네 개의 글을 위한 본문으로는 네 복음서의 첫 장 첫 절을 택하였다. 각 복음서의 첫 장 첫 절에 각 복음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담겼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각 복음서마다 한 개의 글을 작성하였고, 네 개의 글이 균등한 분량이며, 각각의 글은 또 균등한 분량의 세 개의 짧은 글들로 구성하였다. 동일한 맥락과 방법에서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로마서, 고린도후서, 에베소서)과 히브리서와 계시록에서 드러난 유대교 희망에 관한 신약성경의 이해들을 차례로 다뤘으며, 총 8개의 글을 실었다.

1. 희망의 증거(마태복음 1:1,17)

유대교인들의 믿음의 특징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때까지 총 40대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다. 17절을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열네 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열네 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가 열네 대였다고 적고 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희망이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이뤄졌는가를 보여주는 매우 특이한 족보이자, 아브라함과 그리스도 사이에 이어지고 있는 희망의 끈을 보여주는 족보이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출생연도를 유대력으로 1948년(주전 1813년)생으로 보고 있다. 아브라함이 나이 75세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에 가나안 땅에 대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다(빌 2:13).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희망을 품은 때가 나이 일흔 다섯이었고, 2010년 8월은 유대력으로 5771년이므로 그 때가 주전 1738년 이었고, 지금으로부터 3748년 전의 일이다. 아브라함의 출생부터 그리스도의 출생까지 걸린 시간이 1813년,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후부터 그리스도의 교회가 출범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1768년이다. 이 1768년은 기독교 시각에서 볼 때 아브라함의 희망이 정확하게 이뤄지는데 걸린 시간이다.

아브라함이 나이 일흔다섯에 가나안 땅의 희망을 품었다는 사실도 놀랍고, 또 그 희망이 1768년 만에 이뤄졌다는 사실도 놀랍다.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 시각에서 본 것이고, 유대교 시각에서 볼 때, 그들의 희망이 아직 완벽하게 영적으로까지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세속적으로 겨우 이뤄지는데 걸린 시간이 주전 1738년부터 주후 1948년까지 무려 3686년이다. 이것은 유대교인들의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지,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기다렸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희망을 간직했는지를 말해준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믿음의 특징은 결단코 접지 않는 희망과 불굴의 인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고 다윗왕이 그 약속을 성취하는데 걸린 시간이 14대 입을 말해준다.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을 가장 강성한 나라로 일으켜 세운 임금이었다. 따라서 다윗은 그리스도의 정치군사적인 상징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스라엘 역사상 아브라함의 약속이 가장 근접하게 이뤄진 때가 다윗 임금 때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윗 왕국은 14대만에 붕괴되고 말았다.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굳건하게 섰던 왕국의 터가 처참하게 허물어졌다. 임금으로부터 백성들까지 모두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로부터 다시 14대만에 허물어진 터를 굳건하게 다시 세우고, 완벽하고 강성한 왕국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나 그분의 왕국은 더 이상 세속국가가 아니었다. 그분이 세우신 나라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교회였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 활동했던 예언자들이 예견한 메시아 왕국이 유대교의 성전예배를 중심으로 한 영적인 나라일 뿐 아니라 완벽한 세속국가라고 믿는다. 이 해석의 차이가 바로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이후 14대만에 찾아온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지 못하고 다시 2천년의 시간을 유배와 떠돌이로 보내야했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믿음의 특징이 지나치게 세속적이고 정치적이며, 그것이 그들의 발목을 잡는 단점이란 것을 알 수 있다.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특징

떠돌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가나안 땅의 희망이 생긴 이후 무려 1768년이나 된 이 오래 묵은 꿈이 주후 30년 오순절 날에 이뤄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였다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믿음이다.

17절의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네 대”는 이스라엘 왕국의 출범과 발전기를 말한다. 이스라엘 왕국은 아브라함이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모세가 싹을 틔어 다윗이 통일왕국의 열매를 맺게 하였다.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열네 대”는 왕국의 쇠퇴기와 멸망을 말한다. 솔로몬사후 왕국이 남북으로 갈라졌고, 북이스라엘 왕국이 먼저 망한 지 136년 만에 남유다 왕국도 망하였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 대”는 노예와 떠돌이였던 아브라함 이후 모세 때처럼 예언자들은 새로운 희망 또는 두 번째 희망을 품기 시작하였다. 첫 번째 희망의 싹을 틔운 분이 모세였다면, 두 번째 희망의 싹을 틔운 분은 예수님이었다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믿음이다. 그리고 바울이 가나안 땅의 국경을 온 세계로 그 지경을 넓혔고, 예루살렘과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기독교왕국의 열매를 맺게 하였다. 오늘날까지 이 왕국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가나안 땅을 지독하게 아주 눈물겹게 집착하는 유대인들로서 바울과 같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희망의 지경을 예루살렘과 유대뿐만 아니라 (혹은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포기할망정)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넓혔다는 것도 놀랍고, 교회가 출범된 지 283년 만인 주후 313년에 종교의 자유를 획득하고, 그 후 79년 만인 주후 392년에 당시 천하였던 로마제국의 국교가 되었다는 사실도 놀랍다. 불법종교에서 합법종교가 되고 다시 국교가 되기까지 걸린 362년 동안, 기독교인들은 무수히 많은 탄압과 핍박을 받아야 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 했다. 그렇지만 그들은 기꺼이 재산을 몰수당하고 죽음을 당할망정,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평화의 왕국을 희망하며, 그 희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비방과 환난으로써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앎이며”(히 10:33-34),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히 11:35-37). 이것은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나라를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기다렸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희망을 간직했는지를 말해준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특징이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희망과 불굴의 인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39절은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였다. 그러나 세속에 치우쳐 기독교 신앙을 얕잡아 볼 뿐 아니라,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는 모든 믿음의 용사들처럼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히 12:1-2).

인류의 희망과 증거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희망이요, 그 증거임을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이다. 또 마태복음은 작게는 유대인들의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뤄졌고, 그 나라가 그리스도의 왕국 또는 천국임을 보여주는 글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에 이르는 족보로 시작하여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복음과 천국의 도래를 선포하고 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많은 말씀들이 소개되고 있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마 417)는 외침의 소개로 시작하여 크게 다섯 개의 설교가 소개되고 있다. 중심 장인 13장에는 천국 비유 8개가 실려 있는데, 천국의 본질과 성격을 말해준다. 또 5-7장 산상설교에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를 설교하고 있고, 24-25장에는 종말에 관한 비유 8개가 실려 있는데, 천국이 임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 10장은 천국의 시작을, 18장은 천국의 발전을 설명하고 있다.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왕국이란 한계를 뛰어넘는 영원하고 완전한 나라 천국을 말하고 한다. 아브라함이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모세가 싹을 틔어 다윗이 통일왕국의 열매를 맺게 하였지만, 결국 쇠퇴하고 멸망한 유한하고 실패한 일시적인 나라가 아닌 영원하고 완전한 나라, 유대인들이 지독하게 또는 눈물겹게 집착하지만, 외침이 끊임없고 가난과 지진과 전쟁으로 흔들리는 불안한 가나안 땅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나라임을 설명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희망이요, 증거가 된다.

이처럼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희망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인류의 희망으로 지평을 넓히고 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희망인 다가올 세계의 성격을 유대인들의 것과 달리 이해하였다. 그들이 꿈꾸는 육체적인 물질세계의 다가올 세상을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하였다. 임시적이고 유한한 것에서 무한하고 영원한 것으로 눈을 돌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마태가 새롭게 해석하고 이해한 희

망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속적인 희망에 매어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강성한 나라를 꿈꾸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의 본질이요 특성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희망은 철저하게 현실 중심, 팔레스타인 중심, 예루살렘과 시온과 지상의 성전 중심이다. 그들의 희망은 철저하게 이 땅에서 이뤄지는 지상의 나라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마태복음의 천국복음을 믿을 수 없다.

우리는 어떤가? 오랜 시간 하나님을 믿었으면서도 과연 마태복음의 천국복음을 이해하고 있는가?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가? 또 사도들이 이해했고 실천했던 믿음을 우리는 실천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믿지만, 그들의 희망이 지나치게 세속적인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개념을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복의 개념으로만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마태복음과 히브리서를 비롯한 신약성서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고, 지병 때문에 하나님이 없고, 작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고, 환란과 역경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은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제대로 된 희망을 품고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고민하고 점검해 볼 때이다.

2. 희망의 시작(마가복음 1:1)

세 번째 희망

마태복음 1장 17절의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네 대”는 이스라엘 왕국의 출범과 발전기를 말한다. 이스라엘 왕국은 아브라함이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모세가 싹을 틔어 다윗이 통일왕국의 열매를 맺게 하였다.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열네 대”는 왕국의 쇠퇴기와 멸망을 말한다. 솔로몬사후 왕국이 남북으로 갈라졌고, 북이스라엘 왕국이 먼저 망한 후 136년 만에 남유다 왕국도 망하였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

대”는 노예와 떠돌이였던 아브라함 이후 모세 때 품었던 첫 번째 희망처럼 포로기시대의 예언자들은 새로운 희망 또는 두 번째 희망을 품기 시작하였다. 첫 번째 희망의 싹을 틔운 분이 모세였다면, 두 번째 희망의 싹을 틔운 분은 예수님이였다. 이 두 번째 희망의 시작, 곧 새천년의 시작을 마태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였고,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복음서가 선포한 새천년의 시작은 유대인들이 바라는 세속 국가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곧 그리스도의 교회였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박해 받고 있던 성도들에게 두 번째 희망의 완성이자, 세 번째 희망의 시작인 천년왕국 또는 신천신지를 선언하였다. 이 세 번째 희망의 시작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한 영원한 세계로써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이후 지금까지 희망하고 있는 나라와 비슷한 세계이다. 이 영원한 나라는 영적인 동시에 부활했거나 영광스런 몸으로 변형된 성도들이 영원토록 살게 될 신천신지로 변모한 자연세계요, 새 예루살렘을 포함한 신령한 가나안 땅이다.

1800년대 초 미국에서 일어난 신약성서교회운동과 교회연합운동의 배경을 보면, 세 번째 희망인 새천년시대의 도래를 확신하는 믿음이 크게 작용하였다. 그리스도인의 교회운동과 교회연합운동을 젊어서 시작하여 죽는 순간까지 펼쳤던 발톤 스톤은 새천년시대에는 모든 교파명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한 가지 이름아래서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확신하였다. 그의 이런 희망 때문에 1804년 6월 28일 스프링필드 장로회가 <<유언서>>를 남기고 해체되었다. 교파들이 해체될 때, 계시록 20장에 예언된 천년왕국이 도래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스톤은 노예해방운동도 활발하게 펼쳤는데, 천년왕국 시대에는 노예제도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스톤은 그리스도인의 교회 운동, 교회연합운동, 노예해방운동을 <<그리스도인 전령>>(Christian Messenger)이란 월간지를 통해서 펼쳤는데, ‘그리스도인 전령’이란 새천년시대의 도래를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이란 뜻이다. 알렉산더 캠벨도 7년간 지속됐던 월간지 <<그리스도인 침례자>>(Christian Baptist)를 폐간하고, 그 대신 1830년부터

<<천년시대의 선구자>>(Millennial Harbinger)란 이름의 월간지를 사후 4년까지 40년간 발행하였다. 알렉산더 캠벨은 기독교 본래의 순수성과 능력을 회복함으로써 새 천년시대를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신약성서교회 운동을 선구자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졌다. 이처럼 스톤과 캠벨은 자기들 시대에 이뤄질 것으로 확신한 새 천년시대의 전령 또는 선구자를 자임하면서 개혁운동, 곧 신약성서교회로의 회복운동을 펼쳤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거룩한 희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두 번째 희망

아브라함이 나이 일흔 다섯에 가나안 땅을 희망한 이후 그 첫 번째 희망을 가지적으로 성공시킨 인물이 모세였고, 다윗왕국이 멸망당하고 가나안 땅을 빼앗긴 이후 예언자들이 가나안 땅의 회복을 희망한 이후 그 두 번째 희망을 가지적으로 성공시킬 인물이 그리스도이신데, 그 분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라는 것이 복음서의 주장이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희망의 시작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 1장 1절이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선언으로 시작된다. 여기서 복음이란 기쁜 소식을 말한다. 왜 기쁜 소식인가? 그것이 다윗왕국이 멸망당하고 가나안 땅을 빼앗긴 이후 612년간이나 오래 묵은 두 번째 희망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아브라함이 나이 일흔 다섯에 가나안 땅에 대한 희망을 품은 이후 출애굽까지 걸린 시간이 짧게는 430년, 길게는 645년이었다. 유대인들은 짧은 430년을 취하고 있다. 여기서 시작이란 새로운 시작, 다가올 좋은 세상의 시작, 새천년의 시작을 말한다. 그 시작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시대였다. 그리고 복음은 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기쁜 소식이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의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은 마치 이집트에서 노예로서 눈물과 고통의 세월을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선포한 기쁜 소식과 같고, 모세의 영도로 이집트를 탈출하여 첫 번째 희망인 가나안 땅의 시

대, 즉 새천년시대를 활짝 연 것과 같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란 바로 새 희망 곧 두 번째 희망의 시작을 말한다.

마태복음의 족보에서 예수님의 등장 시점은 다윗왕국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가나안 땅의 희망이 처참하게 짓밟힌 지 무려 612년만이었다. 모세가 이집트에 등장한 시기처럼 예수님의 등장시기역시 흑암이 지배하던 시기였다. 모세 때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의 노예였던 것처럼, 예수님 때 유대인들은 로마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었다. 이 압제는 바벨론제국, 페르시아제국, 헬라제국, 로마제국으로 6백년이 넘도록 대물림되어 온 것이었다. 실로 그들은 흑암에 앓은 백성이었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앓은 자들이었다(마 4:16). 또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자들이었다(마 9:36). 특히나 마가복음이 기록되던 시기는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처참하게 짓밟히고 붕괴된 후에 왕과 백성이 유배지로 끌려갔듯이, 그로부터 656년만인 주후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붕괴되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추방당하던 시기였고, 동시에 로마에서는 극심한 기독교 박해가 네로에 의해서 저질러지던 시기였다. 이뿐 아니라, 당시의 세계는 끊임없는 전쟁과 혼란과 가난과 전쟁노예들로 인해서 가정이 붕괴되고 도덕과 윤리와 기강이 무너진 시기였다. 이런 당대의 로마시대를 다루고 있는 영화가 <로마>라는 시리즈이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 마가는 로마의 기독교박해 현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알리고 있고, 새로운 희망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멀지 않듯이 예수님의 등장은 실로 흑암에 앓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앓은 자들에게 희망의 빛이었고, 복음의 시작이었다.

희망의 시작

이어령 박사가 나이 일흔이 넘어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된 것과 그가 쓴 <<지성에서 영성으로>>가 한국의 지성사회에 잔잔한 물결을 일으키고 있다. 이어령 박사는 젊은 날 날카로운 펜촉으로 하나

님을 부정하고, 지극히 합리적인 사고를 앞세워 니체와 같은 무신론을 주장했던 지성인이다. 그랬던 그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지성에서 영성으로 나아갔다. 왜 그랬을까? 그에게도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칠혹 같은 어둠이 있었고, 그 속에서 구원의 빛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에게 불어 닥친 시련은 오히려 그의 인생에 새로운 희망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었다.

이어령 박사는 세례를 받은 후 변화에 대해서 “과거 오류로만 보였던 성경이 지금은 구슬을 꿰듯 새롭게 읽힌다.”면서 “그동안 누군가에게 몸을 맡겨본 적이 없었다. 얼마나 외로운 삶인가. 혼자 바들바들하면서 여기까지 온 내가 너무 붙잡혔다. 가장 사랑하는 내 딸도 얼마나 쓸쓸했을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면서 세례 받던 당시의 심경을 고백하였다. 그는 또 ‘토끼와 거북이’ 우화를 예로 들면서 “세례 받기 전까지 나는 토끼 인생이었다. 나는 잘났고,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그게 아니다. 나는 거북이다. 그동안 얼마나 잘못 살아왔고 얼마나 많은 것이 부족했었는지... 인간의 오만을 버리는 것이 크리스천으로서 가장 큰 변화다”고 말하였다. “저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지식과 돈이 너를 구하지 못했다. 정말 네가 주 안에서 편안함을 얻었다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나의 무력이 증명된 것이 아니냐. 내가 이 무력함에 매달려 지금까지 살았구나. 동행하자. 지금 자신은 없지만 네가 시력을 잃어가면서 본 빛을 나에게도 보이게 해 달라.”고 했다고 한다.

아버지 이어령 박사를 변화시킨 딸 이민아 씨는 지금은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지만, 원래는 미국의 변호사였다. 1992년에 갑상선암 판정을 받았고, 수술을 했지만 1996년과 1999년에 두 차례나 암이 재발하였다. 설상가상으로 유치원에 들어간 작은 아들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로 판명되면서 이민아 목사는 밤마다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자신의 몸조차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아들에게까지 문제가 생기자 그녀는 아들의 치료를 위해 하와이로 이주하였는데, 이번엔 그녀가 망막이 손상돼 거의 앞을 보지 못할 지경이 되었다. 이 소식을 듣고 하와이로 달려간 이 박사부부는 눈이 안 보여 설거지도

못할 정도가 된 딸을 보고 마음이 타들어 갔다고 한다. 이때 이 박사는 한 교회에 었드려 “만약 민아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고 기도했다고 한다. 이후 이민아 변호사는 병 고침을 받았고, 이 박사는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세례 받은 지 3주 만에 이 변호사의 큰 아들인 25세 된 유진 씨가 돌연사하는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시련을 극복하고 목사가 되어 LA에서 청소년 치유사역을 하고 있다. 시련은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란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어령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기적 때문에 기독교를 믿는 것은 아니다. 기적은 구제의 표시이지 목적이 아니다. 예수께서는 ‘기적이다’라고 떠들면서 믿으러 오는 사람들을 아주 슬픈 눈으로 쳐다보셨습니다. 진짜 ‘만나’를 보라고. 영원히 죽지 않는 빵을 보라고 말입니다.”고 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복음의 시작이다.

3. 희망의 열매(요한복음 1:1)

희망을 이루게 하는 믿음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의 말씀은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의 말씀이다. 흑암을 빛으로 혼돈을 질서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변화의 말씀, 기적의 말씀이다. 태초의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독생자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이 인류가 의지할 궁극적인 희망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헬라어 ‘로고스’(Logos)를 번역한 말이다. 요한복음은 이 로고스가 사람에게 빛을 주고, 생명을 주는 독생자 하나님이시며, 그분을 믿는 믿음이 만들어내는 변화, 흑암을 빛으로, 혼돈을 질서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변화를 일곱 개의 표적들로 설명하였다.

첫째,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다(2:1-11). 이 표적은 유익한 변화, 건설적인 변화, 부족을 채우는 변화,

분위기를 쇠신하는 변화, 죽어가는 것을 살려내는 변화였다. 모친 마리아에게서 변화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나타난 다음, 물이 맛있는 포도주로 바뀌는 변화가 나타났다.

둘째,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셨다(4:46-54). 특히 유대인 니고데모, 사마리아인(절반 유대인) 여성, 이방인 왕의 신하한테서 변화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나타난 다음, 구원에 이르는 중생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 세 인물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남녀노소, 민족, 신분의 차별이 없음과 그것이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5:1-18). 이 표적은 복음적 사고(思考), 유신론적 창조사고, 살림과 열림의 사고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병자에게 변화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나타난 다음, 38년이나 된 고질병이 낫는 변화가 나타났다.

넷째, 예수님은 떡 다섯 개와 생선 두 마리로 빈들에서 장정만 오천 명을 먹이셨다(6:1-15). 이 표적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영생을 얻는다는 깊은 뜻을 담고 있다. 민중에게 변화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나타난 다음, 그들의 굶주린 배가 채워지는 변화가 나타났다.

다섯째,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6:16-21). 이 표적의 특징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들으면 폭풍이 몰아치는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을 받는다는데 있다. 제자들에게 변화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나타난 다음, 제자들을 밤새도록 괴롭힌 파도와 바람이 잔잔해지는 변화가 나타났다.

여섯째, 예수님은 타고난 맹인을 고치셨다(9:1-7). 예수님은 흑암에 빛을 주시는 분이시다. 맹인에게 변화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나타난 다음, 타고난 맹인의 눈이 떠지는 변화가 나타났다.

일곱 번째,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11:17-44). 나사로의 가족에게 변화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나타난 다음, 무덤에 묻힌 나사로가 살아나는 변화가 나타났다. 이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은 우리의 희망을 이루게 하는 원동력이다.

희망의 꽃

아브라함 이후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가슴에 품고 있는 희망은 가나안땅이다. 유대인들이 노래하는 희망(Ha-Tikvah)은 예루살렘과 시온에서 자유민이 되는 것이다. 천사도 믿고 부활도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종교색채를 강하게 띠기 때문에 그들이 노래하는 희망에 영적인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그들의 희망은 지상의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다. 이 점에 의문을 품고 근본에 접근한 것이 기독교이다. 떠돌이와 노예로 시작한 유대인들은 안정된 주거를 보장하는 땅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그들은 아브라함 이후 가슴에 품었던 가나안땅의 희망을 이뤘고, 다윗 때는 통일왕국의 위용을 세웠지만, 영원하리라 믿었던 다윗왕국은 무너졌다. 이후 아주 오랜 세월동안 유대인들은 많은 제국들의 흥망성쇠의 부침의 역사를 보아왔고, 그 속에서 웃고 울었다. 그런 중에서도 유대인들은 아주 오랜 세월동안 그들의 가나안땅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1400만 명밖에 되지 않는 소수 유대인들이 전 세계 수십억 인구가 믿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수용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세속적인 희망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2천 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아브라함의 희망을 다르게 해석하였다. 영적인 것을 물질적인 것의 실체와 근본으로 보는 헬레니즘의 영향도 있었지만,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본 것은 이 지상에는 영원한 안식처가 없다는 것이었다. 영원한 평화, 영원한 왕국, 영원한 안식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따라서 영원히 지속될 다윗왕국의 회복을 희망하는 유대인들의 메시아 관(觀)에 의문을 품기 시작하였다. 그 즈음에, 아주 오랜 기다림 끝에 예수님이 나타나 천국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였다. 영원한 평화, 영원한 왕국, 영원한 안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켰다. 짧은 기간에 그분을 추종하는 작은 세력이 형성되었고,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비로소 왜 그분이 그리스도이신지, 왜 그분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희망했던 메시아였는지를 숙

고하였다. 그들은 알렉산더 대왕보다 더 위대한 영웅이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등장한다 해도 팔레스타인을 통치했던 셀류키드 헬라왕조(312-64 BC)가 248년 만에 붕괴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결국 알렉산더와 같은 영웅을 희망하는 유대인들이 꺼려하고, 빛의 세계에 이르는 길(지혜 또는 지식)을 찾는 헬라인들이 어리석게 생각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생명과 영생을 얻는 길이요, 희망을 참되게 꽃피우는 길이란 것을 전파하였다.

요한복음에는 '믿고'와 '믿는'이란 단어가 '생명'과 '영생'이란 단어와 함께 대단히 많이 쓰이고 있다. 요한복음이 쓰인 목적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과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다(3:15-16, 20:31). 인류의 궁극적인 희망은 영원한 생명과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 희망을 꽃 피우고, 희망의 열매인 영원한 생명과 영생을 얻는 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의 길을 요한복음은 밝히고 있다.

희망의 열매

인간의 희망에 꽃을 피워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요한복음에서 희망의 열매는 생명 곧 영생을 말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믿음'에 관련한 단어가 포함된 구절이 85절이나 된다. '영접'이 7절, '생명'과 '영생'이 합해서 35절, '구원'이 6절, '하나님'이 68절, '그리스도'가 18절, '세상'이 56절, '나라'가 4절이나 된다.

56절에나 포함된 '세상'이란 단어는 영생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계 즉 유대인들이 희망하는 나라를 말한다. 이 나라는 예수님이 가르친 천국과 크게 차별되는 나라이다.

이 세상은 빛의 세계에 반대되는 어둠의 세계이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을 배척하는 세계이다(3:19). 빛을 배척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배척한다는 뜻이다. 예수님

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을 보리라고 말씀하셨다(8:12).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다고 하셨다(15:19). 그러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16:33)고 하셨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였고(5:18),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19:15-16). 그러나 그들이 죽인 예수님은 육신덩어리에 불과하였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다.

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6:63)고 하셨다. 또 빌라도에게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18:36)고 하셨다. 따라서 요한복음에서의 가나안땅은 지상의 땅이 아니라, 히브리서나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저 천국에 있는 가나안땅을 말한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1:12)이라야 한다. 또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17:3) 자들이어야 하고, 믿는 자들이어야 한다(3:16, 6:47).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11:25-26)고 하였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20:29)고 하였다.

다른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부활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11:25-26)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마 6:31-33)고 하셨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

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6:27)고 말씀하셨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희망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이다.

4. 희망의 능력(누가복음 1:1)

나그네의 희망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인들의 이집트탈출과 광야생활 그리고 가나안 입성이 누가문서의 역사기술방법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만일 연관성이 있다면, 누가는 예수님의 짧은 생애와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모세와 히브리인들의 이집트탈출의 관점에서 적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모세의 실체가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히브리인들의 실체가 된다.

그리스도인들의 지상에서의 삶은 히브리인들이 이집트를 떠나 광야에 이르러 가나안땅으로 가는 행진(여행) 혹은 나그네길의 원형이다. 히브리인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가나안땅에 들어가기까지 겪었던 고난의 행군, 이집트에서의 배척은 물론이고, 광야생활 중에 이웃 민족들로부터 받았던 배척, 또 그들과 싸워야했던 투쟁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악세상을 떠나 천성에 들어가기까지 겪어야하는 사단의 유혹과 불신자들의 배척 또 그들을 싸워 물리쳐야하는 투쟁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이다. 히브리인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홍해를 건넌 후부터 광야에서 40년간 지내면서 만나를 먹고 반석의 샘물을 마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아 성막예배를 드렸던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악세상을 떠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아 40년으로 상징되는 일생동안 교회생활을 하면서 주의 만찬을 먹고 마시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주일예배를 드리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특히 히브리인들의 광야생활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지시한 양식대로 이동성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방식대로 예배를 드렸던 광야교회시대와 하나님의 성령님의 상징인 불기둥과 구름기둥(Shekinah, 하나님의 현현)의 인도를 밤낮으로 받아 가나안땅으로 향한 시대는 누가가 현시대를 교회시대, 성령님의 시대, 은혜시대, 천성을 맞

보고 즐기는 종말론시대로 설명한 것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교회시대란 마치 히브리인들이 노예의 사슬과 속박에서 벗어나 홍해건너편의 광야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를 받던 광야시대요, 가나안땅을 바라보고, 가나안땅을 희망하며, 가나안땅의 축복을 미리 맛보고 즐기던 히브리인들의 종말론시대의 원형과 실체를 말한다. 히브리인들이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하나님의 쉼기나(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육신의 배고픔과 목마름과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와 타민족의 배척과 두려움과 의심과 유혹과 싸우면서 가나안땅을 향해 중단 없는 전진을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성령 충만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며 그 어떤 무서운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하늘 가나안땅을 향해서 하늘 가나안땅을 희망하며 하늘 가나안땅의 축복을 미리 맛보고 즐기면서 중단 없이 전진하는 순례자들이 될 것을 강조한다.

히브리인들은 끝내 가나안땅의 희망을 이뤘고 다윗왕국 때는 그 영광이 최고조에 달했으나 불행히도 다윗왕국은 망했고 예언자들이 빼앗긴 가나안땅의 회복을 희망한 이후 그 두 번째 희망이 교회시대를 통해서 이뤄졌으며, 이를 은혜시대, 성령시대 혹은 종말론시대라 일컫는데, 교회시대야말로 인류에게 활짝 열린 새 천년시대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장 1절이며, “우리 중에 이뤄진 사실”이다.

희망의 능력

히브리인들의 희망의 능력은 하나님이셨지만, 보이지 아니하심으로, 계시의 형태 즉 성막 법궤뚜껑(보좌) 위로 쏟아 오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대신하셨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현현 또는 하나님의 쉼기나 영광이었다. 민수기 9장 15-23절을 보면, 히브리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시한 양식대로 성막을 세운 날로부터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머물렀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히브리인들이 구름이 앞서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텐트를 치고 머물렀다.

광야에서 히브리인들을 인도한 것은 두 가지였다. 한 가지는 바로 이 하나님의 구름 또는 쉼기나 영광이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먼저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시였고, 나중 것은 하나님의 종을 통한 지시였다. 이 쉼기나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님이시다. 광야에서 가나안땅을 바라보고 행진하는 히브리인들에게 쉼기나가 희망의 능력이었듯이, 교회에서 하늘 가나안땅을 바라보고 행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이 희망의 능력이다. 이점을 간파한 분이 누가였다. 그래서 누가는 광야시대가 쉼기나시대였듯이, 교회시대를 성령시대로 보았고, 광야시대가 하나님의 은혜시대였듯이, 교회시대를 하나님의 은혜시대로 보았다. 광야가 험난한 가시밭길이었듯이, 교회 역시 박해와 환난을 극복해야 할 험난한 가시밭길이었다. 광야의 길이 가나안땅을 향해 행진하는 순례의 길이었듯이, 기독교 신앙의 길 역시 하늘 가나안땅을 향해 행진하는 순례의 길임을 누가는 그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고난의 행진을 해야 하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하는 신앙의 순례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 희망의 능력이 되신 성령님의 지시를 신실하게 따르는 것이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것임을 누가는 권면하고 있다. 성령님의 지시를 신실하게 따르는 것이 성령충만의 조건이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조건이다.

이들 조건이 갖춰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의 삶을 나그네의 삶 즉 타향살이로 보게 되고, 세상의 것을 천상의 것의 그림자와 모형으로 여기게 된다. 세상에서 보는 것은 동굴 속에 갇힌 죄수가 벽면에 비춰진 희미한 그림자를 보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히브리인들이 광야생활에 만족하지 않고 가나안땅을 바라보고 행진하였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이생에서의 생활에 만족하지 않고 참 세계, 빛의 세계, 영원한 본향세계를 바라보고 행진한다. 돌아갈 본향세계가 있기에 희망이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험난한 나그네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견딜 수 있다. 가난이 부끄럽지 않고, 죽음이 두렵지 않다. 오히려 이 땅에서의 삶은 짧을수록 좋다는 믿음이

있다. 지상에 희망을 두지 않고 천상에 희망을 두고 살기 때문이다. 이것이 지상 나그네의 희망이다. 시인 천상병은 '귀천'(歸天)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
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

희망의 성취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선교비유가 14개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선교란 새로운 시작을 뜻한다. 그것은 마치 고대 이집트의 히브리 노예들이 홍해를 건너 후 자유인으로서 새롭게 시작하는 떠돌이 광야생활과 같고, 험난한 떠돌이 광야생활을 끝낸 후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땅에서 안정된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과 같다.

여기서 세 가지 종류의 삶을 볼 수 있다. 첫 번째 삶은 노예로서의 삶이다. 두 번째 삶은 자유인으로서의 삶이지만, 삶의 터전이 없는 떠돌이의 삶이다. 세 번째의 삶은 자유인으로서뿐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 삶의 터전을 마련한 축복의 삶이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이 세 가지 삶을 위해서 두 개의 물을 건넜다. 홍해를 건넜고, 요단강을 건넜다. 따라서 물은 가진 것을 이편에 다 내려놓고 더 나은 저편 세상을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 할 경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원전 60년에 율리우스 시저(BC 102-44)가 폼페이우스와 결탁하고 원로원에 대항하고 있을 당시, 이탈리아 북부에서 오늘날의 프랑스에 해당하는 갈리아 지방을 평정하였다. 명성이 높아지자, 기원전 49년에 폼페이우스는 시저를 배신하고 원로원과 결탁하여 시저를 소환한다. 군대를 해산하고 로마로 돌아오라는 명령이었는데, 시저는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너 로마로 쳐들어갔고, 폼페이우스와 원로원 군대를 물리치고 로마제국의 일인자가 되었다. 여기서 루비콘(Rubicon) 강은 라틴어로 '붉은 강'이란 뜻으로, 갈리아와 이탈리아의 경계지점에 있었다고 한다. 시저가 붉은 강을 건너 천하를 얻은

것은 고대 히브리인들이 붉은 바다 홍해를 건넌 후 가나안땅을 얻은 것과 비교된다. 아무튼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버릴 것을 버리고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는 강이나 바다를 건너야 한다. 그런 결단도 없이 그런 결의와 실천도 없이 희망을 이루겠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누가복음에는 돌아온 탕자(눅 15:11-32)와 거지 나사로(눅 16:19-31)의 비유가 있고, 세리장 삭개오(눅 19:1-12)의 에피소드가 실려 있는데, 이들 이야기들에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로 희망의 성취와 나눔, 둘째로 처음 것의 상실, 셋째로 새 출발을 말하고 있다. 먼저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께 물려받은 전 재산을 다 날리고 거지가 되어 돼지먹이조차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처참한 신세에서 아버지의 집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끝내 회개하고 돌아가 아버지의 품에서 새 출발함으로써 희망을 성취하는 이야기이다. 거지 나사로는 부와 건강을 잃고 가난하고 병든 거지로 살았지만,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을 보면 그가 천성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삭개오는 탐관오리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지만, 백성들로부터 신망을 잃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죄인이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함으로써 구원을 받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그는 자신이 가진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남의 것을 속인 것에 대해서는 네 배로 갚겠다고 하였다. 이들 이야기들에서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것들을 이편에 다 내려놓고 더 좋은 저편 세상에의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어떤 배척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함과 쉬지 않는 기도로써 천성을 향한 행진을 쉬지 말아야 한다.

5. 희망의 발전(행 1:8)

우주적 교회시대의 개방

사도행전의 중요성은 이 책이 갖고 있는 독특한 역사관에 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로마가 천하를 호령하던 당대를 교회시대

(광야시대)로 이해하였다. 당시 교회는 이단시 취급될 뿐 아니라, 탄압을 받던 아주 작은 공동체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들이 겨자씨와 같은 공동체의 시대 곧 교회시대로 조망(眺望)하였다. 놀라운 것은 누가가 내다본 그대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10여 차례의 대 환란을 겪고서도, 주후 30년 예루살렘 교회가 출범된 지 360여년 만에, 1,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대로마제국을 기독교왕국의 새천년시대로 만들어버리는 대 성과를 거두었다.

이 새롭고 놀라운 새천년시대의 출범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어떻게 불법종교로써 박해를 받던 작은 공동체가 로마제국의 국교가 될 수 있었는가? ‘가톨릭’(우주적, 보편적) 교회라는 호칭을 문서에 등장시키고, 이 호칭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인물들이 있었다. 동시대에 태어나 같은 시기에 죽었던 암브로시우스 주교와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그들이다.

암브로시우스(Ambrosius, 337 혹은 340-397)는 본래 밀라노에 주재했던 집정관이었으나 삼위일체를 믿는 정통교회와 예수님의 온전한 신성을 부정했던 아리우스파 사이에 벌어진 격렬한 주교직 경합 때 중재를 맡았다가 추대되어 374년 30대 후반에 침례 받고 일주일 만에 주교에 임명된, 말 그대로 급조된 주교였지만, 주교로 재임했던 20여 년간 정치 종교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기독교의 위상을 크게 높였던 인물이다. 특히 그는 아우구스티누스를 회개시켜 침례를 베풀어 성인이 되게 한 인물이다. 암브로시우스의 활동은 가히 영웅적이었다.

암브로시우스는 예수님의 온전한 신성을 부정하는 아리우스파와 이교에 맞서 싸웠고, 원로원에 승리의 여신 니케 상을 세우려한 심마쿠스 황제에 대항하였으며, 두 개의 대성당을 아리우스파에게 넘기려 했던 황제의 군대를 격파시켰다. 또 양민들의 대학살을 명령한 테오도시우스(Theodosius, 347-395) 황제를 굴복시켜 참회시킨 일은 가히 영웅적이었다.

390년에 그리스 테살로니가에서 주민반란사건이 일어났다. 총독을 살해하고 황제와 황후의 초상화를 훼손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건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7천여 명이 살해되었다. 이 소식을 듣고 격

분한 암브로시우스는 즉시 서한을 황제에게 보내 공개적인 참회를 요구하면서 참회 때까지 예배당에 오지 말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를 묵살한 황제는 부활절 날 예배당에 행차하였고, 암브로시우스는 출입문을 가로막고 황제의 입장을 저지하였다. 암브로시우스의 단호한 저항에 막혀 테오도시우스는 발길을 돌렸고, 8개월이 지난 성탄절에 다시 예배당에 행차하였다. 암브로시우스는 이번에도 입구에서 황제를 제지하며 데살로니가에서 자행된 주민학살을 참회토록 하였다. 결국 황제는 자신도 인간에 불과함을 깨닫고 주교의 명령에 굴복하여 맨머리에 베옷을 입고 참회하였다. 그 후에야 그는 주교로부터 주의 만찬을 받을 수 있었다. 그 후 2년만인 392년에 테오도시우스는 기독교를 로마제국의 국교로 선포하였다. 암브로시우스의 용기 있는 행동과 테오도시우스의 국교 선포가 가능했던 것은 그들이 모두 우주적 교회시대를 활짝 열고자한 희망 즉 가나안땅의 희망을 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새천년의 교회시대

테오도시우스는 원래 동로마제국의 황제였으나 4개월에 불과했지만 서로마제국까지 함께 다스렸던 마지막 황제였다. 그 후 로마제국은 동서로 분리가 고착되어 다시는 통일되지 못했다.

379년경 테오도시우스가 통치하던 동로마 제국 내에는 삼위일체론(니케아 신조)을 옹호하는 그리스도인들과 단일신론을 주장하는 아리우스파 사이에 적대 관계가 고조되면서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테오도시우스는 심한 병에서 회복된 뒤 380년 칙령을 받았고, 그 누구의 자문을 구하지도 않고 모든 로마시민들이 니케아 신조를 고백하라는 칙령을 발표하였다. 이때부터 삼위일체론을 믿는 신자들만 우주적 혹은 보편적(가톨릭)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가톨릭이라는 호칭이 문서에 등장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이듬해인 381년에 제1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를 개최케 하여 주교 150명이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확정케 하였으며, 콘스탄티노폴리스 교구가 로마 교구와 버금가는 명예와 위신을 갖게 하였다. 385년부터 테오도시우스는 동물제사를 엄격히 금지시켰고, 391년에

일체의 비기독교 의식을 금지시켰으며, 392년에는 공적이든 사적이든 모든 형태의 이교숭배를 제국의 전역에서 불법으로 규정하였다. 이후 로마제국에서는 비기독교 신앙이 완전히 단절되었으며, 그 어떤 비기독교적인 진흥이 나오지 못하였다.

이 무렵인 391년에 성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 354-430년)가 북아프리카의 도시 히포 레기우스에서 장로(목사)로 장립되었고, 4년 후인 395년부터 공동주교를 거쳐 400년부터 단독 주교가 되어 430년 죽을 때까지 북아프리카의 교회들을 섬겼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천년시대의 끝과 새로운 천년시대의 시작을 경험한 행운아였다. 그의 시대에 교부시대가 끝나고 중세시대가 시작되었고, 기독교 박해시대가 끝나고 국교시대가 열렸으며, 자신의 영향권아래서 393년과 397년에 신약성서 27권이 정경으로 확정되었으며,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로마제국이 망하고 하나님의 도성(神國, De Civitate Dei)이 열린 종말론시대였기 때문이었다.

히브리인들의 광야시대는 가나안땅을 바라보는 종말론시대였다. 동시에 광야시대는 하나님의 세키나(구름기둥)가 인도하던 이동성막 교회시대였다. 이 광야교회는 기독교회의 예표였다. 기독교회시대는 하늘 가나안땅을 바라보는 종말론시대이다.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희망했던 교회시대가 바로 새천년시대였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서 순례하는 자들이었다. 암브로시우스와 테오도시우스와 아우구스티누스가 희망했던 교회시대도 마찬가지였다. 광야시대와 가나안땅 시대 사이에 요단강 말고는 별도의 새천년시대가 없었듯이, 또 광야시대가 메시아의 예표였던 모세시대였듯이, 교회시대와 하늘 가나안땅사이에 별도의 천년왕국시대나 메시아시대가 있을 수 없다. 교회시대가 곧바로 메시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이다. 이것을 믿었던 인물들이 누가요, 암브로시우스요, 테오도시우스요, 아우구스티누스였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교회시대를 새천년시대 곧 메시아왕국시대로 보았다.

광야의식

아우구스티누스는 천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로마가 430년 세

상을 떠날 때까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하였다. 아우구스티누스 역시 신약성서의 저자들처럼 이 세상을 가나안땅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실감하였다. 그래서 그는 전쟁과 자연재해에 흔들리고 무너지는 유한하고 일시적인 가치들을 뛰어 넘어 영원불변한 세계를 향하여 순례자의 길을 걸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것이 바로 순례자들의 광야의식이다.

아브라함으로부터 히브리민족 그리고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들은 그 약속이 다름 아닌 가나안 땅 곧 하나님의 도성인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약속 또는 이 희망을 바라보고 이 희망을 향해서 끊임없이 순례하는 떠돌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런 의식이 곧 순례자들의 광야의식이다.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순례자의 모범으로 설명하였고,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 특히 바울을 순례자의 모범으로 설명하였다. 예수님과 바울은 순례자들로서 광야의식이 충만했던 분들이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현 위치 또는 현주소는 광야이다. 아브라함이 떠난 죄악세상 갈대아 우르나 하란이 아니다. 히브리인들이 떠난 죄악세상 고대이집트가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자녀들은 이미 죄악세상을 사이에 둔 붉은 바다 홍해를 건너버린 뽑힌 자들이다. 율리우스 시저처럼 붉은 강 루비콘을 건너버린 하나님의 군대의 용사들이다. 이미 주사위를 땅에 던진 사람들이다. 돌이킬 수 없고 돌이켜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다. 오직 전진만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veni, vidi, vici)를 외칠 일만 남겨놓은 사람들이다. 고대 히브리인들이 그랬고, 율리우스 시저와 그의 용사들이 그랬듯이,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일만 남긴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쉼기나(구름기둥)를 신실하게 쫓았던 것처럼, 성령 충만하여 신실하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야 하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며 하늘 가나안땅을 정복해야 한다. “세레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마 11:12)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

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히 10:39).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를 외치며, 모세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 할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광야를 걷고 있다. 목적지 가나안땅을 향해서 걸음을 내딛고 있는지, 갈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기독교 역사는 광야의식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곧 가나안땅시대, 새천년시대를 희망하는 자들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기독교 역사에서 발전을 가져왔던 시기들은 대개가 새 천년 가나안땅의 시대에 대한 희망이 충만했을 때였다. 누가 사도 행전에서 기술한 역사가 바로 이것이었다. 누가의 강력한 메시지는 우리가 광야에 있고, 하늘 가나안땅을 향해서 행진하고 있는 순례자들이며, 성령 충만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면 새천년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를 외치게 될 그 순간까지 전진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6. 희망의 상속(롬 4:13-16, 고후 5:1-5, 엡 3:1-13)

로마서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기쁜 소식)은 희망을 상속받는데 차별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가나안땅)에 차별이 없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희망을 상속받는데 차별이 있다고 생각해왔는데, 바울은 민족 신분 성별 그 어떤 차별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단 한 가지 제약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고 하였다. 또 10장 12절에서는 구원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선포하였다. ‘차별’의 반대말은 ‘선민’이다. 따라서 차별과 선민이란 단어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말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일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뽑힌 민족이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한분뿐이고, 그 한분뿐인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신(神)이므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란 결국 무신민족(無神民族)이다.

바울은 ‘기업’(가나안땅)과 ‘상속자’(후사)란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였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3748년 전 가나안땅의 희망을 최초로 품은 이후 지금(2010년)까지 이 희망을 꺾지 않고 있다. 유대교용어로 기업은 ‘올람 하바’(다가올 세상)이고, 상속자는 이 다가올 세상에 들어가 살 자들이다.

아브라함은 3748년 전 가나안땅의 희망을 품었던 최초의 선민(이 희망을 품은 자가 선민이다)인데, 바울은 그의 행위와 믿음의 성격으로 마서 4장에서 설명하였다. 행위를 율법과 할례로 연결시켰고, 믿음을 의로움과 무할례로 연결시키면서 율법과 할례로 연결되는 행위구원에 무용함을 설교하였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집착하는 문자적인 지상의 가나안땅과 그 땅의 주인이 유대인들이라고 믿는 배타주의 그리고 율법에 매인 유대교 믿음의 한계와 문제점을 파헤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얻는 차별 없는 구원을 설교하였다. 로마서 4장 13-16절이 이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다. “[13]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14]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15]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16]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또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고 하였다. 이는 히브리 민족이 가나안땅을 희망하며 가나안땅을 바라보며 가나안땅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을 받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늘 가나안땅을 희망하며, 하늘 가나안땅을 바라보며, 하늘 가나안땅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을 설파하는 것이다. 그것은 또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 동안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후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는 영광을 받으신 것과 같다.

고린도후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도 '기업'(가나안땅)과 '상속자'(후사)란 단어를 사용하였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바울은 지상에서의 집을 "장막집" 즉 천막집이라고 말씀하였다. 이것은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뿐만 아니라, 히브리 민족이 40년 광야생활에서 사용했던 임시거처였다. 그런데 바울은 이 장막집을 우리 몸의 육체에 빚되어 사용하였다. 이 땅에서의 삶이 유한하고, 임시적인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장막집에 반대되는 더 좋은 집을 일컬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또는 "영원한 집"이라고 하였다.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또는 "영원한 집"은 유대인들이 희망하는 지상의 가나안땅에 있는 집이 아니라, 하늘 가나안땅에 있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광야를 떠돌던 히브리 민족이 가나안땅을 얼마나 사모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땅의 것들보다 '더 좋은 육체'와 '더 좋은 세상'이 예비 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상속받을 자들임을 가르치고 있다.

바울은 5절에서 기업이란 말 대신에 '장차올 것'이란 표현을 썼다. 우리말 성경 5절은 "이것을(영원한 집)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입니다"로 번역하였지만, 영어성경은 "장차올 것을 보장하는 보증금으로써"(as a deposit, guaranteeing what is to come)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로 번역하였다. 여기서 성령님은 '장차올 좋은 것' 즉 하늘 가나안땅에 대한 '약정'의 '보증금'과 '인감'으로써 설명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은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하였다. 여기서 하늘 가나안

땅에 대한 약정의 보증금과 인감으로써 성령님을 언급한 것은 성령님의 실수 없고 오류 없는 확실한 인도를 말한다. 그것은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히브리 민족을 가나안땅으로 인도한 것과 같다. 교회는 성령님의 보증과 인감 찍음으로 가나안땅(구원)의 약속을 받고, 그 축복을 함께 나누며 누리는 공동체이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약속대로 나아가는 나그네 공동체이다.

따라서 바울은 우리 신앙인들이 현실에 안주하여 광야생활에 만족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성도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땅이기 때문이다. 또 낙심하거나 희망을 포기하거나 고난의 길을 피하려 해서도 안 된다고 말한다. 고린도후서 4장 16-18 절은 우리에게 “[16]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17]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하였다. 이 땅은 우리의 마지막 삶이 아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낡아지는 것이고, 고난의 삶이며, 보이는 것이고, 잠깐에 불과한 것이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희망은 새로워지는 것이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이며,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3장 6절은 놀랄만한 선언이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희망하는 가나안땅,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 바울의 시대까지 무려 1800여 년 동안 기다려왔던 약속의 땅을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이 들으면 천인공노할 망언이라고 생각했을 법한 그런 엄청난 선언이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울의 이 선언은 지상의 가나안땅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늘 가나안땅을 두고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 문자적으로 지상의 가나안땅은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땅일 수 있지만, 영적으로 하늘 가나안땅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 모든 남녀, 모든 신분의 차별 없이 누구나 상속받을 수 있는 땅이다. 기독교가 아니면 상상도 해볼 수 없는 엄청난 복음이다. “이 복음을 위하여”(7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바울 자신을 복음의 일군으로 삼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8-9절)고 하였다.

바울의 깨달음은 이렇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가나안땅의 적통 상속자가 아닌 외국인이었던 우리 이방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적통인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아브라함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나눠받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 사실이 우리 이방인에게는 엄청난 복음의 기쁜 소식이요, 만세 전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이며, 하나님의 경륜이란 것이다. 골수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이 엄청난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 엄청난 복음이 바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이라고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한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온갖 영적인 복을 주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와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라는 물음에 답하고 있다. 우리는 다 죄의 삯으로 사형선고를 받았던 사람들이며, 세상풍조를 따라 살았고,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따라 살았으며,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던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들’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품으로 거듭났다는 것이다. 전에 우리는 육신적으로 이방인이었고, 유대인들로부터 할례 받지 못한 자란 소리를 듣던 자들이었으며,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도 없었으며, 선민의 약속도 받지 못했고, 그래서 아무

런 희망 없이, 하나님도 없이 황야의 늑대처럼 살던 자들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덕분에, 그분이 흘리신 보혈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늘 가나안땅의 시민권이 없는 외국인이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의 집의 가족이라는 것이다. 이 땅의 가나안보다 더 좋은 하늘 가나안땅의 상속자라는 것이다.

7. 희망의 실상(히 1:1-2, 11:1)

예수님에 대한 믿음

희망의 실상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신실하게 따르는 믿음이다. 히브리서 11장 1장은 “바라는 것들”과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광야에서 40년을 떠돌던 히브리인들이 간절히 희망했던 것은 가나안땅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희망했던 가나안땅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지 못했다. 그들의 후손인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이 가나안땅의 희망을 품은이후 지금까지 3748년 동안 가나안땅을 간절히 희망했고, 예루살렘과 시온에서 자유민이 되기를 희망하였지만, 3748년 가운데 3000년 정도는 그것이 그들의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았고, 그들의 손에 잘 잡히지도 않았다. 여기서 우리는 희망이 “보지 못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희망의 끈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보지 못하는 것” 때문이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면 희망을 포기할 사람이 없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으면 포기할 사람이 생긴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노예 신분으로 처참하게 지내던 히브리인들에게 희망하던 것을 실현시켜주고,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해준 하나님의 사람이 모세였다. 따라서 모세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제1 대구원사건을 실상으로 만들어낸 그리스도의 예표였다. 바벨론유배이후 유대인들은 제2 대구원사건을 실상으로 만들어낼 새로운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렸다. 히브리서는 그가 바로 예수님이란 점을 설파하고 있다. 히브리인들이 사막의 모래바람과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와 의심의 구

름과 불신의 그들과 싸우며 모세를 믿고 따라야했던 것처럼, 또 기어코 가나안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라야만 희망하는 것들을 실상이 되게 하고, 보지 못하던 것들을 증거가 되게 할 수 있다고 설교하였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말한다. 믿음으로 희망의 증거가 된 자들을 다수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희망의 증거가 된 자들은 구약시대의 인물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아니지만,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에는 충분한 인물들이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그 어떤 시련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불굴의 믿음,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믿음을 말한다. 그것은 마치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모세를 보좌한 것과 같다. 그런데 옛적 즉 구약시대에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히브리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고,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다고 하였다(1:1-2). 그러므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12:1-2)고 하였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데서 시작되고 완성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지속적으로 그분을 주목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데서 시작되고 완성된다는 뜻이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믿음의 모범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장차 받아 누릴 영광을 위해서 달게 받으셨던 분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하나님의 우편보좌에 앉는 보상을 받으셨다.

장차 올 기업의 상속

히브리서에는 상속자란 말이 몇 번 나온다. “만유의 상속자”(1:2), “구원 받을 상속자”(히 1:14), “의의 상속자”(히 11:7)가 그것들이다. 기업이란 말도 몇 번 나온다. “이름을 기업으로”(히 1:4),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히 6:12,17), “영원한 기업의 약속”(히

9:15),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히 11:8),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히 12:17) 등이 그것들이다.

여기서 기업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올람 하바,’ 장차 올 좋은 세상을 말한다. 히브리인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에 이른 것은 최종목적지에 도달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도달해야 할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다. 마찬가지로 세상으로부터 따로 불러냄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최종목적지에 도달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도착해야 할 목적지는 하늘 가나안땅이다. 히브리서 12장 18-28절을 보면, “[18]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19]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22]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23]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24]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28]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말씀한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 도달할 곳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란 점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오름의 행진과 방향은 저 팔레스타인 땅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시온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희망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희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장차 올 좋은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하였는데, 6장 9절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이 있다’는 말씀을 시작으로 ‘좋은 소망’(7:19), ‘더 좋은 언약’(7:22), ‘더 좋은 약속’(8:6), ‘장차 올 좋은 일’(9:11), ‘장차 나타날 좋은 것’(10:1)을 연이어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역사를 수놓은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더 좋은 것을 사모’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였다’고 밝히고 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지 않으시고, 미

리 세워둔 ‘더 좋은 계획’에 따라(40절) 그들을 위한 ‘한 도시’ 곧 하나님의 나라를 마련해 주셨다(16절)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바라지 않았다’(35절)고까지 말한다.

‘장차올 좋은 기업’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신실한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6장은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고(12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확실하게 받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다”(17절)고 말씀한다. 또 11장은 허다한 성도들이 비록 갈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만 의지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을 향해서 나아갔다고 말씀한다.

참 안식의 땅

유대교사상 가운데 중요한 테마가 안식이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의 땅은 가나안이다. 그래서 히브리 떠돌이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땅에 진입한다. 그들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진입한 곳이 가나안땅이다. 가나안땅은 오랜 떠돌이와 노예의 삶에 종지부를 찍고 얻는 안식의 상징이다. 오늘날에도 세계 도처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땅이 아닌 곳은 그곳이 아무리 살기 좋은 곳일지라도 자유를 빼앗긴 유배지에 불과하다. 이방인들의 눈에 가나안땅은 불모지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의 눈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희망의 땅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요, 거룩한 땅이요, 영원한 안식처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해마다 유월절 밤이면, “우리가 지금은 비록 여기 타향에 살아도 내년에는 이스라엘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고 희망을 노래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민은 국가를 통해서 “동쪽 끝자락을 향해서 시온으로 눈을 향하고, 우리의 희망은 아직 사라진 것이 아니다. 이천년을 간직한 희망은 우리 자신의 땅에서 시온과 예루살렘 땅에서 자유민이 되는 것”이라고 희망을 노래한다.

이런 간절함 때문에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으로 거침없이 향한다. 이것을 ‘알리야’(alayah)라 부르는데 ‘오름’이란 뜻이며, 예루살렘과 시온으로 오르는 것을 말한다. 유대인들은 이 희망이 이뤄질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믿어왔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다. 가나안 땅에 오름, 이것은 분명 유대인들의 집단무의식이자 원형이며, 끈질긴 집념이면서 절대 신앙이다. 이것이 그들을 유대인이 되게 하는 조건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이 안식에 대한 희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신약성경의 시각이다. 유대인들의 안식개념은 지나치게 민족적이고, 토지 중심적이며, 현세적이다. 이런 안식개념을 우주적이고 내세적이며 영적인 개념으로 승화시킨 것이 신약성경이다. 이 땅에는 그 어떤 곳에도 진정한 안식이 없다. 이 땅에는 진정한 정의와 평화가 없다. 이 땅에서는 갈등과 전쟁과 질병과 자연재해가 결코 멈추지 않는다. 이 세상의 가나안땅에서는 결코 젖과 꿀이 흐를 수 없다. 이 세상의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전이 결코 될 수 없다. 이 땅의 요단강에서는 정의와 평화가 넘칠 수 없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영원한 안식, 참 안식을 이 땅 가나안에서 찾지 않고 하늘 가나안땅에서 찾으며, 이 땅 예루살렘에서 찾지 않고, 하늘 예루살렘에서 찾는다. 이 땅 요단강에서 찾지 않고, 하늘 생명수강에서 찾는다. 유한한 것, 일시적인 것, 불완전한 것, 지엽적인 것에서 안식을 찾지 않고, 무한한 것, 영원한 것, 완전한 것, 근본적인 것에서 안식을 찾는다.

인간에게 진정한 의미의 안식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막힌 담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길과 오직 믿음과 은혜로 법적인 속죄는 물론이고 양심까지 깨끗케 사함 받는 길을 열어주셨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풍성히 채워주신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주이시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확실하게 가져다주실 우리를 위한 우리의 편이신 구세주이시다.

8. 희망의 완성(계 20:1-4)

하늘 가나안땅(천국)

계시록이 말하고자 한 것은 희망의 완성이다. 계시록에는 두 가지 가나안땅이 나온다. 한 가지는 하늘 가나안땅이고, 다른 한 가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의 가나안땅이다. 여기서 하늘 가나안땅은 임시적이고 유한한 제1차 희망의 완성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의 가나안땅은 영원한 제2차 희망의 완성이다. 하늘 가나안땅은 낙원세계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의 가나안땅은 말 그대로 신천신지의 세계이다. 하늘 가나안땅이 임시적이고 유한한 이유는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때까지, 즉 주의 재림 때까지만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늘 가나안땅은 지상세계가 존재할 동안만 필요한 곳이고, 지상세계가 끝나는 주의 재림이후에는 하늘 가나안땅과 지상세계가 통합되게 된다. 그 때가 되면 지상과 낙원의 구분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만 존재하게 된다.

계시록은 주님 재림이전 세계인 하늘 가나안땅과 지상세계의 대환난과 대 구원에 대해서 1장부터 19장에서 설명하고 있고, 주님 재림이후 세계인 신천신지와 불 못에 대해서는 20장부터 22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계시록 이해의 핵심은 지상세계 특히 가나안땅과 예루살렘과 시온에 있는 것이 하늘 가나안땅에도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반대로 하늘 가나안땅에 있는 것이 지상 가나안땅에도 있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따라서 계시록에서는 천국에도 가나안땅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으며, 시온이 있고, 성전이 있으며, 보좌가 있고, 장막이 있으며, 제단이 있고, 등대가 있으며, 향로가 있다. 이런 것들은 다 히브리민족의 가나안땅에 있었던 것들이다. 땅에 있는 것이 천국에 있는 이유는 땅의 것들은 천국의 것들의 그림자요 모형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신약성경을 잘 알려면 구약성경을 잘 알아야하고, 하늘의 것을 잘 알려면 땅의 것을 잘 알아야한다는 사실을 교훈한다.

계시록에 '보좌'란 말이 35개의 절에 나온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지성소이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이동성막과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 서편에 언약궤(법궤 혹은 증거궤)가 있었다. 당연히 천국에도 성전이 있고, 지성소가 있고, 언약궤가 있다. 계시록 11장 19절을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고 하였다. 여기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성소의 보좌를 말한다. 언약궤가 곧 보좌이다. 그리고 언약궤의 뚜껑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시온소이다. 언약궤 속에는 하나님의 토라 즉 율법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엄을 상징한다.

광야시대의 이동성막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한 대로 만들어졌다. 하늘의 것을 모형과 그림자로 지상에 보여주신 것이다. 광야시절 이동성막의 언약궤 위로 구름기둥이 솟았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준 계시였다. 땅의 것을 보고 하늘의 것을 알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보이는 땅의 것(유한한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영원한 것)을 이해한 지혜와 영감은 예수님이후 그리스도의 교회에 주어졌다.

하늘 가나안땅의 중심

구약성경에 하늘 가나안땅(천국) 개념이 없다. 보이는 땅의 것에 희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이다. 39권의 구약성경은 페르시아제국시대에 기록이 끝났고, 적어도 동시대까지는 지상의 가나안땅이 유대인들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안식처였다. 보이는 땅의 것(유한한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영원한 것)을 이해할 지혜와 영감이 그때까지는 없었다. 그러나 초기 그리스도의 교회 신앙인들은 유대인들이 지상 가나안땅을 희망하는 것만큼 하늘 가나안땅을 희망하였다. 그곳이 더 좋은 세상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신약성경에는 하늘 가나안땅 개념으로 가득하다. 하늘 가나안땅(천국)에는 지상 가나안땅의 좋은 것들이 다 있지만, 지상 가나안땅의 나쁜 것들은 하나도 없다. 예를 들면, 사랑, 기쁨, 평안, 안식, 감사는

물론이고, 각종 좋은 보화와 먹을거리가 풍부한 반면, 미움, 슬픔, 빈
 뇌, 노동, 불평은 물론이고, 배고픔과 각종 질병과 자연재해는 하늘
 가나안땅에서 찾아 볼 수 없다.

하늘 가나안땅의 중심은 성전이다. 유대인들은 성전중심의 신정국
 가를 희망하고 있다. 하나님은 히브리민족이 광야에서 장막을 칠 때
 는 이동성막을 중심에 두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진을 치도록 지시하
 셧다(민 2:2). 이 지시대로 하늘 가나안땅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지성
 소에 하나님의 보좌(언약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 네 생물
 (케루빌 천사)이 있으며, 보좌 앞에 하나님의 일곱 영과 보좌를 둘러
 선 24장로들이 있고, 네 생물과 24장로들 사이에 어린양 예수님이
 있으며,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수를 셀 수없는 천사들과
 또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
 든 피조물”(계 5:13)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양 예수님을 향하
 고 있다.

하늘 가나안땅은 예배중심이다. 계시록 4장에서는 네 생물과 24장
 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찬양과 경배를 돌려보내고 있고, 5장
 에서는 네 생물과 24장로뿐만 아니라, 그들을 뺄뺄하게 둘러선 수를
 셀 수 없는 천사들까지 합세하여 ‘어린양’에게 찬양과 경배를 돌리고
 있다. 그리고 5장 13-14절은 종합적으로 온 우주만물이 ‘보좌에 앉으
 신 이’와 ‘어린양’ 모두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돌리고 있
 다.

찬양의 내용은 이렇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이시고(계 4:8), 만물을 지으셨으
 므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계 4:11). 또 그리
 스도께서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에서 믿는 자들
 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바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아
 땅에서 왕 노릇하게 하셨으므로(계 5:9-10),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
 으시기에 합당하시다(계 5:12). 이것이 우리가 하늘 가나안땅에서 부
 를 찬양의 내용이다.

지금 우리가 바치는 예배와 찬양은 하늘 가나안땅에서 드리는 완
 전한 예배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또 현재 우리의 삶은 하늘 가나안

땅의 삶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성전과 보좌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보좌는 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을 수도 있고, 가정과 교회에 있을 수도 있다.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은 경배와 찬양이 되어야 한다.

신천신지(영원한 통합세계)

계시록이 강조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희망의 성취이다. 왜 희망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가와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희망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희망을 심어주신 분이 오류나 실수가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신천신지라는 영원한 세계를 마련해 놓고 계신다.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를 계시록 7장, 21장, 22장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사는 곳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하셨지만, 인간들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지존하신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보일 수가 없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에 살 모든 인간은 거룩한 몸으로 변형된 완전한 모습을 갖춘 깨끗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성도들의 집과 함께 있게 되며, 하나님은 성도들과 함께 살게 된다(계 21:3-4).

둘째,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친히 빛을 비추는 곳이다. 따라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밤이 없고, 해와 전기가 필요 없는 곳이다(계 22:5).

셋째,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계 22:1), 생명나무의 열매가 열리는 곳이다(계 22:2). 새 하늘과 새 땅은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으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 곳이다(계 7:16). 정리해고나 부도 따위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곳이다.

넷째, 새 하늘과 새 땅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이다(사

65:18). 새 하늘과 새 땅은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는 곳이다(계 21:4).

다섯째, 새 하늘과 새 땅은 정의롭고 평화로운 곳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은 해함이 없고 상함이 없고(계 22:3; 사 65:25), 질병이 없고, 죽음이 없는 곳이다(계 21:4). 이리와 어린양이 함께 놀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는 곳이다(사 65:25).

여섯째, 새 하늘과 새 땅은 깨끗하고 건전한 생각만 하는 곳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전의 실수나 잘못이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 곳이다(사 65:17; 계 21:4).

일곱째, 새 하늘과 새 땅은 모든 성도들이 세세 무궁토록 왕 노릇 하는 곳이다(계 22:5). 새 하늘과 새 땅은 남에게 지배를 받거나 고용 당하지 않는 곳이다. 이밖에도 지극히 아름답고, 지극히 튼튼하고,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고, 보석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임한 새 예루살렘성에서 보호받으며 안식하게 된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좋은 곳이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은 아무나 막 들어가는 곳이 아니다. 돈 많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머리 좋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잘났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이곳에 들어가 땅을 차지할 상속자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이며, 최후까지 믿음을 지켜 어린양의 생명책에 이름을 올린 자이다. 또 어린양의 피로 자기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이다. 신약성경은 마태복음에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궁극적인 희망의 시작과 완성을 말하고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이 거대한 역사의 주인공들로서 희망을 성취할 하늘 가나안땅의 상속자들인 것이다.

나가는 말

이상의 글들을 통해서 신약성경이 유대교 '희망'(Ha-Tikvah)에 관해서 유대인들의 기존이해와 어떻게 다른 이해를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희망했던 지상 가나안땅보다 더 안전하고 완벽하며 영원한 하늘 가나안땅으로 교회(광야)시대의 성도들

을 인도하여 들이실 참 그리스도 즉 그림자 모세의 실체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다. 네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바울서신(로마서, 고린도후서, 에베소서)과 히브리서와 계시록의 각기 다른 해석을 통해서 일관된 주장,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가 아닌 하늘 가나안땅임을 알 수 있었다. 이로써 우리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명쾌하게 유대교와의 차이를 특징짓고 있는가를 볼 수 있었다.

참고서적 Bibliography

1. 인터넷 자료

유대교 관련 자료들

- <http://www.aish.com/shabbat/>.
- <http://www.bibleland.or.kr/judaism/Hal.htm>.
- <http://www.bibleland.or.kr/judaism/Mishnah.htm>.
- <http://www.iscc.co.kr/seminar.asp>.
- <http://www.jewfaq.org/toc.htm>.
- <http://www.menorah.org/mjews.html>.
- <http://www.ok.org/Content.asp?ID=126>.
- <http://www.torahtots.com/torah/39melachot.htm#1>.
- Judaism 101, <http://www.jewfaq.org/toc.htm>.

유대인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관한 자료들

- <http://www.jewfaq.org/birth.htm>
- <http://www.jewfaq.org/barmitz.htm>

유대학술세미나 자료들(이스라엘 문화원)

- <http://www.iscc.co.kr/seminar.asp>

정호진. “이스라엘 농촌 사회.” 이스라엘문화원, 유대학술세미나.

- <http://www.iscc.co.kr/seminar.asp>.

조동호. “유대교의 안식일 개념에 대한 고찰.” <http://kccs.pe.kr> →성경연구
→신약성경관련.

조동호 역. “쉐모네 에스레이.” <http://kccs.pe.kr/jewishcal7.htm>.

조동호 역. “유대교의 예식서.” <http://kccs.pe.kr> →성경연구→신약성경관련.

조동호 역. “유대인들에게 대 속죄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 <http://kccs.pe.kr/jewishcal5.htm>.

조동호 역. “유대인들에게 설날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 <http://kccs.pe.kr/jewishcal4.htm>.

조동호 역. “유대교인들의 식사전 손씻기법.” <http://kccs.pe.kr> →성경연구
→신약성경관련.

조동호 역. “유대인들의 안식일 지키기.” <http://kccs.pe.kr/jewishcal6.htm>.

· 242 ·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

- 조동호 역. "유대인의 율력에 대한 설명." <http://kccs.pe.kr/jewishcal2.htm>.
- 조동호 역. "유대주의에서의 메시아사상." <http://kccs.pe.kr> →성경연구→신약성경관련.
- 조동호 역. "이스라엘의 땅." <http://kccs.pe.kr> →성경연구→신약성경관련.
- 조동호 역. "카발라와 유대신비주의." <http://kccs.pe.kr> →성경연구→신약성경관련.
- 조동호 역. "카샤룻: 유대인의 음식법." <http://kccs.pe.kr> →성경연구→신약성경관련.
- 조동호 역. "할라카: 유대인의 법." <http://kccs.pe.kr> →성경연구→신약성경관련.
- 조동호 정리. "유대인들의 기념일(민력)." <http://kccs.pe.kr/jewishcal.htm>.
- 조동호 정리. "이스라엘의 율력." <http://kccs.pe.kr/jewishcal3.htm>.
- 조동호 정리. "이스라엘의 추수축제(초막절)."
<http://kccs.pe.kr/jewishcal8.htm>.
- 조동호 편역. "유대교 안식일법의 39가지 범주들."
<http://kccs.pe.kr/jewishcal9.htm>.
- 최명덕, "유대인의 식탁법(Kosher)."
<http://www.iscc.co.kr/seminar/choi.asp?select=8>.
- 최명덕. "유월절로 본 성만찬." 이스라엘문화원: 유대학술세미나자료,
<http://www.iscc.co.kr/seminar.asp>.
- 최명덕. "이스라엘의 가정교육." 이스라엘문화원: 유대학술세미나자료,
<http://www.iscc.co.kr/seminar.asp>.
- 현용수. "유대인의 IQ + EQ." 이스라엘문화원: 유대학술세미나자료,
<http://www.iscc.co.kr/seminar.asp>.
- <http://www.iscc.co.kr/seminar/2005sm.asp?select=6>.
- Crasnow, Ellman. "Newsletter November 1999-God-fearers." 인터넷웹페이지.
- Dial, Billy Jack. "General Introduction to B'nai Noah." 인터넷웹페이지.
- Moseley, Ron. "The Spirit of the Law." 인터넷웹페이지.
- Safrai, Shmuel. "The Centurion and the Synagogue." 인터넷웹페이지.
- Seufferlein, Terry. "Missionary and the First Century Pharisees." 인터넷웹페이지.

2. 단행본 자료

- 김득중. 『누가의 신학』 컨콜디아사, 1992.
- 김득중. 『사도행전연구』 도서출판 나단, 1991.
- 그로스, 데이빗 C. 『유대인을 알고 싶다』 장병길 옮김. 도서출판 살렘, 1997.
- 데이빗 C. 그로스. 『1001 Q&A: 유대인을 알고 싶다』 장병길 옮김. 도서출판 살렘, 1997.
- 디벨류스, M. 『바울: 인물, 사상, 업적』 전경연 편역. 복음주의신학총서 17권, 1989.
- 브루스, F. F. 『사도행전(상,하)』 이용복, 장동민 옮김. 아가페출판사, 1986.
- 시오노 나나미. 『로마인 이야기: 악명 높은 황제들(7)』 김석희 옮김. 한길사, 1998.
- 안문기. 『노 양과의 대화로 풀어 보는 즐거운 전례: 계절과 축제』 서울: 한국 천주교 중앙 협의회, 1992.
- 파이퍼, R. H. 『신약시대 역사와 외경개론』 류형기 역. 한국기독교문화원, 1977. Pfeiffer, R. H. *History of New Testament Times with an Introduction to the Apocrypha*.
- 최한구. 『유대인은 EQ로 시작하여 IQ로 승리한다』 도서출판 한글, 1998.
- 행겔, M. 『고대의 역사기술과 사도행전』 전경연 역. 복음주의 신학총서 제 32권, 1990.
- 호이시, 칼. 『그리스도 교회사 편람』 김창길 편집. 도서출판 임마누엘, 1988. Heussi, Karl. *Kompendium der Kirchengeschichte*
- 호크, R. F. 『바울 선교의 사회적 상황』 전경연 옮김. 대한기독교출판사, 1991.
- Blaiklock, Edward M., Harrison, R. K., and Douglass, David R. Eds. *The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Biblical Archaeology*. Grand Rapids, Michigan: Regency Reference Library, 1983. S.v. "Aphrodisias."
- Bruce, F. F. *New Testament History*. Garden City, NY: Doubleday & Company, Inc., 1980.
- _____. *Paul & His Converts: How Paul Nurtures the Churches He Planted*. Downers Grove, Illinois: InterVarsity Press, 1985.
- _____. *The New Testament Documents: Are They Reliable?* Grand Rapids, Mich.: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1983.
- Dale, L. Edsil. *Acts Comments*. Cincinnati: published by the author, 1952.
- Edersheim, Alfred. "The Baptism of Proselytes." from *Appendix XII From Life and Times of Jesus the Messiah*, 1886.
- Encyclopedia of Jewish Religion
- Eusebius. *The History of the Church from Christ to Constantine* Penguin Books, 1984.
- Ferdinand. *Mission in the New Testament*. Naperville, Illinois: Alec R.

- Allenson, Hahn, 1985.
- Foster, Lewis A. "Light From Aphrodisias About God-Fearers." *Christian Standard* Cincinnati: Standard Publishing Co., May 5, 1991. 인터넷 사이트. 검색단어, "Aphrodisias."
- Guthrie, Donald. *New Testament Introduction*. InterVarsity Press, 1970.
- Hahn, Ferdinand. *Mission in the New Testament*. Naperville, Illinois: Alec R. Allenson, 1985.
- Jeremias, Joachim. *Jesus' Promise to the Nations*. Naperville, Illinois: Alec R. Allenson, 1958
- Jervell, J. *Luke and the People of God*.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72.
- _____. *The Theology of the Acts of the Apostl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 _____. *The Unknown Paul: Essays on Luke-Acts and Early Christian History*.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4.
- Josephus. *Antiquities*.
- Kuhn, Karl Georg. "Ilroshlutoj." in the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 6, Ed. Gerhard Friedrich.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68.
- Lewis, Jack P.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Vol. 2. *The Living Word Commentary Series*. Austin, Texas: Sweet Publishing Company, 1979.
- Lieu, J. M. "Do God-fearers Make Good Christians?" in *Crossing the Boundaries, Festschrift for M. D. Goulder*. Ed. S. E. Porter et al. Leiden: E. J. Brill, 1994.
- Meyer, H. A. W. *A Critical and Exegetical Handbook on the Gospel of Matthew*. New York: Funk & Wagnalls, 1890.
- Ramsay, W. M. *St. Paul the Traveller and Roman Citizen*. 14th edn., London, 1920.
- Reese, Gareth L. *New Testament History: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 of Acts*. Joplin, Missouri: College Press, 1983.
- Reynolds, Joyce and Tannenbaum, Robert. *Jews and God-fearers at Aphrodisias*. The Cambridge Philological Society, 1987. Supplementary Volume no. 12.
- Rosenbloom, Joseph R. *Conversion to Judaism* Cincinnati: Hebrew Union College Press, 1978.
- Williams, M. "The Jews and God-fearers Inscription from Aphrodisias: Case of Patriarchal Interference in Early 3rd Century Caria?" *Historia* 41, 1992.

부록

Appendixes

부록1. 이스라엘의 월력(Jewish Calendar)

이스라엘의 월력			
월	성력	민력	축일
1	니산 <Nisan>	티쉬레이 <Tishrei>	<p>1-2일 설날(Rosh Hoshanah) - 나팔질. 신년. 달콤한 맛의 사과들과 꿀 그리고 쇼퍼(양의 빨로 만든 피리)를 볼며 유대인의 신년을 축하한다. 히브리력은 창조 6일째 날에 만들어진 아담의 출생 때로부터 계산한다. 아브라함은 유대력으로 1948년생으로 알려져 있고, 출애굽은 2448년, 현대 이스라엘의 건국은 5708(주후 1948)년에 이루어졌다.</p> <p>10일 대속죄일(Yom Kippur) - 이날 성인 유대인들은 자기 죄를 회개하며 금식해야한다. 해질 때 축제가 시작된다.</p> <p>15-21일 초막절(Sukkot) - 추수축제. 숙곳(장막)을 짓고, 과일로 장식하여 감사를 표하고, 숙곳에서 모든 음식을 먹음으로써 이날을 지킨다.</p> <p>21일 사죄의 날(Hoshana Rabbah) - 구원을 위한 통회의 날</p> <p>22-23일 토라 축제(Shemini Atzeret and Simhat Torah) - 23일에 오경읽기를 다 마친 후에 오경 두루마리를 들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회당을 도는 행사.</p>
2	이아르 <Iyar>	헤쉬반 <Heshvan>	
3	시반 <Sivan>	키스레브 <Kislev>	<p>25일부터 8일간 수전절(Hanukkah) - 불꽃 축제. 성전 봉헌절. 8일밤 동안 계속되며, 주전 164년 마카비 전쟁에서 이기고 성전을 봉헌했던 날을 기념한다.</p>
4	탐무즈 <Tammuz>	테벳 <Tevet>	
5	아브	쉐밋	15일 식목일(Tu B'Shevat) - 창조의 선물,

	<Av>	<Shevat>	특히, 나무에서 열리는 음식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날 식목 행사를 한다.
6	엘울 <Elul>	아달 <Adar>	3일 스톱바벨 성전 완공 515 B.C. 14일 부림절 - 모르드개와 유대인들이 하만의 음모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고, 관련 성구들을 읽는다.
7	티쉬레이 <Tishrei>	제2아달 (윤달)	Adar Sheni라 부르며, 윤달이 있는 해(年)에는 부림절 은 이달 14일에 지킨다.
8	헤쉬반 <Heshvan>	니산 <Nisan>	15-22일 유월절(Pesah) -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의 속박에서 탈출하던 당시를 상기하면서 유월절 식사와 무교절을 지킨다. 27일 나치 희생자들을 위한 추도일(Yom HaShoah) - 나치로부터 살해된 사람들을 추도한다.
9	키스레브 <Kislev>	이아르 <Iyar>	5일 이스라엘 건국일 - 1948년 5월 14일 국제연맹의 도움으로 나라를 되찾아 건국한 날. 18일 축제의 날(Lag B'Omer) - 라그브오멜은 오멜의 33번째 날을 뜻한다. 이날 랍비 아키바의 학생들이 죽지 않았던 기념하여, 머리도 깎고, 음악도 들고, 결혼도 하며 즐겁게 보낸다.
10	테벳 <Tevet>	시반 <Sivan>	6-7일 오순절(Shavuot) - 시내산올법기념일. 이집트 탈출 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신 것을 기념한다. 유월절 큰 안식일 다음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지킨다. 17일 샤베타이 제비(Shabbetai Zevi)가 자신을 메시아로 선언(1665년 5월 31일)
11	쉐밋 <Shevat>	탐무즈 <Tammuz>	
12	아달 <Adar>	아브 <Av>	9일 통곡일(Tisha B'Av) - 제1, 제2 성전 멸망과 주권을 상실하여 포로로 끌려간 일을 상기하는 날. 15일 포도원 축제(Tu B'Av)
13	제2아달 (윤달)	엘울 <Elul>	

14	안식일	안식일	매주 금요일(태양력)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지키는 성일. *안식일을 제외한 위의 모든 축일은 음력으로 지킴.
----	-----	-----	---

부록2. 유대교의 예식서(Jewish Liturgy)¹⁾

여기에 실린 내용의 대부분은 유대인의 기도를 주제로 한 탁월한 정통주의 자료인 랍비 하임 할레비 도닌(Rabbi Hayim Halevy Donin)의 『유대인으로서 기도하기: 기도서와 회당예배로의 안내』(To Pray as a Jew: A Guide to the Prayer Book and the Synagogue Service)란 책에 의존하였음을 밝혀둔다.

잘 준수하는 유대인은 공식예배들에서 하루 세 번, 곧 매일 저녁(Ma'ariv), 아침(Shacharit), 오후(Minchah)에 기도한다. 매일의 기도들은 시두르(siddur)라 불리는 책에 수록되어있다. 시두르(siddur)는 “순서”(order)를 뜻하는 히브리어 어근에서 유래한다. 왜냐하면, 시두르는 기도들의 순서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것은 “세데르”(Seder)란 말과 어근이 같다. 세데르는 유월절 가정예배를 말한다.

A. 핵심 기도들

의심의 여지없이 유대주의에서 가장 오래고 고정된 매일의 기도는 쉘마(Shema)이다. 이 쉘마는 신명기 6장 4-9절, 11장 13-21절 그리고 민수기 15장 37-41절로 이뤄진다. 첫 단락이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것들을 강론할 것을 명령한다는 사실에 주목하라. 고대로부터 이 명령은 하루 두 번 아침과 저녁에 쉘마를 낭송함으로써 이뤄졌다.

유대인의 기도에서 두 번째의 주된 발전은 서기전 6세기에 바벨론 유배 때에 일어났다. 당시에 백성은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희생제물 대신에 기도를 사용했다. 호세아는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호 14:2)라고 하였다. 백성은 매일 세 번씩 드리던 희생 제사를 대신해서 하루 세 번씩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다. 안식일에는 추가로 기도회가 있었고, 특정한 축일들에도 있었는데, 그 축일들에 있었던 추가 희생 제사들을 대신하는 추가 기도회들이 있었다. 몇몇 사람들은 이런 관행이 유배이전

1) 번역: 조동호. 출처: <http://www.jewfaq.org/defs/prayer.htm>

에도 경건한 자들 사이에서 이미 실천되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유배 후에도 이 매일의 기도회들은 지속되었다. 서기전 5세기에 이스라엘 총회(the Men of the Great Assembly)는 기본 기도문을 작성하였는데, 하고 싶어 할 기도를 모두 포함한 것이었다. 이것이 쉘모네 에스레이(the Shemoneh Esrei)이다. 쉘모네 에스레이는 “18”을 의미하며, 그 기도를 원래 구성했던 18개의 축복들을 말한다. 쉘모네 에스레이는 아미다(Amidah, ‘서있는’이란 뜻. 기도문을 낭송할 때 서있기 때문이다.) 혹은 테필라(Tefilah, 기도서 속에 있는 기도란 뜻. 그것은 모든 유대인 기도의 본질이기 때문이다.)로 불리기도 한다. 이 기도는 모든 유대인 예배의 모퉁이 돌(cornerstone)이다.

쉘모네 에스레이 축복들은 세 단락으로 나뉘질 수 있다. 3개의 축복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13개는 요청이며(용서, 구속, 건강, 번영, 때에 따른 비, 유배생활로부터의 모임, 등), 3개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고 떠나는 것이다. 잠깐! 모두 19개나 되지 않는가! 쉘모네 에스레이는 18을 의미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13개의 요청기도들 가운데 하나인 ‘이단을 공격함’은 증가하는 이단의 위협, 특히 기독교에 대응해서 서기 2세경에 추가되었다. 그러나 그 당시 그 기도는 쉘모네 에스레이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고, 비록 지금은 19개의 축복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이름은 계속해서 사용되었다.

특정 기도회들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토라(성경의 첫 다섯 권)의 성구들을 읽는 것이다. 토라는 54회분으로 나뉘어져왔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 한 회분을 읽고 한 주간동안 연구한다면, 매년 일년 내에 토라 전체를 읽고 연구할 수 있다. 윤달이 든 윤년들은 54주간이고, 평년은 50주간이다. 따라서 평년에는 몇 주간 동안만 짧은 회분들을 2회분씩 묶어서 읽고 공부하면 된다. 이스라엘 역사 여러 시기들에 억압자들이 나타나 토라를 공개석상에서 읽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하프타라(Haftarah)로 언급된 예언서들에서 비슷하게 상응하는 부분들을 읽었다. 오늘날에는 토라 부분과 하프타라 부분을 모두 읽는다. 이것들은 월요일들과 목요일들, 안식일과 몇몇 축일들에서 읽힌다. 토라와 하프타라 독서는 각별한 의식을 갖춰 수행되어진

다. 토라를 가져다 연단(bimah)에 올려놓기 전에 토라를 들고 실내 주변을 퍼레이드 한다. 독서로 축복을 낭송할 기회를 갖는 것은 명예로 간주된다. 이 명예는 알리야(aliyah)라 불린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토라 독서' 를 보시오.)²⁾ 그것은 유대인 기도회의 핵심이다. 그렇지만 언급되어야 할 다른 것들이 몇 가지 더 있다. 아침 예배가 시작될 때 낭송하는 긴 일련의 아침 축복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집에서 낭송한다. 그것들은 아침기상과 함께 많은 관심사들과 매일의 처리해야 할 일들을 다루고 있다. 페수케이 드지므라(Pesukei d'Zimra, 노래 소절들)라 불리는 섹션도 있다. 그것은 많은 시편과 찬송들을 포함한다. 필자는 그것을 마음을 덥히는, 아침에 기도할 기분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몇 개의 특별히 중요한 기도들이 또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카디쉬(Kaddish)이다. 필자가 알기로는 카디쉬가 아랍어로 된 유일한 기도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이다. 다음은 영어로 된 그 일부분을 우리 글로 번역한 것이다.

그분의 위대한 이름이 점차 높임을 받게 하며, 그분이 뜻하셨던 대로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거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생애 가운데에, 당신의 날들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전 가족의 생애 가운데에 신속하고 빠르게 그분이 그분의 왕권에 통치기간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위대한 이름이 세세무궁토록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복 받으시옵소서. 찬양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칭송받으시옵소서. 전능하신....

May His great Name grow exalted and sanctified in the world that He created as He willed. May He give reign to His kingship in your lifetimes and in your days, and in the lifetimes of the entire family of Israel, swiftly and soon. May His great Name be blessed forever and ever. Blessed, praised, glorified, exalted, extolled, mighty...

다른 시기들을 위한 예배에서 그것에 대한 몇 가지 변형된 형태들이 있다. 한 가지 변형은 슬픔을 당한 자들이 낭송하지 못하도록 하

2) <http://www.jewfaq.org/readings.htm>

고, 오로지 회중만이 요구된 응송(應頌)을 하게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카디쉬를 슬픔을 당한 자의 기도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장자가 부모님 사후에 일정 기간 동안 그것을 낭송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범위가 넓다. 누군가 한번 필자에게 말하기를, 그것이 예배의 각 부분을 분리시키며, 시두르(siddur, 매일의 기도서)를 힐끗 보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각 섹션 사이에서 낭송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나 필자는 그것의 목적이 그런 것인가를 알지 못한다.

또 다른 하나의 기도는 알레이누(Aleinu)이다. 알레이누는 모든 예배의 끝부분에서 낭송된다. 그것 또한 하나님을 찬양한다. 다음은 영어로 된 그 일부분을 우리 글로 번역한 것이다.

모든 것의 주님을 찬양하는 것과 원시창조의 조물주에게 위대함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땅들의 나라들처럼 우리들을 조성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머지않아 당신의 권능의 광채를 보게 될 것이란 우리의 소망을 주 우리 하나님 당신께 둡니다... 그날에 주님은 하나일 것이며, 그분의 이름은 하나일 것입니다.

It is our duty to praise the Master of all, to ascribe greatness to the Molder of primeval creation, for He has not made us like the nations of the lands... Therefore, we put our hope in you, L-rd our G-d, that we may soon see Your mighty splendor... On that day, the L-rd will be One and His Name will be One.

특정한 축일들에 우리는 또한 할렐(Hallel)을 낭송한다. 할렐은 시편 113-118편으로 구성된다.

많은 축일들은 예식서에 특별한 추가내용들을 담고 있다. 축일과 관련된 추가내용을 보려면 욘키푸르 예식서(Yom Kippur Liturgy)를 보시오.³⁾

B. 예배순서

3) <<http://www.jewfaq.org/holiday4.htm#YKL>

다음은 매일의 예배순서를 개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1. 저녁예배(Ma'ariv)

- a. 쉘마(Shema)와 축복 및 관련 성구들
- b. 쉘모네 에스레이(Shemoneh Esrei)
- c. 알레이누(Aleinu)

2. 아침예배(Shacharit)

- a. 아침축복들
- b. 페수케이 드지므라(Pesukei d'Zimra)
- c. 쉘마(Shema)와 축복 및 관련 성구들
- d. 쉘모네 에스레이(Shemoneh Esrei)
- e. 할렐(적절하다면)
- f. 토라독서(월요일들과 목요일들, 안식일과 축일들)
- g. 알레이누(Aleinu), 아쉬레이(Ashrei, 시편 145편)와 다른 폐회기도들, 시편들과 찬양들<안식일과 축일들에는 낭송하지 않는다. 대신에 무사프(Musaf) 끝에 낭송한다.>

3. 그 밖의 예배(Musaf). 안식일과 축일들에만 한다. 아침예배(Shacharit) 직후에 낭송한다.

- a. 쉘모네 에스레이(Shemoneh Esrei)
- b. 알레이누(Aleinu)와 다른 폐회기도들, 시편들과 찬양들

4. 오후예배(Minchah)

- a. 아쉬레이(Ashrei, 시편 145편)
- b. 쉘모네 에스레이(Shemoneh Esrei)
- c. 알레이누(Aleinu)

이것은 아쉬켄나즈(Ashkenazic) 예배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나 세파르드(Sephardic) 예배도 매우 비슷한 구조를 갖는다. 그들은 다른 음악을 사용하며, 시편들과 찬양들과 기도들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좀 더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면, 아쉬켄나즈(Ashkenazic)와 세파르드(Sephardic) 유대인들에 대해서 보시오.⁴⁾

C. 운동에서부터 운동까지의 변형들

상기한 내용은 정통주의 기도서에 근거한 것이다. 개혁주의 예배는, 비록 훨씬 더 짧은 것은 하지만, 동일한 기본구조를 따르고 있고, 동일한 기도들의 더 짧은 개역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는 몇 개의 중요한 변화들도 있다. (예를 들면, 쉘모네 에스레이의 한 축복에서는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대신에,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보수주의 개역은 정통주의 개역과 매우 유사하고, (개혁주의 예문과 비슷한) 기도들의 내용에 있어서 단지 사소한 변형들만을 포함한다. 정통주의와 보수주의 그리고 개혁주의와의 신학적 차이점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면 유대주의의 운동들을 보시오.⁵⁾

각기 다른 운동들에서 하고 있는 예배방식에는 몇몇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다.

1. 정통주의에서는 남녀가 따로 앉는다. 개혁주의와 보수주의에서는 둘 다 함께 앉는다. 회당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보시오.⁶⁾
2. 정통주의와 보통 보수주의에서는 모든 것이 히브리어로 이뤄진다. 개혁주의에서는, 비록 히브리어 사용을 늘리고 있기는 하지만,

4) <http://www.jewfaq.org/ashkseph.htm> 아쉬켄나즈 유대인들은 프랑스, 독일, 그리고 동유럽에 사는 유대인들과 그들의 후손들을 말한다. 세파르드 유대인들은 스페인, 포르투갈, 북아프리카와 중동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을 말한다. 세파르드 유대인들은 종종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중심으로 하는 세파르드들(Sephardim)과 북아프리카와 중동을 중심으로 하는 미즈라크들(Mizrachim)으로 나뉜다. 이들 두 그룹들은 상당부분 비슷하다. 1400년대까지, 이베리안 반도, 북아프리카, 중동은 모두 무슬림들에게 철저히 지배되었고, 무슬림들은 유대인들이 그 지역 전역에 걸쳐서 자유롭게 왕래하도록 일반적으로 허락하였다. 1492년 스페인에서 유대인들이 추방당할 때,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북아프리카와 중동에 있는 미즈라크(Mizrachi) 공동체들에 흡수되었다.

5) <http://www.jewfaq.org/movement.htm>

6) <http://www.jewfaq.org/women.htm#Synagogue>

대부분 영어로 이뤄진다.

3. 정통주의에서 예배인도자는 회중에게 등을 보인 채 회중과 동일한 방향을 바라보며 기도한다. 보수주의와 개혁주의에서 예배인도자는 회중과 마주하여 바라본다.

4. 보수주의와 개혁주의는 오히려 조직이 경직되어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시간에 나타나고, 동일한 시간에 떠난다. 그리고 동일한 것을 동일한 시간에 행한다. 정통주의는 훨씬 더 자유로운 형태다. 사람들은 그들이 나타날 때 나타나며, 그들 자신의 페이스로 다른 모든 사람을 따라잡으며, 종종 다른 모든 사람들과 다르게 일을 처리한다. 만약 당신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당신이 모른다면, 그것은 무서운 일이다. 그러나 일단 당신이 그 예배에 관해서 실마리를 잡는다면, 그것이 일치 속에 머물러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고 영감에 차 있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D. 시두르(sidur) 체험하기

만약 당신이 유대인의 종교의식에 결코 참석해 본 일이 없다면, 예배를 따라 하기가 꽤 어려울 것이다. 설사 경험이 있다고 해도 때때로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 실제로 필자의 친구는 말하기를, 그녀는 “우리가시두르몇페이지에있는지를나는모른다 블루스”라 불리는 노래를 한번 들은 적이 있다고 했다. 다음은 당신이 회중을 따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줄 몇 가지 힌트들이다.

가장 큰 비결은 시두르 그 자체의 구조를 알고 있는 것이다. 정통주의와 보수주의 회당들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시두르들은 네 가지 모든 기도회들(Shacharit, Musaf, Minchah and Ma'ariv)을 위한 모든 기도들을 한 권의 책에 포함한다. 당신이 어떤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가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한다. 보통 예배들은 낮에 두 번, 아침(Shacharit and Musaf)과 초저녁(Minchah and Ma'ariv)에 드려진다. 아침예배들은 보통 시두르의 앞부분에 있고, 오후와 저녁 예배들은 보통 중간부에 있다.

대부분의 시두르들은 주중, 안식일, 대부분의 축제들을 날권에 포함한다.7) 지면을 줄이기 위해서 섹션들을 그들이 낭송하는 순서대로

정확하게 펼쳐 놓지 않는다. 따라서 당신은 특정한 섹션들을 위해서 책을 약간 듬성듬성 건너뛰는 것이 필요할는지 모른다. 보통은 기도회 인도자가 당신이 언제 건너 뛰어야 할 때인가를 알려줄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시두르에 있는 설명들을 주목하라. 그것이 (1)안식일, (2)축일(곧 휴일), (3)콜하모에드(Chol Ha-Moed, 축제 중반의 날들), (4)로쉬 코데쉬(Rosh Chodesh, 유대인의 월 첫날), 혹은 (5)주중인가에 의존하는 다른 섹션들로 건너뛰라고 당신에게 말할 것이다.

주된 건너뛰기의 대부분은 상기한 예배순서에 기술된 섹션들 사이의 틈에서 일어날 것이다. 예를 들면, 필자의 시두르에서 로쉬 코데쉬(월 첫날)의 안식일 아침 예배는 일반적인 아침축복들로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안식일/축제 폐수케이 드지므라, 쉘마, 쉘모네 에스레이를 위해 앞쪽으로 200페이지를 건너뛸 것이다. 그리고 (로쉬 코데쉬에 낭송되는) 할렐을 찾기 위해서 앞쪽으로 200페이지를 건너뛸 것이다. 그리고 토라 독서를 위해서 내가 왔던 곳으로 되돌아 갈 것이다. 토라 독서가 끝나면 무사프, 쉘모네 에스레이와 폐회축복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처음 방문자들을 혼란케 하는 또 다른 건너뛰기는 (아미다라 불리는) 쉘모네 에스레이이다. 쉘모네 에스레이의 시작 때에 회중은 일어선다. 그들은 말없이 케두샤(Kedushah) 축복과 제사장(Priestly) 축복을 건너뛰면서 기도문 전부를 읽어나간다. 케두샤 축복과 제사장 축복은 필자의 시두르에서 10-20페이지 분량이나 되는 매우 긴 기도문이다. 진행시간은 5분 정도 걸릴 것이다. 끝은 항상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는다. 오세 샬롬(Oseh Shalom, 그분의 높은 곳에서 평강을 만드시는 그가 우리들과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평강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합시다.)에 주목하십시오. 쉘모네 에스레이는 그것에 이어지는 단락으로 끝이 난다. 그러면 예배의 인도자가 쉘모네 에스레이 전체를 큰 소리로 다시 읽기 시작한다. 그

7) 예외: 로쉬 하샤나와 욘 키푸르는 마크조르(machzor)라 불리는 그것들 자체의 별도의 시두르를 갖는 확대된 기도서를 갖는다.

려면 당신은 그것을 따라 읽기 위해서 쉘모네 에스레이가 시작되는 페이지로 책장을 넘겨야 한다. (주의: 쉘모네 에스레이는 저녁예배 때는 반복되지 않는다.)

E. 말하기와 행하기

처음 방문자들을 혼동케 하는 또 다른 것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이다. 언제 “아멘”하고 말하는가? 언제 일어서고 또 인사하는가? 다음은 주목해야 할 몇 가지 흔히 있는 것들이다. 이런 것들이 많기는 하지만, 처음 방문자가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1. “아멘” 하기

일반적인 법칙으로 다른 누군가가 축복할 때마다 “아멘”하고 말한다. 그것은 일종의 “이하동문”이라고 말하는 것의 히브리어 동의어이다. 당신이 “아멘”하고 말할 때, 그것은 마치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축복을 말하는 것과 같다. 누군가가 “바루크 아타”(Barukh atah)...“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아멘”하고 말할 준비를 하시오. “아멘”은 최근 문장의 끝이나 최근 단락의 끝에서 할 수 있다.

다른 누군가가 축복할 때만 당신은 “아멘”이라고 말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결국 당신 자신이 말한 무엇인가에 이어서 “이하동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보짓일 것이다.

“아멘”하고 말하는 곳이 몇 곳 더 있다. 만약 인도자가 “비므루 아멘”(v'imru amen, “아멘” 합시다.)하고 말하면, 회중과 더불어 “아멘”하면 된다. 따라서 “비므루”란 말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카디쉬 기도 때 몇 차례 이어진다. 카디쉬 기도 때 또 다른 “아멘”을 하게 되는데, “쉬메이 랍바”(sh'mei rabbah) 직전과 직후에 한다.

2. 기도에 대한 다른 응답

수많은 경우에 한 사람이 “바루크 아타 아도셈”(Barukh atah Adoshem)이라고 말하면, 그의 말을 들은 다른 사람들은 “바루크 후우바루크 쉘모”(Barukh Hu u'Varukh Shemo)라고 응답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매우 신속하게 읊어지기 때문에 종종 “바루크 쉘

모”(Barukh Shemo)라고 말한 것처럼 들린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항상 이렇게 응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언제 응답하고, 언제 하지 않는지의 본보기를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모르겠다.

카디쉬 기도에는 여러 종류의 회중 응답이 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카디쉬에는 많은 “아멘”들이 있다. 추가로 첫 “비르루 아멘”이 있는 후 회중은 “이헤이 쉬메이 랍바 므바라크 라람 우랄메이 알마야”(y’hei sh’mei rabbah m’varakh, l’alam u’l’almei almaya, 그분의 위대한 이름이 세세무궁토록 복 받을지어다). 또 다음 단락에서 “쉬메이 드쿠데샤”(sh’mei d’kudeshah) 후에, 회중은 인도자와 함께 “브리크 후”(b’rikh hu, 그분에게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한다. 이 모든 것들은 언제나 명확하게 시두르에서 표시되어있다. 필자는 애통하는 자의 카디쉬의 본문을 준비하였다. 거기에 이 모든 것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누군가 “보르쿠 엘 아도셈 하므보라크”(Borkhu et Adoshem ha-m’vorakh, 복 주시옵소서. 주, 복 되신 분이시여.)라고 말할 때는 언제든지, 회중은 “바루크 하므보라크 로람 바에드”(Barukh ha-m’vorakh l’olam va-ed, 복 받으시옵소서. 주, 복 되신 분이시여, 영원무궁토록)라고 응답한다. 이것이 있게 되는 경우는 두 번, 곧 프수케이 드지므라부터 쉘마 축복들까지의 전환과 각 사람이 토라 읽기를 축복할 때에 있다.

쉐모네 에스레이를 반복하는 동안, 인도자가 세 파트의 제사장 축복을 낭송할 때(주님께서 당신을 복주시며 당신을 보호하시옵소서.... 주님 당신을 위해 그 얼굴을 비추소서. 당신께 자비하게 하소서.... 주님 당신에게 그 얼굴을 돌리시고 당신을 위해서 화평을 세우소서....), 회중은 각각의 세 가지 축복들을 마친 후에 칸 이히 라트존(그렇게 되어 지이다.)이라고 응답한다.

3. 일어서기

다음과 같은 때에는 일어서야 한다.

a. 성경 퀘가 열려질 때

b. 토라가 실내에서 운반되어질 때.

c. 쉘모네 에스레이를 낭송하는 동안. 침묵낭송의 시작 때부터 케두샤(Kedushah)후 인도자의 반복 낭송이 진행되는 동안까지<케두샤는 “카도쉬, 카도쉬, 카도쉬”(Kadosh, Kadosh, Kadosh, 거룩, 거룩, 거룩) 축복을 포함하는 부분이다.>.

d. 모든 예배의 폐회를 앞두고 하는 알레이누 기도가 진행되는 동안.

기립을 요구하는 몇 개의 다른 기도들도 있지만, 위의 것들이 가장 주목해야할 것들이다.

이외에도 정통주의 회당에서는 카디쉬가 낭송될 때 모든 사람이 일어서는 것이 관례이다. 그러나 애통하는 자의 카디쉬가 낭송될 때에는 일어서지 않는다. 이때는 애통하는 자들만이 일어난다. 기도는 보통 카디쉬라고 명확하게 표시되어있다. 그리고 “위트가달 브위트 카다쉬 쉬메이 랍바”(Yitgadal v'yitkadash Sh'mei Rabbah, 그분의 위대한 이름이 점점 높여지고 거룩하게 되어 지이다.)로 시작한다. 그러나 일부 비정통주의 회당들에서는 보통의 카디쉬들이 낭송되는 동안 회중이 일어서지 않는 것을 필자는 보아왔고, 또 때로는 애통하는 자의 카디쉬가 낭송되는 동안 회중이 일어서는 것을 보았다.

4. 인사하기

유대주의는 기도하는 동안 인사하는 특별한 절차를 갖고 있다. 먼저 무릎을 굽힌 후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동안 상체를 앞으로 굽혀 인사한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다. (오른 쪽의 애니메이션을 참고하십시오.)



인사하기는 예배 중에 여러 차례 행하여진다.

a. 알레이누 기도를 하는 동안 “바나 크누 코림 우미쉬타카빔 우모담”(v'anakhnu korim u'mishtachavim u'modim, 문자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무릎을 구부리고 인사하며 감사합니다.”는 뜻)

b. 웨모네 에스레이를 낭송하는 동안 네 차례. 첫 번 축복의 시작에서 “주, 당신께서는 복 받으시옵소서.”라고 할 때, 첫 번 축복의 끝에서 “주, 당신께서는 복 받으시옵소서.”라고 할 때, 모딤(Modim) 축복의 시작 때에 “우리는 당신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와 모딤 축복의 끝에서 “주, 당신께서는 복 받으시옵소서.”라고 할 때. 그리고 오세 샬롬(Oseh Shalom) 축복을 하는 동안 “그분의 높은 곳에서 평강을 만드시는 그가”라고 할 때에 왼쪽을 향하여 인사하고, “평강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할 때에 오른쪽을 향하여 인사하고, “우리와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라고 할 때에 정면을 향해서 인사하는 특별한 인사하기가 있다.

c. 프수케이 드키트라후에 그러나 웨마의 축복들 이전에 인도자는 그가 인사하는 동안 보르쿠(Borchu) 축복을 낭송한다. 회중은 “바루크 아도셈 하메보라크 로람 바에드”라는 말로 응답하고 인사한다.

d. 토라 읽기를 하는 동안, 한 사람이 토라에 대한 축복을 말할 때, 보르쿠(Borchu)와 동일한 축복과 회중응답이 낭송되고, 동일하게 인사하기를 한다. 여기서 인사하기는 덜 분명할 수 있다. 때때로 회중은 의자에 앉은 채로 몸만 앞으로 구부려 인사하기 때문이다.

5. 토라에 입맞추기

토라 읽기가 있는 예배에서는 보통 토라 행진이 있다. 토라가 회당 여기저기로 운반되어질 때 회중들 가운데 한 사람이 토라를 잡는다. 토라가 회중에게 전달될 때, 그들은 그들의 손으로 (혹은 때때로 기도서나 그들의 탈리트, 곧 유대인 남성이 아침 예배 때 착용하는 어깨걸이로) 책표지를 만진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혹은 그들이 토라를 만지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입을 맞춘다. 정통주의 회당에서 토라 행진은 종종 여성 지정석 쪽으로 가지 않는다. 여성은 보통 토라가 있는 방향으로 손을 뻗어 그들의 손에 입을 맞춘다.

토라 읽기 후에 토라는 회중을 향하여 말씀들과 함께 거양된다. 회중응답인 “브조트 하토라”(v'zot ha-Torah)를 낭송하면서, 보통은 손가락으로, 토라를 향하여 손을 뻗어 손가락에 입을 맞추는 것이 전통이다.

추천도서

물론, 유대인 예배에 관해서 읽어볼 가장 좋은 책은 싯두르에 있다. 필자가 사용하는 것은 『아트스크롤 싯두르』(The Artscroll Siddur), 곧 싯두르 콜 야아코브(Siddur Kol Yaakov)이다. 보급판 구입도 가능하다. 그것은 철저한 정통주의 책이지만, 예배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상세한 주석과 해설을 포함하고 있다.

대부분의 보수주의 회당에서 사용되는 싯두르는 『싯두르 심 샬롬』(Siddur Sim Shalom)이다. 개혁주의 회당에서 필자가 사용했던 싯두르는 『기도의 문』(Gates of Prayer)이다.

이 글을 준비하면서 필자는 『랍비 하임 할레비 도닌의 유대인으로서 기도하기』(Rabbi Hayim Halevy Donin's To Pray as a Jew)에 크게 의존하였다. 필자는 이 책을 적극 추천한다. 필자는 또한 조단 리와그너의 『회당 살아남기 세트』(Synagogue Survival Kit)에 관해서 호평을 들어왔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필자는 아직 그 책을 읽어보지 못했다.

부록3. 기도와 축복(Prayers and Blessings)⁸⁾

A. 테필라(Tefilah): 기도

기도에 대한 히브리어는 '테필라'(tefilah)이다. 이 말은 페-라메드-라메드(Pe-Lamed- Lamed)란 어근과 르히트팔렐(l'hitpalel)이란 말에서 유래되는데, 자신을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예기치 못한 말의 기원은 유대인이 하는 기도의 목적을 파악할 통찰력을 제공한다. 유대인의 어떤 기도이든, 그것이 간구이든, 감사이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든, 혹은 고백이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것이 제공하는 내관(內觀), 곧 세상 속에서의 우리들의 역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면서 우리들 자신의 안을 들여다보는데 소요되는 순간이다.

'기도'를 의미하는 이디쉬(Yiddish, 독일어에 헤브루어와 슬라브어가 혼합한 것으로, 헤브루 문자로 씀. 중부동부 유럽 및 미국으로 이민한 유대인이 사용함.)란 말은 '다벤'(daven)이다. 영어단어, '신성'(divine)과 같은 라틴어 어근에서 나온다. 그리고 기도가 바쳐지는 분을 강조한다.

토라를 준수하는 유대인들에게 기도는 단지 회당예배 때에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하루에 세 번씩 하는 무엇인가일 뿐 아니라, 기도는 매일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실제로 유대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들 가운데 하나인 '비르칼 하-마존'(Birkat Ha-Mazon)은 회당에서 결코 낭송되지 않는다.

토라를 준수하는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하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그분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침에 일어나 갖는 우리의 첫 생각은, 심지어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기 전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들을 되돌려 주신 것에 대한 감사기도이다. 먹기와 새 옷 입기와 같은 어떤 물질적 즐거움을 누리기에 앞서 낭송할 기도들, 손 씻기나 촛불 켜기와 같은 어떤 계명을 준수하기에 앞서 낭송할 기도들,

8) 번역: 조동호 목사. 출처: <http://www.jewfaq.org/prayer.htm>

왕과 무지개 또는 재난장소와 같은 무언가 특이한 일들을 보게 될 때 낭송할 기도들,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 발생했을 때마다 낭송할 기도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낭송할 기도들이 있다. 이 모든 기도들은 공식적인 기도회들, 곧 매일 하루 세 번하는 기도들과 안식일과 축일 때마다 하는 기도들에 추가되는 기도들이다. 유대인 예식서를 보시오.⁹⁾

B. 기도의 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규적이고 공식적인 기도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기도하고픈 영감을 느낄 때, 기도가 내게 의미가 있을 때, 나는 기도한다.”고 그들은 말한다. 이런 태도는 두 가지 중요한 것들, 곧 기도의 목적과 실천을 위한 필요성을 간과한다.

기도의 한 가지 목적은 당신의 삶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자각과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하시는 역할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영감을 느낄 때, 곧 당신이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자각하고 있을 때만 기도한다면,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께 대한 당신의 자각을 증대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게다가 만일 당신이 무엇인가를 잘 하기를 원한다면, 심지어 당신이 그것을 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당신은 그것을 지속해서 연습을 해야 한다. 이것은 운동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글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도에 있어서도 사실이다. 적절한 기도의 본질인 겸허함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은 현대인에게 쉽게 찾아오지 않고, 당신이 기도할 필요를 느낄 때, 단순히 당신에게 오지 않는다. 만일 당신이 영감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린다면, 당신은 당신이 효과적으로 기도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갖지 못할 것이다. 필자는 정규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시작하기 전, 필자가 기도하기를 원했을 때, 필자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무엇을 말해야할지, 어떻게 그것을 말해야할지, 혹은 어떻게 적절한 마음의 틀을 짜야할지를 몰랐다. 만약 당신이 정규적으로 기도한다면, 기도 때 어떻게

9) <http://www.jewfaq.org/liturgy.htm>

당신 자신을 표현해야할지를 배우게 될 것이다.

C. 카바나(Kavanah): 기도를 위한 마음의 준비

동일한 기도들을 매일 반복해서 말할 때, 기도들이 진부하게 되고, 의미를 상실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가 일부 사람들에게서 사실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이것이 유대인의 기도가 갖는 의도는 아니다. 서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것이 제공하는 내관(內觀)이다. 따라서 적절한 마음의 틀은 기도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기도를 위한 마음의 준비를 카바나(kavanah)라 한다. 카바나는 일반적으로 “집중” 혹은 “의도”란 말로 번역된다. 카바나의 최소 단계는 기도자가 하나님께 말하고 있다는 의식과 기도할 의무를 이행하려는 의도이다. 만약 당신이 카바나의 이 최소 단위를 갖지 않는다면, 당신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단지 기도문을 읽고 있을 뿐이다. 게다가 카바나는 다른 잡생각이 없는 마음을 지니는 것이고, 당신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며,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숙고하는 것이다.

예식문의 멜로디들은 종종 적절한 마음의 준비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많은 기도들과 기도회들은 그것들과 관련된 전통적인 멜로디들을 갖는다. 이것들은 당신이 하고 있는 것에 집중력을 높이게 하고, 잡생각들을 떨쳐버릴 수 있게 한다.

필자는 또한 기도하는 동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동안 일상적으로 몸을 전후로 흔든다. 길으로는 시편 35편 10절의 말씀, “나의 전 존재(내 모든 뼈)가 외치리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를 따르는 것처럼 보인다. 그 같은 움직임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그 같은 움직임에 오히려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을 느낀다. 그러나 필자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집중과 초점을 맞추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느낀다.

D. 히브리어: 기도를 위한 언어

탈무드는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무엇이든 그 언어로 기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유대주의에서는 히브리어로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언제나 강조해왔다. 한 전통적인 하시딕(Chasidic) 설화는 히브리어로 기도하고 싶었지만 히브리어를 몰랐던 한 유대인의 기도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 사람은 그가 아는 히브리어 알파벳만을 단지 낭송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그것을 랍비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을 때까지 반복해서 낭송하였다. 그 사람은 랍비에게 말했다. “거룩하신 분, 복 받으시는 그분이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아십니다. 내가 그분에게 알파벳문자들을 드리면, 그분은 그것들을 조합해서 단어들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더 진보적인 운동들에서조차도 히브리어 기도의 가치를 점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필자의 할머니는 내게 말씀하기를 50년 전만해도 개혁주의 회당에서는 히브리어를 결코 들을 수 없었다고 하셨다. 오늘날 표준 개혁주의 기도서는 상당수의 히브리어 기도문을 실고 있고, 표준 기도들의 상당수가 히브리어로 낭송되어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영어번역과 함께 음역(音譯)되어져 있다. 필자는 몇몇 개혁주의 랍비들이 역시 일반적으로 영어번역과 해설을 실고 있는 히브리어 토라를 읽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히브리어로 기도하는 설득력 있는 이유들이 많다. 그것이 히브리어를 배우려는 동기를 촉발시킨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잊힐 언어이다. 그것은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연결할 고리를 제공한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된 언어이다. 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에게는 히브리어로 기도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히브리어는 유대인사상의 언어라는 점이다.

히브리어를 포함한 모든 언어들은 그 언어가 가지는 문화와 종교를 함축하고 있다. 히브리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 유대인 개념들의 미묘한 차이들을 잃게 되고, 유대주의와는 거리가 먼 개념들이 추가된다. 오로지 히브리어를 통해서만이 유대인의 사상의 순수한 진수가 보존될 수 있고, 적절하게 이해되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영어 단어, “계명”은 엄하고 무서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과한

명령을 함축한다. 그러나 히브리어 단어, “미츠바”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영예와 특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일부분으로써 우리가 수행해야 할 책임과 우리가 열심히 이행하고자 하는 선한 행위를 뜻한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기도하는 것이 당신이 기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제안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당신이 회당 안에 있고, 히브리어를 잘 모른다면, 번역을 눈으로 읽으면서 히브리어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당신이 혼자서 기도나 축복을 낭송하고 있다면, 그것을 히브리어로 낭송하려는 시도를 하기에 앞서 번역문을 통해서 그것의 의미와 전반적인 개념을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당신이 이번에는 히브리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히브리어로 하는 기도를 듣고 그 기도를 경험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E. 단체기도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들은 “내게”란 말 대신에 “우리”란 제1칭 복수로 표현되어지고 모든 유대인을 위해서 낭송된다. 이런 형태의 기도는 서로를 위한 우리들의 책임과 상호 연결된 운명체임을 강조한다.

유대주의에서 기도는 크게 보면 개인 활동이기보다는 단체 활동이다.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허용되고, 기도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하라는 계명을 위반하지 않도록 단체로 기도하려는 노력을 힘써 기울여야 한다.

온전한 형태의 기도회는 적어도 10명의 유대인 남성, 곧 기도들을 낭송하라는 계명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 적어도 10명의 정족수를 채우지 않고서는 행하여질 수 없다. 이 기도의 정족수는 민안(minyan, ‘계수하다’ 또는 ‘수를 헤아리다’는 히브리어 어근에서 유래한 말)이란 말로 표현된다. 특정한 기도들과 종교적인 활동들은 민안없이 수행될 수 없다. 민안에 대한 이 요구는 외딴 지역들에서 유대인 공동체를 함께 모이게 하는데 종종 도움을 주었다.

F. 베라코트(berakhot): 축복들

베라카(berakhah, 축복)은 유대주의에서 매우 흔한 특별한 종류의 기도이다. 베라코트(berakhot)는 회당예배들의 한 부분으로써 또 매일 발생하는 매우 다양한 일들에 대한 반응 혹은 필요조건으로써 낭송되어진다. 베라코트는 알아보기가 쉽다. 그것들은 모두 다 바루크(barukh, 복 받으소서 혹은 찬양받으소서)란 말로 시작한다.

바루크와 베라카란 말들은 둘 다 ‘무릎’이란 의미의 히브리어 어근, 벵-레쉬-카프(Bet-Resh-Kaf)에서 유래하며, 무릎을 굽혀 절함으로써 존경을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옆에 만화그림을 참고하시오. 유대인 예식에서 이 제스처가 취해지는 곳이 여러 곳 있지만, 대부분은 베라카가 낭송되어질 때이다.

유대인 전통에 따르면, 사람은 매일 100개의 베라코트를 낭송해야 한다. 이것은 듣기보다는 어렵지 않다. 유대교를 믿는 모든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하루 세 번 쉼모네 에스레이를 반복하면 그것만으로도 57개의 베라코트를 낭송하게 된다. 그리고 베라코트가 요구되는 일상적인 일들이 수십 개가 있다.

G. 누가 누구를 축복하는가?

영어를 쓰는 많은 사람들이 베라코트의 개념을 매우 혼란스럽게 생각한다. 그들에게 ‘축복’이란 말은 축복하는 사람이 그가 축복하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가톨릭 전통에서 교회성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사제에게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요청하는 말로써 시작한다. 그러나 베라카에서 축복을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가?

이 혼란은 크게는 번역의 어려움들에서 비롯된다. 히브리어 단어 ‘바루크’(barukh)는 우리가 하나님께 행하는 것을 기술하는 동사가 아니다. 그것은 모든 축복들의 원천으로써 하나님을 기술하는 형용사이다. 우리가 베라카를 낭송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축복받으신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H. 베라카의 내용

기본적으로 세 종류의 베라코트가 있다. 물질적인 쾌락을 즐기기 전에 낭송되는 것들(birkhot ha-na'ah), 미츠바(mitzvah, 계명)를 이행하기 전에 낭송되는 것들(birkhot ha-mitzvot), 특별한 때나 행사 때에 낭송되는 것들(birkhot hoda'ah)이 있다.

먹고 마시고 새 옷을 입는 것과 같은 물질적인 쾌락을 즐기기 전에 낭송되는 베라코트는 우리가 쓰려고 하는 물질의 창조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빵을 위한 베라카는 “땅에서 빵을 생산하게 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새 옷을 입기위한 베라카는 “별거벗은 자들에게 옷을 입히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들 베라코트를 낭송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이심과 먼저 그분의 승낙을 구함이 없이는 물질들을 사용할 어떤 권리도 없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베라카는 본질적으로 물질을 사용할 승낙을 구하는 것이다.

손을 씻거나 촛불을 켤 때와 같은 미츠바(계명)를 이행하기 전에 낭송되는 베라코트는 “그분의 계명들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분, 곧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도록 명령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같은 축복의 낭송은 미츠바 이행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유대인의 전통에서 의무감을 가지고 미츠바를 이행하는 사람은 동일한 미츠바를 이행하고 싶기 때문에 이행하는 사람보다 더 칭찬할만한 일로써 생각되어진다. 베라카의 낭송은 우리가 의무감으로 신앙적인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킨다. 우리가 그 같은 베라코트를 성서의 계명들과 랍비들의 계명들 모두에 대해서 낭송한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랍비들의 계명들의 경우에 베라카는 “그분의 계명들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들에게 명령하는 랍비들에게 복종하도록 명령하신” 분, 곧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도록 명령하신 분으로써 이해되어질 수 있다. 할라카(Halakhah), 성서의 계명들과 랍비들의 계명들 사이의

차이를 설명하는 유대인 법을 참고하십시오.

왕이나 무지개를 보거나 기쁜 소식이나 나쁜 소식을 들을 때와 같은 특별한 때나 행사들 때에 낭송되는 베라코트는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선악의 궁극적인 원천으로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 같은 베라코트는 좋은 일들이든 혹은 우리들에게 나쁘게 드러나는 일들이든 모두를 위해서 낭송된다. 우리가 어떤 나쁜 것을 보거나 들을 때, 나쁘게 드러나는 일들은 궁극적으로 의로운 이유 때문에, 심지어 우리가 한정된 이해 속에서 그 이유를 항상 알 수 없다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의로운 이유 때문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해하면서 우리는 '참된 재판관'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I. 베라카의 형태

오늘날 우리가 낭송하는 베라코트의 많은 수는 2500여 년 전에 에스라와 대 집회에 의해서 작성되었다. 그것들은 동일한 형태로 지속적으로 낭송되어진다.

모든 베라코트는 “바루크 아타 하셈, 엘로카이누, 멜레크 하올람”(Barukh atah Ha-shem, Eloaynu, melekh ha-olam), 곧 “당신 주 우리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복 받으시옵소서.”란 문구를 사용한다. 이것은 때때로 션 우말크트(shem u'malkut, 이름과 주권), 곧 왕으로서 하나님을 확인하는데 언급된다.

“당신”란 단어의 사용은 논의의 가치가 있다. 현대영어에서 많은 사람들은 “당신”란 단어를 의식적이고 정중한 말로 생각한다. 그러나 실은 그 반대인 것이 사실이다. 히브리어 아타(atah)와 마찬가지로 당신은 친구들이나 친척들에게 사용되는 의식을 탈피한 친근한 이인칭 대명사이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가깝고 친근한 관계를 표현한다.

이 구절 직후 베라카는 갑자기 삼인칭으로 바뀐다. 예를 들면, 계명(mitzvah)을 이행하기 전에 낭송되는 것들(birkhot ha-mitzvot)에서 처음 두 구절들은 “당신 주 우리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복 받으시옵소서. 그분의 계명들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신...”으로 되어 있다. 이 문법적인 오류는 의도적이다. 히브

리어에서 사람에게 말하는 동안 삼인칭 대명사의 사용은 극도의 존경과 경의(복종)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 변화의 참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동시에 또한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다는 사실, 곧 우리와 친근한 관계를 맺으시면서 또한 초월해 계신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의도적으로 거슬리게 하는 방법이다. 이 역설이 하나님과 유대인의 관계의 심장에 있다.

J. 비르카트 하마존(Birkat Ha-Mazon): 식사 후 감사기도

유대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들의 하나이자 성서가 우리들에게 낭송하도록 명령한 몇 개 되지 않는 기도들 가운데 하나는 회당에서 결코 낭송되지 않는다. 그 기도가 비르카트 하마존(birkat ha-mazon), 곧 식사후 기도이다.

신명기 8장 10절에서 우리는 먹고 만족했을 때, 주 우리 하나님을 축복해야한다는 계명을 받는다. 이 계명은 매 식사 후 비르카트 하마존(음식의 축복)을 낭송함으로써 이행되어진다. 비르카트 하마존을 낭송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디시(Yiddish) 말로 ‘축복하다’는 뜻의 말(bentsching)으로써 언급된다. ‘축복하다’(bentsch)는 말이 어떤 베라카의 낭송에도 언급될 수 있지만, 그것은 거의 언제나 비르카트 하마존을 낭송하는 것을 언급할 때에 사용된다.

식사 후 감사기도는 식사 전에 낭송되는 음식에 대한 여러 가지 베라코트에 추가해서 낭송되어진다.

비르카트 하마존은 실제로 네 가지 축복들로 구성된다. 세 개는 에스라와 대 집회 때에 작성되었고, 네 번째 것은 성전파괴 후에 추가되었다. 이들 축복들은 다음과 같다.

비르카트 하잔(Birkat Hazan, 음식을 준비하기 위한 축복), 곧 세상에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비르카트 하 아렛츠(Birkat Ha-Aretz, 땅에 대한 축복), 곧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언약을 맺으시며, 유산으로 이스라엘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비르카트 예루살라임(Birkat Yerushalayim, 예루살렘에 대한 축복), 곧 예루살렘의 재건과 모쉬아크(메시아)의 도래를 위해서 기도

한다.

비르카트 하토브 브하마이티브(Birkat Ha-Tov v'Ha-Maytiv, 선한 것과 선한 행동에 대한 축복)는 성전파괴이전부터 있었던 것인데 성전파괴 후에 기도문에 첨가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의 선하심, 곧 하나님은 선하시며 선을 행하신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들 네 가지 축복들 이외에 완전한 비르카트 하마존은 몇 개의 시편들과 축일과 방문객이 있을 때와 같은 여러 가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를 위한 추가 축복들과 함께 낭송된다.

만약 비르카트 하마존을 들어보기를 원한다면, 리얼플레이어를 통해서 낭송자 핀카스 라비노비크스(Cantor Pinchas Rabinovicz)의 음성으로 홈페이지 <http://613.org>에서 들을 수 있다. <http://613.org>는 인터넷 상에서 유대인의 토라 오디오를 만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홈페이지이다. 단 녹음은 아쉬케나즈(Ashkenazic)의 발음으로 되어 있다.

K. 민안(기도 그룹) 찾기

위에서 언급했듯이 유대인의 기도는 보통 민안(minyan)이라 불리는 10명의 정족수를 채워야 이뤄지는 그룹 활동이다. 만약 주변 지역에서 함께 기도할 정통주의 민안을 찾고 싶다면, 검색이 가능한 정통주의 민안들의 전 세계 데이터베이스를 갖춘 다벤(Daven)을 찾아보기 바란다. 그들에게 기도(daven)하기를 원하는 지역을 말하기만 하면, 그들은 정통주의 민안이 위치한 곳과 그곳의 예배시간들과 약도까지 자세하게 안내해 줄 것이다.

만약 보수주의 회당을 선호한다면, USCJ의 회당찾기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기 바라고, 개혁주의를 선호한다면, UAHC의 회중주소록을 찾아보기 바란다. 재건주의자 회중들을 찾는다면, JRF의 재건주의자 회중들과 하부로트(Havurot)를 찾아보기 바란다.

부록4. 쉘모네 에스레이(Shemoneh Esrei)¹⁰⁾

서론

쉘모네 에스레이는 보통 '아미다'(Amidah, 문자적으로 '일어섬'이란 뜻)라 불리며, 탈무드에서는 종종 '기도'로 불리는 데, 서서하는 열아홉 개의 기도이다. '쉘모네 에스레이'란 말은 '열여덟'이란 뜻이다. 그것은 열여덟 개의 기도들 또는 축복들을 원래 포함하였으나 야브네(Yavneh)에서 열아홉 번째의 기도가 첨가되었다. 처음 세 개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다. 그 다음 부분은 원래 열두 개였으나 첨가된 열세 번째의 것과 함께 간구를 포함한다. 마지막 부분 세 개의 축복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믿음을 표현한다.

1. 족장들(The Patriarchs)
2. 하나님의 능력(G-d's Might)
3.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성(Holiness of G-d's Name)
4. 통찰력(Insight)
5. 회개(Repentance)
6. 용서(Forgiveness)
7. 구속(Redemption)
8. 건강과 치유(Health and Healing)
9. 번영의 해(Year of Prosperity)
10. 유배생활로부터의 모임(Ingathering of Exiles)
11. 공의의 회복(Restoration of Justice)
12. 이단을 공격함(Against Heretics, 야브네 때 첨가됨)
13. 의로운 자들(The Righteous)
14. 예루살렘 재건(Rebuilding Jerusalem)
15. 다윗통치(Davidic Reign)
16. 기도를 받으심(Acceptance of Prayer)

10) 번역: 조동호 목사.

출처: http://members.aol.com/_ht_a/psalm12607/ShemonahEsrei.htm

17. 성전예배(Temple Service)
18. 감사(Thanksgiving)
19. 평강(Peace)

쉐모네 에스레이는 주간에 아침(Shacharit) 오후(Minchah) 그리고 저녁(Ma'ariv)에 암송된다. 안식일에 암송되는 아미다가 상당부분 같은 자료를 포함하는 (“일곱 면을 가진 축복과 혼동되지 말고) 일곱 축복 기도라는 것을 주목하라. 그리고 아미다는 종종 쉐모네 에스레이로 언급된다.

유태주의의 전통적인 기도는 여호수아 시기이전 이후 경부터 있어 왔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현대적인 형태에서 이 기도의 모든 구절은 우리 자신의 기도에 도움을 줄만한 가치와 통찰을 포함한다. 기도의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거룩하신 분이시여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May the Holy One hear our cry.

My L-rd, open my lips, that my mouth may declare your praise.

1. 족장들(Patriarchs)

하셈¹¹⁾ 우리 하나님, 사랑으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유익한 호의들을 베푸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며, 족장들에게 베푸신 호의들을 회상하시며, 그들의 자손대대에 구원자를 보내시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 복 받으시옵소

11) 역자 주: 유태인들이 하나님 이름 대신 부르는 호칭, 문자적으로는 ‘이름’이란 뜻. 논문 베라코트(Tractate Berachot)와 탈무드에 포함되어있으며, 슈무엘 하카탄(Shmuel Hakatan)에 의해서 일세기 경에 쓰인 구절 12에서 발견된다.

서.

Blessed are you, HaShem our God, and God of our forefathers, God of Abraham, God of Isaac, and God of Jacob; the great, mighty, and awesome God, the supreme God, Who bestows beneficial kindnesses and creates everything, Who recalls the kindnesses of the patriarchs and brings a redeemer to their children's children, for His Names's sake, with love.

2. 하나님의 능력(G-d's Might)

나의 주님, 당신은 영원한 능력이시며, 죽은 자들을 소생시키는 분이시며, 구원하고도 남으실 분이십니다. 그분은 호의로 살아있는 것들을 유지시키시며, 넉넉한 자비로 죽은 자들을 소생시키시며, 넘어진 자들을 지지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갇힌 자들을 풀어 주시며, 티끌 속에서 잠든 자들에게 그분의 믿음을 유지시켜 주십니다. 오 능력 있는 행위들의 주인이시여, 누가 당신과 같겠으며, 죽게도 하시고, 살게도 하시며, 구원을 싹트게 하시는 오 왕이시여, 누가 당신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죽은 자들을 소생시키는 하쉐 당신은 신실하시여 죽은 자들을 소생시키십니다.

You are eternally mighty, my Lord, the Resuscitator of the dead are You; abundantly able to save. He sustains the living with kindness, resuscitates the dead with abundant mercy, supports the fallen, heals the sick, releases the confined, and maintains His faith to those asleep in the dust. Who is like You, O Master of mighty deeds, and who is comparable to You, O King Who causes death and restores life and makes salvation sprout! And You are faithful to resuscitate the dead. Blessed are You, HaShem, Who resuscitates the dead.

3.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성(Holiness of G-d's Name)

당신은 거룩하시고, 당신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들은 당신을 매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하쉐 거룩하신 하나님 복

받으시옵소서.

You are holy, and Your Name is holy, and holy ones praise You every day, forever. Blessed are You, HaShem, the holy God.

4. 통찰력(Insight)

당신은 자비로이 인간에게 지혜를 주시며, 허약하고 유한한 존재들에게 통찰력을 가르치십니다. 우리들에게 당신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통찰력과 식별력을 자비로이 주옵소서. 자비로운 지혜의 수여자이신 하솨 당신을 복을 받으시옵소서.

You graciously endow man with wisdom and teach insights to a frail mortal. Endow us graciously from Yourself with wisdom, insight, and discernment. Blessed are You, HaShem, gracious Giver of wisdom.

5. 회개(Repentance)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들을 당신의 토라(율법)에로 되가져가 주시고,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들을 당신의 예배에로 가까이 나오게 하시며, 우리들을 당신 앞에서 완벽한 회개로 되돌아오게 영향을 끼쳐 주옵소서. 회개를 원하시는 하솨 당신을 복을 받으시옵소서.

Bring us back, our Father, to Your Torah, and bring us near, our King, to Your service, and influence us to return in perfect repentance before You. Blessed are You, HaShem, Who desires repentance.

6. 용서(Forgiveness)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들을 용서하옵소서. 우리가 잘못을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왕이시여, 우리들에게 관용을 베푸시옵소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관용을 베푸시고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풍성하게 관용을 베푸시는 자비로운 분이신 하솨 당신은 복을 받으시옵소서.

Forgive us, our Father, for we have erred; pardon us, our King,

for we have willfully sinned; for You pardon and forgive. Blessed are You, HaShem, the gracious One Who pardons abundantly.

7. 구속(Redemption)

우리들의 고통을 보시옵소서. 우리들의 불만을 멈추게 하옵소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속히 우리들을 구원하옵소서. 당신은 권세 있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하솨 당신을 복을 받으시옵소서.

Behold our affliction, take up our grievances, and redeem us speedily for Your Name's sake, for You are a powerful Redeemer. Blessed are You, HaShem, Redeemer of Israel.

8. 건강과 치유(Health and Healing)

하솨이시여, 우리를 고치소서. 그러면 우리가 낫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찬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소서. 당신은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며, 신실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치료자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하솨이시여, 복을 받으시옵소서.

Heal us, HaShem--then we shall be healed; save us--then we will be saved, for You are our praise. Bring complete recovery for all our ailments, for You are God, King, the faithful and compassionate Healer. Blessed are You , HaShem, Who heals the sick of His people Israel.

9. 번영의 해(Year of Prosperity)

하솨 우리 하나님이지여, 우리를 위해서 금년에 각종 수확물이 풍성하도록 복을 내려주옵소서. 지상에 복을 내려 주시고, 당신의 혜택으로 인해서 우리들을 만족케 하시며, 가장 좋았던 해들처럼 금년을 복 주시옵소서. 매년 복을 주시는 하솨 당신이시여, 복을 받으시옵소서.

Bless on our behalf--O HaShem our God--this year and all its kinds of crops for the best, and give a blessing on the face of the earth, and satisfy us from Your bounty, and bless our year like the best years. Blessed are You, HaShem, Who blesses the years.

10. 유배생활로부터의 모임(Ingathering of Exiles)

우리들의 자유를 위해서 거대한 쇼파르(양각나팔)를 울리게 하소서. 우리들의 유배생활로부터 모임 수 있도록 깃발을 울리게 하옵소서. 지구 곳곳으로부터 우리들을 함께 모이게 하옵소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하셈 당신이시여, 복을 받으시옵소서.

Sound the great shofar for our freedom, raise the banner to gather our exiles and gather us together from the four corners of the earth. Blessed are You, HaShem, Who gathers the dispersed of His people Israel.

11. 공의의 회복(Restoration of Justice)

초기 때처럼 우리들의 재판관들과 처음 때처럼 우리들의 지도자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들로부터 슬픔과 신음을 제거시켜 주옵소서. 하셈 당신 홀로 자애와 동정으로 우리들을 통치하옵소서. 심판을 통해서 우리들을 의롭게 하옵소서. 의와 심판을 사랑하시는 왕, 하셈 당신이시여, 복을 받으시옵소서.

Restore our judges as in earliest times and our counselors as at first; remove from us sorrow and groan; and reign over us--You, HaShem, alone--with kindness and compassion, and justify us through judgment. Blessed are You, HaShem, the King Who loves righteousness and judgment.

12. 이단을 공격함(Against Heretics, 야브네 때 첨가됨)

그리고 중상비방자들에게는 희망이 없게 하옵소서. 모든 사악함은 즉각 사라지게 하옵소서. 너희 모든 적들은 신속히 잘려나갈지이다.

당신께서 악한 죄인들은 신속히 뿌리째 뽑으시며 산산이 부수시며 던지시며 우리 시대에서 신속히 멸시하옵소서. 적들을 부수시며 악한 죄인들을 멸시하시는 하셈 당신이시여, 복을 받으시옵소서.

And for slanderers let there be no hope; and may all wickedness perish in an instant; and may all You enemies be cut down speedily. May you speedily uproot, smash, cast down, and humble the wanton sinners--speedily in our days. Blessed are You, HaShem, Who breaks enemies and humbles wanton sinners.

13. 의로운 자들(The Righteous)

의로운 자들에 관해서, 경건한 자들에 관해서, 이스라엘의 가족 너희 백성의 장로들에 관해서, 그들 학자들의 남은 자에서, 의로운 개종자들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에 관해서 당신의 동정심이 일깨워지게 하옵소서. 하셈 우리의 하나님이지요, 당신의 이름을 신실하게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상당한 보상을 주옵소서. 그것들과 함께 우리의 몫을 영원토록 배정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자들의 의지처(依支處)시요 확신하신 하셈 당신이시여, 복을 받으시옵소서.

On the righteous, on the devout, on the elders of You people the Family of Israel, in the remnant of their scholars, on the righteous converts and on ourselves--may Your compassion be aroused. HaShem our God, and give goodly reward to all who sincerely believe in Your Name. Put our lot with them forever, and we will not feel ashamed, for we trust in You. Blessed are You, HaShem, Mainstay and Assurance of the righteous.

14. 예루살렘 재건(Rebuilding Jerusalem)

당신의 도시 예루살렘에게 당신께서 동정심으로 돌아오시옵소서. 당신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안에 안식하옵소서. 당신께서 영원한 구조물로써 우리 시대에 그것을 빨리 재건하옵소서. 당신께서 그 안에 다윗의 옥좌를 신속히 세우시옵소서. 예루살렘의 건설가이신

하셈 당신이시여, 복을 받으시옵소서.

And to Jerusalem, Your city, may You return in compassion, and may you rest within it, as You have spoken. May You rebuild it soon in our days as an eternal structure, and may You speedily establish the throne of David within it. Blessed are You, HaShem, the Builder of Jerusalem.

15. 다윗통치(Davidic Reign)

당신의 종 다윗의 후손을 당신께서 신속히 번성케 하옵시고, 당신의 구원을 통해서 그의 자궁심을 끌어올리소서. 우리는 온 종일 당신의 구원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자궁심을 번영케 하시는 하셈 당신이시여, 복을 받으시옵소서.

The offspring of Your servant David may You speedily cause to flourish, and enhance his pride through Your salvation, for we hope for Your salvation all day long. Blessed are You, HaShem, Who causes the pride of salvation to flourish.

16. 기도를 받으심(Acceptance of Prayer)

하셈 우리 하나님이지여,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소서. 우리들을 가엾게 여기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를 동정심과 은혜로 받으시옵소서. 기도들과 간구들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당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왕 당신 앞에서 우리들을 빈손으로 돌아가게 마옵소서. 당신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셈 당신이시여, 복을 받으시옵소서.

Hear our voice, HaShem our God, and be compassionate to us, and accept--with compassion and favor--our prayer, for God Who hears prayers and supplications are You. From before Yourself, our King, turn us not away empty-handed, for You hear the prayer of Your people Israel with compassion. Blessed are You, HaShem, Who hears prayer.

17. 성전예배(Temple Service)

하쎬 우리 하나님이지여,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과 그들의 기도를 향하여 호의를 입게 하옵소서. 당신의 성전 지성소 예배를 회복하옵소서. 이스라엘의 번제들과 그들의 기도를 사랑과 은혜로 받으시옵소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예배를 언제나 당신께 호의를 입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들이 당신께서 동정심으로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시온에 그의 임재를 회복하시는 하쎬 당신이시여, 복을 받으시옵소서.

Be favorable, HaShem, our God, toward Your people Israel and their prayer and restore the service to the Holy of Holies of Your Temple. The fire-offerings of Israel and their prayer accept with love and favor, and may the service of Your people Israel always be favorable to You. May our eyes behold Your return to Zion in compassion. Blessed are You, HaShem, Who restores His Presence to Zion.

18. 감사(Thanksgiving)

우리는 당신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 하쎬이 당신이시며, 영원토록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반석과 우리 구원의 방패는 대대로 당신이십니다. 우리는 당신을 생각할 것이며, 당신의 찬양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당신의 능력에 맡긴 우리의 삶과 당신에게 내맡긴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또 매일 우리와 함께 하는 당신의 기적들을 위해서, 그리고 매 계절, 저녁과 아침과 오후에 베푸시는 당신의 이적과 은혜들을 위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여, 당신의 동정심은 결코 지치지 않았기 때문이며, 동정심이 많으신 분이시여, 당신의 자애는 결코 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당신 안에 우리의 소망을 둡니다. 우리의 왕이지여,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당신의 이름이 지속적으로 영원토록 복 받으시며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We gratefully thank You, for it is You Who are HaShem, our God and the God of our forefathers for all eternity. Rock of our

lives, Shield of our salvation are You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We shall think You and relate Your praise--for our lives which are committed to Your power and for our souls that are entrusted to You; for Your miracles that are with us every day; and for Your wonders and favors in every season--evening, morning, and afternoon. The Beneficent One, for Your compassions were never exhausted, the Compassionate One, for Your kindnesses never ended--always he we put our hope in You. For all these, may Your Name be blessed and exalted, our King, continually forever and ever.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은 당신을 감사로 인정할 것입니다. 셀라!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진실하게 찬양할 것입니다. 오, 우리 구원과 도움의 하나님, 셀라! 하셈 당신이시여, 복을 받으시옵소서. 당신의 이름은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며, 그것은 당신께 당연한 것이며, 감사드립니다.

Everything alive will gratefully acknowledge You, Selah! and praise Your Name sincerely, O God of our salvation and help, Selah! Blessed are You, HaShem, Your Name is "The Beneficent One" and to You it is fitting to give thanks.

19. 평강(Peace)

우리들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모두를 향한 평강과 선하심과 축복과 자비하심과 자애와 동정을 세우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들, 우리 모두를 하나와 같이, 당신의 용안(容顏)의 빛으로 복을 내리시옵소서. 하셈 우리 하나님이지시여, 당신의 용안의 빛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토라(율법)와 자애와 의로움과 축복과 동정과 생명과 평강의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평강으로 모든 계절과 매 시간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복 주시는 것이 당신의 눈에 아름답게 하옵소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평강으로 복을 주시는 하셈 당신이시여, 복을 받으시옵소서.

Establish peace, goodness, blessing, graciousness, kindness, and

compassion upon us and upon all of Your people Israel. Bless us, our Father, all of us as one, with the light of Your countenance, for with the light of Your countenance You gave us, HaShem, our God, the Torah of life and a love of kindness, righteousness, blessing, compassion, life, and peace. And may it be good in Your eyes to bless Your people Israel in every season and in every hour with Your peace. Blessed are You, HaShem, Who blesses His people Israel with peace.

결론(Conclusion)

나의 하나님이지여, 악으로부터 나의 혀와 또 거짓되게 말하는 입술로부터 보호하소서. 나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내 영혼이 침묵하게 하시고, 내 영혼이 모든 이에게 티끌처럼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당신의 토라(율법)에 열리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영혼이 당신의 계명들을 추구할 것입니다. 나를 대항하여 악을 계획하는 모든 이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그들의 의논을 무효화시켜 주시고, 그들의 계획이 붕괴되게 하옵소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행하옵소서. 당신의 오른손을 위해서 행하옵소서. 당신의 거룩함을 위해서 행하옵소서. 당신의 토라를 위해서 행하옵소서. 그러면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안식이 주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오른손을 아끼셔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My God, guard my tongue from evil, and my lips from speaking deceitfully. To those who curse me, let my soul be silent; and let my soul be like the dust to everyone. Open my heart to Your Torah, then my soul will pursue Your commandments. As for all those who design evil against me, speedily nullify their counsel and disrupt their design. Act for Your Name's sake; act for Your right hand's sake; act for Your sanctity's sake; act for Your Torah's sake. That Your beloved ones may be given rest; let Your right hand save, and respond to me.

내 입의 표현들과 내 마음의 생각들이 나의 반석이지오 나의 구원

자이신 하셈 당신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May the expressions of my mouth and the thoughts of my heart find favor before You, HaShem, my Rock and my Redeemer.

그분의 높은 곳에서 평강을 만드시는 그가 우리와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평강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하십시오.

He Who makes peace in His heights, may He make peace upon us, and upon all Israel. Now respond: Amen.

우리 하나님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하셈이시여, 거룩한 성전이 우리 시대에 신속히 재건되는 당신의 뜻이 그대로 이뤄지게 하옵소서. 당신의 토라(율법)에 있는 우리의 몫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옛 시대와 그 이전 시대에서와 같이 경외함으로 거기서 당신을 섬기게 하옵소서. 그러시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후손이 옛 시대와 그 이전 시대에서와 같이 하셈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May it be Your will, HaShem our God and God of our forefathers, that the Holy Temple be rebuilt, speedily in our days. Grant us our share in Your Torah, and may we serve You there with reverence, as in days of old and in former years. Then the offering of Judah and Jerusalem will be pleasing to HaShem as in days of old and in former years.

부록5. 유대교의 교파 운동들(Movements of Judaism)¹²⁾

유대교의 다른 분파들 또는 교파들은 보통 운동들로 불린다. 유대교 운동들 사이의 차이들은 기독교 교파들 사이의 차이들만큼 그리 크지 않다. 정통주의(Orthodoxy)와 개혁주의(Reform) 유대교들 사이의 차이들은 기독교 침례교의 진보주의와 근본주의 사이의 차이들보다 더 크지 않다.

일반적으로 필자가 여기서 “운동들”이라고 말할 때는 20세기 미국에서의 운동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A. 고대의 운동들

유대인들 사이에 공식적인 견해차가 있었다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아마 마카비 반란(Maccabean revolt) 때일 것이다. 마카비 반란은 하눅카(Chanukkah)¹³⁾ 이야기의 근거가 된다. 그 때 이스라엘 땅은 비교적 호의적인 헬라제국의 지배아래 있었고, 헬라문화에 깊이 영향을 받고 있었다. 헬라화 하는 유대인들은 하시딤(Chasideans, 근대운동의 하시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으로 알려진 종교전통주의자 그룹에 의해서 반발에 부딪혔다. 세루키드 헬라인들이 유대인들을 억압하기 시작하자, 전쟁이 일어났고,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에 대항하여 하나로 뭉쳤다.

전쟁은 25년간 지속되었고, 유대인들은 같은 목적아래 하나로 뭉쳐 있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후, 유대인들은 세 그룹들, 즉 에센인들(Essenes), 사두개인들(Sadducees/Tzedukim), 바리새인들(Pharisees)로 나뉘어졌다.¹⁴⁾

에센인들은 엄격한 수련에 전념한 신비적 금욕주의자들이었다. 그들은 세상을 등진 외딴 곳에서 살았다. 사해문서 두루마리들(Dead

12) 번역 및 역자 주: 조동호 목사.

출처: <http://www.jewfaq.org/movement.htm>

13) 역자 주: 빛들의 축제 혹은 수전절.

14) 역자 주: 역사는 우리들에게 전쟁 또는 박해시대가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관련 집단이나 국가에 분열이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Sea Scrolls)은 에센의 한 분파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것으로 믿어진다. 일부 학자들은 초기 기독교가 에센인들의 은둔적이고 신비적인 가르침들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믿는다.

사두개인들은 유대교의 헬라적인 요소들에서 발전하였다. 이 운동은 유대사회의 제사장들과 귀족들로 구성되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보수주의자들이었지만, 사회적으로는 자유주의들이었다. 사두개인들은 성문 토라의 엄격하고 협소한 불변의 해석을 믿었다. 그들은 구전 토라를 믿지 않았다. 성전과 제사예배들은 그들 예배의 중심에 있었다. 사회적으로 그들은 헬라문화에 동화하는 쪽을 택하였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성문 토라와 구전 토라 모두를 주셨다고 믿었다. 성문 토라와 구전 토라는 동일한 구속력을 가졌고, 랍비들과 충분한 교육을 받은 자들의 결정에 따라서 재해석되어질 여지가 열려 있었다. 바리새인들은 토라 연구와 모두를 위한 교육에 헌신하였다.

유다 도(道)가 로마제국에 정복되고, 로마와의 긴장들이 쌓여가기 시작한 후, 제4의 그룹인 열심당원들(Zealots)이 나타났다. 열심당은 기본적으로 민족주의 운동이었지, 종교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로마에 대항하여 전쟁하기를 좋아하였고, 로마의 지배아래 있는 것보다 죽는 것을 더 선호하였다. 그들은 포로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자살을 택할 것이었다. 열심당원들의 가장 유명한 사례는 마사다 요새를 방어한 자들이었다. 그들은 로마의 제10군단에 대항하여 수개월간 요새를 지켜냈고, 중국에는 항복하지 않고 자살하였다.

바리새학파의 사상만이 성전멸망이후 살아남았다. 열심당원들은 제1차유다-로마전쟁 때 전멸하였다. 사두개인들은 그들 종교의 중심이었던 성전 없이 살아남을 수 없었다. 그 수가 결코 많지 않았던 에센인들은 로마군에 의해서 분명히 살해되었다. (그들은 외딴 곳에서 공동체들을 이뤘기 때문에 쉽게 발견되었다.)

성전멸망이후 수 세기 동안 유대교 내에 견해의 차이는 크게 형성되지 않았다. 유대교는 유대교였다. 그것은 오늘날 정통주의 유대교로 알려진 것과 기본적으로 같았다. 동유럽의 아쉬켄나지(Ashkenazic) 유대인들과 스페인과 중동의 세파르디(Sephardic) 유대인들 사이에 실

천과 관행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들이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이들 차이들은 대단한 것이 못했다.

주후 9세기 동안에 여러 분파들이 일어났고, 구전 토라의 존재를 부정하였다. 이들 분파들은 카라인들(Karaites, 문자적으로, '성서의 사람들')로 알려진 자들로부터 왔다. 그들은 랍비유대교(Rabbanites or Rabbinical Judaism)와 구별되었다.

B. 카라인들과 랍비유대교인들

카라인들(Karaites)은 랍비들의 해석을 인정하지 않고, 성서의 엄격한 문자적 해석을 따랐다. 그들은 랍비들의 율법이 하나님께서 전수 하셨던 구전 전통의 일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지도 않았으며, 현인들이 지어낸 것일 뿐이라고 믿었다. 따라서 랍비들의 가르침은 유한한 인간들이 쓴 어떤 문서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결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랍비유대교인들과 카라인들 사이의 가장 혼한 차이는 안식일에 관한 것이다. 카라인들은 성서가 안식일에 불을 밝히는 것을 특별히 금한다고 보았고,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 날 집에 불을 밝히지 않는다. 다른 한편, 랍비유대교인들은 안식일이 되기 전에 불을 밝힌 다음 그 불을 안식일 동안 그대로 두도록 허용한 랍비들의 해석을 따랐다. 카라인들은 역시 안식일 날 성행위를 금했지만, 랍비유대교인들은 안식일 날이 성행위를 가질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하였다. 또 카라인들은 랍비유대교인들과는 약간 다른 월력을 사용한다.

카라인들에 따르면, 이 운동은 한 때 유대인들의 40퍼센트가 따를 만큼 인기가 있었다. 오늘날 카라인들은 매우 작은 소수집단이며, 대부분의 랍비유대교인들은 그들이 존재하는지조차도 모른다.

C. 하시딤과 미트나그딤

1700년대에 근대 운동들의 최초의 것이 동유럽에서 발전하였다. 하시딤(Chasidism)으로 알려진 이 운동은 이스라엘 벤 엘리에제르 (Israel ben Eliezer)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이 이름은 바알 쉘 토브 (Baal Shem Tov) 혹은 베쉬트(the Besht)로 더 잘 알려져 있다. 하시

딤 전에, 유대교는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방법의 교육을 강조하였다. 하시딤은 다른 것, 즉 하나님께 도달하는 대안적인 루트들로써 좀 더 개인적인 경험들과 신비주의를 강조하였다.

하시딤이 설립되었을 당시에는 급진적인 운동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유대교 입장을 따르는 자들로부터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하시딤을 반대한 자들은 미트나그딤(mitnagdim, 반대자들)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하시딤과 미트나그딤 사이의 논쟁들은 종종 치열하였다. 오늘날 하시딤과 미트나그딤은 진보적인 근대 운동들에 대항하는 일에 있어서 비교적 연합하고 있다. 정통주의(Orthodoxy)와 심지어 오늘날의 유대교의 진보적인 운동들조차도 하시딤의 가르침들에 강력한 영향을 받아왔다.

하시딤 분파들은 랩베(Rebbe) 혹은 짜드딕(tzaddik)이라 불리는 영적인 지도자, 곧 다른 유대인들보다 더 교화된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을 중심으로 조직된다. 하시드(Chasid)는 그의 모든 중요한 삶의 결정들에 관해서 그의 랩베와 상의한다.

D. 오늘날 미국에서의 운동들

전 세계 1천 3백만 유대인들 가운데 대략 5백만 명이 미국에 살고 있다. 오늘날 미국에는 기본적으로 세 개의 큰 운동들이 있다. 개혁주의(Reform), 보수주의(Conservative), 정통주의(Orthodox)가 그것들이다. 어떤 사람들은 네 번째의 운동으로 재건주의(Reconstructionist) 운동을 또한 포함시킨다. 재건주의는 다른 운동들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더 작다. 정통주의와 때때로 보수주의는 전통적 운동들로 기술된다. 개혁주의와 재건주의 그리고 종종 보수주의는 진보주의 혹은 근대 운동들로 기술된다.

전통주의는 실제로 몇 개의 다른 그룹들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할라카(유대인 율법)를 지속적으로 지키면서 근대 사회 속으로 크게 통합된 근대 정통주의, 분리된 삶을 살면서 독특한 차림을 하는 하시딤 (이들을 미디어에서 흔히 극단적 정통주의라 부르지만, 잘못이다) 그리고 하시딤도 아니고 근대 정통주의도 아닌 예쉬비시 정통주의(Yeshivish Orthodox)가 있다. 정통주의 운동들은 믿음에 있어서 모

두 매우 흡사하다. 정통주의가 아닌 사람은 이들 사이의 차이들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전체 토라를 주셨다고 믿고 있다. 전체 토라는 성문 토라(모세오경), 성문 토라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구전인 구전 토라를 모두 포함한다. 그들은 토라가 진실하며, 온전하고 변개(變改) 없이 전수 되었다고 믿는다. 그들은 토라가 비유대인에게는 상관없지만, 유대인들을 구속하는 613개의 미츠보트(mitzvot, 계명들)를 담고 있다고 믿는다. 필자는 근대 정통주의 견해를 가지고 이 글을 쓰고 있다. 유대 연맹 위원회에 의해서 수행된 2000년 전국 유대인 인구조사(NJPS)는 미국 유대인들의 10퍼센트가 그들 자신들을 정통주의와 동일시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숫자는 회당에 소속된 유대교인들의 22퍼센트를 차지한다.

개혁주의 유대교인들은 토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개혁주의 유대교인들은 자료설과 편집설과 같은 성서 저작권에 관한 비평적 이론을 수용한다. 따라서 개혁주의 유대교인들은 계명들의 준수를 믿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교의 가치들과 윤리들의 상당부분을 일부 관행들과 문화들과 더불어 지킨다.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미국 개혁주의 유대교의 견해들은 '피츠버그 강령'(Pittsburgh Platform)에 정립되어졌다. 계명들을 지키지 않거나 명목상의 또는 불가지론적인 유대인들의 상당수가 그들 자신들을 개혁주의자와 동일시한다. 그 이유는 단순히 개혁주의가 가장 진보적인 운동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전반적으로 그 운동을 정말 공정하게 반영한 것이 아니다. 전국 유대인 인구조사(NJPS)는 미국 유대인들의 35퍼센트가 그들 자신들을 개혁주의자와 동일시한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회당에 소속된 유대교인들의 39퍼센트를 차지한다. 미국과 캐나다에 대략 900개의 개혁주의 회당들이 있다.

보수주의 유대교는 정통주의와 개혁주의 사이의 긴장 속에서 성장하였다. 비록 그것이 18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미국 유대인 신학대학원에 뿌리들을 두고 있지만, 1913년 솔로몬 셰흐터(Solomon Schechter) 박사에 의해서 보수주의 유대교 연합회당으로써 공식적으로 조직되었다. 보수주의 유대교는 진리들이 유대인 성서 속에서 발

견되었고, 다른 유대인 저술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나 인간들에 의해서 전달되었으며, 인위적 성분을 담고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보수주의 유대교는 일반적으로 할라카의 구속력을 수용한다. 그러나 율법은 두드러진 문화의 측면들을 흡수함으로써, 물론 유대교의 참가치들은 보존되어야 하지만, 바뀌어야 하고 채택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필자의 경험으로 볼 때, 보수주의 회당들에 사이에는 상당한 다양성들이 상존한다. 어떤 유대인들은 보수주의자들이 개혁주의자들보다 히브리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빼고서는 개혁주의와의 차이점을 구별하지 못한다. 다른 유대인들은 남녀가 함께 동석하는 것을 빼고서는 실천적으로 정통주의와 다를 것이 없다고 본다. 보수주의는 형식에 있어서 항상 그렇지 않을지라도 대부분은 실질적으로 전통적이다. 이 융통성이 보수주의 유대교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고, 그들 자신들의 '원리들 성명서'(Statement of Principles)인 '에메트 베-에무나'(Emet ve-Emunah)에서 발견될 수 있다. 전국 유대인 인구조사(NJPS)는 미국 유대인들의 26퍼센트가 그들 자신들을 보수주의자로 동일시하며, 회당에 소속된 유대교인들의 33퍼센트를 차지한다. 오늘날 전 세계에 대략 750개의 보수주의 회당들이 있다.

재건주의자 유대교는 학문적으로 보수주의의 부산물이다. 그러나 재건주의 유대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교 운동들을 분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통주의나, 진보주의나, 계명을 준수하느냐, 준수하지 않느냐의 연속성에 깔끔하게 들어맞지 않는다. 재건주의자들은 유대교가 일종의 "진화하는 종교적 문명"이라고 믿는다. 그들은 역사 속에서 활동하는 의인화된 신을 믿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로써 재건주의가 개혁주의의 좌파란 것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재건주의는 개혁주의 유대교보다는 유대교전통의 준수를 더 크게 강조한다. 재건주의자들은 할라카를 지킨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강제법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가치 있는 문화적 유산이기 때문이며, 그들이 지키겠다고 선택하면 지킨다. 재건주의는 매우 작은 운동이지만, 숫자에 걸맞지 않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십중팔구 크기에 걸맞지 않게 많은 수의 재건주의자들이 유대인 대학 학생조직들과 유

대인 공동체 센터들에서 랍비로 일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이 대학과 공동체 센터에서 재건주의 랍비를 갖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유대인 인구조사(NJPS)는 미국거주 유대인들의 약 2퍼센트만이 그들 자신들을 재건주의자로 동일시한다. 재건주의자 숫자는 실제로 매우 작아서 전국 유대인 인구조사(NJPS)는 통계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주의를 당부한다. 전 세계에 1백 개미만의 재건주의자 회당들이 있다.

비록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다른 운동권들의 회당에서 기도회를 갖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신학적인 반대 입장을 취하지는 않지만, 전통적인 유대인들에게 진보주의 예배들은 충분히 '신앙적'이지 않거나 충분히 '유대교'적이지 않다. 그리고 전통적인 예배들은 너무 길고, 너무 보수적이고, 종종 진보주의 유대인들에게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예배들은, 배타적이지 않으면, 히브리어로 드리는 것이 우선이다.) 일부 전통주의자들은 진보적인 예배들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남녀가 섞여서 앉기 때문이며, 진보주의 기독서가 필수적인 기도들을 많이 삭제하였기 때문이다.

필자는 개혁주의, 보수주의, 정통주의 회당들에서 예배들을 드려보았다. 예배의 길이와 언어와 낭독 자료의 선택에 실질적인 차이들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구조는 놀랍게도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E. 오늘날 이스라엘에서의 운동들

이스라엘에 대략 5백만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 정통주의가 이스라엘에서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유일한 운동이다. 매우 최근까지 오로지 정통주의 유대인들만이 종교협의회들에서 일할 수 있었다. 이스라엘에서는 정통주의 랍비만이 결혼, 개종, 이혼과 같은 개인의 지위문제들을 다룬다.

미국의 다른 운동들이 이스라엘에서 어느 정도의 모습을 비추고는 있지만,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 자신들을 공식적으로 미국의 운동들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직화된 운동의 회원이라는 방식보다는 좀 더 일반적으로 그들이 어느

정도 유대교 전통들을 지키고 있는가라는 방식으로 그들 자신들을 기술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그들 자신들을 힐로니(hiloni, 세속주의)로 기술한다. 대략 15-20퍼센트가 그들 자신들을 하레디(haredi, 극단적 정통주의) 혹은 다티(dati, 정통주의)로 기술한다. 나머지는 그들 자신들을 마소르티(masorti, 전통적으로 유대교 전통들을 지키지만, 정통주의만큼 교조적이지 않다.)로 기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마소르티와 힐로니가 미국에 있는 동급의 유대인들보다 유대교 전통들을 더 많이 지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힐로니는 안식일 촛불을 밝히고, 안식일에 활동들을 제한하며, 일정한 선까지는 코쉬를 지키는 등의 제한적인 방법으로 일부 전통적인 관행들을 종종 지킨다. 그 같은 것들은 미국의 개혁주의 유대인들 사이에서 드문 일이며, 그들 자신들을 세속주의로 기술한 미국 유대인들 사이에서 들어보지 못하는 일이다.¹⁵⁾

F. 오늘날 영국에서의 운동들

영국에 유대인들이 35만 정도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들 가운데 대략 20퍼센트가 서로 다른 운동들인 개혁주의자들이거나 진보주의자들이다. 또 마소르티라 불리는 작지만 활동적인 보수주의 운동이 있다. 이들은 미국의 보수주의 운동과 동일한 기도서를 사용한다. 루바비처 하시딤(Lubavitcher Chasidim)도 영국에서 활동적이고 성장하고 있다.

영국의 진보주의 운동들은 미국의 개혁주의 운동보다 일반적으로 더 전통적이다. 예를 들면, 영국의 개혁주의 운동은 미국의 진보주의 운동이 하는 것처럼 부계혈통을 수용하지 않는다.¹⁶⁾

15) 역자 주: 이스라엘에서 거주하다가 돌아온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스라엘에 힐로니 세속주의자들이 60퍼센트를 차지한다고 한다.

16) 역자 주: 오늘날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모계혈통을 수용하고 있다.

부록6. 카발라와 유대신비주의(Kabbalah and Jewish Mysticism)¹⁷⁾

비유대인들이 유대주의에 대해서 물을 때, 그들은 보통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한다. “당신은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천사들과 마귀를 믿습니까? 사후에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우주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 같은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대부분 종교들의 입장을 명시한다. 실제로 본인은 종교의 목적이 이런 유의 질문들을 대답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주의에서는 대부분의 이들 우주론적 이슈들에 관해서 사건들을 폭넓게 수용하는 편이다. 이들 이슈들을 가장 심도 있게 다루는 유대사상의 분야들, 곧 카발라(Kabbalah)와 유대신비주의는, 사람들이 토라(모세오경)와 탈무드 교육을 마치는 때인 나이 40이 될 때까지 전통적으로 또 심지어 사람들에게 교육되지 않았다.

신비주의와 신비적 경험들은 일찍부터 유대주의의 일부분이 되어 왔다. 토라는 천사들의 방문으로부터 예언적 꿈과 비전들에 이르기까지 신비적 경험들의 이야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 탈무드는 영혼의 존재와 육체에 거주하게 되는 때를 고려한다. 유대전통은 모든 유대인들의 영혼들이 토라를 받던 시기에 존재했었고 그곳에 있었으며 시내산 계약에 동의했다고 말한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연옥과 같은 장소들, 방랑하는 영혼들과 윤회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다. 탈무드는 고급반 학생들에게만 가르쳤고 기록으로 남기기 아니한 신비학교 사상의 명확하지 않은 암시들을 포함한다. 당대에 신비사상의 두 가지 주요 주제들인 창조사역(ma'aseh bereishit)과 에스겔 환상에 등장하는 전차(병거)사역(ma'aseh merkavah)을 다룬 고대자료들에는 다수의 참고서들이 있다.

중세기에 이들 신비주의 가르침의 상당수가 소하르(Zohar)처럼 열성적으로 책으로 기록되었다. 이들 저술들 가운데 상당수가 고대비밀저술이나 고대비밀저술의 편찬으로 주장되었다.

17) 번역: 조동호 목사. 출처: <http://www.jewfaq.org/kabbalah.htm>

유대인 신앙의 대부분의 주제들처럼 신비주의 분야도 개인적인 해석에 폭넓게 열려있다. 일부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신비주의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드린다. 신비주의는, 예를 들면, 카시디주의 유대인들(Chasidic Judaism: 문자적으로 ‘경건’이란 뜻이며, 비유대인 세계와는 다른 생활상을 유지하는 정통주의 유대인들의 한 분파이다.)의 불가결한 부분이다. 그리고 카발라 자료들의 구절들은 전통적 기도서들에 감초처럼 포함된다. 다른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소금알갱이로 신비주의를 취한다. 한 유명한 정통주의 유대인은 유대신비주의의 주제에 관한 강연자를 소개할 때, 근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것은 난센스다. 그러나 그것은 유대인의 난센스다. 그리고 유대인에 대한 무언가의 연구는 난센스조차도 가치 있는 일이다.”

신비주의학교 사상은 카발라(Kabbalah)로 알려지게 되었다. 카발라는 히브리어 어근 ‘코프 베틀 라메드’(Qof-Bet-Lamed), 곧 “받는 것, 수용하는 것”이란 뜻에서 왔고, 언제나 “전통”이란 말로 번역된다. 히브리어로 이 말은 영어단어가 뜻하는 바와 같은 어둡고, 불길하고, 악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예를 들면, 영어 단어 “카발”(음모자들의 비밀집단)은 카발라란 히브리어에서 유래하였으나 히브리어 단어에나 신비주의교리 어느 것에도 유대인들에게 악의적인 뜻을 갖지 않는다.

A. 카발라: 오해받는 교리

카발라는 가장 총체적으로 오해받고 있는 유대주의 관련부분들 가운데 하나이다. 필자는 비유대인들로부터 몇 개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들은 카발라를 악하거나 사악한 마술로 기술하면서 “유대주의의 어둔 부분”으로 기술하였다. 또 다른 한편의 스펙트럼에서 필자는 여러 유대인과 비유대인 저명인사들에 의해서 보급된 멋진 교리에 대해서 좀 더 배워보기를 원한다는 메시지들을 많이 받는다.

이들 오해들은 카발라의 가르침이 신비주의자들과 밀교주의자들에 의해서 지나치게 왜곡되어왔다는 사실에 크게 기인한다. 카발라는 르네상스와 계몽주의 시대에 기독교 지성인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하였다. 그들은 카발라의 교리들을 기독교 교리에 알맞게 재해석했다.

좀 더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타로카드(78매 한 별의 이탈리아식 카드)점치기와 기타 형태의 점과 마술에 사용하기 위해서 문맥에 맞지 않게 카발라의 상징성을 왜곡시켜왔다. 이런 것들은 본래의 유대인 가르침과는 전혀 무관한 것들이다. 오늘날에는 잘 알려진 많은 인사들이 카발라의 뉴에이지 팝-심리학 왜곡을 대중화시켜왔다. <필자는 그것을 “크랩-발라”(crap-balah)란 말로 조롱하는 소리로 언급되는 것을 들었다.> 그것은 카발라의 언어와 유대인 민속미신들의 형태들을 차용하고 있으나 그것의 중심에는 어떤 믿을만한 유대인 자료에서보다는 디팩 초프라(Deepak Chopra, ‘심신의학의 창안자’로서 「마음의 기적」이란 책을 씀.)의 저술들이 보편적으로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마술이 카발라의 일부분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마술로 기술될 수 있는 방법들로 세상에 영향을 줄 숨겨진 지식의 사용을 연루시킬 많은 전통적인 유대인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다. 탈무드와 다른 자료들은 많은 유명 랍비들에게 초자연적인 활동이 있다고 한다. 어떤 랍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대중적 관심을 모으는 큰 이슈들에 관해서 하나님과 천사들의 조언을 얻기 위해 천국에 올라갔다. 한 학자는 하나님의 여러 이름들을 부름으로써 인조 인간을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훔썬 후의 이야기들은 진흙(a golem)으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쓴 종이를 그것의 입에 가져다댄으로써 생명을 갖게 한 랍비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나 카발라의 이 분야는(만약 진실로 그것이 전설 자체 그 이상이라면) 보통의 유대인이나 심지어 보통의 랍비에 의해서 행하여진 어떤 것은 아니다. 그와 같은 지식과 능력의 추구를 위협하고 무책임한 것으로 깎아내리는 이야기들은 대단히 많다. 만약 “실천적 카발라”의 주제를 다룬 책들을 읽는다면, 그런 이야기들이 믿을만한 유대인 전통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 이야기들이 겉으로 나타날 때, 이런 유의 지식은 지나치게 위협해서 대중에게 마구잡이로 퍼지게 해서 안 된다는 것이 전통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이들 마술 효과들의 모든 것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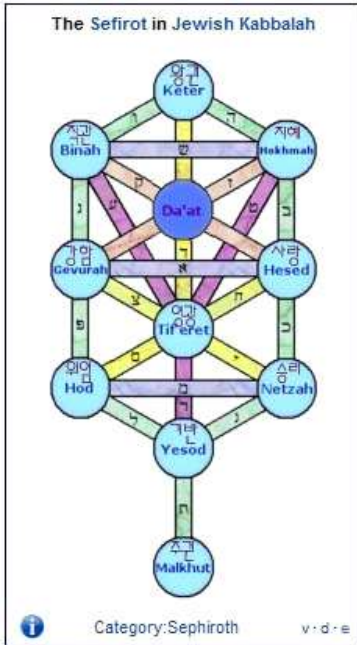
으로써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관행들은 선지자들의 기적이거나 기독교인들이 예수께서 행했다고 믿는 기적들이 나쁘지 않은 것처럼 나쁘지 않다. 실제로 신비주의에 기울고 있는 필자의 몇몇 친구들에 따르면, 예수는 에센파로부터 배운 카발라인 기술을 써서 기적을 행했다고 한다. 에센파는 신비주의를 취했던 당대의 유대인 분파였다.

B. ‘아인 소프와 열 가지 세피롯’(Ein Sof, the Ten Sefirot)

카발라의 본질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자는 카발라인 사상의 근본개념들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하나님의 개념과 카발라인 생명나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이 설명은 전체내용을 지나치게 축소시킨 것에 불과하다. 필자는 이들 사상들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체 하지는 않는다.

카발라에 따르면, 하나님의 참된 본질은 매우 초월적이어서 무엇이 아닌가에 대한 참고사항을 제외하고는 기술될 수 없다. 하나님의 이 참된 본질은 ‘아인 소프’(Ein Sof)로 알려져 있다. 아인 소프는 문자적으로 “끝이 없는”이란 뜻이며, 하나님께서는 시공(時空)의 경계가 없는 분이란 개념을 담고 있는 말이다. 이 가장 참된 형식에서 아인 소프는 매우 초월적이어서 우주와 어떤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가질 수 없다. 아인 소프는 이 본질로부터 열 가지 ‘세피롯’(the Ten Sefirot)으로 알려진 열 가지 발산들(emanations)을 통해서 우주와 상호작용한다.

이 세피롯은 하나님의 특성들에 일치한다. 그것들은 위에서 아래의 순서로 케테르(Keter, 왕권), 호크마(Chokhmah, 지혜), 비나(Binah, 직관, 이해), 헤세드(Chesed, 사랑) 또는 게둘라(Gedulah, 광대함), 게부라(Gevurah, 권능, 강함), 티페렛(Tiferet, 영광), 네짜흐(Netzach, 이김, 승리), 호드(Hod, 위엄, 존엄), 예소드(Yesod, 기반) 그리고 말쿠트(Malkut, 주권)로 구성된다. 중앙의 다섯 개의 특성들은 역대상 29장 11절에 명시적으로 또 순서대로 언급되어 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gedulah)과 권능(gevurah)과 영광(tiferet)과 이김(netzach)과 위엄(hod)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필자는 폭넓고 다양



한 방법으로 번역된 이 구절을 보아왔다. 그러나 히브리어는 세피롯의 이름과 순서에 일치한다.

열 개의 세피롯은 남성과 여성의 특성들을 모두 포함한다. 카발라는 하나님의 여성적인 측면들에 크게 관심을 기울인다.

세피롯은 위의 도식에서와 같이 흔히 표현된다. 이 도식은 세피롯의 나무 또는 카발라인의 생명나무로 흔히 알려져 있다. 이들 여러 가지 특성들의 위치와 그것들의 상호연결성에 대단한 의미가 있다.

세피롯은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취함으로써 생각하는 것처럼 분리된 신성들이 아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과 밀접한 부분들이다. 세피롯은 인간성을 포함해서 우주에 있는 모든 것과 연결한다. 우리가 행하는 선악은 세피롯을 통해서 울려 퍼지며, 하나님 당신을 포함해서 전 우주에 영향을 미친다.

C. 권장 도서들

이 분야의 독서는 극도의 조심성을 가지고 이뤄져야한다. ‘카발라’란 이름으로 된 문서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많고, 또 이들 대부분이 이 주제와 관련된 참된 유대인 가르침들과는 거리가 멀거나 전혀 관련이 없는 것들이다. 실천적 카발라의 주제에 관한 어떤 책도 즉각 무시되어야 한다. 어떤 합법적인 인물(자료)도 얼굴을 모르는 대중이 접할 수 있는 그 같은 가르침을 일찍이 준적이 없다.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쓰인 책들은 극도의 의구심을 가지고 읽혀야 한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 인물(자료)들이 카발라를 기독교 교리에 알맞게 재해석해왔기 때문이다.

카발라를 소개하는 훌륭한 온라인 코스가 카발라 101에 있는 아이

쉬 하토라(Aish Ha-Torah)¹⁸)를 통해서 접해볼 수 있다.

유대신비주의와 카발라에 관한 학문적이고 학술적인 정보를 얻기 원한다면, 게르솜 스킨(Gershom Scholem) 교수의 저술들을 읽기를 바란다. 스킨 교수는 이 주제에 관해서 많은 글을 남긴 학자이고, 그의 저술들은 유대인과 비유대인 모두에게 폭넓게 읽히고 있고 인정을 받고 있다. 수십 권의 그의 저술들은 아마존닷컴(amazon.com)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다. (참고로 아마존닷컴에서 현재 판매되는 게르솜 스킨의 저술은 85여권에 이른다.)

유대신비주의와 카발라에 사적으로 또는 경험적으로 좀 더 접근해 보기를 원한다면 아웨 카프란(Aryeh Kaplan)의 저술들을 접해 보기를 바란다. 그의 책들은 타협 없는 믿을만한 정통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알고 있다. 필자는 묵상과 기도, 특히 유대인 묵상에 관한 그의 책들을 찾아냈다. 그의 책들은 특별히 필자 자신의 경건실천에 유익한 것들이다. (참고로 아마존닷컴에서 현재 판매되는 아웨 카프란의 저술은 64여권에 이른다.)

물론 당신이 카발라를 진지하게 배워보고 싶다면, 지도교사를 찾아서 개인지도를 받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차근차근히 배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18) 사이트주소: <http://aish.com/spirituality/kabbala101>

부록7. 유대교인의 하나님과 이름들¹⁹⁾

A. 유대교인의 영성

고대 유대인들은 타 민족들이 갖지 못한 심오한 영성을 갖고 있었다. 그들이 발견한 하나님은 타민족들의 우상 신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타민족의 신들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숨 쉬지 못하는 죽은 신들이었다면,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살아서 활동하시는 천지를 지으신 유일신이였다. 따라서 유대교에는 타종교들에서 발견되는 신들의 형상도 신화도 여성 사제도 없었고, 신전도 예루살렘에 단 한 개만 있었으며, 성소에는 일반사람들의 출입이 허락되지 않았다. 타민족들은 많은 신들을 갖고 있었고, 그 형상들을 등에 새겼지만, 유대인들은 단 한번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형상을 어떤 형태로든 만들지 못하도록 제2계명에 명시했다. 사람의 손으로 새길 수 있는 것은 신이 아니다. 참신은 영이시고 신비에 쌓여있어서 그 형체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었고, 말씀으로만 인간과 관계하시는 하나님이였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 점을 인정하여 말하기를, “그들은 확실히 무상(無上)의 정신적 통찰력을 타고난 민족이었다.”고 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형체를 갖지 못한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갖고 있었다. 유대교는 말씀의 종교이다. 유대교인들이 하나님의 보좌라 믿었던 법궤 속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건네주신 토라가 있었다. 그들의 종교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귀로 듣고 온몸으로 행동에 옮기는 실천종교였다. 따라서 유대교에는 유대교인이 되기 위해서 알아야할 교리(dogma)도 신앙고백서도 없다. 유대교에 믿음의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유대교에서는 교리보다는 실천적 행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유대인들은 절대적이고 영속적인 진리와 유일하신 참신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유일신을 그들 민족의 신으로 독점해버렸다. 하나님이 타민족들의 신이 되는 것을 거부하였다. 한분밖에 없는 신을

19)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독점해 버렸으니, 타민족들에게 참신이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다. 이 신(神)의 독점의식의 절정이 예루살렘 성전이였다.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이스라엘에는 단 한 개의 성전만 허락하였다. 그나마도 하나님을 지성소에 묶어뒀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체사장이 일 년에 단 하루 법궤 앞에서 두어 차례 독대할 수 있었다. 보통사람들은 성전내부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의 유일신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해방되신 것은 바빌로니아 군대의 침략에 의해서였다. 성전은 능욕되었고, 백성은 모두 포로가 되어 바빌로니아에 끌려갔다. 이 치욕적인 사건이 있고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은 성전 지성소에서 해방되셨다. 성전이 붕괴되고 바빌로니아에 끌려간 이후로는 더 이상 성전예배가 불가능하였다. 예루살렘에 단 한 개의 성전만을 허용한 도그마 때문에 바빌로니아에 불법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때 비로소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이 더 이상 성전에 갇혀 계시지 않고, 그들이 머문 곳이면 어디에든지 함께 하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짓지 못하는 대신에 회당을 짓고 그곳에 모여서 성전에서 드렸던 제사예배의 횡수만큼 하루 세 번 이상 기도회를 가졌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시지 않고, 먼 바빌로니아에도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B. 유대교인의 믿음의 원리들

유대교는 교리의 종교가 아니라, 행동적인 실천종교이기 때문에 신앙고백서가 없다. 가장 널리 수용되고 있는 유대교 신앙은 중세의 유대교 랍비 람밤(Rambam, Maimonides)이 정리한 열 세 개의 믿음의 원리들이다.

1)하나님은 존재하신다. 2)하나님은 한분이시고 유일하시다. 3)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시다. 4)하나님은 영원하시다. 5)기도는 오직 하나님께 직통으로 연결되고 다른 누구에게도 연결되지 않는다. 이 5번은 기독교의 성자 그리스도님과 성령 하나님을 부인하는 내용이다. 여호와증인들의 주장이 바로 이 유대교인들의 주장과 같은 단독신론이다. 기독교가 초대교회 때로부터 지금까지 앓고 있는 병들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유대교적 기독교의 가르침이다. 여기에는 여호와증인들과 안식일교인들, 예수님을 장차 오실 자 메시아로 믿는 유대기독교인들 뿐 아니라, 성직을 사제적으로 착각하는 권위주의자들, 남성우월주의자들, 신약성서보다는 구약성서에 더 집착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포함된다. 6)예언자들의 말씀은 진실하다. 7)모세의 예언들은 진실하다. 모세는 예언자들 가운데 가장 위대하였다. 8)성문 토라 즉 모세오경과 구전 토라 즉 탈무드와 기타 문서들에 포함된 율법들이 모세에게 주어졌다. 이 8번과 관련해서 개신교가 유대교나 가톨릭교와 다른 점은 구전과 외경을 인정하지 않는 데에 있다. 참다운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구약성서에 기초한 유대교적 기독교를 버리고, 신약성서에 기초를 뒀야 한다. 9)성문 토라와 구전 토라 이외에 다른 토라는 없다. 10)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아신다. 11)하나님은 선한 사람들을 보상하시고, 악한 사람들을 벌하신다. 12)메시아는 오실 것이다. 이 12번과 관련해서 유대교인들은 2천 년 전에 이미 오신 메시아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13)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다. 13번의 죽은 자의 부활은 12번의 메시아사상과 맞물려 있다. 메시아가 통치하는 때가 오면 신정국가가 예루살렘 시온에 세워질 것이고, 성전과 제사예배가 재건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들 13개의 기본적인 일반적인 원리들을 모든 유대인들이 다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유대교에는 정통주의자들, 보수주의자들, 진보주의자들이 있어서 주장하는 것이 조금씩 다르다. 또 전 세계에 흩어진 1400만 유대인들 가운데 신앙을 가진 자는 40퍼센트를 밑돈다.

이들 13개의 신앙의 원리들을 따르는 유대교인들은 메시아 왕국이 재건되면, 토라(모세오경)에 실린 613개의 모든 계명들을 다 지키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오늘날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성전과 성전제사들과 예배들에 관련된 계명들은 지키지 않는다. 범법 절차들에 관한 계명들도 지키지 않는데, 그 이유는 아직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고, 그가 오셔서 세울 신정국가가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그들은 1948년 5월 14일 팔레스타인에 건국된 이스라엘 나라는 세속국가이며, 신정국가가 아니라고 말한다. 신정국가가 되는 때는 메시아가 오시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

제사와 성전예배가 재건되며, 세계가 유대교를 국교로 삼고 이스라엘 국가의 통제아래 놓이는 때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스라엘이 아직 회복되지 못했다고 믿는다. 이런 주장은 이미 메시아가 오셨고, 그 분이 세운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의 신정국가란 사실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C. 유대교인의 하나님

유대교인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가르치는 내용은 열 가지 정도가 된다. 1)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것(출 20:2; 신 5:6). 2)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이 존재한다거나 그 신이 영원하다는 개념을 수용하지 말 것(출 20:3). 3)신성모독하지 말 것(출 22:28). 4)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것(레 22:32). 5)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말 것(레 22:32). 6)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과 완전한 일체이신 것을 알 것(신 6:4). 7)하나님을 사랑할 것(신 6:5). 8)하나님을 경외할 것(신 6:13, 10:20). 9)하나님을 시험하지 말 것(신 6:16). 10)하나님의 선하시고 옳은 방법은 본받을 것(신 28:9, 비교 엡 5:1). 유대인들에게는 열거한 몇 가지 개념들 말고는 어떤 공식적이고 결정적인 교리가 없다. 유대교인들은 믿음의 교리보다는 실천적 행동에 더 큰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유대교의 큰 업적은 하나님을 관계의 신으로 이해한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떠돌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이삭과 야곱과 노동의 착취 속에서 고통당하던 조상들에게 찾아오셨다. 조상들을 독수리 날개에 업어 홍해를 건너게 하였고, 약속의 땅을 안식처로 주셨다. 이처럼 초월적이고 인간의 영역밖에 계신 타자로서의 하나님을 인간세계에 끌어들이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자기 민족과 깊은 관계, 마치 남녀가 만나 사랑을 키운 후에 결혼서약을 통해서 부부가 되는 것처럼, 자기 민족을 택하여 선민을 삼으신 하나님으로 이해하였다.

이처럼 유대교인들은 관계들(relationships), 즉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 하나님과 유대민족의 관계, 유대민족과 이스라엘 땅의 관계, 인류와 인류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성서는 이들 관계들의 발전, 즉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형성을 거쳐 하나님과 유대민족의 관계형성과 그 이후의 관계들에 대해서 전한다. 또한 성서는 이들 관계들에 의해서 형성된 상호의무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정통주의 유대교인들은 이들 실천적 행동들에는 랍비들에 의해서 제정된 게자이라 율법들 즉 율타리법과 오랜 관행들, 그리고 토라에 하나님께서 주신 613개의 계명들이 있다고 믿고 있다.

유대교인들에게 있는 심각한 문제점은 하나님께서 주신 613개의 계명들을 지키는 데 있지 않고, 그 계명들이 가진 본래의 뜻과 취지에 어긋난 요상한 율타리 법들을 셀 수 없이 많이 만들어 오랜 관행으로 지키는 데 있다. 신약성서에서 문제를 삼았던 유대교의 율법주의의 문제점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에 있지 않고 랍비들이 만든 이들 율타리율법들에 있었다. 유대인들의 신관을 한걸음 더 발전시킨 것은 기독교였다. 기독교는 이스라엘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온 인류 가운데 계시고, 인류의 역사를 이끌고 가시면서 섭리하시고 경륜하실 뿐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 오셔서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선포하였다. 바빌로니아 군대에 의해서 성전이 능욕되고, 백성이 포로가 되어 바빌로니아에 끌려가는 치욕적인 사건이 있고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서 해방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민족신(神)으로 속박되었던 하나님이 기독교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사랑을 쏟아 부으신 은총의 하나님으로 또 한 번의 해방을 맞으셨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단순히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에서 그치지 않고, 아바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아버지이시다.

D. 하나님의 이름 발음하기

고대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발음했는지 애석하게도 정확한 정보가 없다. 자음은 있는데 모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름은 있는데 발음이 없는 것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구약성서에 쓰인 고대 히브리어에 띄어쓰기가 없고, 모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히브리어에 모음이 생기고 띄어쓰기가 생긴 것은 주후 700년경이다. 참고로 신약성서에 쓰인 고대 헬라어에는 소문자가 없고 띄어쓰기가 없었다. 물론 장과 절의 구별도 없었다. 헬라어에 소문자가 생기고 띄어쓰기가 생긴 것은 주후 800년경이고, 성경에 있는 장구별은 주후 1228년, 절구별은 주후 1551년에 생겼다. 신구약성서가 기록된 때가 각각 2천년, 3천 년 전이지만, 장과 절의 구별이 생긴 것은 각각 5백년, 8백 년 전이다.

둘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벨론제국, 페르시아제국, 헬라제국, 로마제국에 차례로 편입되면서 6백여 년간 제국들의 유다 도(道)로써 그 명맥(命脈)을 유지해왔던 이스라엘은 그마저도 주후 70년에 멸망함으로써 성전도 함께 파괴되었고,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이름의 정확한 발음이 잊히게 되었다. 학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의 발음이 '야훼'(YaHWeH)였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그마저도 만장일치로 수용되는 것은 아니다.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지극히 거룩하게 다뤘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불경에 빠뜨리거나 계명에 불순종하게 하는 행동을 일컬어 '킬룰 하셈'(chillul Ha-Shem) 즉 '그 이름의 모독'이라 부른다. 또 하나님께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키두쉬 하셈'(kiddush Ha-Shem) 즉 '그 이름의 거룩함'이라 부른다. 행동의 옳고 그름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에 높임이 되기도 하고 모독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특별한 경외심으로 대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호칭하는 이름들은 유대교에서 엄격한 존경과 공경으로 다뤄진다.

넷째,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지 않기 시작한 것은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이후 탈무드가 기록되기 시작한 때부터였다.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다. 성서(토라)는 이것을 금하지 않는다. 오히려 성서는 하나님의 녀자(YHWH) 이름의 일부인 '야'(Yah)와 '야후'(Yahu)를 자주 쓰고 있고, 성전예배 때 실제로 발음되었다. 구전 토라인 미쉬나(Mishnah)도 발음을 금하

지 않았다. 그러나 탈무드(Talmud, 2-5세기)가 기록되던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들 대신에 다른 이름들을 쓰는 관행이 생겼다. 유대인들은 녀자를 발음하는 대신에 ‘아도나이’(Adonai, 주님)를 대신 쓰거나 그냥 ‘하셈’(Ha-Shem, 그 이름)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녀자 이름에 아도나이의 모음이 붙어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이름이 ‘여호와’(YeHoWaH)로써 16세기경부터 쓰이기 시작하였다. 유대인들은 다른 이름들도 관행적으로 발음하지 않는다. ‘아도나이’(Adonai)를 ‘아도셈’(Adoshem=Adonai+HaShem), ‘하셈’(Ha-Shem), 혹은 ‘엘로하이누’(Elohaynu, 우리의 하나님)로 바뀌어서 발음하고, ‘엘로힘’(Elohim)을 ‘엘로카이누’(Elokaynu, 대용명칭), ‘엘로킴’(Elokim, 대용명칭)으로 바뀌어서 발음한다.

E. 하나님의 이름들

하나님과 고대 이방신들과 비교해서 유대-기독교의 하나님은 종종 “이름이 없는 하나님”이란 말을 듣는다. 그러나 정확한 발음을 모를 뿐이지, 유대교는 하나님의 이름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할 뿐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들을 많이 갖고 있다.

하나님의 여러 이름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본명이라 할 수 있는 이름은 히브리어 알파벳 녀자(YHWH)로 된 이름이다 (tetragrammaton). 이것을 ‘야훼’로 발음 하는데, 확실한 이름은 아니다. 유대인들은 이 녀자 이름을 ‘입에 담아서 안 될 이름’(Ineffable Name), ‘발음할 수 없는 이름’(Unutterable Name) 혹은 ‘특출한 이름’(Distinctive Name)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녀자 이름은 언어학적으로 볼 때, ‘존재하다’(to be, Hei-Yod-Hei)와 관련이 있고, 하나님의 존재가 영원하시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의 질문에 대답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또는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녀자 이름의 히브리어 어근이 갖는 뜻이다.

성서에서 이 이름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논할 때, 하나님의 자애하심과 자비하심의 성품들을 강조할 때 사용된다. 이 녀자 이름은 종종 ‘야’(Yah, Yod-Hei), ‘야후’(Yahu) 혹은 ‘예호’(Yeho, Yod-Hei-Vav)

로 줄여서 쓰이며, 특히 합성어나 합성 이름들을 만들 때 쓰인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Yehoshua, 주는 나의 구원이다.), ‘엘리야’(Eliyahu, 나의 하나님은 주님이시다), ‘할렐루야’(Halleluyah, 주님을 찬양하라) 등이 있다.

성서에 쓰인 하나님에 대한 최초의 이름은 ‘엘로힘’(Elohim)이다. 엘로힘은 남성 복수이며, 여성 단수인 경우는 ‘엘로하’(Eloha)라 부른다. 동일한 단어가 왕자, 재판관, 다른 신, 다른 능력 있는 존재들에 대해서도 쓰인다. 이 이름은 성서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창조 능력, 정의와 통치권의 속성들을 강조할 때 쓰인다. 엘로힘이 들어간 말들에는 ‘엘’(El), ‘엘로하’(Eloha), ‘엘로하이’(Elohai, 나의 하나님), ‘엘로하이누’(Elohaynu, 우리의 하나님)가 있다.

하나님은 ‘엘 샤다이’(El Shaddai)로 불리기도 한다. 이 이름은 보통 ‘전능의 하나님’으로 번역된다. 그러나 ‘샤다이’(Shaddai)의 어원은 알려져 있지 않다. ‘혜택을 쌓아올리다’는 뜻을 가진 어근에서 유래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유대교 주석 미드라쉬(Midrash)에 의하면, ‘샤다이’는 ‘충분한’, ‘넉넉한’이란 뜻의 ‘다이’(dai)를 선포한 자를 말한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그분이 “다이”라고 선포할 때까지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하였을 것이라는 점에 기인된 말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최초의 우주팽창론이라고 말한다. ‘샤다이’는 유대인들이 집 문설주에 매달아 두고, 출입 때마다 세 번씩 입을 맞추는 작은 칼집모양의 메주자 상자에 담긴 두루마리에도 기록된 이름이기도 하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름은 ‘야훼 쓰바오트’(YHWH Tzva’ot)이다. 이 이름은 일반적으로 ‘군대들의 주님’으로 번역된다. ‘쓰바오트’(Tzva’ot)는 군대와 같은 단체 혹은 조직적인 배열이란 의미에서 ‘군대들’을 의미한다. 이 이름은 하나님의 지도력과 주권을 상징한다. 그러나 이 이름이 모세오경에는 한 번도 쓰이지 않았고, 시편과 예언서들에서만 쓰였다. 유다왕국이 바빌로니아 제국에 멸망당한 전후시기에 알려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볼 수 있다.

F. 하나님의 이름 쓰기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의 이름들을 무심코 쓰지 않는다. 이 관행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네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제3계명에서 기원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 유대교인들은 제3계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 혹은 경박한 맹세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한다. ‘망령되게’로 번역된 단어는 문자적으로 ‘거짓말’을 뜻한다고 한다.

유대교는 하나님의 이름 쓰기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거나 손상시키는 것을 금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지키는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무심코 쓰는 것을 피한다. 왜냐하면 쓰인 이름이 나중에 사고로 혹은 잘 모르는 사람에게 의해서 손상되고 지워지며 망가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거나 손상시키지 말라는 계명은 신명기 12장 34절에 근거한다. 그 구절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탈출하여 약속의 땅을 취하게 되었을 때, 그 지역의 우상 신들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파괴시킬 것과 그 지역의 신들의 새겨진 이름들을 철저히 제거할 것을 명령받는다. 이 구절들에서 랍비들은 어떤 거룩한 것들을 파괴시켜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거나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받는다고 유추하였다. 유대교인들의 악명 높은 재능들 가운데 한 가지가 하나님이 뜻하지 아니한 울타리 율법들을 수없이 만들어 지키게 한 것인데, 그 재능이 이 계명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거나 손상시키는 것을 금하라는 울타리 율법은 항구적인 형태로 쓰인 이름들에만 국한된다. 따라서 최근 랍비들의 결정들에 의하면, 컴퓨터에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것은 항구적인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에 하나님의 이름을 타이핑하거나 지우거나 자르거나 붙이거나 혹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 있는 파일들을 복사하거나 지우는 것은 위법이 안 된다. 그러나 그것을 일단 프린트하게 되면, 그 인쇄물은 항구적인 형태가 된다. 그리고 일단 프린트가 되면, 그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유대교인들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 않는다고 한다.

유대교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흔한 방법은 문자나 음절들을

대용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하나님’(God) 대신에 ‘하-님’(G-d)이라고 쓴다. 심지어 숫자 15는 10과 5를 뜻하는 알파벳이 하나님을 뜻하는 ‘야’(Yah)가 되기 때문에 쓰지 않고, 9와 6(Teit-Vav)을 대신해서 사용한다.

출애굽기 3장 13-22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이 무엇이나고 묻는 장면이 나온다. 여기서 모세는 “무엇이라 부를까요?”라고 묻지 않고, “누구십니까? 무엇을 하시는 분입니까? 무슨 일을 해오셨습니까?”라고 묻고 있다. 이 물음에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곧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조상들의 하나님, 특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하셨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통을 지켜보셨고, 이제 그들을 억압에서 구원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중요성이 호칭에 있지 않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면서 그분과 언약관계를 체결한 자들의 삶에 깊이 개입하고 계시고 안식처로 인도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 ‘야훼’(YHWH)는 살아계신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 곁에서 활동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밝혀주고 있다.